

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139-01

ISBN 979-11-5598-010-1 93390

# 통계로 본 6·25전쟁

박동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발 간 사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격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 곳에 모으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합니다.

64년 전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최대 규모의 재앙을 초래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연구편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소는 특히 지난 2003년부터 6·25전쟁사를 재조명하는 연구편찬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에 『6·25전쟁사』 전11권을 완간 하였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완성된 『6·25전쟁사』는 세계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25전쟁 당사국들이 새롭게 공개한 사료와 그동안 다방면으로 진척된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6·25전쟁사를 집대성한 공간사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계로 본 6·25전쟁』은 ‘6·25전쟁사(전 11권)’ 연구편찬 사업의 성과를 종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군과 유엔군의 피해에만 국한되었던 기존의 6·25전쟁 관련 통계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 공개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분석해 통계를 최신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추가 획득 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북한·중국·러시아 등 공산권에서 확보한 비밀해제 자료를 반영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경찰, 민간인, 공산군의 각종 현황과 전쟁 기간중 정치·경제·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에 제시된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6·25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25전쟁을 개관하여 제1장에 수록하였고, 제2장과 제3장은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 및 민간인'으로 대별하여 전력수준과 병력변화 추이에서부터 피해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유엔참전국 통계로 전투부대 파병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의 각종 지원 내용과 피해 현황을 수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북한·중국·소련 등 공산군 측 통계를, 제6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 관련 통계를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 국민들이 6·25전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국내외 전쟁사 연구자들에게 좋은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필자와 인쇄를 맡아준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온창일 교수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육군군사연구소,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그리고 전쟁사 부장을 비롯한 연구소 내부 감수위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이 양 구

## 일 러 두 기

1. 『통계로 본 6·25전쟁』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6·25전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전쟁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편찬 목적을 두었다.
2.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6·25전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국군, 경찰, 민간인, 유엔군, 공산군, 정치·경제·사회 순으로 수록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의 각종 통계는 제3장(경찰 및 민간인 통계), 제5장(공산군 통계), 제6장(정치·경제·사회 통계)에 수록하였다. 대한민국의 민간부문 통계는 제3장에서 준군사조직과 국가동원 관련 통계, 피해 통계를 주로 다루었으며, 제6장에서 피해 현황을 제외한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민간부문 통계는 제5장 제1절 ‘북한군 통계 현황’에 함께 수록하였다.
3.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6·25전쟁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여 제1장에 수록하였으며, 아울러 각 장의 도입부에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절과 항에도 개요를 실었다.
4. 본문의 각 표에는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표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표의 내·외에 비교란을 두어 보충 설명하였다.
5.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 중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은 해당 숫자가 없음을, ‘…’은 해당 숫자가 미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문에서 ‘-’과 ‘…’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6.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 항 : 1, 2, 3, ……
  - 목 : 1), 2), 3), ……

7. 이 책에서 사용한 국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 『한글표준어 사전(2000)』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표기법을 따랐으며, 인용된 자료의 원문을 번역 수록할 경우 원문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현대문으로 번역하고, 원문 제작 당시 관용어나 제도어는 가급적 원문을 준용하였다.
8.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고유명사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은 원어를 ( )안에 삽입하였다.
9. 현재의 중국(군)과 러시아(군)는 편의상 주로 중공(군)과 소련(군)으로 표기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중국, 러시아를 혼용했다.
10. 연대(年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11. 수록된 통계는 현재까지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통계 자료를 수록하였지만, 앞으로 새로운 자료와 근거가 발견될 경우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목 차

## ■ 발 간 사

## ■ 일러두기

### 제 1 장 6·25전쟁 개관

---

### 제 2 장 국군 통계

---

제 1 절 6·25전쟁 전 국군 현황	31
제 2 절 전쟁기간 국군의 병력·훈련·무기 현황	93
제 3 절 피해 현황	200

### 제 3 장 경찰 및 민간인 통계

---

제 1 절 경찰 통계 현황	218
제 2 절 민간인 통계 현황	236
제 3 절 피해 현황	251

### 제 4 장 유엔참전국 통계

---

제 1 절 유엔군의 참전 배경	276
제 2 절 전투부대 파병 국가별 참전 현황	284
제 3 절 의료지원국 현황	387
제 4 절 물자지원국 현황	402

## 제 5 장 공산군 통계

---

제 1 절 북한군 통계 현황 .....	418
제 2 절 중공군 통계 현황 .....	464
제 3 절 소련군 통계 현황 .....	476

## 제 6 장 정치 · 경제 · 사회 통계

---

제 1 절 정치 관련 통계 .....	487
제 2 절 경제 관련 통계 .....	491
제 3 절 사회 관련 통계 .....	507

## 참고문헌

## [ 표 목 차 ]

〈표 1-1〉 개전 당시 남·북한 전력 비교 .....	6
〈표 1-2〉 유엔군 참전 현황 .....	8
〈표 1-3〉 유엔 물자지원국 현황(1950. 7.~1956. 6.) .....	12
〈표 1-4〉 낙동강 전투시 국군·유엔군과 북한군 전투력 비교 .....	16
〈표 1-5〉 6·25전쟁 기간 중공군 병력 및 주요 무기 현황 .....	20
〈표 1-6〉 6·25전쟁 기간 소련 공군 참전 현황 .....	22
〈표 1-7〉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현황 .....	30
〈표 1-8〉 공산군 인명 피해 현황 .....	30
〈표 2-1〉 국방사령부 편성(1945. 12. 1. 현재) .....	32
〈표 2-2〉 통위부 편성(1947. 6. 24. 현재) .....	34
〈표 2-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방기구표(1948. 11. 30. 현재) .....	35
〈표 2-4〉 조선경비대 연대 창설 현황(1946. 1. 15.~1946. 11. 16.) .....	38
〈표 2-5〉 조선경비대 여단 창설 현황(1947. 12. 1.~1948. 4. 29.) .....	39
〈표 2-6〉 조선경비대 및 육군 연대 증편 현황(1948. 5. 1.~1949. 6. 10.) .....	40
〈표 2-7〉 경비대 및 육군 총사령관(1946. 2. 7.~1950. 6. 30.) .....	41
〈표 2-8〉 육군 편성(1949. 5. 31. 현재) .....	42
〈표 2-9〉 육군 보병사단 편제표(1950. 6. 25. 현재) .....	43
〈표 2-10〉 6·25전쟁 직전 육군 사단 현황 .....	44
〈표 2-11〉 1948년 육군 병력 현황 .....	44
〈표 2-12〉 1949년 육군 병력 현황 .....	46
〈표 2-13〉 1950년 육군 병력 현황 .....	48
〈표 2-14〉 육군 주요 전투부대 병력 현황(1950. 6. 1. 현재) .....	48
〈표 2-15〉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황(1946~1950년) .....	50
〈표 2-16〉 6·25전쟁 전 육군 군사학교 설치 현황 .....	52

〈표 2-17〉 국군 제1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3
〈표 2-18〉 국군 제2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4
〈표 2-19〉 국군 제3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5
〈표 2-20〉 국군 제5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5
〈표 2-21〉 국군 제6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6
〈표 2-22〉 국군 제7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6
〈표 2-23〉 국군 제8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7
〈표 2-24〉 국군 수도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8
〈표 2-25〉 독립연대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	58
〈표 2-26〉 1949~1950년 육군의 전투력 수준 .....	59
〈표 2-27〉 주한미군 철수시 미국이 이관한 주요 장비 현황(1949. 6. 30. 현재) ..	60
〈표 2-28〉 육군의 보유 무기 및 장비 현황(1950. 6. 1. 현재) .....	62
〈표 2-29〉 육군의 탄약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	64
〈표 2-30〉 육군의 통신장비 보유 현황(1951. 6. 1. 현재) .....	67
〈표 2-31〉 국군 주요 장비 및 제원(1950. 6. 25. 현재) .....	69
〈표 2-32〉 대한민국 수립 직전 조선해안경비대 조직(1948. 8. 14. 현재) ..	70
〈표 2-33〉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 조직(1950. 6. 24. 현재) .....	71
〈표 2-34〉 6·25전쟁 직전 해군 주요 직위자 .....	72
〈표 2-35〉 1948년 해군 병력 현황 .....	73
〈표 2-36〉 1949년 해군 병력 현황 .....	74
〈표 2-37〉 1950년 해군 병력 현황 .....	76
〈표 2-38〉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 부대별 병력 현황 .....	77
〈표 2-39〉 해군 간부 양성 현황(1946. 1. 17.~1950. 6. 25.) .....	78
〈표 2-40〉 해군 신병 교육 현황(1946. 2. 15.~1950. 6. 25.) .....	79
〈표 2-41〉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함정의 배치 현황 .....	80
〈표 2-42〉 경비기지별 해군의 육상 및 해상경비구역 현황 .....	82

〈표 2-43〉 대한민국 해군 함정유형별 제원 현황	82
〈표 2-44〉 해군의 지상군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83
〈표 2-45〉 해군의 지상무기 탄약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84
〈표 2-46〉 해군의 통신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85
〈표 2-47〉 공군 독립 당시의 편성표(1949. 10. 1. 현재)	87
〈표 2-48〉 6·25전쟁 발발 당시 공군 편성표(1950. 6. 25. 현재)	88
〈표 2-49〉 공군 주요 직위자(6·25전쟁 발발 직전)	88
〈표 2-50〉 1949~1950년 공군 병력 현황	89
〈표 2-51〉 항공병 선발 현황	90
〈표 2-52〉 6·25전쟁 발발 당시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및 제원	90
〈표 2-53〉 공군의 지상군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91
〈표 2-54〉 6·25전쟁 발발 직전 남한지역 주요 비행장 현황	92
〈표 2-55〉 국방부 기구표(1952. 11. 1. 현재)	94
〈표 2-56〉 6·25전쟁 기간 국방부 주요 직위자 일람	95
〈표 2-57〉 육군 편성표(1950. 6. 25. 현재)	98
〈표 2-58〉 육군 편성표(1953. 7. 27. 현재)	99
〈표 2-59〉 6·25전쟁 기간 육군본부 주요 직위자 일람	100
〈표 2-60〉 6·25전쟁 기간 군단·사단 증·창설 현황 (1950. 6. 25.~1953. 7. 27.)	105
〈표 2-61〉 육군 군단장 및 사단장(1950. 6. 25.~1953. 7. 27.)	106
〈표 2-62〉 육군 부대 일람(1953. 1. 31. 현재)	110
〈표 2-63〉 육군의 계급 호칭 변화	126
〈표 2-64〉 6·25전쟁 기간 육군 병력 현황(1950. 7.~1953. 7.)	127
〈표 2-65〉 6·25전쟁 기간 육군 보충 병력 현황	131
〈표 2-66〉 6·25전쟁 기간 카투스사(KATUSA) 병력 현황	131
〈표 2-67〉 6·25전쟁 기간 군사학교 설치 현황	133

〈표 2-68〉 6·25전쟁 기간 훈련소 설치 현황	135
〈표 2-69〉 6·25전쟁 기간 제1·2신병훈련소 예비부대 창설 현황	136
〈표 2-70〉 국내 군사학교 장교 교육 이수 현황(1953. 7. 현재)	137
〈표 2-71〉 제1신병훈련소의 훈련기간 및 일일 입소자수 변화	138
〈표 2-72〉 1951~1953년 미 군사교육 이수자 현황	139
〈표 2-73〉 주요 무기 보급실적 I (1950. 6. 25.~1950. 12. 31.)	139
〈표 2-74〉 주요 무기 보급실적 II (1951. 1. 1.~1951. 12. 31.)	142
〈표 2-75〉 주요 무기 보급실적 III (1952. 1. 1.~1952. 12. 31.)	144
〈표 2-76〉 주요 무기 보급실적 IV (1953. 1. 1.~1953. 7. 27.)	147
〈표 2-77〉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 (1950. 6. 25.~1950. 12. 31.)	150
〈표 2-78〉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I (1951. 1. 1.~1951. 12. 31.)	152
〈표 2-79〉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II (1952. 1. 1.~1952. 12. 31.)	154
〈표 2-80〉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V (1953. 1. 1.~1953. 12. 31.)	156
〈표 2-81〉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 (1950. 6. 25.~1951. 3. 31.)	158
〈표 2-82〉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I (1951. 4. 1.~1951. 12. 31.)	158
〈표 2-83〉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II (1952. 1. 1.~1952. 12. 31.)	159
〈표 2-84〉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V (1953. 1. 1.~1953. 7. 27.)	160
〈표 2-85〉 유지(油脂) 보급 현황 I (1950. 6. 25.~1951. 3. 31.)	161
〈표 2-86〉 유지(油脂) 보급 현황 II (1951. 4. 1.~1952. 3. 31.)	162
〈표 2-87〉 유지(油脂) 보급 현황 III (1952. 4. 1.~1953. 3. 31.)	163
〈표 2-88〉 유지(油脂) 보급 현황 IV (1953. 4. 1.~1953. 7. 27.)	164
〈표 2-89〉 피복(被服) 보급 현황 I (1950. 6. 25.~1950. 12. 31.)	165
〈표 2-90〉 피복(被服) 보급 현황 II (1951. 1. 1.~1951. 12. 31.)	166
〈표 2-91〉 피복(被服) 보급 현황 III (1952. 1. 1.~1952. 12. 31.)	168
〈표 2-92〉 피복(被服) 보급 현황 IV (1953. 1. 1.~1953. 7. 31.)	169
〈표 2-93〉 전쟁기 국군의 봉급 현황	171

〈표 2-94〉 해군본부 편성표(1950. 10. 10. 현재) .....	172
〈표 2-95〉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군 편성표(1953. 7. 27. 현재) .....	173
〈표 2-96〉 해군 제1함대 조직도 .....	174
〈표 2-97〉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병대 조직도(1953. 7. 27. 현재) .....	175
〈표 2-98〉 6·25전쟁 기간 해군 주요 직위자 .....	176
〈표 2-99〉 6·25전쟁 기간 해병대 주요 직위자 .....	180
〈표 2-100〉 6·25전쟁 기간 주요 전투함 함장 .....	181
〈표 2-101〉 해군·해병대 병력 현황(1950. 6. 25.~1953. 7. 27.) .....	183
〈표 2-102〉 6·25전쟁 기간 해군·해병대 보충병력 현황 .....	185
〈표 2-103〉 전쟁발발 이전과 정전협정 체결시 함정세력 비교 .....	186
〈표 2-104〉 6·25전쟁 기간 중 획득한 함정세력 .....	186
〈표 2-105〉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군 함정 현황(1953. 7. 27. 현재) .....	187
〈표 2-106〉 소해함정 출동일수(1951. 7. 1.~1953. 7. 31.) .....	189
〈표 2-107〉 공군 편성표(1952. 5. 25. 현재) .....	190
〈표 2-108〉 제10전투비행단 편성표(1953. 2. 15. 현재) .....	191
〈표 2-109〉 6·25전쟁 기간 공군 주요 지휘관 .....	192
〈표 2-110〉 6·25전쟁 기간 공군 병력 현황 .....	193
〈표 2-111〉 6·25전쟁 기간 공군 병력 총원 현황 .....	195
〈표 2-112〉 6·25전쟁 기간 공군 조종사 교육 현황 .....	196
〈표 2-113〉 6·25전쟁 기간 공군 항공기 보유 현황 .....	196
〈표 2-114〉 6·25전쟁 기간 공군 보유 항공기 제원 .....	197
〈표 2-115〉 6·25전쟁 기간 공군의 탄약사용량 .....	198
〈표 2-116〉 6·25전쟁 기간 한반도의 비행장 명칭 및 위치 .....	198
〈표 2-117〉 국군 인명 피해 종합 현황 .....	200
〈표 2-118〉 국군 주요 장비 피해 종합 현황 .....	200
〈표 2-119〉 육군 전·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	201

〈표 2-120〉 육군 입원환자 종합 현황(1950. 6. 25.~1953. 12. 31.)	202
〈표 2-121〉 육군 병과별 입원환자 현황(1950. 6. 25.~1953. 12. 31.)	202
〈표 2-122〉 육군 연도별·신분별 사상자 구분 현황 (1950. 6. 25.~1953. 12. 31.)	203
〈표 2-123〉 육군 입원환자 부대 복귀 현황(1950. 6. 25.~1953. 12. 31.)	204
〈표 2-124〉 육군 입원환자 중 제대·사망자 현황 (1950. 6. 25.~1953. 12. 31.)	206
〈표 2-125〉 육군 양곡류 피해 현황(1952~1953년)	207
〈표 2-126〉 육군 병참장비 피해 현황(1951~1952년)	208
〈표 2-127〉 육군 차량류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09
〈표 2-128〉 육군 주요 무기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10
〈표 2-129〉 육군 주요 통신장비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11
〈표 2-130〉 해군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13
〈표 2-131〉 6·25전쟁 기간 함정 피해 현황	214
〈표 2-132〉 6·25전쟁 기간 해군의 무기 및 장비 피해 현황	215
〈표 2-133〉 공군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16
〈표 2-134〉 공군 항공기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16
〈표 2-135〉 6·25전쟁 기간 공군 항공기별 피해 현황	217
〈표 3-1〉 미군정청 경무부 기구표(1946. 9. 현재)	223
〈표 3-2〉 미군정기 경찰청 및 경찰서 현황(1946. 9.~1948. 9.)	224
〈표 3-3〉 6·25전쟁 전 내무부 기구표(1949. 10. 현재)	225
〈표 3-4〉 전국 경찰관서 현황(1949~1950년)	226
〈표 3-5〉 경찰 병력 현황(1948. 1.~1950. 6.)	226
〈표 3-6〉 6·25전쟁 직전 경찰의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228
〈표 3-7〉 전국 경찰관서 현황(1951~1953년)	229
〈표 3-8〉 6·25전쟁 기간 경찰 주요 지휘관	229

〈표 3-9〉 6·25전쟁 기간 경찰 병력 현황(1950. 6. 15.~1953. 4. 25.)	232
〈표 3-10〉 각 시·도별 경찰 병력 현황(1952~1953년)	234
〈표 3-11〉 경찰 간부후보생 배출 현황(1948~1953년)	235
〈표 3-12〉 6·25전쟁 전후 인구 현황(1949년, 1953년, 1955년)	237
〈표 3-13〉 연령별 인구 현황(1953년)	238
〈표 3-14〉 직업별 인구 현황(1953년)	241
〈표 3-15〉 6·25전쟁 기간 국가동원 관련 주요 법령	243
〈표 3-16〉 시·도별 병사구사령부 설치 현황(1950. 9. 20.~1951. 4. 20.)	244
〈표 3-17〉 제2국민병 및 예비병 소집 공고 현황	245
〈표 3-18〉 병역법상의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	246
〈표 3-19〉 6·25전쟁 기간 소년병 현황	247
〈표 3-20〉 6·25전쟁 기간 학도의용군 현황	247
〈표 3-21〉 미 제8240유격부대 현황	247
〈표 3-22〉 6·25전쟁 기간 노무단(KSC) 현황	248
〈표 3-23〉 호국군·청년방위대 현황	249
〈표 3-24〉 청년방위대 간부·대한청년단 간부·훈련지도관 현황	250
〈표 3-25〉 경찰 인명 피해 종합 현황(1950. 6.~1953. 12.)	251
〈표 3-26〉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 I (1950. 6. 25.~1951. 4. 15.)	251
〈표 3-27〉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 II (1951. 1.~1951. 12.)	254
〈표 3-28〉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 III (1952. 1.~1953. 12.)	254
〈표 3-29〉 경찰관서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57
〈표 3-30〉 경찰 장비 피해 종합 현황(1950. 6.~1953. 12.)	257
〈표 3-31〉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 (1950. 6. 25.~1951. 4. 15.)	258
〈표 3-32〉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I (1951. 1.~1951. 12.)	260
〈표 3-33〉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II (1952. 1.~1953. 12.)	260
〈표 3-34〉 6·25전쟁 기간 경찰 통신(유선)시설 피해 현황	262

〈표 3-35〉 6·25전쟁 기간 경찰 통신(무선)시설 피해 현황	262
〈표 3-36〉 6·25전쟁 기간 민간인 종합 피해 현황	263
〈표 3-37〉 시·도별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65
〈표 3-38〉 남·녀별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66
〈표 3-39〉 시·도별 피난민 현황	267
〈표 3-40〉 전재민(戰災民) 종합 현황(1952. 3. 15.)	267
〈표 3-41〉 시·도별(출신지별) 피난민 현황(1952. 3. 15.)	268
〈표 3-42〉 월남한 피난민 현황(1950. 6. 25.~1952. 3. 15.)	268
〈표 3-43〉 가축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69
〈표 3-44〉 주택 피해 현황(1950. 6. 25.~53. 7. 27.)	269
〈표 3-45〉 학교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0
〈표 3-46〉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0
〈표 3-47〉 기업체, 각종 단체 및 공영건물 피해 현황 (1950.6.25.~1953.7.27.)	271
〈표 3-48〉 각 공업별 피해 현황(1952. 4.말 현재)	271
〈표 3-49〉 도로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2
〈표 3-50〉 철도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3
〈표 3-51〉 시·도별 항만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3
〈표 3-52〉 주요 항구별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4
〈표 3-53〉 수도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4
〈표 3-54〉 사방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275
〈표 4-1〉 유엔군 참전일지	280
〈표 4-2〉 유엔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282
〈표 4-3〉 유엔군 의료지원 현황	283
〈표 4-4〉 유엔군 인명피해 현황	283
〈표 4-5〉 미군 참전 현황	288

〈표 4-6〉 미국 육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288
〈표 4-7〉 미국 육군 주요 참전부대와 참전기간	288
〈표 4-8〉 미국 육군 참전병력 월별 현황(1950. 7.~1953. 7.)	291
〈표 4-9〉 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관 및 제8군사령관 현황	292
〈표 4-10〉 6·25전쟁 기간 미국 육군 군단장 및 사단장 현황	293
〈표 4-11〉 미국 해군 참전 함정 현황	295
〈표 4-12〉 6·25전쟁 기간 미국 해군 참전 주요지휘관 현황	303
〈표 4-13〉 6·25전쟁 참전 미국 공군부대 현황(1953. 7. 기준)	304
〈표 4-14〉 6·25전쟁 참전 미국 항공기 종류	305
〈표 4-15〉 미국 공군 참전병력 현황(1950. 7.~1953. 7.)	305
〈표 4-16〉 6·25전쟁 기간 미국 공군 참전 주요지휘관 현황	306
〈표 4-17〉 미국 해병대 참전병력 월별 현황(1950. 7.~1953. 7.)	307
〈표 4-18〉 6·25전쟁 기간 미국 해병대 참전 지휘관 현황	308
〈표 4-19〉 미군 인명피해 현황	309
〈표 4-20〉 영국군 참전 현황	314
〈표 4-21〉 영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14
〈표 4-22〉 영국 해군 함대사령관 및 참전 함정	316
〈표 4-23〉 영국군 인명피해 현황	316
〈표 4-24〉 오스트레일리아군 참전 현황	321
〈표 4-25〉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21
〈표 4-26〉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322
〈표 4-27〉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지휘관	323
〈표 4-28〉 오스트레일리아군 인명피해 현황	323
〈표 4-29〉 네덜란드군 참전 현황	328
〈표 4-30〉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28
〈표 4-31〉 네덜란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329

〈표 4-32〉 네덜란드군 인명피해 현황	329
〈표 4-33〉 캐나다군 참전 현황	334
〈표 4-34〉 캐나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34
〈표 4-35〉 캐나다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335
〈표 4-36〉 캐나다군 인명피해 현황	335
〈표 4-37〉 뉴질랜드군 참전 현황	339
〈표 4-38〉 뉴질랜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39
〈표 4-39〉 뉴질랜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340
〈표 4-40〉 뉴질랜드군 인명피해 현황	340
〈표 4-41〉 프랑스군 참전 현황	344
〈표 4-42〉 프랑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45
〈표 4-43〉 프랑스 해군 참전 함정 및 기간	345
〈표 4-44〉 프랑스군 인명피해 현황	345
〈표 4-45〉 필리핀군 참전 현황	349
〈표 4-46〉 필리핀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49
〈표 4-47〉 필리핀군 인명피해 현황	349
〈표 4-48〉 터키군 참전 현황	354
〈표 4-49〉 터키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54
〈표 4-50〉 터키군 인명피해 현황	355
〈표 4-51〉 태국군 참전 현황	359
〈표 4-52〉 태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59
〈표 4-53〉 태국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360
〈표 4-54〉 태국 공군 참전 기간 및 지휘관	361
〈표 4-55〉 태국군 인명피해 현황	361
〈표 4-56〉 남아프리카공화국군의 참전 현황	365
〈표 4-57〉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365

〈표 4-58〉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인명피해 현황 .....	365
〈표 4-59〉 그리스군 참전 현황 .....	369
〈표 4-60〉 그리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69
〈표 4-61〉 그리스 공군 제13수송편대 지휘관 .....	370
〈표 4-62〉 그리스군 인명피해 현황 .....	370
〈표 4-63〉 벨기에군 참전 현황 .....	374
〈표 4-64〉 벨기에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74
〈표 4-65〉 벨기에군 인명피해 현황 .....	375
〈표 4-66〉 룩셈부르크군 참전 현황 .....	376
〈표 4-67〉 룩셈부르크 지상군 참전 부대 및 기간 .....	377
〈표 4-68〉 룩셈부르크군 인명피해 현황 .....	377
〈표 4-69〉 에티오피아군 참전 현황 .....	382
〈표 4-70〉 에티오피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82
〈표 4-71〉 에티오피아군 인명피해 현황 .....	382
〈표 4-72〉 콜롬비아군 참전 현황 .....	386
〈표 4-73〉 콜롬비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	386
〈표 4-74〉 콜롬비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	386
〈표 4-75〉 콜롬비아군 인명피해 현황 .....	386
〈표 4-76〉 스웨덴 의료지원 현황 .....	388
〈표 4-77〉 스웨덴 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89
〈표 4-78〉 스웨덴 적십자병원 지휘관 .....	389
〈표 4-79〉 인도 의료지원 현황 .....	391
〈표 4-80〉 인도 제60야전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91
〈표 4-81〉 인도 제60야전병원 지휘관 .....	392
〈표 4-82〉 인도 제60야전병원 인명피해 현황 .....	392
〈표 4-83〉 덴마크 의료지원 현황 .....	394

〈표 4-84〉 덴마크 유트란디아호 주요 활동 연표 .....	395
〈표 4-85〉 덴마크 유트란디아호 주요 지휘관 .....	395
〈표 4-86〉 노르웨이 의료지원 현황 .....	397
〈표 4-87〉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주요 활동 연표 .....	398
〈표 4-88〉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지휘관 .....	398
〈표 4-89〉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인명피해 현황 .....	398
〈표 4-90〉 이탈리아 의료지원 현황 .....	400
〈표 4-91〉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	401
〈표 4-92〉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지휘관 .....	401
〈표 4-93〉 유엔의 물자지원 관련 결의와 주요 내용 .....	403
〈표 4-94〉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1951. 2. 7.) .....	404
〈표 4-95〉 한국재건단(UNKRA)의 재건 계획 .....	405
〈표 4-96〉 유엔 회원국의 물자지원 제의 수락 현황(1951. 2. 7.) .....	406
〈표 4-97〉 UNCACK의 CRIK을 통한 물자지원 접수 현황(1951년) .....	407
〈표 4-98〉 UNC의 CRIK을 통한 물자지원 접수 현황 (1950. 6. 25.~1952. 5. 22.) .....	408
〈표 4-99〉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현황(1953. 12. 31.까지) .....	409
〈표 4-100〉 각국의 한국 구호재건 지원 현황(1954. 8. 31. 현재) .....	410
〈표 4-101〉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 (1956. 6. 30.까지) .....	411
〈표 4-102〉 유엔의 긴급구제계획(ERP)을 통한 지원 현황 (1956.6.30.까지) .....	412
〈표 4-103〉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 (1958.12.31.까지) .....	413
〈표 4-104〉 유엔을 통한 물자지원국 현황(1950. 7.~1956. 6.) .....	414
〈표 4-105〉 국제기구들의 물자 및 전문가 지원 현황 .....	416
〈표 5-1〉 북한 민족보위성 편성표 .....	423

〈표 5-2〉 북한군 보병사단 편제표 .....	424
〈표 5-3〉 북한군 전차여단 편성 .....	425
〈표 5-4〉 북한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 6. 현재) .....	425
〈표 5-5〉 북한군 사단·여단 창설표(1947. 5. 17. 현재) .....	426
〈표 5-6〉 북한군 사단 증편표(1948. 10~1950. 6. 현재) .....	426
〈표 5-7〉 북한군 경비여단 및 특수부대 창설표(1949. 5.~1950. 4. 현재) ...	427
〈표 5-8〉 북한군 제1군단 부대표(1950. 6. 25. 현재) .....	427
〈표 5-9〉 북한군 제2군단 부대표(1950. 6. 25. 현재) .....	428
〈표 5-10〉 북한군 최고지휘부 현황(1950. 6. 25. 현재) .....	428
〈표 5-11〉 북한군 사단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현황(1950. 6. 25. 현재) ...	429
〈표 5-12〉 북한 지상군 병력 및 주요장비(1950. 6. 25. 현재) .....	430
〈표 5-13〉 북한군 포병화력(1950. 6. 20. 현재) .....	431
〈표 5-14〉 북한군 사단 포병화력(1950. 6. 25. 현재) .....	432
〈표 5-15〉 북한 해군 총사령부(제546부대) 조직(1950. 6. 25. 현재) .....	432
〈표 5-16〉 북한 해군 병력현황(1950. 6. 25. 현재) .....	433
〈표 5-17〉 북한 해군 함정(1950. 6. 25. 현재) .....	433
〈표 5-18〉 북한 공군 편성(1950. 6. 25. 현재) .....	434
〈표 5-19〉 북한 공군의 병력 및 항공기수(1950. 6. 25. 현재) .....	435
〈표 5-20〉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제원(1950. 6. 25. 현재) .....	435
〈표 5-21〉 북한군 초기 공격제대 편성(1950. 6. 25.) .....	436
〈표 5-22〉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통제 방법(1950. 6. 25.) .....	436
〈표 5-23〉 개전 초기 북한군 제1군단 축선별 전투 편성 .....	437
〈표 5-24〉 개전 초기 북한군 제1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437
〈표 5-25〉 개전 초기 북한군 제2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	438
〈표 5-26〉 개전 초기 북한군 제2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	438
〈표 5-27〉 북한군의 서울방면 공격부대의 방향 및 목표 .....	439

〈표 5-28〉 개전 초기 웅진-개성-고랑포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	439
〈표 5-29〉 개전 초기 웅진-개성-고랑포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	440
〈표 5-30〉 개전 초기 동두천-포천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	440
〈표 5-31〉 개전 초기 동두천-포천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	441
〈표 5-32〉 개전 초기 춘천-홍천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	441
〈표 5-33〉 개전 초기 춘천-홍천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	442
〈표 5-34〉 개전 초기 강릉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	442
〈표 5-35〉 개전 초기 강릉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	442
〈표 5-36〉 북한군 8월 공세시 전투편성(1950. 8. 현재) .....	443
〈표 5-37〉 1950년 8월 북한군 병력 현황 .....	443
〈표 5-38〉 북한군 9월 공세시 공격집단 편성(1950. 9. 현재) .....	444
〈표 5-39〉 1950년 9월 북한군 병력 현황 .....	445
〈표 5-40〉 1950년 8~9월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포병·기갑 전력 .....	445
〈표 5-41〉 북한군 전력 변화(1950. 10.~1953. 7.) .....	446
〈표 5-42〉 북한군 부대 단대호(1951. 7. 현재) .....	447
〈표 5-43〉 북한군 인명피해 현황 .....	449
〈표 5-44〉 북한지역 민간인 피해 현황 .....	449
〈표 5-45〉 북한지역 산업 피해 종합 현황(1950. 6. 25.~1953. 7. 23.) ...	450
〈표 5-46〉 북한지역 주요 가축·건물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	450
〈표 5-47〉 북한의 물적 총 피해상황 일람(1950. 6. 25.~1953. 7. 23.) ...	451
〈표 5-48〉 북한의 공공부문 물적 피해현황(1950. 6. 25.~1953. 7. 23.) ...	455
〈표 5-49〉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물적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	459
〈표 5-50〉 북한의 개인 물적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	460
〈표 5-51〉 전쟁 전후 북한의 산업 비중 현황 .....	462
〈표 5-52〉 북한의 산업인구 변화(1949년, 1953년) .....	463
〈표 5-53〉 중공군 전투서열 I (1950. 11. 초 현재) .....	466

〈표 5-54〉 중공군 전투서열 Ⅱ(1950. 12.말 현재) .....	467
〈표 5-55〉 중공군 전투서열 Ⅲ(1951. 12.말 현재) .....	468
〈표 5-56〉 중공군 전투서열 Ⅳ(1952. 8.말 현재) .....	469
〈표 5-57〉 중공군 전투서열 Ⅴ(1953. 5. 현재) .....	470
〈표 5-58〉 중공군 병력 및 주요 무기(1950. 10. 28.~1953. 7. 27.) .....	472
〈표 5-59〉 6·25전쟁기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제원 .....	472
〈표 5-60〉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중국측 발표) .....	474
〈표 5-61〉 6·25전쟁 기간 중공군 물적 피해 현황(중국측 발표) .....	474
〈표 5-62〉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한국측 추정) .....	475
〈표 5-63〉 중국 파견 소련 비행부대와 전차부대의 인적구성(1950. 12. 2. 현재) .....	477
〈표 5-64〉 중국 주둔 소련 공군부대 현황(1950. 12. 31.) .....	477
〈표 5-6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창설 당시 예하부대 편성(1950. 11. 27.) .....	479
〈표 5-66〉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 1.~1951. 12.) .....	480
〈표 5-67〉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2. 1.~1952. 12.) .....	481
〈표 5-68〉 소련군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 및 교대현황(1953년) .....	482
〈표 5-69〉 소련군의 피해 현황 .....	484
〈표 6-1〉 제2대 대통령 선거 상황(1952년) .....	487
〈표 6-2〉 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 현황(1952년) .....	488
〈표 6-3〉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현황(1952년) .....	489
〈표 6-4〉 시·읍·면 의회 의원당선자 소속별 정당 및 사회단체(1952년) .....	490
〈표 6-5〉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1950~1952년) .....	491
〈표 6-6〉 1952년도 각종 요금 지수 .....	491
〈표 6-7〉 전국 주요 도시 소매물가 지수(1949~1954년) .....	492
〈표 6-8〉 서울 주요 상품 도매가격(1949~1953년) .....	493
〈표 6-9〉 서울·부산 주요 생필품 소매가격(1949~1953년) .....	495
〈표 6-10〉 서울의 각종 요금 현황(1950~1953년) .....	497

〈표 6-11〉 전국 가축 현황(1949~1953년) .....	497
〈표 6-12〉 전국 경작규모별 농가수(1951~1954년) .....	498
〈표 6-13〉 전국 곡물 수확량(1951~1953년) .....	499
〈표 6-14〉 전국 주요 과일 수확량(1951~1953년) .....	499
〈표 6-15〉 전국 주요 임산물 생산량(1950~1953년) .....	500
〈표 6-16〉 전국 주요 광산물 생산량(1950~1953년) .....	501
〈표 6-17〉 제조업 주요 제품 생산량(1950~1953년) .....	502
〈표 6-18〉 화폐 발행액(1949~1954년) .....	504
〈표 6-19〉 금융기관의 각 도별 예금 및 대출금(1952~1954년) .....	505
〈표 6-20〉 전국 철도 현황(1950~1953년) .....	505
〈표 6-21〉 국내 입·출항 선박 현황(1950~1953년) .....	506
〈표 6-22〉 무역(수·출입) 현황(1951~1953년) .....	506
〈표 6-23〉 시·군별 인구(1949년, 1955년) .....	507
〈표 6-24〉 전국 도·시·구·군 인구(1949년, 1955년) .....	507
〈표 6-25〉 전국 공무원수(1952~1953년) .....	515
〈표 6-26〉 군 징발 현황(1950~1954년) .....	516
〈표 6-27〉 급성 전염병 발생 현황(1950~1953년) .....	516
〈표 6-28〉 전국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1953년) .....	518

## [ 상황도 목차 ]

〈상황도 4-1〉 미군 주요 전투 .....	287
〈상황도 4-2〉 영국군 주요 전투 .....	313
〈상황도 4-3〉 오스트레일리아군 주요 전투 .....	320
〈상황도 4-4〉 네덜란드군 주요 전투 .....	327
〈상황도 4-5〉 캐나다군 주요 전투 .....	333
〈상황도 4-6〉 뉴질랜드군 주요 전투 .....	338
〈상황도 4-7〉 프랑스군 주요 전투 .....	343
〈상황도 4-8〉 필리핀군 주요 전투 .....	348
〈상황도 4-9〉 터키군 주요 전투 .....	353
〈상황도 4-10〉 태국군 주요 전투 .....	358
〈상황도 4-11〉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주요 전투 .....	364
〈상황도 4-12〉 그리스군 주요 전투 .....	368
〈상황도 4-13〉 벨기에-룩셈부르크군 주요 전투 .....	373
〈상황도 4-14〉 에티오피아군의 주요 전투 .....	381
〈상황도 4-15〉 콜롬비아군의 주요 전투 .....	385

# 6·25전쟁 개관

## 1. 6·25전쟁 발발 전 국내외 정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한반도는 미·소를 양축으로 하는 동서 냉전 질서 속에서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한반도의 38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힘과 이념이 직접적으로 맞선 경계선이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국제 냉전이 심화될수록 한반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1945년 8월 9일 대일(對日) 선전포고를 실시한 소련군은 만주와 한반도를 향하여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한반도에 38도선을 설정한 다음 그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그 이남지역은 미군이 진주하여 각각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조치는 전후 처리를 위한 순수한 군사적인 조치였으며, 한반도를 정치적으로 분단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은 38도선을 정치적인 구획선으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8월 13일 청진에, 22일 평양에 각각 도달하였으며 8월 말에는 이미 북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소련은 북한지역에서 진주를 완료하자,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경원선 등 주요 철도와 도로를 차단하고, 남한과의 교통과 통신을 제한하거나 봉쇄한 후 북한 전역의 공산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하였다. 1945년 10월 14일에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어 김일성을 등장시키고, 이듬해 2월 8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소위 ‘확보된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한에서는 미국이 38도선을 설정하여 소련군의 남진한계선을 정하기는 했으나, 미군의 진주가 늦어짐에 따라 과도기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하지(John R. Hodge) 중장 휘하의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그리고 9월 12일에 미 제7사단장 아놀드(A. V. Arnold) 소장이 초대 군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38도선 이남지역에서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준비 없이 출범한 미군정은 처음부터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의 혼란상은 광복과 더불어 조직된 수많은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한반도 남북한에서 군정을 담당한 미·소의 상반된 정책으로 남북 간의 이질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6)의 결정에 따라 이듬해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한국임시정부의 수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소련 측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인사와 정당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임시정부 수립에 남한 측 인사들의 참가를 계속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결렬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자, 미국은 모스크바와의 합의노선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였다. 미

국은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소련과 타협하지 않고도 한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국내의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먼저 외국군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철수한 후 정부수립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남한의 좌익 세력과 북한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였다.

유엔에서 선(先)정부 수립, 후(後)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는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유엔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미국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련 군사령관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 감시에 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1948년 5월 제헌의회가 구성됐다. 초대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선출됐다. 제헌의회는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한 후 7월 20일 이승만과 이시영을 각각 정·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8월 초에 초대 내각이 출범하고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출범했다.

한편, 소련 군정당국은 1947년 11월 중순 유엔총회가 남한정부 수립에 관

한 결의안을 채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공산정권의 수립을 위한 이른바 ‘인민헌법’ 초안을 기초한 후 이를 남한의 ‘5·10 선거’에 때를 맞춰 통과시켰다. ‘인민헌법’의 요지는 북한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1948년 8월 하순 북한전역에 걸쳐 공산당의 단일후보만 출마시킨 소련식 흑백선거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같은 날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내각수장으로 선출됐으며, 그가 임명한 새로운 내각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북한정권이 수립되자 소련은 1948년 10월 중순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리고 전 소련 점령군사령부의 군사위원이며,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수석대표였던 슈티코프(Teren Fomitch Stykov) 대장을 초대 주 북한대사로 임명했다. 소련정부가 북한정권을 승인하자 다른 공산국가들의 승인도 뒤따랐다.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북한에서는 1948년 말경부터 군사력 증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때부터 북한군은 소련제 전차와 기계화 부대를 중점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9년 7월~8월경 소련장비들이 대규모로 밀반입되기 시작하고 또 중국대륙으로부터 5만 명에 가까운 중공군 출신 한인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면서 북한군의 전력은 현저히 증강되었다. 이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 북한군의 근대화 및 전력보강 작업에 착수하였던 소련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군의 전력화를 구체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전력 증강과 더불어 북한은 1949년 초부터 수시로 38도선 일대의 국군 진지를 공격하여 탐색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한국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 요구에 대해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북침 가능성을 우려하여

군사원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육군병력 6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한 소요장비와 소수의 해군함정만을 한국에 지원하였으며, 이 외에 479명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을 설치하였을 뿐이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을 현저하게 증강시킨 소련의 군사정책과는 대조적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한국군은 현대전 수행을 위한 필수장비인 전차나 대전차무기조차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한국군은 1948년 말 이후 각처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많은 병력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었다.

## 2. 북한군의 전면 기습남침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상의 북한군 야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하고, 북한군 기동부대가 서쪽의 웅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또한 제766부대와 제945육전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했다. 북한군은 서울 북쪽에 주공인 제1군단을 투입해 서울을 목표로 집중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중부전선의 춘천과 동부전선의 강릉 북쪽에서도 북한군 제2군단의 공격이 동시에 시작됐다.

북한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군의 방어선을 곳곳에서 돌파했다. 6월 26일 13시경에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되었고, 6월 28일 01시경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서면서 국군은 수도 서울을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에게 내어 주고 말았다. 이날 02시 30분경에 이루어진 한강교 폭파는 서울 시민들과 국군의 철수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자초하였고 국군의 전투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표 1-1> 개전 당시 남·북한 전력 비교

구 분		국 군	북 한 군
육군	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 : 8개 (수도경비사령부, 제1·2·3·5·6·7·8사단)</li> <li>• 독립연대 : 2개</li> <li>• 기타 지원부대 등</li> </ul> <p>계 : 94,97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병사단 : 10개 (제1·2·3·4·5·6·10·12·13·15사단)</li> <li>• 경비여단 : 4개 (제1·3·7여단 및 제5철도여단)</li> <li>• 전차여단 : 1개</li> <li>• 포병연대 : 1개</li> <li>• 고사포연대 : 1개</li> <li>• 모터사이클연대 : 1개</li> <li>• 공병연대 : 1개</li> <li>• 통신연대 : 1개</li> <li>• 경비연대 : 1개 등</li> </ul> <p>계 : 175,200명</p>
	주요 무기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5mm M3 곡사포 : 91문</li> <li>• 81mm 박격포 : 384문</li> <li>• 60mm 박격포 : 576문</li> <li>• 57mm 대전차포 : 140문</li> <li>• 2.36" 로켓포 : 1,900문</li> <li>• 장갑차 : 27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포 : 565문</li> <li>• 대전차포 : 552문</li> <li>• 고사포 : 72문</li> <li>• 박격포 : 875문</li> <li>• T-34 전차 : 242대</li> <li>• SU-76 자주포 : 186문</li> <li>• 장갑차 : 59대</li> <li>• 모터사이클 : 500대</li> </ul>
해군 (해병대 포함)	병력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	10,297명(육전대 5,483명 포함)
	함정	JMS(소해정) 10척, YMS(소해정) 15척, PC(구잠함) 4척 등 총 36척	소형경비정 3척, 어뢰정 5척, 소형어선 96척 등 총 115척

공군	병력	1,897명	2,800명
	항공기	T-6기 10대, L-5기 4대, L-4기 8대 등 총 22대	전투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항공기 등 총 226대
총병력		103,827명	188,297명

비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 <표 2-13> 1950년 육군 병력 현황, <표 2-31> 국군의 주요 장비 및 제원(1950. 6. 25. 현재), <표 2-37> 1950년 해군 병력 현황, <표 2-41>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함정의 배치 현황, <표 2-50> 1949~1950년 공군 병력 현황, <표 2-52> 6·25전쟁 발발 당시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및 제원, <표 5-12> 북한 지상군 병력 및 주요장비(1950. 6. 25. 현재), <표 5-16> 북한 해군 병력 현황(1950. 6. 25. 현재), <표 5-17> 북한 해군 함정(1950. 6. 25. 현재), <표 5-19> 북한 공군의 병력 및 항공기 수(1950. 6. 25. 현재).

암울한 전선 상황에서도 춘천-홍천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6사단의 6일 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는 수원으로 진출하여 서울의 후방을 차단하려는 북한군 제2군단의 최초 계획을 좌절시키고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국군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시흥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하여 한강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열세한 장비와 병력을 가지고도 한강선에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 동안 북한군의 한강도하를 막아냈다. 국군은 그 시간을 이용해 부대를 수습하고 재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 지상군이 지원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었다.

### 3. 유엔군의 참전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지체 없이 참전을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요청으로 6월 26일(뉴욕 현지시간 25일)에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북쪽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이를 무시하고 군사행동을 계속 진행하자 28일(뉴욕 현지시간 27일) 유엔은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유엔의 59개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유엔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6개 국가가 지지의 표시로 군대 파견을 약속했다.

유엔은 7월 7일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통합군사령부(United Command) 설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는 미국의 통일된 지휘체계 속에 둔다는 것이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이 창설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 1-2> 유엔군 참전 현황

국가수	국가명	참전규모		한국도착일자	참전연인원(명)
1	미국	해군	극동 해군, 미 제7함대	1950. 6. 27.	
		공군	극동 공군		

		육군	야전군 : 1 군단 : 3 보병사단 : 8 해병사단 : 1 연대전투단 : 2	1950. 7. 1.	1,789,000
2	영국	해군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1950. 7. 1.	56,000
		육군	보병여단 : 2 해병특공대 : 1	1950. 8. 28.	
3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항공모함 : 1척 구축함 : 2척 프리깃함 : 1척	1950. 7. 1.	17,164
		공군	전투비행대대 : 1 수송기편대 : 1		
		육군	보병대대 : 2	1950. 9. 27.	
4	네덜란드	해군	구축함 : 1척	1950. 7. 19.	5,322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1. 23.	
5	캐나다	공군	수송기대대 : 1	1950. 7. 28.	26,791
		해군	구축함 : 3척	1950. 7. 30.	
		육군	보병여단 : 1	1950. 12. 18.	
6	뉴질랜드	해군	프리깃함 : 1척	1950. 7. 30.	3,794
		육군	포병대대 : 1	1950. 12. 31.	
7	프랑스	해군	구축함 : 1척	1950. 7.	3,421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1. 29.	
8	필리핀	육군	보병대대 : 1	1950. 9. 19.	7,420
9	터키	육군	보병여단 : 1	1950. 10. 17.	21,212

10	태국	해군	프리깃함 : 7척 수송선 : 1척	1950. 11. 7.	6,326
		육군	보병대대 : 1		
		공군	수송기편대	1951. 6. 18.	
11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	전투비행대대 : 1	1950. 11. 12.	826
12	그리스	공군	수송기편대	1950. 12. 1.	4,992
		육군	보병대대 : 1	1950. 12. 9.	
13	벨기에	육군	보병대대 : 1	1951. 1. 31.	3,498
14	룩셈부르크	육군	보병소대 : 1	1951. 1. 31.	100
15	에티오피아	육군	보병대대 : 1	1951. 5. 6.	3,518
16	콜롬비아	해군	프리깃함 : 1척	1951. 5. 8.	5,100
		육군	보병대대 : 1	1951. 6. 15.	
17	스웨덴	병원	적십자병원(SRCH)	1950. 9. 23.	1,124
18	인도	병원	제60야전병원	1950. 11. 20.	627
19	덴마크	병원선	병원선(Jutlandia호)	1951. 3. 2.	630
20	노르웨이	병원	이동 외과병원 (NORMASH)	1951. 6. 22.	623
21	이탈리아	병원	제68적십자병원	1951. 11. 16.	128

비고 : 가. 참전국 순서는 전투부대 파견국, 한국 도착일자, 의료부대 파견국 순.

나. 각 국별 참전 현황은 이 책의 제4장 참조.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은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지명하고 7월 10일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이로써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유엔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서한으로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함에 따라 맥아더 사령관의 작전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 극동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주일 미 제24사단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전투 준비가 부족했던 미 제24사단은 선발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오산 죽미령전투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후 본대마저도 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미 제24사단은 금강선을 다음 저지선으로 선정하고 후속부대의 전개시간을 얻기 위해 북한군의 전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였다. 금강선 동쪽에서는 국군이 소백산맥을 이용해 지연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금강방어선도 북한군의 후방차단과 정면을 유린하는 전차의 공격에 쉽게 무너졌다. 급기야 미 제24사단은 7월 20일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고 옥천방면으로 철수했다. 금강·대전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은 2,000여 명의 인원손실과 대부분의 장비를 잃어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사단장마저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군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공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미 제8군사령부는 7월 13일 대구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미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등을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켰으나 북한군의 남진을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에서도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연전을 펼치면서 유엔군의 증원으로 재편성에 의한 전열 재정비와 전투력 복원에 진력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여전히 전투력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하고 8월 1일에는 마산-왜관-낙동리-영덕을 연하는 낙동강방어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전황이 국군과 유엔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국제적인 지원은 계속되었다. 7월 13일 유엔사무총장의 한국에 대한 원조 호소와 7월 3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한국 민간인 구호 결의에 따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지원했다.

<표 1-3> 유엔 물자지원국 현황(1950. 7.~1956. 6.)

구분	국명	제의 시기	지원 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1	과테말라		UNKRA	7,704	'53.12. 이전	목재 (미산정)
2	도미니카		UNKRA	275,200	'53.6.	
3	독일(서독)		ERP	47,619(현물)	'54.8. 이전	
4	라이베리아	50년	CRIK	15,000(현물)	'51년	생고무
5	리히텐슈타인		UNKRA	465(현금)	'56.6. 이전	
6	레바논	50년	UNKRA	50,000(현금)	'52.12. 이전	현금
7	모나코		UNKRA	1,144	'54.8. 이전	현금, 물자
8	멕시코	50년	CRIK	346,821(현물)	'51년	두류, 닭고기
9	버마 (미얀마)		CRIK	49,934(현물)	'51년	식량
10	베네수엘라	50년	CRIK	180,842	'51년	현금, 의약품
11	베트남		UNKRA	11,943(현물)	'52.12. 이전	현금, 물자
12	사우디 아라비아		UNKRA	20,000(현금)	'52.12. 이전	

13	시리아		UNKRA	3,650	'53.12.	
14	스위스		UNKRA	313,954	'53.6. 이전	현금, 물자
15	아르헨티나		CRIK	500,000(식량)	'52.5. 이전	식량, 의약, 비누
16	아이슬란드	50년	CRIK	45,400(현물)	'51년	간유
17	아이티		ERP	2,000(현물)	'54.8. 이전	
18	이스라엘	50년	CRIK	96,600(현물)	'51년	미곡, 의약
19	이란		CRIK	3,900(현물)	'52.5. 이전	미곡, 직물
20	이집트		UNKRA	28,716(현물)	'53.12. 이전	
21	인도네시아		UNKRA	143,706(현금)	'52.12. 이전	
22	일본		CRIK	50,000(현물)	'51년	
23	에콰도르	50년	CRIK	99,441(현물)	'51년	미곡
24	엘살바도르			500(현금)	'53.12. 이전	
25	오스트리아		CRIK	3,616,446	'52.5. 이전	현금, 미곡
26	온두라스		UNKRA	2,500(현금)	'52.12. 이전	
27	우루과이	50년	ERP	250,780(현물)	'54.8. 이전	모포 등
28	자메이카		CRIK	25,167(현물)	'51년	미곡

29	중국(대만)	50년	CRIK	634,782(현물)	'52.5. 이전	석탄, 미곡, 연료
30	칠레		UNKRA	250,000(현금)	'53.12.	
31	쿠바	50년	CRIK	270,962(현물)	'51년	미곡, 의약
32	캄보디아		CRIK	27,420(현물)	'51년	현금, 미곡
33	코스타리카		CRIK	?	'51년	물품
34	파나마		UNKRA	3,000	'53.12. 이전	
35	파라과이	50년	UNKRA	10,000(현금)	'54.8. 이전	
36	파키스탄	50년	CRIK	378,285(현물)	'51년	소맥, 현금
37	페루	50년	ERP	58,723(현물)	'54.8. 이전	군화밀창
38	헝가리		CRIK	?	'51년	물자
39	교황청		UNKRA	10,000(현금)	'56.6. 이전	
40	니카라과	50년	UNKRA			지원의사 표명
41	볼리비아	50년	UNKRA			지원의사 표명
42	브라질	50년	UNKRA			지원의사 표명

비고 : 가. 전투부대 및 의료지원 국가를 제외한 순수 물자지원 국가임.  
나.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은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임.  
다. CRIK(한국민간구제단), ERP(유엔 긴급구제계획), UNKRA(유엔한국재건단)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제4장 참조.

#### 4. 낙동강방어선 형성

낙동강방어선은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으로 이어지는 방어선과 동해, 남해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 진동리에 이르기까지 112km 구간을 담당하고, 국군은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낙정리-구미동-청송-영덕을 연하는 138km 구간을 담당했다. 이로써 국군과 유엔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좌우가 연결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중동부 및 동부의 산악지역을 국군 2개 군단 이하 5개 사단(제1·제3·제6·제8·수도사단)이 담당하였고, 중부 및 서부방면의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와 교통이 발달한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제2·제24·제25사단) 및 미 제1임시해병여단이 맡아 북한군과 치열한 교전을 치렀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쟁방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북한군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8월 공세 때 북한군은 자신들이 보유한 13개 보병사단 중 11개 사단을 투입하여 전 전선에 걸쳐 총공세를 펼쳤다. 이때 북한군은 대구 정면과 마산 정면에 주공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곳에서 부분적인 돌파에는 성공하였으나 돌파구 확장에 실패하였다. 이는 한미연합지상군의 조직적인 방어와 성공적인 공·지 합동작전 수행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표 1-4> 낙동강 전투시 국군·유엔군과 북한군 전투력 비교

구분	국군 및 유엔군	북한군
병력	<p>[ 국 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단 : 2개</li> <li>• 사단 : 6개</li> <li>• 병력 : 115,147명</li> </ul> <p>[ 유엔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 : 4개</li> <li>• 여단 : 2개 (영연방 1개 여단 포함)</li> <li>• 병력 : 116,725명</li> </ul> <p>총 병력 : 231,87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공세 시 : 총 10개 사단 79,100명</li> <li>• 9월 공세 시 : 총 13개 사단 97,850명</li> </ul>
주요 무기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포 : 1,418문</li> <li>• 전차 : 500여 대</li> <li>• 소화기 : 489,000정</li> <li>• 기관총 및 로켓포 : 34,316정 (3.5" 로켓포 900여 문 포함)</li> <li>• 전투차량 : 743대</li> <li>• 일반 차량 : 15,000대 등</li> </ul>	<p>[ 8월 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포 : 410문</li> <li>• 대전차포 : 467문</li> <li>• 고사포 : 72문</li> <li>• 박격포 : 1,024문</li> <li>• T-34 전차 : 약 100대</li> <li>• SU-76 자주포 : 58문 등</li> </ul> <p>[ 9월 중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포 및 박격포 : 총 811문 (대구 서북쪽 주공 방면 236문)</li> <li>• 전차 총 40여 대 (대구 서북쪽 주공 방면 20대)</li> </ul>

비고 :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은 1950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지상군(해병대 포함) 수치이며, 주요 무기 및 장비는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동안에 보급된 수치임.

북한군은 8월 공세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며, 또다시 총력을 기울여 9월 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때 북한군은 13개 사단 모두를 공격 집단으로 편성하여 대구·영천·경주·창녕·마산정면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북한군은 9월 공세도 실패하였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 균형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증강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했지만 전략상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에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던 소련제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군 전투력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 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 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 5. 인천상륙작전과 복진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이남지역으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황은 국군과 유엔군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유엔 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반면, 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 막대한 장비 및 물자와 함께 자유우방국들의 병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5일을 기해 미 제10군단이 중심이 된 상륙부대를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를 비롯한 많은 제한요인과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원수의 상륙작전 성공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힌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을 계속 공격하여 후퇴를 강요했던 기세등등한 북한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 38도선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선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회복함으로써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1950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북진을 시작했다. 이어 유엔의 북진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그들의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실질적인 저항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1950년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km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 명령을 접수한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 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고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10월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그리고 11월에는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국군 제1군단이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10월 25일 이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감행됨에 따라 6·25전쟁은 전혀 새로운 성격과 모습으로 바뀌었다.

## 6.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중국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후인 1950년 10월 1일, 소련과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毛澤東)은 10월 8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보가위국(保家衛國)’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출전태세를 갖추어

은 동북변방군(東北邊防軍)을 ‘인민지원군(人民志願軍)’으로 개칭하고 출병 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스탈린(I. V. Stalin)과 김일성에게 통보했다.

그후 중공군은 소련의 공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두 차례 출병이 유보되었다가, 10월 19일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의 6개 군 18개 사단(약 18만 명)과 11월 초 제3야전군 예하 제9병단 3개 군 12개 사단(약 12만 명)이 각각 압록강을 도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6·25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은 주로 ① 단둥-신의주, ② 청성진-삭주, ③ 지안-만포진, ④ 임강-중강진 등 동북지역(만주)으로부터 북한 지역에 이르는 4개의 경로를 이용해 압록강을 건넜다.

<표 1-5> 6·25전쟁 기간 중공군 병력 및 주요 무기 현황

구 분	1950. 10. 28.	1950. 12월 초	1951. 7. 10.	1953. 7. 27.
사 단	18	31	51	58
병 력	203,640	531,500	948,299	1,221,058
야포(76mm 이상)	835	1,097	1,249	2,018
대전차포 (45, 57, 75mm)	81	141	498	2,843
고사포 (37mm 이상)	42	128	750	1,135

박격포(60mm)	1,512	2,487	1,737	5,184
박격포 (81mm 이상)	702	1,048		
전차 및 자주포	...	...	118	391
항공기	...	120	452	480

비고 : 가. ‘...’은 해당 숫자 미상을 의미함.

나. 중공군 전투서열, 병력 및 장비 등에 관해서는 이 책의 제5장 참조.

중공군은 사실상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의 일부였다. 한국에 투입된 중공군은 동북변방군이 주축이었으며, 참전경험이 많은 정규군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의 지휘부도 마오쩌둥의 명령에 의해 총사령관에 펑더화이(彭德懷), 부사령관에 덩화(鄧華)·홍취에쓰(洪學智)·한시엔추(韓先楚), 참모장에 세팡(解方)이 임명되는 등 중공군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자 소련 공군의 움직임도 신속해졌다. 소련 공군은 안둥(安東)에 위치한 제151전투비행사단에 추가하여 중공군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8일 제28전투비행사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소련군 상하이(上海) 방공작전집단군에 소속되어 있는 제50전투비행사단을 안둥으로 이동시키고, 이들 3개 전투비행사단을 근간으로 하여 11월 15일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창설하였다. 소련 공군은 1950년 11월 1일 미 공군 전투기들과 처음으로 공중전을 실시한 후 이른바 ‘미그회랑(MIG Alley)’이라고 불리는 평안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펼쳤다.

<표 1-6> 6·25전쟁 기간 소련 공군 참전 현황

구 분		보유량/항공기종 및 장비	중국 내 주둔기지	활동기간
비행군단 (1)	제64전투비행군단	...	선양(瀋陽)	'50. 11. ~ ?
비행사단 (12)	제151전투비행사단 (제28·72연대)	60/MIG-15	선양, 안둥	'50. 11. ~ '51. 9.
	제28전투비행사단 (제67·139연대)	60/MIG-15	랴오위안 (遼源)	'50. 11. ~ '50. 12.
	제50전투비행사단 (제29·177연대)	60/MIG-15	안산(鞍山)	'50. 12. ~ '51. 2.
	제303전투비행사단 (제17·18연대)	90/MIG-15	안둥(安東)	'51. 5. ~ '52. 2.
	제324전투비행사단 (제176·196연대)	60/MIG-15	안 둥	'51. 4. ~ '52. 1.
	제97전투비행사단 (제16·148연대)	116/MIG-15bis	안둥, 선양	'52. 1. ~ '52. 8.
	제190전투비행사단 (제256·494·821연대)	120/MIG-15bis	안 둥	'52. 1. ~ '52. 8.
	제32전투비행사단 (제224·535·913연대)	120/MIG-15bis	안 둥	'52. 9. ~ '53. 7.
	제133전투비행사단 (제147·415·726연대)	120/MIG-15bis	선 양	'52. 4. ~ '53. 8.
	제216전투비행사단 (제518·676·878연대)	120/MIG-15bis	안 둥	'52. 7. ~ '53. 8.
제37전투비행사단 (제236·282·940연대)	120/MIG-15bis	안 둥	'53. 7. ~ '54. 12.	

	제100전투비행사단 (제9·731·735연대)	120/MIG-15bis	선 양	'53. 7.~'54.12.
야간전투 비행연대 (2)	제351야간전투 비행연대	10/La-11 10/MIG-15bis	안 등	'51. 6.~'53. 1.
	제298야간전투 비행연대	10/La-11 10/MIG-15bis	안 등	'53. 1.~'54. 7.
해군 비행연대 (2)	해군 제578비행연대	...	안 등	'52. 7.~'53. 4.
	해군 제781비행연대	24/MIG-15bis	안 등	'53. 1.~'53. 7.
비행기술 사단 (2)	제18비행기술사단	독립차량대대 7개 독립비행기술대대 2개	안 등	'51. 6.~'53. 8.
	제16비행기술사단	...	...	'53. 6.~'54. 12.
고사포병 사단 (4)	제87고사포병사단 (제151·1777연대)	각 연대별 37mm고사포 28문 85mm고사포 32문	안 등	'51. 6.~'53. 1.
	제92고사포병사단 (제661·666·667연대)		안 등	'51. 6.~'53. 1.
	제28고사포병사단 (제503·505·507연대)		안 등	'53. 1.~'54. 11.
	제35고사포병사단 (제513·508연대)		안 등	'53. 1.~'54. 12.
고사탐조 연대 (2)	제10고사탐조연대	연대별 레이더 72기 전방위탐지기 1기	안 등	'51. 6.~'53. 1.
	제20고사탐조연대		안 등	'53. 1.~'54. 12.

비고 :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에 관해서는 제5장 '소련군 통계 현황' 참조.

국군과 유엔군은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철수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까지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이 퇴로를 차단함에 따라 부득이 흥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4일 사이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공세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38도선으로부터 낙동강선까지 수개의 방어선을 계획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12월 하순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미군 사단과의 전투에서 50% 이상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재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 7. 중공군의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1950년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을 기해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제3차 공세를 개시하였다. 공산군은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조공을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각각 투입하였다. 이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38도선과 서울을 공산군에게 내어주고 1951년 1월 6일 북위 37도선인 평택-삼척선까지 철수하였다.

중공군은 수원-여주-강릉선까지 진출한 후 1월 8일을 기해 방어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이 더 이상 남진하지 않은 이유는 식량보급 문제, 혹심한 추위로 인한 낙오병의 증가, 그리고 지나친 남진으로 또다시 유엔군에게 상륙작전을 허용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중공군의 공세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공산군 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선에 이르렀을 때 중공군은 제4차 공세(1951. 2. 11.~2. 18.)를 통하여 유엔군의 반격을 무력화하려 했다. 이에 따라 공산군과 유엔군이 서로 맞부딪쳐 횡성,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 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공산군의 공세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3월 15일을 기해 1·4후퇴 이후 70일 만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5월 중순에는 캔자스선(KANSAS LINE)을 발판으로 중부지역에서는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불리는 철원-김화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군이 다섯 번째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를 개시하였다. 이때 공산군은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 최대 규모인 3개 병단 11개 군 35개 사단의 중공군과 북한군을 총동원하여 4월 22~30일에는 서부 및 중부전선(개성-화천)에, 5월 16~22일에는 중동

부전선(양구-인제)에 각각 주공을 투입해 총공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공산군의 공세는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공세에 큰 손실을 입고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공산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5월 말에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말에는 임진강 하구-연천-철원-화천-간성 북방의 주요 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쟁의 양상은 휴전협상 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교착된 전선에서의 고지쟁탈전으로 바뀌었다.

## 8. 휴전회담과 고지쟁탈전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고 재반격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된 접촉선에서 대치하게 된 1951년 6월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모두 더 이상 무력에 의해서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해 전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개막되었고, 회담은 이후 중단과 휴회, 재개 등을 반복하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휴전회담은 진행과정에서 유엔군 측 보도진의 출입문제, 공산군 측의 중립협정위반 날조사건, 휴전회담 장소의 이전(개성에서 판문점), 세균전 논란 등과 함께 특히 포로교환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의 전쟁 상황은 양측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휴전회담의 진전여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면서 전개되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군사작전의 목표를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전이 확대된 공방전보다는 고지쟁탈전의 규모로 진행되는 진지전의 성격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쌍방은 모두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선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한편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엔 및 한국 공군은 1950년 6월 29일부터 한만 국경지역에 형성된 미그회랑을 제외한 한반도 내의 전 지역에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전략폭격, 후방차단, 근접항공지원 등을 통해 유엔군의 작전에 기여하였다. 유엔 및 한국 해군 역시 1950년 6월 27일 이후부터 한반도 내의 모든 해역에서 제해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고, 함재기를 통한 공중폭격과 해상봉쇄, 소해작전, 초계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유엔군의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9. 정전협정 체결과 전투의 중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공산군과 유엔군은 지상에서 쌍방 간에 38도선을 3번씩이나 오르내리면서 격전을 치렀다. 반면 해상과 공중에서는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군사작전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초기에는 북한군과 국군 및 유엔군 간의

대결이었지만 중공군의 참전에 따라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의 대결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양상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의 전면적인 군사적인 대결에서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는 휴전회담 테이블에서의 설전과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전선에서의 치열한 고지쟁탈전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1951년 7월 10일을 기해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간 휴전회담은 1951년 11월에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1년 8개월이 더 걸렸는데 이때 양측간에 제기된 핵심적인 이슈는 포로교환 문제(자유송환, 강제송환 원칙문제)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문제 역시 회담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자 휴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쟁은 급격히 종결 분위기로 치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53년 6월 8일을 기해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포로교환과 관련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한국 이승만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미국과 한국정부가 1953년 7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10시에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 간에 정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같은 날 22시를 기해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은 쌍방 공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황에서 전투행위가 일단 중지되었다.<sup>1)</sup>

---

1) 이 장의 본문 내용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Ⅰ~Ⅲ, 2004~2013의 개관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 10. 전쟁의 영향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생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2일간 진행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적 냉전 질서하에서 발발한 국지적 열전으로 공산진영의 세력 팽창에 맞선 자유진영의 방어전쟁의 성격을 지녔다.

6·25전쟁은 국내적으로 수많은 인명손실과 사회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어 민족에게 온갖 고초와 고난을 안겨 준 전쟁이었다. 당시 약 3,000만 명의 남북한 전체인구 중 최소한 약 10%에 해당하는 300만 명 이상이 희생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여기에는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다.<sup>2)</sup> 또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화는 심화되었고 체제경쟁 속에 상호불신을 심화시켜 통일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었다.

6·25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은 급기야 세계 25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동서 양대 진영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을 비롯해 초강대국들이 모두 이 전쟁에 참여했다. 따라서 6·25전쟁은 1950년대 동·서 냉전의 열전으로서 특히 대한민국은 막대한 인적,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고,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에서 남북한 간에는 군비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한 핵의 위협 속에 치른 제한적, 국지적 성격 때문에 양 진영이 핵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남북한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에 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의 '피해현황' 및 제5장의 '북한군 통계현황'을 참조.

<표 1-7> 국군 및 유엔군 인명 피해 현황

국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한국	137,899	450,742	24,495	8,343	621,479
미국	33,686	92,134	3,737	4,439	133,996
영국	1,078	2,674	179	978	4,909
오스트레일리아	340	1,216	-	28	1,584
네덜란드	120	645	-	3	768
캐나다	516	1,212	1	32	1,761
뉴질랜드	23	79	1	-	103
프랑스	262	1,008	7	12	1,289
필리핀	112	299	16	41	468
터키	966	1,155	-	244	2,365
태국	129	1,139	5	-	1,273
남아프리카공화국	36	-	-	8	44
그리스	192	543	-	3	738
벨기에	99	336	4	1	440
룩셈부르크	2	13	-	-	15
에티오피아	122	536	-	-	658
콜롬비아	213	448	-	28	689
인도	3	23	-	-	26
노르웨이	3	-	-	-	3
합계	175,801	554,202	28,445	14,160	772,608

<표 1-8> 공산군 인명 피해 현황

국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계
북한	520,000	...	120,000	640,000
중국	141,000	220,000	29,000	391,000
소련	315	...	...	315
합계	520,456	220,000	149,000	1,031,315

## 제2 장

# 국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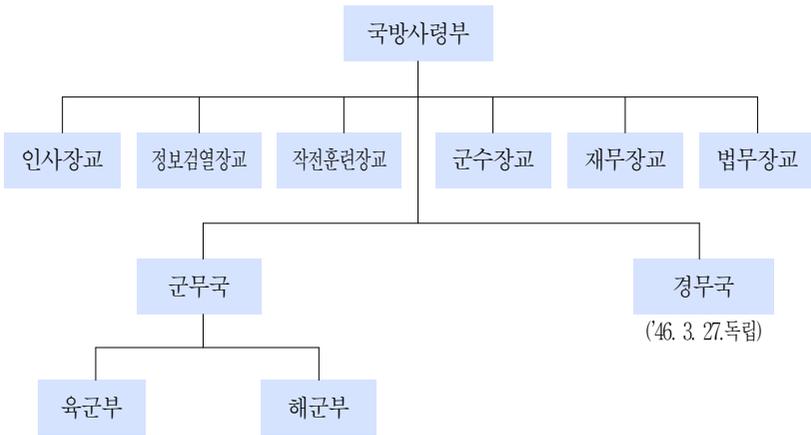
### 제1 절 6·25전쟁 전 국군 현황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토방위의 주력으로서 창설되었지만 창군 활동은 이미 1945년 8·15광복 직후부터 있었다. 광복 이후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하던 약 13만 명의 군사경력자들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이들 중 일부가 자생적인 군사단체를 조직해 건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생적인 군사단체는 과거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1945년 11월 미군정청에 등록된 수가 30여 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군사단체들이 명분과 이념의 차이로 대립과 분열을 보이고 유혈 충돌사태까지 일으키자, 미군정청은 11월 13일에 ‘군정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를 설치하고 이듬해 1월 21일 모든 군사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렸다.<sup>3)</sup>

3)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263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92~95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①, 2004, 313~314쪽.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광복 직후 난립하던 자생적인 군사단체를 통합하고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방사령부 내에는 군무국과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군무국 예하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창설되었다.

<표 2-1> 국방사령부 편성(1945. 12. 1. 현재)<sup>4)</sup>



국방사령부는 창설 직후에 한국의 군사지도자들이 제시한 군비육성안(軍備育成案)을 토대로 남한의 군대조직과 편성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국방군의 창설을 전제로 한 이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3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으로 육군을 편성하고, 1개 수송중대와 2개 비행중대로 공군을 편성한다는 것이었다. 병력 규모는 육군과 공군을 합쳐 45,000명, 해안경비대 5,000명 등 총 50,000명이었다.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98쪽.

그러나 미국 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때에 한국군의 창설이 소련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사령부는 당초의 계획안을 수정하여 군 기능보다는 경찰 기능에 가까운 경찰예비대의 창설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일명 ‘뱀부계획(Bamboo Plan)’이었다.<sup>5)</sup>

국방사령부의 뱀부계획은 남한의 8개 도에 1개 연대씩 모두 25,000명 규모의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창설 방식은 먼저 각 도에 1개 중대씩을 편성한 후 이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연대를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예비대 창설안인 뱀부계획은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의 창설을 시작으로 1946년 4월 1일 춘천에서 제8연대가 창설됨으로써 완료되었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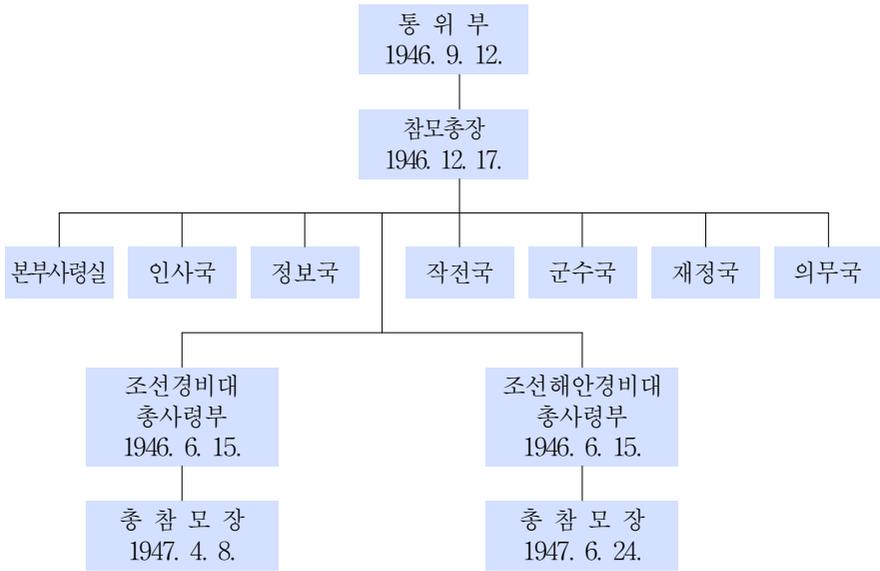
국방사령부는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부로, 그리고 다시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라 통위부로 개칭되었다. 이때 잠시나마 국방부 명칭이 사용된 것은 미군정 당국이 군정청 내의 집행부서를 국제(局制)에서 부제(部制)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이 “미소 양국이 현재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국방부를 설치했는가”라고 항의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 미국 측이 국방부의 명칭을 ‘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바꾸었다. 한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방이라는 뜻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

5) 국방부, 『국방사』 Ⅰ, 1984, 292~295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Ⅰ, 2004, 344~345쪽.

6) <표 2-4> 조선경비대의 연대 창설 현황(1946. 1. 15.~1946. 11. 16.) 참조.

로서 한말(韓末) 군제인 통위영을 본 따 국내경비부를 통위부(統衛部)라고 호칭하였다. 통위부의 창설과 함께 남조선국방경비대도 조선경비대로, 해방병단(海防兵團)도 조선해안경비대로 각각 명칭을 바꾸었다.<sup>7)</sup>

<표 2-2> 통위부 편성(1947. 6. 24. 현재)<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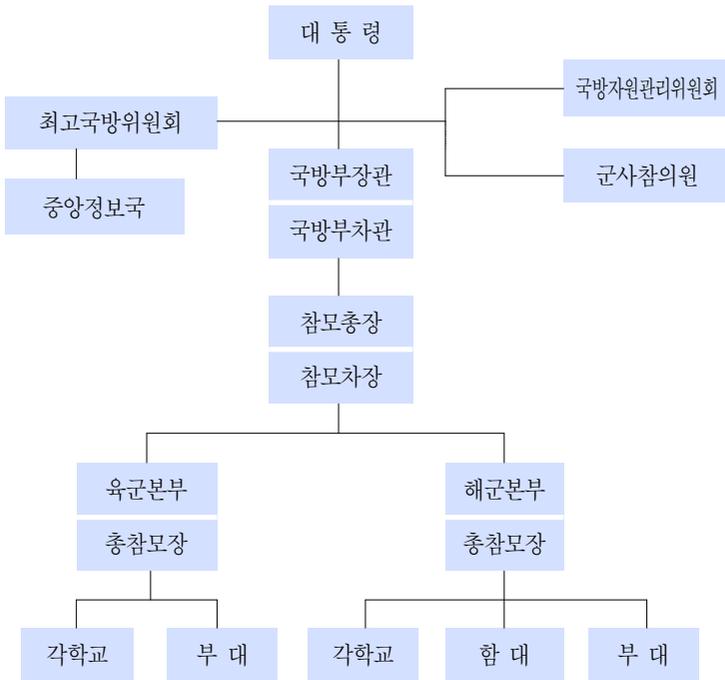
통위부는 미군정 기간 동안 존속하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국방부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당시 초대 국방부장관인 이범석은 국무총리를 겸직하고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103~105쪽.

8) 국방부, 『국방사』 ①, 1984, 194쪽.

육·해·공군의 군정을 관장하는 임무를 지녔다. 통위부와 국방부간의 사무이양은 8월 31일에 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되었고, 9월 5일 조선경비대의 명칭이 대한민국 육군으로, 해안경비대의 명칭이 대한민국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다.<sup>9)</sup>

<표 2-3>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방기구표(1948. 11. 30. 현재)<sup>10)</sup>



9)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1998, 43쪽.

10) 국방부, 『국방사』 Ⅰ, 1984, 223쪽.

국방부 창설 이후 육군은 병력의 증가와 부대편성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방부 창설 당시 5개 여단 15개 연대 총 병력 52,560명이었던 육군은 10만 명을 목표로 병력을 계속 증가시켰으며, 부대편성도 1949년 5월 12일에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는 등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 발발 직전에 육군은 총 병력 94,974명의 보병 8개 사단(제1·제2·제3·제5·제6·제7·제8, 수도경비사령부), 22개 연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11)</sup>

그러나 육군은 병력 증가에 비해 무기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미국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육군은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이관한 무기와 장비를 제외하고는 이후 미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sup>12)</sup>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건설한 경제개발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내 반공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목적으로 말하는 ‘북진통일’ 구호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기와 장비의 빈약함에 더하여 지속적인 대비정규전의 수행은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었다. 1949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은 국군의 교육훈련 지도와 대비정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교육훈련 지도는 크게 국군 각 사단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군사학교의 설치를 통한 지도, 그리고 장교들의 해외 군

11) 조선경비대 병력은 1948년 8월 20일 기준임(<표 2-11> ‘1948년 육군 병력 현황’, <표 2-13> ‘1950년 육군 병력 현황’ 참조).

12) <표 2-27> ‘주한미군 철수시 미국이 이관한 주요 무기 현황(1949. 6. 30.)’ 참조.

사유학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부대의 전술훈련 강화와 지휘관 양성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고문단이 마련한 훈련계획은 38선 충돌사건과 대비정규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으며, 실행되더라도 훈련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sup>13)</sup> 6·25전쟁 발발 직전 대대훈련까지 마친 연대는 22개 연대 중 5개 연대에 불과하였으며, 전 연대의 전투력 수준도 평균 49.9%에 지나지 않았다.<sup>14)</sup>

해·공군도 상황은 육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군은 미군으로부터 소규모 함정을 인수한 후 이를 보수하여 사용하였고, 함정구매를 위한 모금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구잠함(PC) 4척을 구입하였으나 PC-701함(백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척은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시 해군은 36척의 함정과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sup>15)</sup>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발족한 공군은 미국이 항공기의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6·25전쟁이 발발할 시점에 훈련기 10대와 연락기 1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 당시 공군 병력은 1,897명이었다.

13)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의 조직과 활동』,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7~114쪽.

14) <표 2-17>~<표 2-25> ‘각 사단별 훈련 현황’ 및 <표 2-26> ‘1949~1950년 육군의 전투력 수준’ 참조.

15) 해군이 보유한 함정 36척에는 1950년 5월 27일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였지만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은 PC(구잠함) 702·703·704함이 포함되어 있다(<표 2-41> ‘6·25전쟁 직전 해군함정의 배치현황’ 참조). 해군은 36척의 함정 이외에도 6·25전쟁 발발 당시에 7척의 소형주정을 보유하고 있었다(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38쪽). 해군 병력에 대해서는 <표 2-37> ‘1950년 해군 병력 현황’ 참조.

## 1. 육 군

### 1) 편성

<표 2-4> 조선경비대 연대 창설 현황(1946. 1. 15.~1946. 11. 16.)

구 분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연대	1946. 1.15.	경기 양주	정위 채병덕
제2연대	1946. 2.28.	충남 대전	정위 이형근
제3연대	1946. 2.26.	전북 이리	부위 김백일
제4연대	1946. 2.15.	전남 광산	부위 김홍준
제5연대	1946. 1.19.	경남 부산	참위 박병권
제6연대	1946. 2.18.	경북 대구	참위 김영환
제7연대	1946. 2. 7.	충북 청주	참위 민기식
제8연대	1946. 4. 1.	강원 춘천	부위 김종갑
제9연대	1946.11.16.	제주 모슬포	부위 장창국

출처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95쪽.

비고 : 가. 지휘관의 계급 호칭은 조선경비대 창설 당시의 호칭으로 1946년 12월 1일 개정된 계급 호칭에 따르면, 정위는 대위, 부위는 중위, 참위는 소위임.

나. 제9연대는 1946년 7월 2일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되면서 1개 도에 1개 연대를 창설한다는 뱀부계획의 원칙에 따라 1946년 11월 16일 창설됨.

다. 창설지는 당시의 행정구역명을 따름.

<표 2-5> 조선경비대 여단 창설 현황(1947. 12. 1.~1948. 4. 29.)

구분	창설일자	여단장				비 고
		역대	계급	성명	부임일자	
제1 여단	1947.12. 1.	1대	대령	송호성	1947.12. 1.	1947.12.28. 수색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2대	대령	이용준	1948. 2. 5.	
		3대	대령	김석원	1949. 1. 7.	
제2 여단	1947.12. 1.	1대	대령	원용덕	1947.12. 1.	1949. 5.12. 사단 승격
		2대	대령	채원개	1949. 1.15.	
제3 여단	1947.12. 1.	1대	대령	이용준	1947.12. 1.	1949. 2.24. 대구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2대	대령	채원개	1948. 2. 5.	
		3대	대령	최덕신	1949. 1.15.	
제4 여단 (제6 여단)	1948. 4.29.	1대	대령	채병덕	1948. 4.29.	1948. 5.15. 충주 이동 1948. 9.17. 청주 이동 1948.11.20. 여단해체, 제6여단으로 개칭 1949. 2.20. 원주 이동 1949. 5.12. 사단 승격
		대리	중령	김종석	1948. 8.16.	
		2대	중령	유재홍	1948. 9.12.	
		3대	대령	김백일	1949. 1.15.	
제5 여단	1948. 4.29.	1대	대령	김상겸	1948. 4.29.	1949. 5.12. 사단 승격
		대리	중령	김백일	1948.10.23.	
		2대	대령	원용덕	1949. 1.15.	

출처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128~131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Ⅰ, 2004, 348쪽.

비고 : 각 여단의 창설지는 제1여단이 서울 예장동의 조선경비대사령부, 제2여단이 충남 대전, 제3여단이 경남 부산, 제4여단이 서울 수색동, 제5여단이 전남 광주임.

<표 2-6> 조선경비대 및 육군 연대 증편 현황(1948. 5. 1.~1949. 6. 10.)

구 분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0연대	1948. 5. 1.	강원 강릉	소령 백남권
제11연대	1948. 5. 1.	경기 수원	중령 박진경
제12연대	1948. 5. 1.	전북 군산	중령 백인기
제13연대	1948. 5. 4.	충남 온양	중령 이치업
제14연대	1948. 5. 4.	전남 여수	소령 이영순
제15연대	1948. 5. 4.	경남 마산	중령 조 암
제16연대	1948.10.28.	경남 마산	중령 박시창
제17연대	1948.11.20.	경기 시흥	중령 백인엽
제18연대	1948.11.20.	경북 포항	중령 최 석
제19연대	1948.11.20.	전남 광주	소령 민병권
제20연대	1948.11.20.	전남 광주	중령 이성가
기갑연대	1948.12.10.	경기 수원	소령 이용문
제21연대	1949. 2. 1.	전남 광주	중령 박기병
제22연대	1949. 4.15.	경북 대구	중령 오덕준
제23연대	1949. 4.20.	경남 마산	대령 김중평
제25연대	1949. 6.20.	충남 대전	중령 유해준

출처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133~1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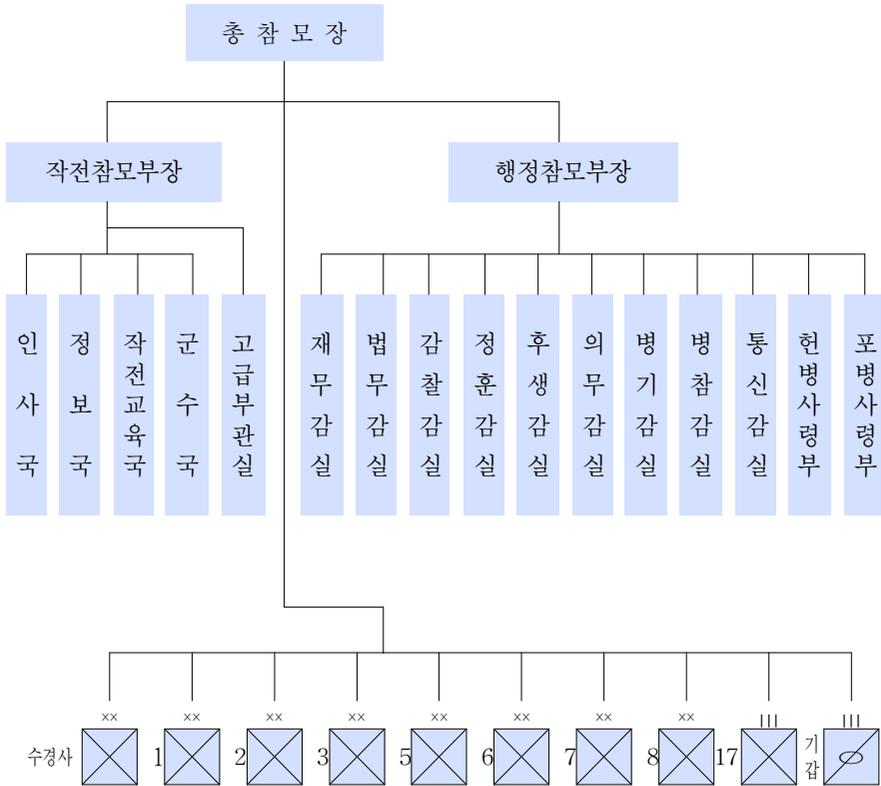
- 비고 : 가. 제14연대는 여순 10·19사건 때 군반란이 발생한 부대로 1948년 10월 28일 해체.  
 나. 제20연대는 여순 10·19사건에 일부 병력이 가담하여 해체된 제4연대의 후신으로 제4연대 병력을 재편성하여 창설.  
 다. 제22연대는 대구 반란사건을 계기로 해체된 제6연대의 후신으로 제6연대 잔여병력과 제7·12·18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 차출하여 창설.  
 라.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제1여단의 수색대로 발족하여 1948년 11월 9일에 수색단으로, 12월 10일에 기갑연대로 승격.

<표 2-7> 경비대 및 육군 총사령관(1946. 2. 7.~1950. 6. 30.)

구 분	역대	계급	성 명	재직기간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관 (1946. 2. 7.)	1대	중령	마샬 (John T. Marshall)	1946. 2. 7.~ 2. 22.
	대리	참령	원용덕	1946. 2. 22.~ 6. 24.
	2대	중령	베로스 (Russell O. Barros)	1946. 4.
조선경비대 총사령관 (1946. 6. 15.)	대리	참령	이형근	1946. 9. 28.~ 12. 23.
	3대	중령	송호성	1946. 12. 23.~ 1948.11.20.
육군총사령관	4대	대령	이응준	1948. 11. 20.~ 12. 15.
육군총참모장	1대	준장	이응준	1948. 12. 15.~ 1949. 5. 9.
	2대	소장	채병덕	1949. 5. 9.~ 9. 30.
	3대	소장	신태영	1949.10. 1.~ 1950. 4. 9.
	4대	소장	채병덕	1950. 4. 10.~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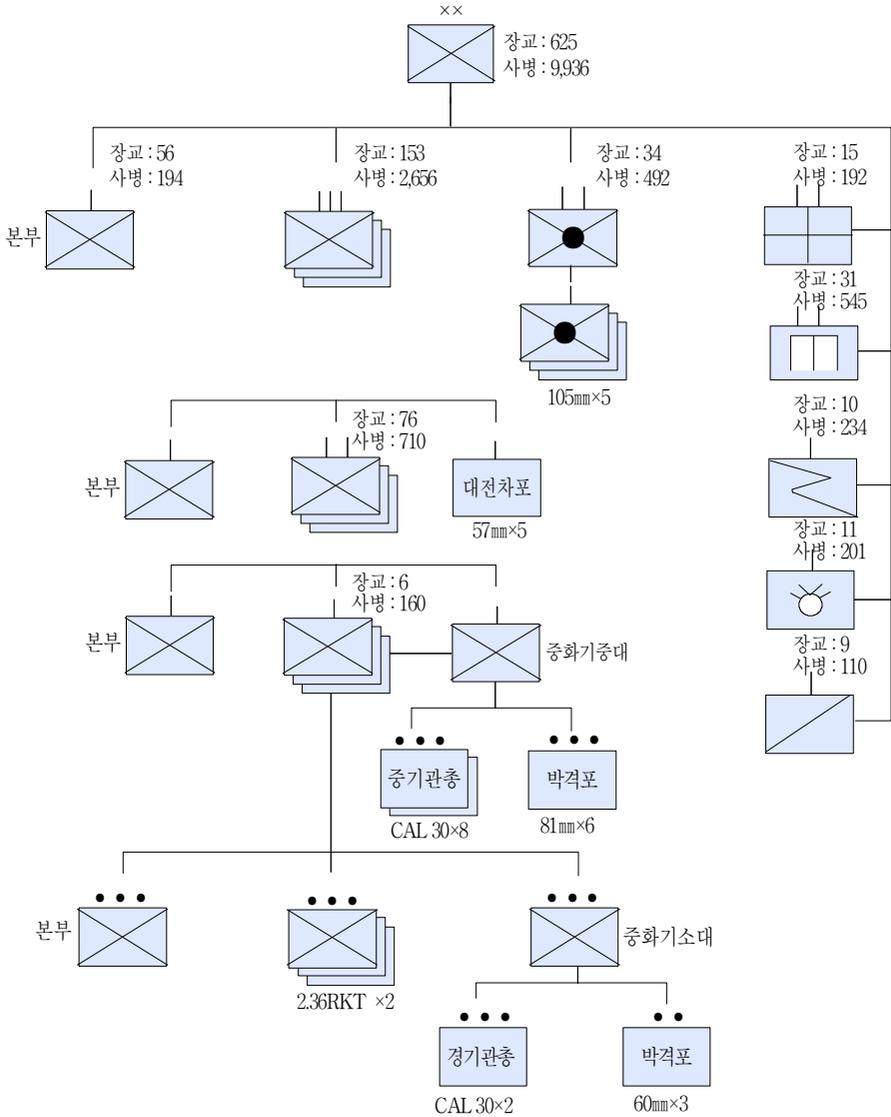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①, 2004, 350쪽 ; 육군  
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199~203쪽.

<표 2-8> 육군 편성(1949. 5. 31. 현재)<sup>16)</sup>



1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371쪽.

<표 2-9> 육군 보병사단 편제표(1950. 6. 25. 현재)<sup>17)</sup>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374쪽.

<표 2-10> 6·25전쟁 직전 육군 사단 현황

사 단		창설일	사단장	예속 연대
전방사단	제1사단	1949. 5.12.	대령 백선엽	제11·12·13연대
	제6사단	1949. 5.12.	대령 김종오	제2·7·19연대
	제7사단	1949. 6.20.	준장 유재홍	제1·9·25연대
	제8사단	1949. 6.20.	대령 이성가	제10·21연대
후방사단	제2사단	1949. 5.12.	준장 이형근	제5·16연대
	제3사단	1949. 5.12.	대령 유승렬	제22·23연대
	제5사단	1949. 5.12.	소장 이용준	제15·20연대
	수도경비사령부	1949. 6.20.	대령 이종찬	제3·8·18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Ⅰ, 2004, 375쪽.

비고 : 가. 창설일은 여단에서 사단으로 승격 또는 새로 창설된 날짜를 말함.

나. 독립기갑연대와 제17연대가 육군본부 직할로 존재.

## 2) 병력

<표 2-11> 1948년 육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월 일	경비대/육군
1948	1. 30.	14,800
	2. 27.	24,723
	3. 26.	24,691
	4. 30.	27,899
	5. 28.	41,265
	6. 25.	62,056
	7. 30.	54,036

1948	8. 20.	52,560
	8. 27.	52,765
	9. 3.	52,046
	9. 10.	52,492
	9. 17.	51,877
	9. 24.	51,524
	10. 1.	50,386
	10. 9.	50,224
	10. 23.	49,229
	10. 30.	47,374
	11. 6.	46,280
	11. 13.	46,251
	11. 20.	46,251
	11. 27.	43,587
	12. 4.	43,701
	12. 11.	43,499
	12. 18.	43,119
	12. 24.	46,333
12. 31.	57,213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48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 (영인본), 제1~2권, 영진문화사, 1993.

비고 : 1948년 9월 5일부로 조선경비대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칭됨.

<표 2-12> 1949년 육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월 일	육 군
1949	1. 8.	59,028
	1. 15.	62,448
	1. 22.	62,018
	1. 29.	64,503
	2. 5.	64,490
	2. 12.	66,212
	2. 19.	66,866
	2. 26.	69,340
	3. 5.	69,340
	3. 12.	69,181
	3. 19.	68,024
	3. 26.	69,016
	4. 2.	69,580
	4. 9.	69,803
	4. 16.	69,803
	4. 23.	68,976
	4. 30.	68,976
	5. 7.	69,680
	5. 14.	71,008
	5. 21.	71,086
	5. 28.	71,086
	6. 4.	72,071
	6. 11.	74,953
	6. 24.	76,340

1949	7. 1.	77,842
	7. 8.	81,886
	7. 15.	86,909
	7. 22.	79,961
	7. 29.	82,382
	8. 5.	88,563
	8. 12.	94,024
	8. 19.	97,297
	8. 26.	97,579
	9. 2.	99,186
	9. 9.	99,235
	9. 16.	99,538
	9. 23.	99,538
	9. 30.	99,302
	10. 7.	99,942
12. 31.	95,791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No. 54~75, 1949년 ; *JOINT WEEKA*(합동주간 요약) No. 1~17, 1949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 Annex 13, Consolidated Morning Report, KA”, RG 319, Entry 154, Box 162, NARA.

비고 : 가. 1949년 1월 8일~6월 4일까지는 *JOINT WEEKA*, No. 54~75의 자료이며, 6월 11일~10월 7일까지는 *JOINT WEEKA*, No. 1~17의 자료임. 10월 7일 이후 *JOINT WEEKA*에는 국군의 병력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나. 1949년 12월 31일 병력수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자료임..

<표 2-13> 1950년 육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월 일	육 군
1950	4. 7.	93,777
	4. 14.	93,735
	4. 21.	95,762
	4. 28.	94,911
	5. 12.	94,808
	5. 19.	94,848
	6. 2.	94,618
	6. 9.	94,373
	6. 25.	94,974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50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46쪽.

비고 : 가. 1950년 4월 7일~6월 9일까지는 *JOINT WEEKA*, No. 14~23의 자료임.

나. 1950년 6월 25일 병력수는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자료임.

<표 2-14> 육군 주요 전투부대 병력 현황(1950. 6. 1. 현재)

단위 : 명

부 대	장 교	사 병	합 계
육군본부	709	1,821	2,530
기갑연대	86	1,482	1,568
제17연대	155	3,201	3,356
영등포학원	23	310	333
보국대대	58	121	179

제1사단	187	1,882	2,069
제11연대	111	2,527	2,638
제12연대	125	2,728	2,853
제13연대	116	2,578	2,694
제2사단	112	1,397	1,509
제5연대	112	1,895	2,007
제16연대	131	2,408	2,539
제25연대	128	2,210	2,338
제3사단	166	1,826	1,992
제22연대	126	2,646	2,772
제23연대	122	2,587	2,709
제5사단	160	2,274	2,434
제15연대	117	2,119	2,236
제20연대	107	2,185	2,292
제1독립대대	30	698	728
제6사단	152	2,245	2,397
제7연대	121	2,411	2,532
제8연대	121	2,288	2,409
제19연대	104	2,168	2,272
제7사단	154	2,278	2,432
제1연대	127	2,514	2,641
제3연대	123	2,487	2,610
제9연대	124	2,419	2,543

제8사단	146	1,923	2,069
제10연대	122	2,476	2,598
제21연대	118	2,467	2,585
수도사단	112	1,668	1,780
제2연대	129	2,615	2,744
제18연대	126	2,778	2,904
합계	4,660	71,632	76,292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IX, Consolidated Morning Report,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비고 : 가. 병력수는 1950년 6월 1일 현재 인가된 병력이 아닌 각 부대의 실제 병력수임.

나. 소속 부대는 1950년 6월 1일 현재의 예·배속 관계에 따랐으며, 당시 기갑연대·제17연대·영등포학원·보국대대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였음.

### 3) 교육 및 훈련

#### ① 군사학교 현황

<표 2-15>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황(1946~1950년)

기별	입교자 (명)	입교/졸업		임관자 (명)	비고
		입교일	임관일		
1기	88	'46. 5. 1.	'46. 6.15.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경력자 모집</li> <li>· 입교자 중 40여 명, 해안경비대로 전출</li> <li>· 6·25전쟁 발발 당시 연대장급</li> </ul>

2기	263	'46. 9.23.	'46.12.14.	196	· 군사경력자/민간인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대대장, 사단참모	
3기	338	'47. 1.13.	'47. 4.19.	296	· 각 연대 하사관 추천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대대장, 사단참모 · 특별 3기 포함	
4기	120	'47. 5.16.	'47. 9.10.	107	· 군사경력자/현역 하사관/민간인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대대장, 연대참모	
5기	420	'47.10.23.	'48. 4. 6.	380	· 민간인(320명) 3개월 기초교육 후 입교, 현역 하사관/사병 80명 · 6·25전쟁 발발 당시 중대장, 연대참모	
6기	282	'48. 5. 5.	'48. 7.28.	235	· 하사관/사병 중에서 추천 입교 · 6·25전쟁 발발 당시 중대장, 연대참모	
7기	정기	602	'48. 8. 9.	'48.11.11.	561	· 민간인 모집, 3개월 기초교육 후 입교
	특별	246	'48. 8.17. ~ 9.13.	'48.10.12.	190	· 군사경력자 모집
	후기	350	'48.11.12.	'48.12.21.	345	· 고급하사관 중 모집
8기	정기	948	'48.12. 7.	'49. 5.23.	1,264	· 민간인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소대장, 중대부관
		37	'49. 1.27.			
		315	'49. 3.19.			
	특별 1기	11	'48.12. 7.	'49. 1. 1.	11	· 군사경력자 모집 · 대령~대위로 임관
특별 2기	160	'48.12. 7.	'49. 1.14.	145	· 군사경력자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대대장급	

8기	특별 3기	190	'48.12. 7.	'49. 3. 2.	181	· 군사경력자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중대장, 대대참모
	특별 4기	250	'49. 2.21.	'49. 3.29.	148	· 군사경력자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중대장, 대대참모
'49. 4.27.	99					
9기		674	'49. 7.15.	'50. 1.14.	580	· 민간인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소대장
10기 (생도1기)		313	'49. 7.15.	'50. 7.10.	134	· 민간인 모집 · 6·25전쟁 발발 당시 재학 중 참전
				'50. 7.15.	50	
합계		5,607			4,962	

출처 :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82~83쪽 ;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50~113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332~333쪽, 346쪽.

<표 2-16> 6·25전쟁 전 육군 군사학교 설치 현황

학교명	창설일자	창설 당시 주둔지	비고
육군 군악학교	1948. 4. 1.	서울 장충동	
육군 통신학교	1948. 8. 26.	서울 영등포	· 통신학교의 전신으로 1947년 1월 20일 경남 진해에 통신교육대가 설치되었으나 1948년 2월 20일 해체됨
육군 자동차학교	1948. 10. 5.	경기 부평	· 1949. 1. 15. 육군 병기학교로 개편
육군 공병학교	1948. 11. 25.	경기 김포	
육군 수색학교	1948. 11. 25.	경기 수색	· 1949. 6. 6. '38부대'라는 명칭 사용

육군 헌병학교	1949. 1. 16.	서울 필동	
육군 경리학교	1949. 5. 1.	서울 용산	· 1949. 10. 15. 육군 병참학교로 개칭
육군 정보학교	1949. 5. 20.	경기 수색	
육군 참모학교	1949. 7. 1.	서울 용산	
육군 보병학교	1949. 7. 1.	경기 시흥	
육군 군의학교	1949. 8. 15.	경기 인천	
육군 포병학교	1949. 10. 15.	서울 영등포	· 육군잠정포병단(1948.11.20.)→ 육군잠정포병사령부(1948.12.15.) →육군포병연대(1949.6.20.)→ 육군포병학교(1949.10.15.)

출처 :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역사』, 1959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292~293쪽.  
비고 : 지명은 학교 창설 당시의 행정구역상의 지명을 따름.

## ② 사단별 훈련 현황

<표 2-17> 국군 제1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 기동 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11연대									1950.2.	
1대대	100	1949.11.	100	1949.12.	80		1950.2.	1950.3.		1950.3.
2대대	100	1949.11.	100	1949.12.	75		1950.2.	1950.3.		1950.3.
3대대	100	1949.12.	100	1950.2.	90		1950.2.	1950.3.		1950.3.

12연대									1950.2.
1대대	100	1949.9.	100	1949.9.	80			1950.2.	
2대대	100	1949.9.	100	1949.9.	80			1950.2.	
3대대	100	1949.9.	100	1949.9.	40				
13연대									1950.2.
1대대	100	1949.9.	100	1949.9.	70			1950.2.	
2대대	100	1949.9.	100	1949.9.	70			1950.2.	
3대대	100	1949.9.	100	1949.12.	80			1950.2.	1950.3.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비고 : CPX(Command Post Exercise)는 지휘소연습이며, 대대기동훈련은 8일간 실시함.

<표 2-18> 국군 제2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5연대										
1대대	100	1950.1.					1950.2.			
2대대	100	1950.1.					1950.1.			
3대대	100	1950.1.	100	1950.2.						
16연대										
1대대	100	1949.11.								
2대대	100	1949.11.								
3대대	100	1949.11.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19> 국군 제3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22연대										
1대대	100	1949.11.	50							
2대대	100	1949.9.	100	1950.1.	10					
3대대	100	1949.9.	100	1950.1.	10					
23연대										
1대대	75		50				1950.5.			
2대대	75		50							
3대대	25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0> 국군 제5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15연대										
1대대	100	1949.6.	80		40					
2대대	100	1949.6.	70		30					
3대대	100	1949.6.	60		30					
20연대										
1대대	100	1950.1.								
2대대	100	1950.1.								
3대대	100	1950.2.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1> 국군 제6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7연대										
1대대	100	1949.10.	60							
2대대	100	1949.11.	100	1949.12.	25					
3대대	100	1949.11.	40							
8연대										
1대대	100	1949.9.	100	1949.11.	80					
2대대	100	1949.9.	100	1949.11.						
3대대	100	1949.9.	100	1950.1.	80					
19연대										
1대대	100	1949.10.	40							
2대대	100	1949.9.	25							
3대대	100	1949.9.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2> 국군 제7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1연대									1950.2.	
1대대	100	1949.8.	100	1950.2.	100	1950.5.	1950.2.	1950.5.		1950.5.
2대대	100	1949.8.	100	1949.11.	100	1950.5.	1950.2.	1950.3.		1950.5.

3대대	100	1949.9.	100	1950.1.	100	1950.5.	1950.2.	1950.4.		1950.5.
9연대									1950.2.	
1대대	100	1949.9.	100	1949.9.	100	1950.5.	1950.2.	1950.4.		
2대대	100	1949.9.	100	1949.9.	100	1950.5.	1950.2.	1950.3.		
3대대	100	1949.9.	100	1949.9.	100	1950.3.	1950.2.	1950.2.		
25연대										
1대대	100	1949.9.	100	1949.12.						
2대대	100	1949.9.	100	1949.12.						
3대대	100	1949.9.	100	1949.12.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3> 국군 제8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10연대										
1대대	100	1949.8.	100	1949.11.	90					
2대대	100	1949.8.	100	1949.11.	90					
3대대	100	1949.8.	100	1950.11.	90					
21연대										
1대대	100	1949.9.	100	1949.9.	40					
2대대	100	1949.9.	100	1949.9.	80					
3대대	100	1949.9.	100	1949.9.	100	1950.5.		1950.5.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4> 국군 수도사단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2연대										
1대대	100	1949.5.	100	1949.6.	100	1950.5.		1950.3.		
2대대	100	1949.5.	100	1949.6.	100	1950.5.		1950.3.		
3대대	100	1950.3.	100	1950.4.	100	1950.5.		1950.3.		
3연대										
1대대	100	1949.7.	100	1950.4.	100	1950.6.				
2대대	100	1949.7.	100	1950.4.	100	1950.6.				
3대대	100	1949.6.	100	1950.4.	100	1950.6.				
18연대										
1대대	100	1949.5.	100	1949.7.	100	1950.6.				
2대대	100	1949.5.	100	1949.7.	100	1950.6.				
3대대	100	1949.5.	100	1949.7.	100	1950.6.				

출처 : K 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5> 독립연대 훈련 현황(1950. 6. 15. 현재)

구분 부대	소대훈련		중대훈련		대대훈련		대대 CPX	대대기 동훈련	연대 CPX	대전차 훈련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성과 (%)	완료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실시일
17연대										
1대대	100	1949.5.	100	1949.9.	30					

2대대	100	1949.5.	100	1949.10.	35				
3대대	100	1949.9.	100	1950.4.	30				
기갑연대									
장갑대대	100	1949.10.	100	1950.2.	60				
기병대대	100	1949.10.	100	1950.2.	50				
도보대대	100	1950.1.	100	1950.3.	10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표 2-26> 1949~1950년 육군의 전투력 수준

단위 : %

사 단	연대	1949. 12. 31.	1950. 6. 15.
제1사단	11연대	53	43
	12연대	60	55
	13연대	45	62
제2사단	5연대	18	50
	16연대	50	55
제3사단	22연대	50	50
	23연대	28	35
제5사단	15연대	18	37
	20연대	28	32
제6사단	7연대	50	50
	8연대	63	50
	19연대*	37	43

제7사단	1연대	57	60
	9연대	46	62
	25연대*	67	60
제8사단	10연대	53	48
	21연대	27	38
수도사단	2연대	37	50
	3연대*	27	32
	18연대	37	65
육군본부	17연대*	58	68
	기갑연대	42	53

출처 :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949. 7. 1~12. 31 : Annex No. 9, Status of Training, K.A." ;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V, Status of Training, KA",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비고 : 가. 각 사단 예속부대는 1950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됨.

나. \* 표시는 부대의 소속 전환이 있었던 것을 의미함. 제19연대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에는 제7사단이었으나 1950년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됨. 제25연대는 제2사단 소속이었다가 1950년 6월 13일 '육본작명 제79호'에 따라 제7사단에 편입되었으나 6월 25일까지 신 주둔지로 이동하지 못함. 제3연대는 1949년 12월 31일 현재 제5사단, 제17연대는 수도사단 소속이었음.

#### 4) 무기 및 장비

<표 2-27> 주한미군 철수시 미국이 이관한 주요 장비 현황(1949. 6. 30. 현재)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칼빈 소총(M1)	49,107	1½톤 트럭	597
Cal.50 기관총	759	2½톤 트럭	1,380
Cal.30 경기관총	433	10톤 레커	11

Cal.30 기관총	294	칼빈 소총탄	9,747,800
Cal.30 중기관총	390	30구경 총탄	36,680,871
37mm 대전차포(M6)	56	45구경 총탄	1,864,600
57mm 무반동총(M1)	117	50구경 총탄	2,144,000
2.36 " 로켓포	150	2.36 " 로켓포탄	43,776
기관단총(M3)	1,320	총류탄(HE-AT)	170,275
105mm 곡사포	91	수류탄	125,000
60mm 박격포	417	60mm 박격포탄	350,000
81mm 박격포	284	81mm 박격포탄	265,000
총류탄발사기	8,884	105mm 곡사포탄	108,000
45구경 권총	6,844	대인 지뢰	10,000
M1 소총	41,897	네모진 폭약	42,000
30구경 자동소총	1,324	무전기	3,075
장갑차(M6)	19	유선전화기	2,102
1/2톤 궤도차량	11	각종 함정	79
1/4톤 트럭	2,000	연락항공기	20
3/4톤 트럭	884		

출처 : "Memorandum for General Bradley from L. L. Lemnitzer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Department of Army, sub. Military Aid to Korea"(1950. 7. 10), RG 330, Entry No. 18, Box 68, NARA.

비고 :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발(총·포탄), 개(지뢰, 폭약), 대(항공기, 차량, 무전기, 전화기), 척(함정).

<표 2-28> 육군의 보유 무기 및 장비 현황(1950. 6. 1. 현재)

품 목		보유 수량	가용 수량
권총	45구경(M1911, M1911A1)	4,142	4,142
	한국형	4	4
	일제 26구경	6	6
소총	칼빈소총(M1)	16,531	16,323
	M1 소총	40,377	39,025
	일제 99식 소총	16,673	11,277
	일제 38식 소총	9,435	2,728
기관총/ 자동화기 /화염방 사기	M2 기관총(Cal.50)	664	647
	M1919A4 기관총(Cal.30)	186	183
	M1919A6 기관총(Cal.30)	293	290
	M1917A1 기관총(Cal.30)	313	306
	기관단총(Cal.45, M3)	748	726
	M1918A2 자동소총	1,198	1,094
	화염방사기(M9)	495	467
무반동총 /총류탄	57mm 무반동총(M3A1)	115	112
	총류탄발사기(M7, M7A1)	7,528	7,466
	총류탄발사기(M8)	2,266	2,236
포	2.36" 로켓발사기	1,958	1,870
	60mm 박격포(M2)	390	388
	81mm 박격포(M1, M2)	272	267
	37mm 대전차포(M6)	28	28
	37mm 대전차포(M4A1)	28	28
	105mm 곡사포(M3)	91	89

대검	M1 대검	34,059	33,000
	M7 대검집	29,022	29,022
	M4 대검	16,694	15,194
	M8A1 대검집	15,194	15,194
전투차량	장갑차(M8)	27	26
	5인승 승용차	1	1
	하프트랙(M3A2)	11	10
	세미트레일러(6톤)	20	16
	세미트레일러(10톤)	4	2
	트레일러(1/4톤)	810	700
	트레일러(1톤)	1,133	800
	트레일러(1톤, 250갈론)	15	11
	트럭(1/4톤)	1,568	1,301
	트럭(3/4톤, 구급차)	36	28
	트럭(3/4톤 W/C)	675	461
	트럭(1½톤, 병력수송)	329	229
	트럭(2½톤)	1,121	831
	트럭(2½톤, 덤프)	78	69
	트럭(2½톤, 소화기수리, M7A2)	2	2
	트럭(2½톤, 기계공작, M16A1)	1	1
	트럭(2½톤, 750갈론, 급수차)	6	6
	트럭(4톤, 카고)	2	1
	트럭(4톤, 레커)	6	2
	트럭(4-5톤 트랙터)	7	7
트럭(6톤, P/M)	25	12	
트럭(10톤, 레커, M1)	12	9	

기타	쌍안경(M3)	915	685
	M1 조준경	60	60
	M1917 기관총 경사기	330	316
	메세지센터시계	15	13
	M2 기관총 삼각대	409	409
	M1917A1 기관총 삼각대	313	313
	M48 기관총거치대	506	506
	M63 기관총거치대	52	50
	M3 기관총거치대	320	320
	M23A1 포거치대(장갑차)	25	25
	Cal.50 대공포거치대(장갑차)	25	25
	차량탑재용 거치대(M31)	294	294
	차량탑재용 거치대(M24A1, M2)	191	191
	M4 박격포 조준기	711	547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비고 :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개(대검, 기타), 대(차량).

<표 2-29> 육군의 탄약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단위 : 발

품 목		보유 수량	가용 수량
소총탄	칼빈소총탄	1,965,877	1,769,289
	M1 소총탄	14,962,602	13,476,342
자동화기 및 기관총탄	자동소총탄(Cal.30 BBR)	3,083,766	2,929,578
	경기관총탄(Cal.30 LMG)	3,138,613	2,667,821

	기관총탄(Cal.45 SMG)	1,099,780	989,802
	중기관총탄(Cal.50 MG)	1,829,864	1,563,887
로켓포탄	2.36 " 로켓포탄	30,415	24,332
	2.36 " 로켓포탄(연습용)	85,728	68,583
총류탄	대전차고폭탄(HE-AT)	121,046	90,783
	백린탄(Smoke WP)	22,145	16,590
	연막탄	18,310	13,731
	연습용	62,512	46,884
	총류탄 어댑터	11,119	10,564
	칼빈용(M6)	47,716	42,945
	M3용	235,666	212,100
	M7용	16,724	9,652
	연습용 총류탄 핀조립체	118,420	112,500
수류탄	파쇄성	80,340	72,306
	조명탄	3,541	3,187
	연습용	7,004	7,004
	훈련용	4,475	4,251
	장약장착 연습용	72,053	64,848
점화장치	점화신관(M10A3)	187,980	168,182
	도폭선(M6A4)	4,495	4,045
	신호기(Signal, AC, DS)	28,687	22,950
	신호기(Signal, AC, SS)	1	...
	신호기(Signal, Ground)	10,919	8,736

지뢰	조명지뢰(M48)	5,799	5,220
	조명지뢰(M49)	11,422	10,280
37mm 대전차포탄	고폭탄(HE)	18,434	16,591
	산탄(APC-T)	9,043	8,140
	산탄통	3,677	3,310
	산탄(TP-T)	1,695	1,526
	Cartridge, Blank, 10ga.	350	350
57mm 무반동총탄	고폭약 예광탄(HE-T)	26,459	23,814
	산탄(APC-T)	12,118	10,907
	연습용탄	198	198
60mm 박격포탄	고폭탄(HE)	140,611	112,489
	백린탄(WP)	24,471	18,354
	조명탄(Illum.)	25,024	17,516
	연습탄(TP)	29,408	22,726
	훈련탄(M69)	5,200	4,160
	Fin, Shell, Trng M5	38,098	38,098
	Cartridge, Ignition, M4	26,152	23,537
81mm 박격포탄	고폭탄(HE, M43A1)	121,001	96,800
	고폭탄(HE, M56)	109,569	76,698
	백린연막탄(Smoke, WP)	32,568	26,054
	조명탄(Illum)	2,757	1,930
	연습탄(TP)	7,686	6,148
	훈련탄(M68)	3,404	2,723

	Fin, Shell, Trng M6	28,087	28,087
	Cartridge, Ignition, M6	4,687	4,215
105mm 곡사포탄	고폭탄(HE, M51A4)	52,250	49,628
	고폭탄(HE, M55A1)	34,640	32,908
	백린연막탄(Smoke, WP)	7,515	7,140
	Ammo, Blank	1,823	1,823
	Cartridge, Drill	175	175
	GP Fuze(M78)	2,831	2,547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표 2-30> 육군의 통신장비 보유 현황(1951. 6. 1. 현재)

품 목		보유 수량	가용 수량
발전기 (Power Unit)	PE-75	99	75
	PE-95	16	12
	PE-210	54	50
	일본제	4	4
라디오 수신기 (Radio Receiver)	BG-312	4	4
	BG-342	3	2
	BG-639	2	2
	BC-779-B	2	2
무선기 (Radio Set)	SCR-284	31	20
	SCR-188A	8	8

	SCR-193	92	90
	SCR-694	375	304
	SCR-506	29	24
	SCR-508	33	33
	SCR-510	26	21
	SCR-300	1,487	1,412
	SCR-536	1,708	1,410
무선송신기 (Radio Transmitter)	BC-640	2	1
	BC-329J	1	1
	T-5 FRC	2	2
Signal Generator I-72		11	9
교환대	BD-72	130	127
	BD-71	122	119
	BD-96	14	13
전화기	EE-8	3,623	3,600
	TT-6	111	104
TP Con Off Set	TC-2	4	4
	TC-4	15	15
	TC-12	3	2
유선전신기(Telegraph Set, TG-5-B)		176	176
Test Equip.	IE-9	2	1
	IE-10	1	0
	IE-29	5	3
시험기 (Test Set)	I-49	10	7
	I-51	2	0

	I-56K	72	68
	I-181	1	0
	I-193	1	0
	TS-26/TSM	35	35
	TX-27/TSM	17	13
	EE-65	27	22
Test Unit I-176		51	37
트레일러 K-36		8	8
트럭 K-43		18	11
트럭 K-44		10	6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 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표 2-31> 국군 주요 장비 및 제원(1950. 6.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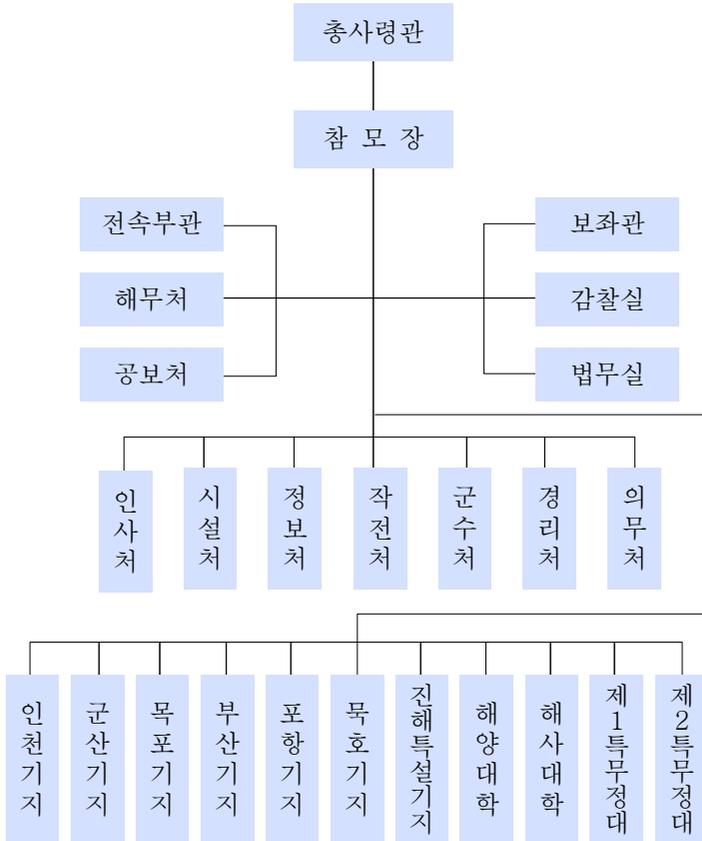
종 류	보유수	제 원
105mm 곡사포(M3)	91문	사거리 : 6,525m
81mm 박격포	384문	사거리 : 4,737m
60mm 박격포	576문	사거리 : 3,500m
57mm 무반동총	140정	유효사거리 : 3,930m
2.36 " 로켓포	1,900문	유효사거리 : 100m, 관통력 : 12.7cm
장갑차	27대	

출처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쟁』, 교학사, 1984, 327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47쪽.

## 2.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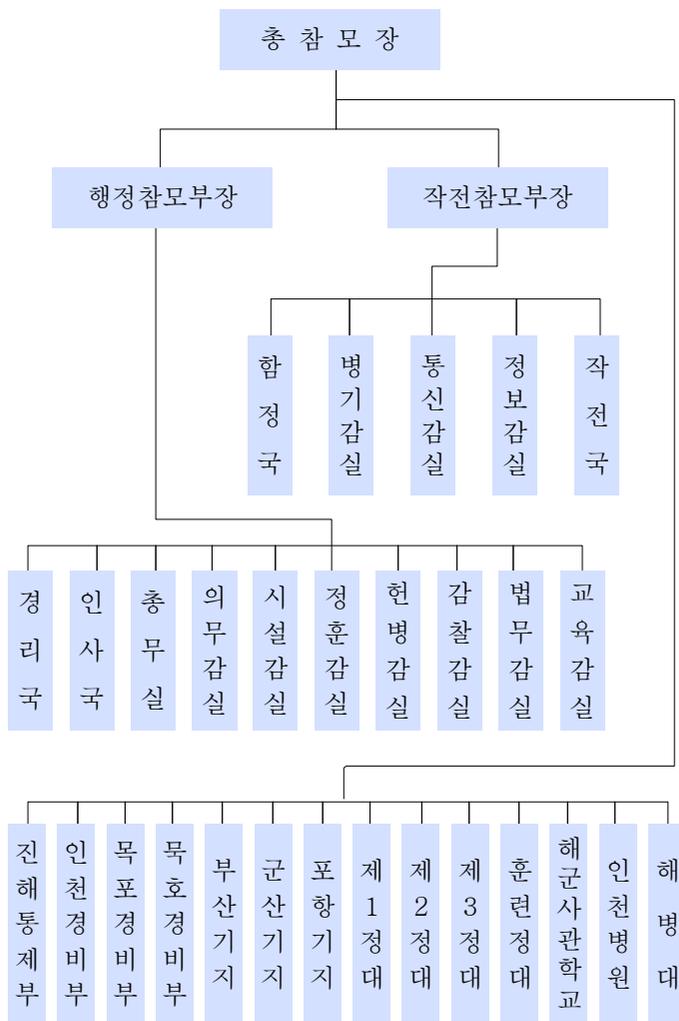
### 1) 편성

<표 2-32> 대한민국 수립 직전 조선해안경비대 조직(1948. 8. 14. 현재)<sup>18)</sup>



18)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48쪽,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31쪽 재인용. 각 기지의 창설일자는 다음과 같다. 인천기지(1946.4.15), 목포기지(1946.8.18), 목호기지(1946.8.22), 부산기지(1946.9.24), 진해특설기지(1946.10.1), 군산기지(1947.1.6), 포항기지(1947.2.8).

<표 2-33>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 조직(1950. 6. 24. 현재)<sup>19)</sup>



19)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34쪽 ;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1, 5-1쪽, 10-1쪽.

<표 2-34> 6·25전쟁 직전 해군 주요 직위자

직 책	계급	성명	비고	직 책	계급	성명	비고
해군총참모장	소장	손원일	미국출장	헌병감	소령	김태숙	
총참모장대리	대령	김영철		총무실장	대위	이축진	
인사국장	대령	김일병		진해통제부사령관	대령	김성삼	
작전국장	중령	박옥규	미국출장	진해통제부참모장	중령	김석범	
작전국장대리	소령	김용호		인천경비부사령관	중령	유해거	
경리국장	중령	김경선		군산기지사령관	소령	김종기	
함정국장	중령	이종우		목포경비부사령관	대령	정금모	
감찰감	소령	정동호		부산경비부사령관	중령	민영구	
법무감	소령	오응선		포항경비부사령관	중령	남상휘	
교육감	중령	최용남		목호경비부사령관	중령	김두찬	
정훈감	문관	송홍국		제1정대사령	중령	유해거	겸무
정보감	소령	함명수		제2정대사령	중령	김충남	
통신감	소령	한득순		제3정대사령	대령	정금모	겸무
병기감	소령	이우룡		훈련정대사령	소령	양해경	
시설감	중령	김극인		해군사관학교장	대령	김장훈	
의무감	중령	박양원		해군조합창장	중령	권태춘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721쪽.

2) 병력

<표 2-35> 1948년 해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월 일	해안경비대/해군
1948	1. 2.	2,900
	5. 14.	2,785
	5. 28.	2,911
	6. 25.	2,990
	7. 30.	3,027
	8. 20.	2,906
	8. 27.	2,906
	9. 3.	3,028
	9. 10.	3,028
	9. 17.	3,075
	9. 24.	3,013
	10. 1.	3,013
	10. 9.	3,013
	10. 23.	2,965
	10. 30.	2,906
	11. 6.	2,906
	11. 13.	2,904
	11. 20.	2,904
	11. 27.	3,491
	12. 4.	3,490
12. 11.	3,490	
12. 18.	3,469	
12. 24.	3,469	
12. 31.	3,465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48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1~2권, 영진문화사, 1993.

비고 : 1948년 8월 16일부터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불리었으나 공식적인 호칭 변경은 9월 5일 이루어짐.

<표 2-36> 1949년 해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월 일	해 군
1949	1. 8.	3,462
	1. 15.	3,399
	1. 22.	3,635
	1. 29.	3,667
	2. 5.	3,967
	2. 12.	3,987
	2. 19.	3,976
	2. 26.	4,009
	3. 5.	3,966
	3. 12.	3,957
	3. 19.	4,364
	3. 26.	4,007
	4. 2.	4,304
	4. 9.	4,042
	4. 16.	5,489(431)
	4. 23.	5,490
	4. 30.	5,481
	5. 7.	5,481
	5. 14.	5,450
	5. 21.	5,435
5. 28.	5,450	

	6. 4.	5,438
	6. 11.	5,433
	6. 24.	5,419
	7. 1.	5,417
	7. 8.	5,408
	7. 15.	5,407
	7. 22.	5,406
	7. 29.	6,732
	8. 5.	6,735
	9. 9.	6,579
	12. 16.	5,634(1,202)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No. 54~75, 1949년 ; *JOINT WEEKA*(합동주간 요약) No. 1~17, 1949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 Annex 13, Consolidated Morning Report, KA”, RG319, Entry 154, Box 162.

비고 : 가. ( )는 해병대 병력수입.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의 덕산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해병대령이 공포됨에 따라 해군의 예속부대로서 법적으로 승인됨.

나. 1949년 1월 8일~6월 4일까지는 *JOINT WEEKA*, No. 54~75의 자료이며, 6월 11일~10월 7일까지는 *JOINT WEEKA*, No. 1~17의 자료임.

다. 1949년 12월 31일 병력수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자료를 근거로 함.

<표 2-37> 1950년 해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월 일	해 군
1950	1. 27.	7,013(1,206)
	2. 10.	7,000(1,225)
	2. 17.	6,994(1,220)
	3. 9.	7,249(1,230)
	4. 14.	7,280(1,238)
	5. 5.	7,263(1,241)
	5. 12.	7,245(1,247)
	6. 25.	6,956(1,241)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50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74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722쪽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0쪽, 85쪽.

비고 : 가. 1950년 1월 27일~5월 12일까지는 *JOINT WEEKA* 자료임.

나. 1950년 6월 25일 병력수는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과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의 자료임.

다. ( )는 해병대 병력수임. 1950년 6월 25일 해병대 수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전투사』, 2012, 83쪽과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7쪽에서 1,166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 여기서는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과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의 자료를 근거로 하였음.

<표 2-38>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 부대별 병력 현황

단위 : 명

지 역	부대명	해군 병력		해병대 병력
		육상	해상	
서 울	본 부	594	-	-
진 해	통 제 부	2,830	-	-
	훈련정대	-	206	-
여 수	목포수영	206	-	-
인 천	인천경비부	195	-	-
	제1정대	-	360	-
부 산	부산경비부	209	-	-
	제2정대	-	280	-
목 포	목포경비부	139	-	-
	제3정대	-	231	-
목 호	목호경비부	195	-	-
포 향	포항경비부	209	-	-
군 산	군산경비부	61	-	-
제 주	해 병 대	-	-	1,241
계		4,638	1,077	1,241
		6,956		

출처 :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74쪽.

3) 교육·훈련

<표 2-39> 해군 간부 양성 현황(1946. 1. 17.~1950. 6. 25.)

임관 구분	기별	입교일자	졸업일자	교육기간	입교자 (명)	임관자 (명)
해군 사관 학교	1	1946. 1.17.	1947. 2. 7.	1년	113	61
	2	1947. 2. 7.	1948.12.15.	1년 10개월	86	48
	3	1947. 9.12.	1950. 2.25.	2년 5개월	136	54
	4	1948. 9. 1.	1951. 8.31.	3년	129	71
	5	1949. 3. 2.	1952. 3. 2.	3년	101	73
	소계					565
특별 교육 대	1	1948. 6.29.	1948. 7.20.	22일	74	60
	2	1948. 7.30.	1948. 8.31.	32일	66	66
	3	1948.11. 4.	1949. 1.25.	83일	27	27
	4	1949. 2. 8.	1949. 3. 8.	29일	14	14
	5	1949. 3.12.	1949. 3.25.	14일	17	17
	6	1949. 4. 7.	1949. 5. 4.	28일	19	16
	7	1949. 8.11.	1949.10.10.	62일	46	42
	8	1949.11. 1.	1950. 2. 1.	93일	68	68
	9	1950. 1.17.	1950. 4.20.	94일	98	94
	10	1950. 6. 3.	1950. 7.13.	41일	23	21
	소계					452

해병 간부 후보	1	1949. 7.15.	1950. 1. 1.	5개월 15일	30	30
	2	1950. 2.17.	1950. 8. 1.	5개월 15일	41	41
	소계				71	71
합계				1,088	803	

출처 :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1996, 34~76쪽.

비고 : 가. 해군사관학교 4·5기, 특별교육대 10기, 해병간부후보 2기 생도들은 6·25전쟁 발발 당시 교육 중이었음.

나. 해군사관학교는 해군병학교(1946. 1. 17.)로 출발하여 조선해안경비대사관학교(1946. 6. 15.), 해안경비대학(1946. 8. 10.), 해사대학(1947. 8. 14.), 해군대학(1948. 11. 16.) 등으로 호칭되다가, 1949년 1월 15일 해군관학교로 개칭됨.

다. 해병간부후보생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음.

라. 합계에는 특별입관자 제외.

<표 2-40> 해군 신병 교육 현황(1946. 2. 15.~1950. 6. 25.)

기별	입교일자	수료일자	교육기간(일)	입교인원(명)	수료인원(명)
1	1946. 2.15.	1946. 6. 1.	110	705	705
2	1946. 5.27.	1946. 9.20.	117	72	50
3	1946. 9.25.	1946.11.15.	52	73	67
4	1946.12.13.	1947. 1.14.	33	127	127
5	1947. 1.15.	1947. 2.28.	45	350	347
6	1947. 4. 2.	1947. 5.10.	39	352	318
7	1947. 5.15.	1947. 6.13.	30	605	581
8	1947. 7. 1.	1947. 8.28.	59	456	434
9	1948. 1.20.	1948. 4. 6.	87	160	159
10	1948. 5.27.	1948. 8.20.	86	235	235
11	1948. 9.13.	1948.11.20.	69	590	575
12	1949. 1.17.	1949. 3.17.	60	531	507

13	1949. 3.31.	1949. 7. 2.	94	1,217	1,201 *
14	1949. 7.20.	1949.10.20.	93	945	923
15	1949.12.31.	1950. 2.27.	59	228	218
16	1950. 3. 1.	1950. 6.13.	105	426	417
합계				7,072	6,864

출처 :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군교육사 60년사(1946~2006)』, 2006, 40~41쪽.  
 비고 : \* 해병 신병 1기로 300명 차출.

#### 4) 무기 및 장비

<표 2-41> 6·25전쟁 발발 직전 해군함정의 배치 현황

정대	지역	함형	함정명	계 (척)
			선체번호(함정명)	
제 1 정대	인천	JMS (소해정)	302(통영), 307(단천)	7
		YMS (소해정)	501(금강산), 502(경주), 503(광주), 513(김천)	
		PG (경비정)	313(제1충무공)	
제 2 정대	부산	JMS (소해정)	304(태백산), 305(두만강), 306(단양)	7
		YMS (소해정)	506(강계), 509(가평), 510(강경), 516(공주)	
제 3 정대	목포	JMS (소해정)	301(대전), 303(대구), 309(대동강), 310(덕천)	6
		YMS (소해정)	505(김해), 514(길주)	

훈 련 정 대	여수	LCI (상륙정)	105(청진)	8
		YMS (소해정)	504(개성), 507(강릉), 512(구월산)	
	진해	YMS (소해정)	515(운남), 518(고성)	
		JMS (소해정)	308(토성)	
		PC (구잠함)	701(백두산)	
진 해 통 제 부	진해	PC (구잠함)	702(금강산), 703(삼각산), 704(지리산)	8
		LST (상륙함)	801(천안)	
		AKL (수송함)	901(부산)	
		YO (유조정)	1(구룡)	
		GB (항만정)	21, 22	
총 함정수				36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722쪽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9쪽, 533~534쪽.

비고 : PC 702, 703, 704는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1950년 5월 27일 인수했기 때문에 해군전력에 포함시켰으며, 당시 어느 정대에도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진해통제부 전력에 포함시켰음.

<표 2-42> 경비기지별 해군의 육상 및 해상경비구역 현황

구분	육상경비	해상경비구역
인천경비부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 해상
군산기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충청남도 해상
목포경비부	전라남도 장성, 담양, 광주부, 광산, 화순, 나주, 영광, 함평, 영암, 목포부, 무안, 해남, 진도	전라남도 영광·함평·목포부·무안·해남·영암·진도 해상
여수수영	전라남도 곡성, 구례, 광양,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완도, 고흥, 여수	전라남도 광양·여수·순천·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 해상
제주수영	제주도	제주도 해상
부산경비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해상
포항경비부	경상북도	경상북도 해상
목호경비부	강원도	강원도 해상

출처 :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대한민국 해군사 : 행정편』 제1집, 1954, 94쪽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8쪽.

비고 : 경비기지별 육상 및 해상구역은 1949년 5월 7일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100호 해군기지 설치령 제6조에 근거함.

<표 2-43> 대한민국 해군 함정유형별 제원 현황

종별	제원					장비(포)			
	총톤수 (경하)	전장 (ft)	전폭 (ft)	마력	속력 (노트)	20mm	37mm	40mm	3인치
JMS	156	125.0	18.0	800	13	-	1	-	-
YMS	270	136.0	25.0	1,000	12	-	1	-	-
PG	225	153.0	22.0	800	12		1		-

PC	701-704	280	173.8	23.0	3,600	18	-	-	-	1
	705-706	280	173.8	23.0	3,600	18	4	-	1	1
PF	61-66	1,430	304.0	37.6	5,500	18	9	-	2	3

출처 : 대한민국 『함적부』 I, II, III ;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1950. 6. 25.~1950. 10. 31.)』,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 2005, 723쪽 재인용.

비고 : 가. 장비(포) 재원은 단열과 쌍열포 미구분함.

나. JMS/YMS/PC-701·702·703·704함은 인수 또는 구매시 포가 제거된 상태였으나 인수 또는 구매 후 한국 해군이 포를 설치하였음.

다. PC-705·706, PF함은 전쟁 발발 후 인수한 것으로 건조 당시의 무장상태였음.

<표 2-44> 해군의 지상군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품 목	보유 수량	가용 수량
칼빈소총(M1)	2,747	2,723
M2 기관총(Cal.50)	100	98
M1919A6 기관총(Cal.30)	32	31
57mm 무반동총(M3A1)	2	2
37mm 전차포(M6)	35	32
기관단총(Cal.45, M3)	151	151
2.36" 로켓발사기	10	10
60mm 박격포(M2)	3	3
81mm 박격포(M1, M2)	2	2
45구경 권총(M1911, M1911A1)	418	418
M1 소총	1	1
37mm 대전차포	35	35
트럭(1/4톤)	61	58

트럭(3/4톤, 구급차)	4	3
트럭(3/4톤 W/C)	39	31
트럭(1½톤, 병력수송)	18	12
트럭(2½톤)	27	20
트럭(2½톤, 750갈론, 급수차)	2	2
일제 99식소총	2,230	1,882
일제 38식소총	58	50
일제 25mm 기관총	8	1
일제 13mm 기관총	16	2
일제 92중기관총	8	8
일제 44구경 권총	9	3
일제 26구경 권총	2	2
일제 승용차	1	1
일제 각종 트럭	6	3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비고 : 단위는 정(총기류), 문(포), 대(차량).

<표 2-45> 해군의 지상무기 탄약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품 목	보유수량	가용 수량
칼빈소총탄	424,903	382,413
M1 소총탄	2,910	2,620
경기관총탄(Cal.30 LMG)	342,776	291,361
기관단총탄(Cal.45 SMG)	31,180	28,062

중기관총탄(Cal.50 MG)	116,814	99,292
2.36 " 로켓포탄	78	...
수류탄(파쇄성)	977	880
37mm 대전차포탄(HE)	9,655	8,690
57mm 무반동총탄(HE-T)	114	114
60mm 박격포탄(HE)	919	729
81mm 박격포탄(HE, M43A1)	321	276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표 2-46> 해군의 통신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품 목		보 유	사 용
발전기 (Power Unit)	PE-210	4	4
	PE-275	8	6
	일본식	16	8
라디오 수신기 (Radio Receiver)	BG-312	16	8
	BG-314	1	1
	BG-344	1	1
	BG-348	6	3
	BG-653	1	1
	BG-652	2	2
	BC-779-B	1	1
	RGA	16	16
	JAP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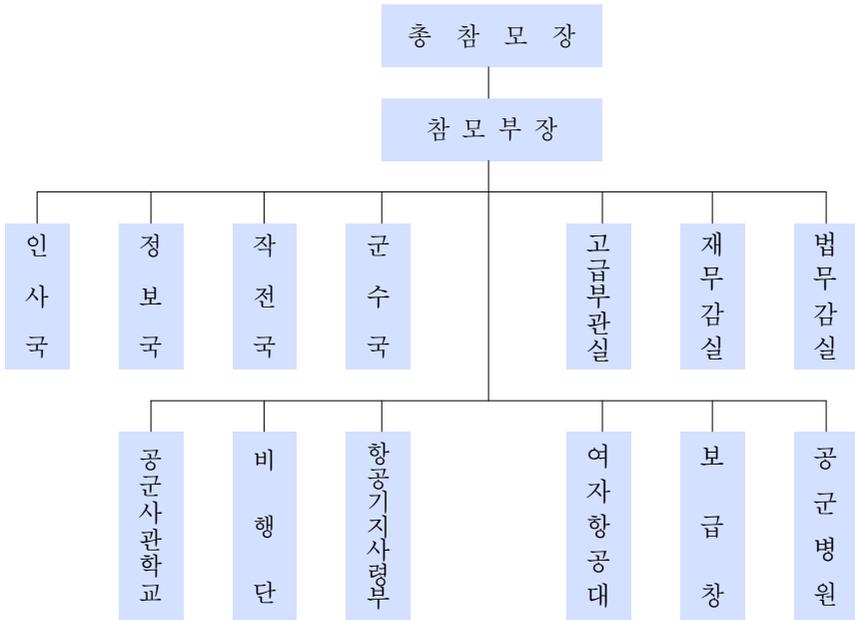
무선기 (Radio Set)	SCR-694	16	2
	TCS	29	14
무선송신기 (Radio Transmitter)	BC-191	16	4
	75W	13	13
	Jap	13	5
	KN2-82	3	1
	TCP	8	2
송수신기(Transceiver)		6	4
아날로그 회로시험기 (Circuit Tester AC)		2	2
교환대	BD-72	1	1
	BD-71	1	1
	BD-96	1	1
전화기	EE-8	220	220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 3. 공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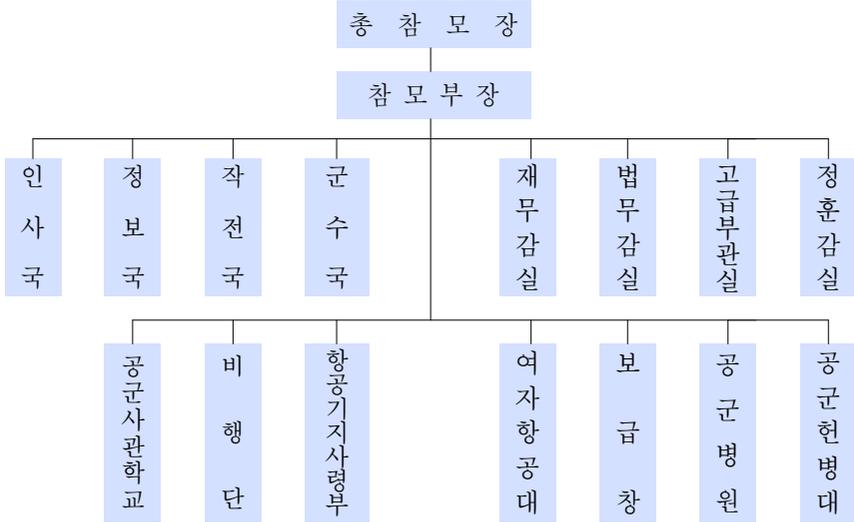
#### 1) 편성

<표 2-47> 공군 독립 당시의 편성표(1949. 10. 1. 현재)<sup>20)</sup>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5, 387쪽.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에 의거하여 육군에서 분리 독립하였다.

<표 2-48> 6·25전쟁 발발 당시 공군 편성표(1950. 6. 25. 현재)<sup>21)</sup>



<표 2-49> 공군 주요 직위자(6·25전쟁 발발 직전)

직책	계급	성명	직책	계급	성명
공군총참모장	준장	김정렬	정훈감	대위	김기완
참모부장	대령	박범집	비행단장	대령	이근석
인사국장	소령	한용현	공군사관학교장	준장	최용덕
정보국장	소령	김형진	항공기지사령관	대령	장덕창
작전국장	중령	김신	보급창장	대위	서현규
군수국장	소령	박두선	공군병원장	중위	장덕승
재무감	소령	이월준	헌병대장	소령	김득룡
법무감	대위	이성춘	여자항공대장	대위	이정희
고급부관	소령	한해남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개정판), 2010, 75쪽.

21)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개정판), 2010, 75쪽. 정훈감실은 1950년 4월 1일, 공군헌병대는 1950년 1월 5일 창설되었다.

## 2) 병력

<표 2-50> 1949~1950년 공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도	월일	병력			
		장교	사병	후보생	합계
1949	10. 1.	143	1,376	97	1,616
	11. 23.	151	1,382	91	1,624
	12. 31.	152	1,390	91	1,633
1950	5. 18.	234	1,545	386	2,165
	6. 9.	234	1,545	86	1,892
	6. 16.	238	1,569	85	1,898
	6. 25.	242	1,570	85	1,897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개정판), 2010, 532~533쪽.  
 ‘Transmitting Official Request from President Rhee for United States Air Assista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from the American Embassy(1950. 12. 7)”, RG 330, Entry No. 18, Box 68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27쪽, RG 330, Entry No. 18, Box 68.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No. 20, 23, 24, 1950년.

비고 : 가. 1949년 11월 23일 병력수는 주한미대사가 국무장관에 보낸 비망록에 포함된 자료이며, 12월 31일 병력수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자료를 근거로 함.

나. 1950년도 병력수는 *JOINT WEEKA* 자료를 근거로 함..

다. 1949년 10월 1일과 1950년 6월 25일의 병력수는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을 근거로 함.

<표 2-51> 항공병 선발 현황

구 분	입대일	인원(명)	비 고
항공병 1기	1948. 7.12.	78	
항공병 2기	1948. 9.18.	398	
항공병 3기	1949. 2.15.	326	
항공병 4기	1949. 6.13.	340	
항공병 5기	1949. 8. 9.	252	항공병 5기 1차
항공병 6기	1949. 8.24.	229	항공병 5기 2차
합계		1,623	

출처 :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 2001, No. 2, No. 3, No. 6, No. 7, No. 8, No. 9.

### 3) 무기 및 장비

<표 2-52> 6·25전쟁 발발 당시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및 제원

기종	수량	성능 및 무장		
		성능		무장
T-6	10대	최대속도(km/h)	330	7.76mm기총 2문
		최대상승고도(m)	24,750	
		항속거리(km)	1,398	
L-5	4대	최대속도(km/h)	209	-
		최대상승고도(m)	4,755	
		항속거리(km)	667	
L-4	8대	최대속도(km/h)	137	-
		최대상승고도(m)	2,835	
		항속거리(km)	463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전투』 ②, 751쪽 ; 공군본부,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개정판), 2010, 676, 678쪽.

<표 2-53> 공군의 지상군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품 목	보유 수량	가용 수량
칼빈소총(M1)	100	98
기관단총(Cal.45, M3)	4	4
45구경 권총(M1911, M1911A1)	43	43
일제 99식 소총	200	180
일제 38식 소총	100	90
2.36" 로켓포발사기	28	28
트레일러(1/4톤)	8	8
트레일러(1톤)	16	16
트럭(1/4톤)	17	17
트럭(3/4톤, 구급차)	1	1
트럭(3/4톤 W/C)	14	14
트럭(2½톤)	25	25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비고 : 단위는 정(소총류), 문(로켓포), 대(차량).

<표 2-54> 6·25전쟁 발발 직전 남한지역 주요 비행장 현황

단위 : 피트

비행장	활주로(길이, 폭)	상태	시 설
김 포	6,200' × 150', 아스팔트 3,600' × 150', 콘크리트	양호	격납고, 유류저장소
여의도	5,700' × 100', 아스팔트	양호	격납고, 유류저장소
수 원	5,200' × 200', 콘크리트	보통	격납고
군 산	2,750' × 300', 잔디	불량	-
대 구	4,800' × 150', 흙, 자갈	보통	격납고
광 주	3,300' × 150', 자갈	불량	-
김 해	4,850' × 150', 콘크리트	불량	-
포 향	4,500' × 150', 콘크리트	불량	-

출처 :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2002, 85쪽.

비고 : 평택, 대전, 강릉, 진해, 제주, 모슬포, 전주, 사천, 울산, 수영 등에도 일제시기에 사용하던 비행장이 있었으나 관리소홀로 6·25전쟁 발발 당시 비행장 활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음.

## 제2 절 전쟁기간 국군의 병력·훈련·무기 현황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붕괴된 국군은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계속적으로 병력 재정비와 보충을 통해 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개전 초기 부대의 편성과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후퇴한 국군 부대는 춘천의 제6사단과 강릉의 제8사단뿐이었다. 국군은 후퇴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병력 충원을 시도하는 한편,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로 무장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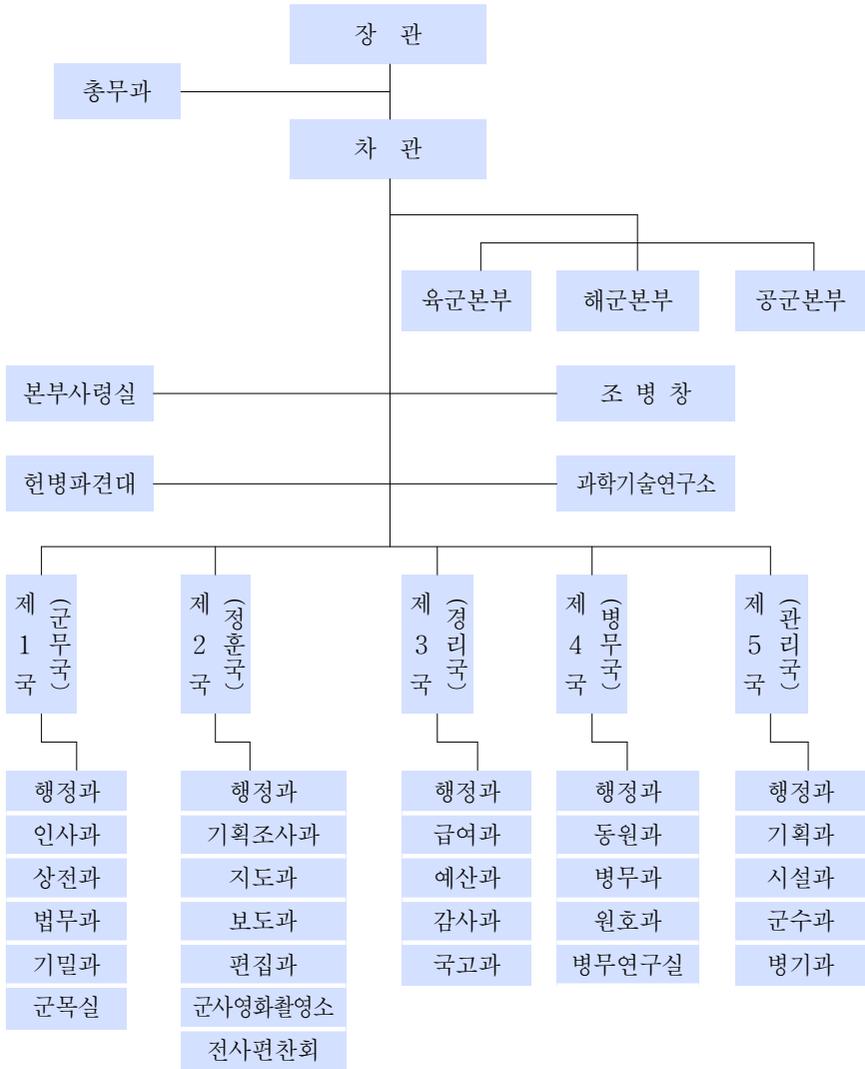
정부도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서 대미·대유엔 외교활동에 주력하면서 전시하의 국민총력체제를 갖추는 데 주력하였다. 유엔이 유엔군의 참전을 결정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설치를 공식화하자 한국정부는 전시하의 정책적 조치로서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후방지역의 치안확보, 국민방위군 창설, 학생군사훈련의 실시, 여자의용군의 창설, 군수산업시설의 확충 등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또 모병제도의 개선을 통해 항구적인 병력충원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했다.<sup>22)</sup> 국방기구의 개편과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은 이러한 노력의 과정인 동시에 결과물이었다.

육군은 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극한상황에 이르기도 했지만 인적·물적인 손실을 보충하면서 병력과 장비의 급속한 증강을 도모하고 우방국의 지원을 받아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그후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작전과 북진작전 그리고 38도선 부근의 고지쟁탈전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하여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전선의 절반 이상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전 당시 8개 사단이었던 육군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18개 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497,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22) 국방부, 『국방사』 ②, 1987, 55~57쪽.

<표 2-55> 국방부 기구표(1952. 11. 1. 현재)<sup>23)</sup>



23) 국방부, 『국방사』 ②, 1987, 92쪽.

<표 2-56> 6·25전쟁 기간 국방부 주요 직위자 일람

구분	역대	성명	취임일자
장관	제1대	이범석	1948. 8.15.
	제2대	신성모	1949. 3.20.
	제3대	이기봉	1951. 5. 7.
	제4대	신태영	1952. 3.29.
	제5대	손원일	1953. 6.30.
차관	제1대	최용덕	1948. 8.20.
	제2대	장경근	1950. 5.14.
	제3대	김일환	1951. 6.23.
제1국장	제1대	신태영	1948. 8.15.
	제2대	이종찬	1949. 8.10.
	제3대	손성겸	1950. 6.16.
	제4대	최경록	1952. 1.22.
	제5대	이준식	1952. 9. 1.
제2국장	제1대	송면수	1948.12.26.
	제2대	강세형	1949. 10.
	제3대	이종찬	1950. 1.
	제4대	이선근	1950. 2.
	제5대	이한림	1952. 1. 9.
	제6대	임대순	1952. 5.27.
	제7대	최영희	1952. 6.26.
	제8대	안동준	1952. 8. 9.
	제9대	김완용	1953.11. 9.

제3국장	제1대	김일환	...
	제2대	강영훈	...
	제3대	김종오	...
제4국장	제1대	백홍석	1951. 8.28.
	제2대	박승훈	1952. 4.15.
	제3대	장 흥	1953. 7.31.
제5국장	제1대	강영훈	1952. 3.19.
	제2대	정운환	1952. 4.15.
병기행정본부장	제1대	채병덕	1949.12.15.
	제2대	이중찬	1950. 4.
	제3대	채병덕	1950. 5.
	제4대(대리)	김창규	1950. 8.
	제5대	이중찬	1950.11.30.
	제6대	심언봉	1951. 6.22.
	제7대	강영훈	1952. 1.22.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사』 제1집, 1954, 161·163·168·171·174·178·204·215·216·229·245·246·255쪽 ;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대계』 I, 1955, A26~A27쪽.

- 비고 : 가. 국방부 창설 당시 제3국은 관리국으로 예산과 군수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였으나 1952년 2월 4일부로 제3국이 경리국으로 변경되어 예산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고, 군수 관련 업무는 병기행정본부에 이관되었음.
- 나. 제5국(관리국)은 1952년 3월 19일 병기행정본부의 기능을 흡수하여 창설되었으며, 제1대 국장은 병기행정본부장이 맡음.
- 다. 국방부 창설 당시 제4국은 정보국으로 편성되었으나, 1949년 5월 9일부로 제4국(정보국)이 폐지되고, 국방부 제4국(정보국)의 기능이 각 군 정보국으로 이관되었음. 이후 1951년 8월 14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38호’에 의거하여 제4국(병무국)이 신설됨.
- 라.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6·25전쟁 발발 전까지의 국방부 주요 직위자도 포함하였음.

해군은 전쟁발발 당시 4개 정대로써 작전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전쟁 말기에는 6개 정대를 기간으로 하는 1개 함대로 성장하였고 병력도 개전 초기 6,956명(해병대 1,241명 포함)에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42,362명(해병대 27,500명 포함)으로 증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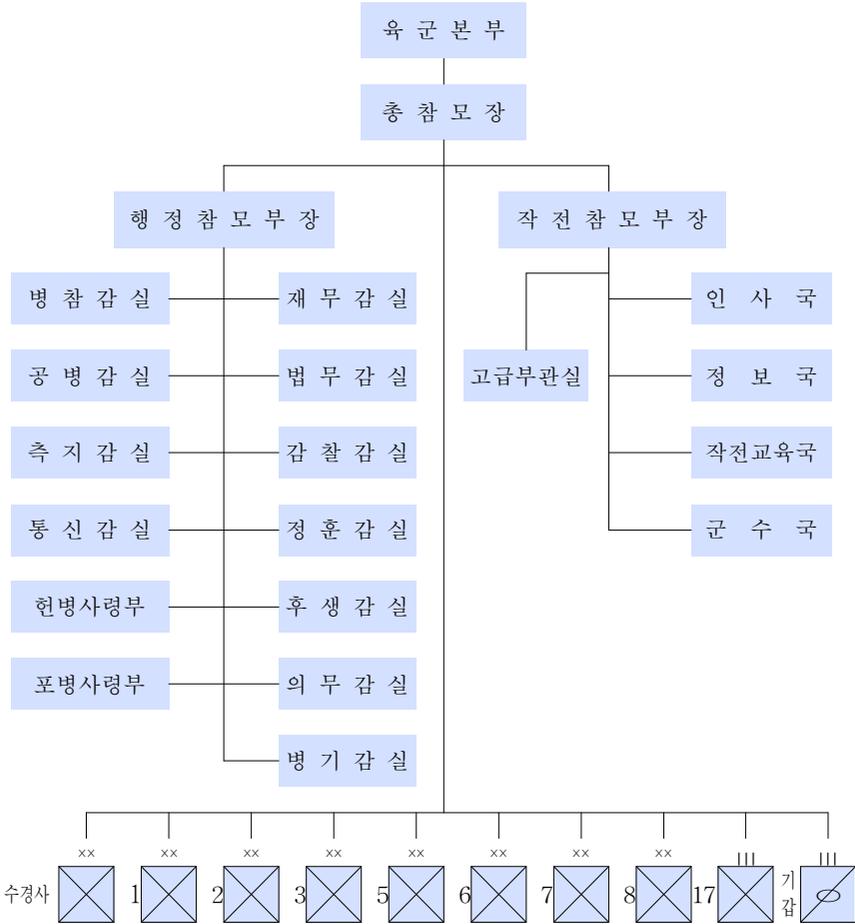
공군은 개전 당시 소규모의 비행단 체제로서 연락기와 연습기 등 소형 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2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 1,897명에서 1953년 6월 30일에 11,481명으로 증가하였다.

국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인명손실과 각급 제대의 증·창설을 위하여 계속해서 병력을 보충하였는데, 각 군별 총 보충 병력은 육군이 71만 8천여 명, 해군(해병대 포함)이 3만 7천여 명, 그리고 공군이 1만 3천여 명으로 총 77만여 명이였다.

# 1. 육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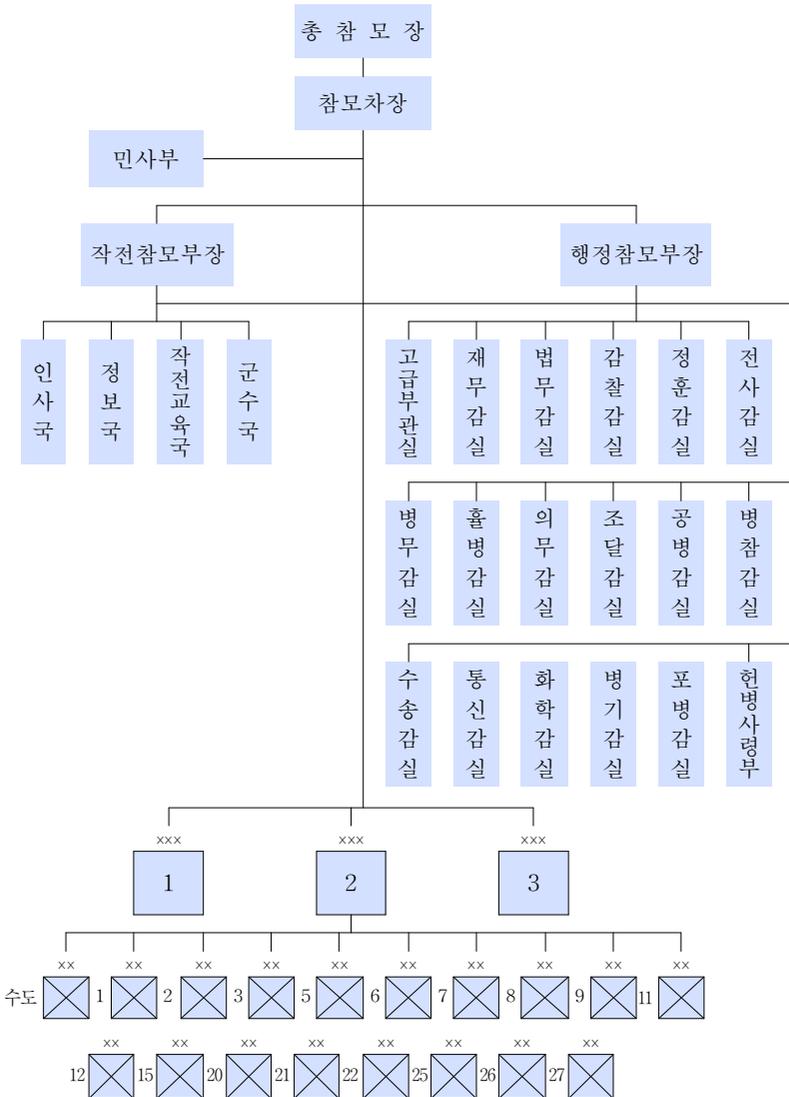
## 1) 편성

<표 2-57> 육군 편성표(1950. 6. 25. 현재)<sup>24)</sup>



24) 국방부, 『국방사』 ②, 1987, 111쪽.

<표 2-58> 육군 편성표(1953. 7. 27. 현재)<sup>25)</sup>



25) 국방부, 『국방사』 ②, 1987, 121쪽.

<표 2-59> 6·25전쟁 기간 육군본부 주요 직위자 일람

구 분	역대	계급	성 명	부임일자
육군총참모장	제4대	소장	채병덕	1950. 4. 10.
	제5대	소장	정일권	1950. 6. 30.
	제6대	소장	이종찬	1951. 6. 23.
	제7대	중장	백선엽	1952. 7. 23.
작전참모부장	제3대(대리)	준장	김백일	1950. 4. 22.
	제3대	준장	김백일	1950. 7. 20.
	제4대	대령	유승렬	1950. 8. 26.
	제5대	소장	유재홍	1950. 10. 24.
행정참모부장	3대	준장	정일권	1949. 11. 28.
	제4대(대리)	준장	양국진	1951. 5. 26.
	제4대	준장	양국진	1951. 6. 2.
	제5대	소장	신용균	1952. 11. 2.
	제6대	소장	이준식	1953. 8. 5.
민사부장	초대	대령	이지형	1950. 7. 10.
	제2대	대령	이 호	1950. 10. 21.
	제3대	준장	김근배	1953. 11. 18.
인사국장	제6대	대령	신상철	1950. 6. 10.
	제7대	대령	황헌친	1950. 7. 20.
	제8대	준장	오덕준	1951. 2. 15.
	제9대	준장	김종오	1951. 5. 26.
	제10대	준장	김용배	1952. 5. 30.
	제11대	준장	김점곤	1953. 2. 15.
	제12대	소장	강영훈	1953. 6. 26.

정보국장	제4대	대령	장도영	1949. 11. 13.
	제5대	준장	백인엽	1950. 10. 24.
	제6대	준장	이한림	1951. 1. 14.
	제7대(대리)	대령	이후락	1951. 4. 6.
	제7대	준장	김종평	1951. 4. 19.
	제8대	준장	김형일	1952. 8. 18.
	제9대(대리)	대령	김재현	1953. 5. 9.
	제9대	소장	석주암	1953. 8. 19.
작전교육국장	제4대	대령	장창국	1950. 6. 10.
	제5대	준장	강문봉	1950. 9. 1.
	제6대	준장	이한림	1951. 4. 6.
	제7대	준장	이용문	1951. 7. 22.
	제8대	소장	장창국	1952. 8. 1.
	제9대(대리)	대령	최갑중	1953. 5. 14.
	제9대	소장	최 석	1953. 9. 28.
군수국장	제5대	대령	양국진	1949. 1. 3.
	제6대	준장	강영훈	1951. 5. 26.
	제7대	준장	김형일	1951. 7. 22.
	제8대	준장	정진완	1951. 12. 9.
	제9대(대리)	대령	백성진	1952. 4. 15.
	제9대	준장	백성진	1952. 8. 1.
	제10대(대리)	대령	황 열	1953. 5. 9.
	제10대	소장	안춘생	1953. 9. 23.
고급부관	제3대	중령	최경만	1950. 4. 22.
	제4대	대령	최덕신	1950. 9. 13.

	제5대	대령	최경만	1950. 9. 25.
	제6대	대령	오덕준	1950. 10. 14.
	제7대(대리)	중령	김청경	1950. 11. 12.
	제7대	준장	최경록	1951. 1. 10.
	제8대	중령	김청경	1951. 1. 14.
	제9대	대령	민병권	1951. 10. 11.
	제10대	중령	안광호	1951. 12. 9.
	제11대(대리)	중령	방 희	1952. 6. 1.
	제11대	대령	민병권	1952. 6. 20.
	제12대	준장	이정석	1953. 8. 19.
재무감	제3대	중령	정만기	1950. 2. 15.
	제4대	대령	원태섭	1950. 7. 10.
	제5대	대령	이 효	1952. 9. 1.
	제6대	대령	신영식	1955. 10. 18.
감찰감	제3대	준장	안춘생	1949. 1. 7.
	제4대	준장	유홍수	1951. 10. 21.
	제5대	준장	안춘생	1952. 11. 10.
	제6대	준장	유홍수	1953. 9. 23.
법무감	제3대	대령	양정수	1950. 6. 19.
	제4대	대령	이지형	1951. 3. 24.
	제5대	준장	이 효	1951. 5. 15.
	제6대	준장	손성겸	1952. 2. 5.
	제7대	준장	김완용	1954. 4. 25.
병무감	초대	준장	김정호	1951. 11. 1.
	제2대	소장	백홍석	1951. 8. 15.
	제3대	준장	장 흥	1954. 7. 10.

헌병사령관	제6대	대령	송요찬	1950. 4. 18.
	제7대	대령	장창국	1950. 9. 1.
	제8대	준장	최경록	1951. 1. 14.
	제9대	준장	심언봉	1952. 1. 25.
	제10대	소장	석주암	1952. 9. 20.
	제11대	준장	임충식	1953. 8. 18.
정훈감	제2대	대령	문용채	1950. 4. 5.
	제2대(대리)	대령	문이정	1950. 11. 20.
	제3대	준장	박영준	1950. 11. 25.
	제4대	준장	김천경	1954. 7. 6.
전사감	초대(대리)	중령	방원철	1951. 2. 16.
	초대	대령	이지형	1951. 3. 1.
	제2대(대리)	중령	박원철	1951. 3. 24.
	제2대	대령	석주암	1951. 5. 1.
	제3대	대령	박병권	1951. 6. 30.
	제4대(대리)	중령	주 격	1951. 8. 15.
	제4대	대령	이형석	1951. 8. 20.
	제5대	대령	문용채	1952. 2. 27.
	제6대(대리)	중령	신명헌	1952. 5. 5.
	제6대	중령	최갑중	1952. 6. 20.
	제7대	대령	문용채	1952. 11. 20.
	제8대(대리)	대령	차호성	1953. 5. 20.
제8대	대령	이지형	1953. 7. 15.	
홀병감	제2대	중령	장호진	1950. 6. 10.
	제3대	대령	장석운	1951. 3. 1.

	제4대	대령	김병길	1952. 6. 20.
	제5대	대령	김종관	1953. 9. 10.
조달감	초대	중령	김상복	1950. 5. 1.
	제2대	대령	장호진	1951. 12. 9.
	제3대	대령	윤수형	1953. 2. 1.
	제4대	준장	박영준	1954. 7. 6.
병참감	제3대	중령	윤수현	1950. 2. 5.
	제4대	대령	이 호	1951. 9. 11.
	제5대	준장	이후락	1952. 9. 1.
	제6대	준장	백선진	1954. 9. 6.
수송감	초대(대리)	소령	이창혁	1951. 1. 30.
	제2대	대령	민병권	1951. 2. 27.
	제3대	대령	이치업	1951. 3. 1.
	제4대	대령	이정석	1951. 6. 30.
	제5대	준장	이치업	1951. 12. 30.
	제6대	준장	이정석	1954. 6. 10.
통신감	제3대	중령	정진완	1949. 1. 3.
	제4대	대령	조용천	1951. 12. 9.
	제5대	준장	한당욱	1954. 4. 28.
병기감	제4대	대령	심언봉	1950. 6. 10.
	제5대	대령	안동준	1950. 10. 26.
	제6대	준장	황 엽	1955. 2. 20.
공병감	제2대	중령	최창식	1949. 6. 20.
	제3대	대령	엄홍섭	1950. 8. 30.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279~344쪽 ;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 역사』, 1959, 67~236쪽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331~360쪽.

<표 2-60> 6·25전쟁 기간 군단·사단 증·창설 현황(1950. 6. 25.~1953. 7. 27.)

구 분	창설일	창설지	지휘관
제1군단	1950. 7. 5.	경기 평택	소장 김홍일
제2군단	1950. 7.15.	경북 함창	준장 김백일
제3군단	1950.10.16.	서울	준장 이형근
제9사단	1950.10.25.	서울	준장 장도영
제11사단	1950. 8.27.	경북 영천	대령 최덕신
제12사단	1952.11. 8.	강원 양양	준장 윤춘근
제15사단	1952.11. 8.	강원 양양	준장 이정석
제20사단	1953. 2. 9.	강원 양양	준장 유흥수
제21사단	1953. 2. 9.	강원 양양	소장 민기식
제22사단	1953. 4.21.	강원 양양	준장 박기병
제25사단	1953. 4.21.	강원 양양	준장 문용채
제26사단	1953. 6.18.	충남 논산	준장 이명재
제27사단	1953. 6.15.	전남 광주	준장 이형석

출처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360쪽.

비고 : 가. 제2군단은 1951년 1월 10일 대전에서 해체되었다가 1952년 4월 5일 강원도 화천에서 재창설됨.

나. 제3군단은 1951년 5월 26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해체되었다가 1953년 5월 1일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에서 재창설됨.

<표 2-61> 육군 군단장 및 사단장(1950. 6. 25.~1953. 7. 27.)

구분	역대	계급	성명	부임일자
제1군단	초대	소장	김홍일	1950. 7. 5.
	제2대	소장	김백일	1950. 9. 1.
	제3대	소장	백선엽	1951. 4. 7.
	제4대	중장	이형근	1952. 2. 2.
제2군단	초대	준장	김백일	1950. 7. 12.
	제2대	준장	유재홍	1950. 7. 20.
	제3대	준장	백선엽	1950. 10. 24.
	제4대	소장	유재홍	1950. 12. 8.
	제5대	중장	백선엽	1952. 4. 5.
	제6대	중장	유재홍	1952. 7. 23.
	제7대	중장	정일권	1953. 2. 3.
제3군단	초대	준장	이형근	1950. 10. 24.
	제2대	소장	유재홍	1951. 1. 9.
	제3대	소장	강문봉	1953. 5. 1.
수도사단	제2대	대령	이종찬	1950. 6. 10.
	제3대	준장	이준식	1950. 7. 5.
	제4대	준장	김석원	1950. 7. 7.
	제5대	대령	백인엽	1950. 8. 7.
	제6대	대령	송요찬	1950. 9. 1.
	제7대	준장	이용문	1952. 7. 30.
	제8대	소장	송요찬	1952. 10. 10.
제1사단	제5대	대령	백선엽	1950. 4. 22.
	제6대	준장	최영희	1950. 10. 24.

	제7대	준장	백선엽	1950. 12. 8.
	제8대	준장	강문봉	1951. 4. 6.
	제9대	준장	박임항	1951. 7. 4.
	제10대	준장	김동빈	1953. 5. 5.
제2사단	제5대	준장	이형근	1950. 6. 10.
	제6대	대령	이한립	1950. 7. 1.
	제7대	준장	함병선	1950. 11. 6.
	제8대	중장	정일권	1952. 7. 29.
	제9대	소장	강문봉	1952. 10. 31.
	제10대	준장	김용수	1953. 4. 22.
제3사단	제5대	대령	유승렬	1950. 4. 22.
	제6대	준장	이준식	1950. 7. 10.
	제7대	준장	김석원	1950. 8. 7.
	제8대	대령	이종찬	1950. 9. 1.
	제9대	준장	최 석	1950. 11. 12.
	제10대	준장	김종오	1951. 3. 17.
	제11대	준장	백남권	1951. 5. 23.
	제12대	준장	임선하	1952. 10. 10.
제5사단	제6대	소장	이용준	1950. 4. 21.
	제7대	대령	이형석	1950. 7. 5.
	제8대	대령	민기식	1950. 10. 8.
	대리	대령	임부택	1951. 11. 7.
	제9대	준장	장창국	1952. 1. 31.
	제10대	준장	김종갑	1952. 8. 1.
	제11대	준장	최홍희	1953. 5. 4.

	제12대	소장	김종갑	1953. 6. 15.
	제13대	소장	박병권	1953. 6. 29.
	제14대	소장	장도영	1953. 7. 16.
제6사단	제5대	대령	김중오	1950. 6. 10.
	제6대	준장	장도영	1950. 10. 31.
	제7대	준장	백인엽	1952. 1. 10.
	대리	대령	김용주	1953. 5. 9.
	제8대	준장	김점곤	1953. 7. 5.
제7사단	제2대	준장	유재홍	1950. 6. 20.
	제3대	대령	민기식	1950. 7. 5.
	제4대	대령	신상철	1950. 7. 20.
	제5대	준장	김형일	1950. 12. 19.
	제6대	대령	김용배	1951. 5. 23.
	제7대	준장	이성가	1951. 9. 1.
	제8대	준장	임충식	1952. 9. 2.
	제9대	준장	김용배	1953. 2. 10.
제8사단	제2대	대령	이성가	1950. 6. 23.
	제3대	대령	최덕신	1950. 8. 4.
	제4대	준장	이성가	1950. 8. 25.
	제5대	준장	최영희	1950. 12. 15.
	제6대	준장	이형석	1952. 4. 15.
	제7대	준장	김익렬	1952. 5. 30.
	제8대	준장	이명재	1953. 5. 21.
	제9대	소장	송요찬	1953. 6. 16.
제9사단	초대	준장	장도영	1950. 10. 25.
	제2대	준장	김중오	1950. 10. 31.

	제3대	준장	오덕준	1950. 11. 12.
	제4대	준장	김종갑	1950. 12. 30.
	제5대	준장	이성가	1951. 3. 3.
	제6대	준장	최 석	1951. 4. 27.
	제7대	준장	박병권	1951. 8. 15.
	제8대	준장	김종오	1952. 5. 30.
	제9대	준장	김점곤	1952. 10. 26.
	제10대	준장	이환립	1953. 6. 15.
제11사단	초대	대령	최덕신	1950. 9. 25.
	제2대	준장	오덕준	1951. 5. 28.
	제3대	준장	임부택	1952. 8. 29.
제12사단	초대	준장	윤춘근	1952. 11. 8.
제15사단	초대	준장	이정석	1952. 11. 8.
	제2대	준장	최영희	1953. 6. 26.
제20사단	초대	준장	유홍수	1953. 2. 9.
	제2대	준장	송식하	1953. 3. 27.
제21사단	초대	소장	민기식	1953. 2. 9.
제22사단	초대	준장	박기병	1953. 4. 25.
제25사단	초대	준장	문용채	1953. 5. 11.

출처 : 제1군단사령부, 『부대사』 제1집, 1981, 445~41쪽 ; 제2군단사령부, 『부대사(1950~1980)』, 1981, 363~19쪽 ; 보병 제5사단, 『부대역사』, 1969, 19쪽 ; 육군본부, 『육군 발전사』 상권, 1970, 361~414쪽.

<표 2-62> 육군 부대 일람(1953. 1. 31. 현재)

구분	부대명	예하부대	주둔지역	배속관계
보병 사단	수도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김화	미 제9군단
		공병대대		
		제1연대		
		제26연대		
		기갑연대		
	포병단(제10·60·61·92포병대대)			
	제1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경기도 연천	미 제1군단
		공병대대		
		제11연대		
		제12연대		
		제15연대		
	포병단(제17·58·59·91포병대대)			
	제2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미 제1군단
		공병대대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		
	포병단(제18·62·63포병대대)			
	제3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비우리	국군 제2군단
		공병대대		
제18연대				
제22연대				
제23연대				
제11포병대대				
제5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국군 제1군단	
	공병대대			

		제27연대	수동리	
		제35연대		
		제36연대		
		제26포병대대		
제6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김화군 원남면 후동	국군 제2군단
		공병대대		
		제2연대		
		제7연대		
		제19연대		
		제27포병대대		
제7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양구군 현리	미 제10군단
		공병대대		
		제3연대		
		제5연대		
		제8연대		
		포병단(제16·56·57·93포병대대)		
제8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김화군 원남리	국군 제2군단
		공병대대		
		제10연대		
		제16연대		
		제21연대		
		제50포병대대		
제9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김화	미 제9군단
		공병대대		
		제28연대		
		제29연대		
		제30연대		
		포병단(제30·51·52·89포병대대)		
제11 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 통신·헌병·수색중대	고성군 간성면 광산리	국군 제1군단
		공병대대		

		제9연대			
		제13연대			
		제20연대			
		제20포병대대			
	제12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통신·헌병·수색중대	공병대대	강원도 인제군 평촌	미 제10군단
			제37연대		
			제51연대		
			제52연대		
	제15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통신·헌병·수색중대	공병대대	강원도 양양 간성	국군 제1군단
			제38연대		
			제39연대		
			제50연대		
교육 여단	제1 잠정 교육 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통신·헌병·수색중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천진리	육군본부	
		공병대대			
		제60연대			
		제61연대			
	제2 잠정 교육 여단	본부·중박격포·의무·병기·병참·통신·헌병·수색중대	공병대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천진리	육군본부
			제63연대		
			제65연대		
			제66연대		
보충 교육	보충 교육 연대	제53연대	거제도	KCOMZ	
		제55연대	광주 송정리	KCOMZ	
		제56연대	경남 함양	서남지구 경비사령부	

기갑	제1 전차 대대	본부 및 지원중대		전남 광주	보병학교	
		제51전차중대		강원 고성	국군 제5사단	
		제52전차중대		강원 김화	국군 제8사단	
		제53전차중대		강원 김화	국군 제9사단	
		제55전차중대		강원 김화	국군 제6사단	
		제56전차중대		강원 고성	국군 제5사단	
		제57전차중대		경기 연천	국군 제1사단	
		제58전차중대		전남 광주	육군본부	
		제59전차중대		강원 김화	국군 수도사단	
포병	독립 포병 대대	제88야전포병대대		강원 김화	국군 제2군단	
		제95야전포병대대		강원 양구	미 제10군단	
		제96야전포병대대		강원 양구	국군 제2군단	
		제97야전포병대대		강원 고성	국군 제1군단	
		제98야전포병대대		강원 김화	국군 제2군단	
		제99야전포병대대		강원 고성	국군 제1군단	
		제100야전포병대대		서울 용산	육군본부	
		제101야전포병대대		서울 용산	육군본부	
	야전 포병단	제2야전 포병단	제53대대		강원 고성	국군 제1군단
			제55대대			
제8야전 포병단		제65대대		강원 인제	미 제10군단	
		제66대대				

		제9야전 포병단	제67대대	강원 김화	미 제5 포병단
			제68대대		
		제10야전 포병단	제69대대	강원 금성	미 제5 포병단
			제70대대		
		제11야전 포병단	제71대대	강원 김화	국군 제2군단
			제72대대		
제12야전 포병단	제73대대	전남 광주	포병학교		
	제75대대				
제15야전 포병단	제76대대	전남 광주	포병학교		
	제77대대				
기타 부대	군단	제1군단		강원 주문진	육군본부
		제2군단		강원 춘성	육군본부
	경비 사령부	북부지구경비사령부		경북 경주	제8군사령부
		중부지구경비사령부		경북 안동	KCOMZ
		남부지구경비사령부		전북 남원	KCOMZ
	경비 대대	제1경비대대		제주도	포로수용소
		제2경비대대		경남 양산	남부경비사
		제3경비대대		경남 한산도	포로수용소
		제5경비대대		경북 청도	중부경비사
		제6경비대대		경북 진보	중부경비사
제7경비대대		충북 영동	중부경비사		
제8경비대대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		
제9경비대대		경남 거제도	포로수용소		
제10경비대대		경북 풍기	중부경비사		

		제11경비대대		전남 석공	남부경비사
		제12경비대대		강원 홍천	북부경비사
		제13경비대대		경기 의정부	미 제1군단
		제15경비대대		강원 청평	제8군 사령부
	정찰 부대	제1정찰부대(임시)		경북 대구	제13경비 대대
		제2정찰부대(임시)		경북 대구	북부 경비사
		제3정찰부대(임시)		강원 춘천	춘천 지구사
	육군 근무 부대 (ASU)	제주도 ASU		제주도	국방부
		전라북도 ASU		전주	국방부
		전라남도 ASU		광주	국방부
		충청북도 ASU		청주	국방부
		충청남도 ASU		대전	국방부
		강원도 ASU		원주	국방부
		경기도 ASU		인천	국방부
		서울 ASU		서울	국방부
		경상남도 ASU		부산	국방부
	경상북도 ASU		대구	국방부	
	화학	제71화학근무중대		서울	미 제92 화학근무 중대
		제72화학근무중대		서울	
	민사 부대 (CAU)	충청북도 민사부대		청주	육군본부
		전라남도 민사부대		광주	
전라북도 민사부대		대전			
강원도 민사부대		원주			
경상북도 민사부대		대구			
경상남도 민사부대		부산			
경기도 민사부대		서울			
공병	야전 공병단	제1101 야전공병단	제102야공대대	강원 강릉지구	국군 제1군단
			제103야공대대		

			제106야공대대	경기 고양지구	미 제1군단		
			제308작업대대				
			제503철교중대				
			제601경장비중대				
			제1501덤프트트럭중대				
		제1102 야전 공병단	제107야공대대				
			제302작업대대				
			제506철교중대				
			제602경장비중대				
			제1503덤프트트럭중대				
		제1103 야전 공병단	제105야공대대			강원 철원- 김화 지구	국군 제2군단
			제108야공대대				
			제110야공대대				
			제112야공대대				
			제301작업대대				미 제10 군단
			제303작업대대				
			제306작업대대				미 제9 군단
			제307작업대대				
			제307작업대대				
			제502철교중대				
	제603경장비중대						
	제901주교중대						
	제902주교중대						
	제1505덤프트트럭중대						
	제1105 야전 공병단	제1106야공단본부(중대)	경남 김해	KCOMZ			
		제1203건공단본부(중대)					
		제113야공대대					
		제115야공대대					
제207건공대대							
제605경장비중대							
제702중장비중대							
제1507덤프트트럭중대							
기술 공병단	제1801 기술 공병단	제109야공대대	경남 부산				
		제202건공대대					

			제501철교중대		KCOMZ/ 미 제409 공병여단
			제801정비중대		
			제802정비중대		
			제803정비중대		
			제805정비중대		
			제1001기지창고		
			제1301전방보급중대		
			제1302전방보급중대		
			제1303전방보급중대		
			제1305전방보급중대		
			제1601중공장중대		
			제1502덤프트럭중대		
			제1506덤프트럭중대		
건설공 병단	제1201 건설 공병단	제203건공대대	경북 영주	육군본부	
		제205건공대대			
		제309작업대대			
		제701중공장중대			
	제1202 건설 공병단	제201건공대대	충남 논산		
		제206건공대대			
		제305작업대대			
		제505철교중대			
기타	제1901촉지부대	경남 부산			
	제1701시설대대	경북 대구			
정리	지구정리대	제1지구정리대	서울	육군본부	
		제2지구정리대	경북 대구		
		제3지구정리대	경남 부산		
		제5지구정리대	전남 광주		
		제6지구정리대	충남 대전		
		제7지구정리대	강원 강릉		
		제8지구정리대	제주도		

정보	방첩대	제101방첩대	제1군단	육군본부
		제102방첩대	제2군단	
		제103방첩대	경북 안동	
		제105방첩대	서울	
		제106방첩대	전남 남원	
		제107방첩대	전남 광주	
		제201방첩대	제1사단	
		제202방첩대	제2사단	
		제203방첩대	제3사단	
		제205방첩대	제5사단	
		제206방첩대	제6사단	
		제207방첩대	제7사단	
		제208방첩대	제8사단	
		제209방첩대	제9사단	
		제210방첩대	수도사단	
		제211방첩대	제11사단	
		제501방첩대	경남 부산	
		제502방첩대	경남 진주	
		제503방첩대	경북 대구	
		제505방첩대	전남 광주	
		제506방첩대	서울	
		제507방첩대	충남 대전	
		제508방첩대	제주	
제509방첩대	강원주 원주			
제510방첩대	충북 청주			
제511방첩대	강원 강릉			

		제512방첩대	전북 전주	
		제608방첩대	전북 군산	
		제616방첩대	부산 해운대	
		제619방첩대	충북 충주	
		제620방첩대	강원 춘천	
		제622방첩대	101노무 사단	
		제623방첩대	103노무 사단	
		제625방첩대	105노무 사단	
의무	병원	수도육군병원	경남 마산	육군본부
		제1육군병원	경북 대구	
		제3육군병원	경남 부산	
		제5육군병원	경남 부산	
		제15육군병원	전남 여수	
		제18육군병원	경북 경주	
		제23육군병원	경남 울산	
		제27육군병원	경북 대구	
		제36육군병원	서울	
		제59육군병원	강원 목호	
		제63육군병원	충남 대전	

		제77육군병원	전남 광주
		제98육군병원	제주도
	이동외과병원	제1이동외과병원	강원 속초
		제2이동외과병원	강원 화천
		제3이동외과병원	강원 화천
		제5이동외과병원	경기 전곡
		제6이동외과병원	강원 도춘
		제7이동외과병원	강원 도평
		정양병원	제2정양병원
	제7정양병원		경남 밀양
	제31정양병원		경남 동래
	제1의무대대	대대본부	강원 춘천
		제1의무후송중대	강원 속초
		제2의무후송중대	강원 도평
		제3의무후송중대	강원 화천
		제5의무후송중대	강원 춘천
		제1병원열차대	수시 이동
		제2병원열차대	수시 이동
		제3병원열차대	수시 이동

		육군중앙병리연구소	경남 부산	
		위생재료창	경남 부산	
		제1의무보급중대	경남 부산	
		제1의무치료중대	강원 춘천	
		의복제작창	부산 동래	
		제1예방치료중대	강원 춘천	
		제2예방치료중대	경북 대구	
		제1의무실	충남 논산	
병기	제80병기 대대	대대본부	화천 원천리	육군본부
		제100병기 대대본부	춘천	
		제1창고중대	춘천	
		제9경 정비중대	화천 파포리	
		제11경 정비중대	도촌리	
		제17경 정비중대	삼양리	
		제26경 정비중대	원천리	
		제35경차정비중대	춘천	
	제15병기 대대	대대본부	천진리	
		제2창고중대		
		제13경 정비중대		
		제18경 정비중대		
		제27경 정비중대		
	제30병기 대대	대대본부	부산	
		제3창고중대		
제5창고중대				
제15경 정비중대				
제51탄약중대		해운대	미 제35 병기 대대	
	제59탄약중대			

	제50병기대대	대대본부		속초	육군본부 미 제314 병기단	
		제52탄약중대		속초		
		제53탄약중대		춘천		
		제55탄약중대		주문진		
		제57탄약중대		산양리		
		제61탄약처리반		산양리		
		제63탄약처리반		속초		
	제60병기대대	대대본부		서울	육군본부 미 제335 병기대대 미 제314 병기단	
		제202병기단본부		서울		
		제6창고중대		부평		
		제10경정비중대		연평리		
		제12경정비중대		서울		
		제19경정비중대		선동리		
		제56탄약정비소대		시흥		
	제58탄약중대		시흥			
	제70병기대대	대대본부		부산	육군본부	
		제21중정비중대				
		제22중정비중대				
		제31중차량정비중대				
		제32중차량정비중대				
	제90병기대대	대대본부		고산		
		제16경정비중대		광주		
		제25경정비중대		고산		
		제36경차량정비중대				
		제62탄약처리반				
		제71기술정보반				
	병참	제1병참단	단본부		서울	육군본부
제8기지창			부산			
제91근무중대			대구			
제92근무중대			부산			
제11 대대			대대본부		춘천	
			제21보급중대		춘천	
			제26보급중대		속초	
			제32급유중대		서울	
			제33급유중대		춘천	

	제12 대대	대대본부	인천			
		제25보급중대	서울			
		제51정비중대	인천			
		제61세탁중대	인천			
		제71수집중대	인천			
	제2병참단	단본부			부산	
		제6조달본부중대				
		제7피복창				
		제9기지창			인천	
		제65세탁중대			부산	
		제75수집중대				
		제13 대대	대대본부			부산
			제23보급중대			
			제31급유중대			
			제52정비중대			
			제62세탁중대			
			제72수집중대			
		제15 대대	대대본부		부산	
			제27보급중대		대전	
			제53정비중대		부산	
제55정비중대						
제63세탁중대	영천					
제73수집중대						
기타	제22보급중대		대구			
	제28보급중대		제주도			
통신	제61통신운용대대	대대본부	대구	육군본부		
		제1운용중대				
		제2운용중대				
		제3운용중대				
		제5운용중대				
	제63통신보급대대	대대본부	부산			
		제83기지창고중대				
		제81창고중대	대구			
		제85수리중대	부산			

	제65통신지원대대	대대본부	대구	
		행정·취사수송반		
		통신정보반		
		창고 및 문서취급반		
		무선중대		
	유선중대			
	제71통신가설대대	대대본부	화원	
		제1가설중대	전주	
		제2가설중대	대전	
		제3가설중대	밀양	
		제5가설중대	옥포	
	제73통신가설대대	대대본부	강릉	
		제1가설중대	경주	
		제2가설중대	소토고미	
		제3가설중대	원주	
		제5가설중대	북평리	
	기타	제21통신사진중대	대구	
		제42통신근무중대	대구	
		제82통신창고중대	대구	
		제31야전통신중대		
제32야전통신중대		소토고미	국군 제2군단	
제33야전통신중대		하양	육군본부	
제50통신가설중대		속초	국군 제1군단	
제51통신가설중대		소토고미	국군 제2군단	
제52통신가설중대		화원	제71통신가설대대	
제53통신가설중대		강릉	제73통신가설대대	
제55통신가설중대		화원	제71통신가설대대	
제56통신가설중대		강릉	제73통신가설대대	

		제57통신가설중대	화원	제71통신가설대대
		제86통신수리중대	부산	육군본부
수송	수송부대	제301철도운용대대	순천	육군본부
		제302수송항만대대	부산	
		제303수송교관단	대구	
		대대본부	춘천	
	제225수송자동차대대	제800수송자동차대대	부산	
		제802수송자동차대대	춘천	
		제803수송자동차대대	춘천	
		제805수송자동차대대	춘천	
	제227수송자동차대대	대대본부	대구	
		제806수송자동차대대	영천	
		제807수송자동차대대	서울	
		제808수송자동차대대	속초	
		제809수송자동차대대	대구	
	제229수송자동차대대	대대본부	부산	
		제811수송자동차대대	부산	
		제812수송자동차대대	부산	
		제813수송자동차대대	대구	
		제815수송자동차대대	원주	
		제816수송자동차대대	원주	미 제351수송단
훈련교육	교육기관	부관학교	대구	
		포병학교	광주	
		군악학교	부산	
		육군대학교	대구	
		공병학교	김해	
		정보학교	대구	
		육군훈련소(KATC)	광주	
		육군사관학교	진해	
		군의학교	마산	
		병기학교	동래	
		병참학교	부산대포	
		통신학교	광주	

		보병학교	광주	
		경리학교	하양	
		헌병학교	대구	
		부사관학교	서울 목동	
	훈련소	부대훈련소	양양	
		제1신병훈련소	제주도	
		제2신병훈련소	논산	

출처 : HQ, Republic of Korea Army, "Status of Units and Station List : Status of Assigned and Attached Units as of 31 January 1953", RG 330, Entry No. 21A, Box 4, NARA ; 육군 작전 교육국, 「정기작전보고 제749호(1953년 1월 31일)」, 『한국전쟁사료』 (37), 육군본부, 1988, 433~448쪽 ; 육군본부, 『병과별 부대역사』, 1959, 3~256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1956, 507~576쪽 ; 육군포병학교, 『포병의 발자취』, 1963, 255~438쪽.

비고 : 보병사단 주둔지는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곳임.

<표 2-63> 육군의 계급 호칭 변화

1946. 12. 1. 이전	1946. 12. 1.~1957. 1. 25.	1957. 1. 25. 이후
대 장	대 장	대 장
부 장	중 장	중 장
참 장	소 장	소 장
-	준 장	준 장
정 령	대 령	대 령
부 령	중 령	중 령
참 령	소 령	소 령
정 위	대 위	대 위
부 위	중 위	중 위
참 위	소 위	소 위
대특무정교	준 위	준 위
	특무상사	

특무정교	일등상사	상 사
정 교	이등상사	중 사
특무부교	일등중사	하 사
부 교	이등중사	병 장
참 교	하 사	상 병
일등병사	일 등 병	일 등 병
이등병사	이 등 병	이 등 병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건군사』, 2002, 284쪽 ; 국방부, 『국방사』②, 1987, 200쪽.

## 2) 병력

<표 2-64> 6·25전쟁 기간 육군 병력 현황(1950. 7.~1953. 7.)

단위 : 명

연도		국방부	육군	합계
1950년	7. 31.	...	...	96,112
	8. 31.	...	...	115,147
	9. 30.	...	...	173,339
	10. 31.	...	...	189,404
	11. 30.	...	...	200,851
	12. 31.	...	...	242,192
1951년	1. 31.	...	...	254,930
	2. 28.	...	...	253,945
	3. 31.	...	...	259,471
	4. 22.	555	251,623	252,178
	4. 29.	555	249,028	249,583
	5. 6.	554	248,807	249,361
	5. 13.	566	248,100	248,666

5. 20.	567	240,286	240,853
5. 27.	487	245,160	245,647
6. 2.	433	249,000	249,433
6. 9.	434	252,246	252,680
6. 16.	435	255,312	255,747
6. 23.	434	256,127	256,561
6. 30.	448	252,633	253,081
7. 7.	470	256,178	256,648
7. 14.	470	258,046	258,516
7. 21.	478	255,190	255,668
7. 28.	471	254,623	255,094
8. 4.	447	255,385	255,832
8. 11.	462	256,909	257,371
8. 18.	462	256,577	257,039
8. 25.	480	248,753	249,233
9. 1.	529	249,098	249,627
9. 8.	541	248,924	249,465
9. 15.	549	245,514	246,063
9. 22.	541	249,236	249,777
9. 29.	589	254,855	255,444
10. 6.	597	253,956	254,553
10. 13.	581	256,721	257,302
10. 20.	584	258,881	259,465
10. 27.	588	260,642	261,230
11. 3.	589	263,017	263,606
11. 10.	594	265,606	266,200
11. 17.	601	267,298	267,889
11. 24.	607	268,594	269,201
12. 1.	608	271,430	272,038
12. 8.	607	271,146	271,753
12. 15.	611	273,930	274,541

	12. 22.	631	273,710	274,341
1952년	12. 29.	630	276,336	276,966
	1. 5.	729	277,595	278,324
	1. 12.	736	279,609	280,345
	1. 19.	734	289,035	282,769
	1. 26.	735	286,181	286,916
	2. 2.	730	291,815	292,545
	2. 9.	724	295,348	296,072
	2. 16.	716	290,740	291,456
	3. 1.	732	299,074	299,806
	3. 8.	777	301,833	302,610
	3. 29.	790	311,755	312,545
	4. 5.	794	315,777	316,571
	4. 12.	777	319,935	320,712
	4. 19.	777	322,307	323,084
	4. 26.	793	322,190	322,983
	5. 3.	789	325,738	326,527
	5. 10.	792	328,407	329,199
	5. 17.	797	332,042	332,839
	5. 24.	794	339,592	340,386
	5. 31.	803	343,753	344,556
	6. 7.	848	345,778	346,626
	6. 14.	871	350,583	351,454
	6. 21.	892	353,848	354,740
	6. 28.	908	356,092	357,000
	7. 5.	940	350,870	351,810
	7. 12.	949	353,591	354,540
	7. 19.	945	353,878	354,823
	8. 9.	980	340,561	341,541
8. 16.	983	340,461	341,444	
8. 23.	991	337,793	338,784	

	8. 30.	990	336,502	337,492
	9. 13.	969	333,939	334,908
	9. 20.	972	335,294	336,266
	9. 27.	973	336,873	337,846
	10. 4.	983	339,921	340,904
	10. 11.	981	344,704	345,685
	10. 18.	1,006	345,443	346,449
	10. 25.	1,008	349,488	350,496
	11. 1.	1,014	353,776	354,790
	11. 8.	1,031	356,246	357,277
	11. 15.	1,038	359,418	360,456
	11. 30.	1,048	366,153	367,201
	12. 10.	1,027	368,493	369,520
	12. 20.	1,032	373,598	374,630
	12. 31.	1,048	381,092	382,140
1953년	1. 31.	-	-	401,567
	2. 28.	-	-	415,386
	3. 31.	-	-	440,107
	4. 30.	-	-	455,078
	5. 31.	-	-	474,563
	6. 30.	-	-	491,760
	7. 31.	-	-	497,964

출처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2d",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22 Apr. 1951-29 Dec. 1951", RG 554, Entry 1362(A1), Box 52, NARA ;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5 Jan. 1952-31 Dec. 1952", RG 554, Entry 1362(A1), Box 52, NARA. HQ, KMAG, "KMAG Statical Summary, July 1953", RG 554, Entry 1354(A), Box 16, NARA.

비고 : 가. 1950년 7월 31일~1951년 3월 31일의 병력수는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2d"의 자료이며, 이 병력수에는 해병대가 포함된 숫자임.

나. 1951년 4월 22일~1952년 12월 31일의 병력수는 국방부와 육군만의 병력수임.

다. 1953년도 병력수는 국방부와 육군의 병력수를 포함한 수치임.

<표 2-65> 6·25전쟁 기간 육군 보충 병력 현황

구 분	1950	1951	1952	1953	계
장 교	10,013	7,484	6,096	10,326	33,919
사 병	195,463	148,910	126,953	213,423	684,749
총 계	205,476	156,394	133,049	223,749	718,668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6쪽.

<표 2-66> 6·25전쟁 기간 카투사(KATUSA) 병력 현황

연 도	전투병	근무병	합 계
1950년 8월	11,433	-	11,433
9월	18,787	444	19,231
10월	21,012	1,630	22,642
11월	21,322	1,777	23,099
12월	14,966	1,231	16,197
1951년 1월	13,188	1,538	14,726
2월	11,128	1,112	12,240
3월	10,506	4,222	14,728
4월	9,739	4,491	14,230
5월	9,151	4,190	13,341
6월	8,509	4,209	12,718
7월	7,984	4,209	12,193
8월	7,664	4,209	11,873
9월	7,302	4,331	11,633
10월	7,108	4,331	11,439
11월	7,059	4,331	11,390

12월	7,069	3,331	10,400
1952년 1월	5,513	4,334	9,847
2월	5,023	4,331	9,354
3월	4,798	4,331	9,129
4월	4,668	4,331	8,999
5월	4,563	4,331	8,894
6월	6,695	4,220	10,915
7월	7,266	4,327	11,593
8월	9,578	2,494	12,072
9월	11,661	3,001	14,662
10월	10,290	3,626	13,916
11월	11,940	3,581	15,521
12월	12,042	4,478	16,520
1953년 1월	12,708	3,737	16,445
2월	14,261	3,203	17,464
3월	14,589	3,590	18,179
4월	16,875	4,265	21,140
5월	18,066	5,856	23,922
6월	17,829	4,932	22,761
7월	16,821	5,096	21,917

출처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2d”,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3) 교육 및 훈련

<표 2-67> 6·25전쟁 기간 군사학교 설치 현황

구분	창설일	창설지	학교장				비고
			기수	계급	이름	부임일자	
육군 대학교	1951.10.28.	대구	1대	소장	이종찬	'51.11. 1.	· 제1대와 제3대 교장은 육군총장이 겸임 · 교육기간 : 26주
			2대	중장	이용준	'52. 6. 8.	
			3대	대장	백선엽	'53. 5. 9.	
			4대	중장	이종찬	'53. 7. 2.	
육군 사관학교	1951.10.30.	진해	9대	준장	안춘생	'51.10.30.	· 1950.7.8. 입시폐교
			10대	소장	김종오	'52.11.10.	
육군 보병학교	1950. 8. 7.	대구	3대	준장	이준식	'50. 8.14.	· 학교 이전 : 경주(1950.8.10.), 동래(1950.8.15.), 광주(1951.10.27.) · 명칭 변경 : 육군제병학교 (1950.8.21.), 육군종합학교 (1950.9.7.), 육군보병학교 (1951.10.27.)
			4대	준장	김홍일	'50. 9. 1.	
			5대	준장	이종찬	'51. 3.17.	
			6대	준장	이한림	'51. 7.22.	
			7대	준장	최덕신	'52. 1.22.	
			8대	준장	임선하	'52. 8.15.	
			9대	준장	백남권	'52.10.10.	
			10대	준장	최 석	'53. 5. 9.	
육군 포병학교	1951. 3.10.	진해	2대	대령	김계원	'51. 3.15.	· 1950.7.8. 입시폐교 · 1951.11.3. 광주 이동
			3대	준장	김계원	'51.12.30.	
			4대	준장	심홍선	'52. 7. 2.	
육군 기갑학교	1953. 5.15.	광주	1대	대령	박종민	'53. 5.15.	

육군 병참학교	1951. 3.10.	부산	4대	중령	이해일	'51. 3.10.	· 1950.7.21. 임시폐교
			5대	대령	김기임	'51. 9. 4.	
			6대	대령	윤수현	'52. 4.25.	
			7대	대령	강태봉	'53. 2. 1.	
육군 정보학교	1952. 3. 6.	대구	6대	대령	차문호	'52. 6.20.	· 1950.7.8. 임시폐교
			7대	대령	변응오	'52. 8.24.	
육군 부관학교	1951. 8.20.	대구	1대	중령	김인철	'51. 8.20.	
			2대	중령	조원영	'51.12.27.	
			3대	대령	김중문	'52. 4. 1.	
			4대	중령	방 희	'52.10.15.	
			5대	대령	김중문	'53. 4.26.	
육군 헌병학교	1951. 6.20.	대구	9대	준장	최경록	'51. 7.31.	· 1950.7.13. 임시폐교
			10대	중령	송효순	'51. 8.21.	
			11대	대령	김득모	'52. 3.28.	
			12대	대령	이규광	'53. 4.24.	
육군 군악학교	1951. 4.16.	부산	4대	중령	김관기	'51. 4.16.	
육군 통신학교	1951. 3.10.	부산	8대	중령	최석남	'51. 9.20.	· 1950.7.13. 임시폐교 · 1951.11.10. 광주 이동
			9대	중령	유홍식	'52. 1. 3.	
			10대	대령	한당욱	'52. 5.22.	
육군 군의학교	1950.11. 7.	서울	1대	대령	박동균	'49. 8. 9.	· 1950.7.9. 임시폐교 · 1950.12.20. 동래, 1952.9.27. 마산 이동
육군 수송학교	1953. 4.20.	김해	1대	대령	박형훈	'53. 4.20.	

육군 병기학교	1951. 3. 1.	울산	6대	대령	안동순	'51. 3. 6.	· 1950.7.8. 임시폐교 · 1951.12.1. 동래 이동
			7대	중령	이기동	'51. 8. 5.	
			8대	중령	이기현	'51.11.10.	
			9대	대령	이홍중	'52. 6.17.	
육군 공병학교	1951. 3.10.	김해	3대	중령	서유태	'51. 3.21.	· 1950.8.9. 임시폐교
			4대	중령	황인권	'52. 2.12.	
			5대	대령	윤태일	'53. 5.25.	
육군 경리학교	1951. 8.15.	하양	5대	중령	지기섭	'51. 8.30.	· 1950.7.12. 임시폐교
			6대	중령	김종관	'52. 1.20.	
			7대	중령	지기섭	'52. 6. 9.	
			8대	대령	원태섭	'52. 9. 1.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171~196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623~630쪽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상권, 1970, 660~704쪽 ; 육군공병학교, 『육군공병학교 30년사』, 1981, 89쪽, 357쪽.

<표 2-68> 6·25전쟁 기간 훈련소 설치 현황

구분	창설일	창설지	훈련소장				비고
			기수	계급	이름	부임일자	
제1신병 훈련소	1950. 8.14.	대구	1대	대령	최 석	'50. 8.14.	· 1951. 1. 22. 제주 모슬포 이동
			2대	대령	박기성	'50.10.24.	
			3대	대령	최 석	'50.10.26.	
			4대	대령	유승렬	'50.11.12.	
			5대	준장	이형근	'51. 1. 9.	
			6대	준장	백인엽	'51. 1.14.	
			7대	소장	장도영	'52. 1.10.	

			8대	준장	오덕준	'52. 8.29.	
			9대	중장	이응준	'53. 6.15.	
제2신병 훈련소	1951.11. 1.	논산	1대	준장	김종갑	'51.11. 1.	
			2대	소장	이성가	'52. 9. 5.	
			3대	준장	심언봉	'53. 6.15.	
여군 훈련소	1950.10.12.	부산	1대	소령	김현숙	'50.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 9. 1. 창설된 여자의용군교육대를 모체로 함</li> <li>· 1951.11.15. 해체</li> </ul>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193~195쪽 ;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1970, 704~708쪽.

<표 2-69> 6·25전쟁 기간 제1·2신병훈련소 예하부대 창설 현황

구분	부대명	창설일자	부대명	창설일자
제1신병 훈련소	제1연대	'50.10.14.	제7연대	'51. 8.17.
	제2연대	'50.10.14.	제8연대	'51.10.16.
	제3연대	'50.10.14.	제9연대	'51.10.16.
	교도연대	'51. 3.27.	신병 제1숙영지	'52. 2.13.
	운전병학교	'51. 5.17.	신병 제2숙영지	'52. 2.13.
	공병대	'51. 6.11.	신병 제3숙영지	'52. 2.13.
	군악대	'51. 6.11.	신병 제5숙영지	'52. 2.13.
	헌병대	'51.11.13.	하교연대 제1숙영지	'52.10. 4.
	하사관 교육연대	'51. 6.20.	하교연대 제2숙영지	'52.10. 4.
	제5연대	'51. 6.20.	수용대	'52. 5.20.
	제6연대	'51. 8.17.	경비대	'53. 2. 7.

제2신병 훈련소	교관단	'51.11. 1.	제29교육연대	'52.11.19.
	제21교육연대	'51.11. 1.	수용대	'52. 3.20.
	제22교육연대	'51.11.19.	대기단	'51.11.12.
	제23교육연대	'51.12. 5.	경비대대	'52.11.15.
	제25교육연대	'52. 5. 1.	여군교육대	'53. 6. 1.
	제26교육연대	'52.10.20.	민사부	'53. 6.24.
	제27교육연대	'53. 7.27.	보육대	'53. 7. 7.
	제28교육연대	'52.11. 5.	하사관교육대	'53. 5.16.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192~195쪽.

<표 2-70> 국내 군사학교 장교 교육 이수 현황(1953. 7. 현재)

단위 : 명

구 분	교육과정			
	초등과정	고등과정	특별과정	후보생과정
육군대학교	-	129	-	-
육군보병학교	4,139	676	-	10,547
육군포병학교	187	88	755	2,868
육군기갑학교	233	-	5	-
육군공병학교	612	248	243	1,692
육군부관학교	595	-	-	-
육군경리학교	-	-	316	655
육군정보학교	782	-	583	-
육군군의학교	1,085	-	867	-
육군헌병학교	447	-	-	-
육군병기학교	-	58	563	419

육군병참학교	376	70	-	404
육군통신학교	354	41	-	974
육군수송학교	-	-	207	-
합 계	8,810	1,310	3,539	17,559

출처 : David Curtis Skaggs & Richard P. Weinert,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III-36b쪽, RG 319, CMH Manuscripts, KMAG in War and Peace, Box 1, NARA.

<표 2-71> 제1신병훈련소의 훈련기간 및 일일 입소자수 변화

시 기	일일 입소자수	훈련기간	수용규모	비 고
1951. 2. 13.	500명	4주	14,000명	
1951. 4. 1.	250명	8주	14,000명	
1951. 7. 1.	300명	12주	21,600명	· 입소 일자가 주당 7일에서 6일로 단축
1951. 9. 24.	500명	12주	36,000명	
1952. 1. 2.	500명	16주	48,000명	
1952. 8. 1.	600명	16주	57,000명	· 8주 이상의 훈련을 받은 훈련병만 육군 총 병력에 산입
1952. 12. 15.	700명	16주	67,200명	· 훈련기간 및 입소자수 고정

출처 : Kenneth W. Myers,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144~153쪽,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RA.

<표 2-72> 1951~1953년 미 군사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합계
	장교	사병	장교	사병	장교	사병	장교	사병	
1951	317	-	-	-	-	-	-	-	317
1952	764	-	38	-	10	-	2	-	814
1953	879	6	55	27	12	-	4	-	983

출처 : 국방부, 『국방백서(1967)』, 1966, 70~71쪽.

#### 4) 주요장비

<표 2-73> 주요 무기 보급실적 I (1950. 6. 25. ~1950. 12. 31.)

종 류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부대별 보급수량						
			수도 사단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칼빈소총(M1&M2)	16,555	56,496	1,507	2,519	2,297	3,950	3,694	4,761	11,509
M1소총	10,390	143,208	6,043	4,080	4,880	5,489	5,026	6,882	7,179
경기관총 (Cal30 A4)	479	1,482	96	103	62	96	66	107	194
경기관총 (Cal30 A6)	-	-	-	-	-	-	-	20	-
중기관총 (Cal50 HBM2)	664	515	56	72	43	98	59	122	90
기관단총 (Cal45 M3A1)	747	4,286	280	441	122	70	200	322	124
2.36인치 로켓포	1,959	92	176	231	16	157	-	162	347
3.5인치 로켓포	-	2,110	183	58	108	153	78	278	203

60mm 박격포	390	618	63	88	22	64	46	132	29
81mm 박격포	272	355	41	61	42	69	44	51	60
4.2인치 박격포	-	34	-	-	-	-	-	-	-
자동소총A2 (M1918)	1,268	2,623	169	484	184	236	190	482	299
M1총검(M1 s/w)	34,047	679	-	-	-	-	-	-	-
칼빈총검(M4 s/w)	16,694	-	-	-	-	-	-	-	-
M7유탄발사기 (GL M7A1)	7,026	2,913	-	-	-	-	-	-	-
권총(M1911 A1)	4,148	131	4	50	-	19	-	-	513
57mm무반동총 (M18)	-	-	-	-	-	-	-	-	-
75mm반동포 (M20)	-	-	-	-	-	-	-	-	-
105mm곡사포 (M2)	91	154	4	-	-	-	8	2	3
155mm곡사포	-	-	-	-	-	-	-	-	-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313	-	49	87	75	74	93	107	35
M-1903A3 소총	216	4,472	-	-	-	-	-	-	-
M8 유탄발사기	2,244	906	-	-	-	-	-	-	-
75mm 산포	-	89	-	-	-	-	-	-	-

종류	부대별 보급수량							기타	연말 재고량
	8사단	9사단	11사단	1 훈련소	2 훈련소	기타 부대	계		
칼빈소총 (M1&M2)	5,541	986	3,441	1,644	-	35,250	77,099	62,314	58,266
M1소총	7,209	2,538	5,050	2,373	-	41,386	98,135	96,865	152,328
경기관총 (Cal30 A4)	151	61	60	44	-	731	1,771	1,100	1,290

경기관총 (Cal30 A6)	-	-	-	12	-	43	75	-	-
중기관총 (Cal50 HBM2)	96	34	54	-	-	953	1,677	1,402	904
기관단총 (Cal45 M3A1)	322	200	105	4	-	2,804	4,994	1,526	1,565
2.36인치 로켓포	73	59	6	34	-	936	2,197	1,220	1,074
3.5인치 로켓포	207	80	-	2	-	1,196	2,546	-	1,651
60mm 박격포	101	83	75	-	-	346	1,049	748	707
81mm 박격포	51	40	54	-	-	195	708	421	340
4.2인치 박격포	-	-	-	-	-	10	10	10	34
자동소총A2 (M1918)	335	199	180	89	-	-	-	-	2,452
M1총검(M1 s/w)	-	-	-	-	-	1,895	4,642	-23,981	6,103
칼빈총검(M4 s/w)	-	-	-	-	-	-	-	-	2,971
M7유탄발사기 (GL M7A1)	-	-	-	-	-	3,375	3,375	-4,513	2,051
권총(M1911 A1)	-	-	-	-	-	366	952	-331	2,996
57mm무반동총 (M18)	-	-	-	-	-	-	-	-	-
75mm반동포(M20)	-	-	-	-	-	-	-	-	-
105mm곡사포(M2)	4	12	-	-	-	202	235	146	156
155mm곡사포	-	-	-	-	-	-	-	-	-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169	28	84	63	-	522	1,386	-	1,224
M-1903A3 소총	-	-	-	-	-	-	4,472	2,197	2,413
M8 유탄발사기	-	-	-	-	-	-	1,590	-1,229	331
75mm 산포	-	-	-	-	-	-	89	-	35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18~119쪽.

비고 : 가. 이 자료는 병기감실의 '보급실적통계보고'에 근거한 것임.

나. 기타에는 정비를 완료한 무기 수량, 손(망)실 무기 수량, 미군에 반납한 무기 수량을 포함한 수치이며, +일 경우 정비를 완료한 무기 수량이 손(망)실과 미군에 반납한 무기 수량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일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함.

다.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표 2-74> 주요 무기 보급실적Ⅱ(1951. 1. 1.~1951. 12. 31.)

종류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부대별 보급수량						
			수도 사단	1사단	2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칼빈소총 (M1&M2)	58,266	47,523	750	760	2,851	2,229	1,786	2,910	1,622
M1소총	152,348	104,847	2,855	4,993	2,622	8,502	8,442	6,173	4,623
경기관총 (Cal30 A4)	1,920	2,459	75	40	76	76	75	97	16
경기관총 (Cal30 A6)	-	-	28	6	7	74	170	26	55
중기관총 (Cal50 HBM2)	904	2,177	38	66	58	106	86	101	52
기관단총 (Cal45 M3A1)	4,565	3,479	110	112	139	266	97	53	158
2.36인치 로켓포	1,074	1,695	237	16	50	144	133	115	52
3.5인치 로켓포	1,651	1,728	131	75	106	151	120	239	51
60mm 박격포	707	1,156	139	56	93	141	107	84	96
81mm 박격포	340	695	47	29	46	73	76	59	73
4.2인치 박격포	34	136	-	-	-	-	-	-	12
자동소총A2 (M1918)	2,452	5,300	306	35	270	369	536	358	250
M1총검 (M1 s/w)	6,103	124,233	17	-	3	-	-	-	12
칼빈총검 (M4 s/w)	2,971	82,128	-	-	-	-	-	-	-
M7유탄발사기 (GL M7A1)	2,051	27,691	-	-	-	-	-	-	-
권총 (M1911 A1)	2,996	38	-	-	-	-	-	-	-
57mm무반동총 (M18)	-	147	2	-	2	12	8	4	12

75mm반동포 (M20)	-	63	-	-	-	6	2	-	-
105mm곡사포 (M2)	156	200	6	4	3	18	3	1	-
155mm곡사포	-	62	-	-	-	-	-	-	-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1,221	530	25	31	59	92	48	87	45
M-1903A3 소총	2,413	7,677	-	-	-	-	-	-	-
M8 유탄발사기	331	2,074	-	-	-	-	-	-	-
75mm 산포	35	50	-	-	-	-	-	-	-

종류	부대별 보급수량							기타	연말 재고량
	8사단	9사단	11사단	1 훈련소	2 훈련소	기타 부대	계		
칼빈소총 (M1&M2)	3,511	3,001	400	-	1,176	38,878	59,874	33,584	79,499
M1소총	5,146	5,688	31	16,700	900	59,890	126,565	59,074	189,704
경기관총 (Cal30 A4)	91	125	17	38	10	463	1,199	-404	2,776
경기관총 (Cal30 A6)	21	45	-	190	180	438	1,240	-	-
중기관총 (Cal50 HBM2)	30	121	19	-	-	820	1,497	729	2,313
기관단총 (Cal45 M3A1)	270	207	167	11	-	2,101	3,691	2,997	7,350
2.36인치 로켓포	95	72	84	-	100	370	1,468	-108	1,193
3.5인치 로켓포	155	357	80	-	2	575	2,042	-711	626
60mm 박격포	116	101	27	99	12	395	1,466	765	1,162
81mm 박격포	64	56	39	46	8	150	766	295	564
4.2인치 박격포	-	-	-	-	-	126	138	73	105

자동소총A2 (M1918)	271	394	66	60	220	2,937	6,072	2,888	4,568
M1총검 (M1 s/w)	-	34	13	-	-	107,968	108,047	44,213	66,502
칼빈총검 (M4 s/w)	-	-	-	-	-	50,438	50,438	29,120	63,781
M7유탄발사기 (GL M7A1)	-	-	-	-	-	14,786	14,786	-24,197	16,399
권총 (M1911 A1)	-	-	-	10	-	976	986	-441	1,607
57mm무반동총 (M18)	8	-	8	17	-	57	130	-	131
75mm반동포 (M20)	2	-	-	-	-	53	63	-	61
105mm곡사포 (M2)	3	13	6	-	-	180	237	122	241
155mm곡사포	-	-	-	-	-	62	62	-	62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72	36	-	21	-	215	731	-95	925
M-1903A3 소총	-	-	-	-	-	-	7,228	749	3,611
M8 유탄발사기	-	-	-	-	-	-	1,989	674	1,090
75mm 산포	-	-	-	-	-	-	44	-6	35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18~119쪽.

비고 : 가. 이 자료는 병기감실의 '보급실적통계보고'에 근거한 것임.

나.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표 2-75> 주요 무기 보급실적 III(1952. 1. 1.~1952. 12. 31.)

종류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부대별 보급수량							
			수도 사단	1 사단	2 사단	3 사단	5 사단	6 사단	7 사단	8 사단
칼빈소총 (M1&M2)	79,499	16,822	3,732	1,130	65	1,331	1,882	2,324	1,605	278
M1소총	189,704	83,549	7,291	660	2,000	-	209	351	-	-

경기관총 (Cal30 A4)	2,776	1,800	57	15	35	9	13	13	33	11
경기관총 (Cal30 A6)	-	795	14	21	-	14	12	11	11	18
중기관총 (Cal50 HBM2)	2,313	698	25	21	15	38	19	19	19	4
기관단총 (Cal45 M3A1)	7,350	16,864	827	60	-	-	-	-	205	312
2.36인치 로켓포	1,193	84	1	-	-	-	1	1	-	-
3.5인치 로켓포	626	2,671	156	-	50	49	55	55	62	105
60mm 박격포	1,162	1,214	7	-	-	-	-	-	-	6
81mm 박격포	564	508	20	-	3	-	-	19	-	12
4.2인치 박격포	105	131	4	-	4	-	3	1	3	2
자동소총A2 (M1918)	4,568	3,763	234	-	12	20	25	13	5	53
M1총검 (M1 s/w)	66,502	77,668	6,576	1,381	3,000	541	404	1,287	1,281	1,450
칼빈총검 (M4 s/w)	63,781	21,642	3,175	402	1,026	2,436	2,425	3,034	2,514	1,337
M7유탄발사기 (GL M7A1)	16,399	5,856	473	-	474	718	429	701	527	525
권총(M1911 A1)	2,607	744	-	-	-	-	-	-	-	-
57mm무반동총 (M18)	131	952	32	42	12	18	27	18	27	42
75mm반동포 (M20)	61	435	72	18	14	10	12	17	10	10
105mm곡사포 (M2)	241	274	-	1	-	-	-	-	-	1
155mm곡사포	62	92	-	-	-	-	-	-	-	-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925	174	-	-	-	40	-	-	-	-
M-1903A3 소총	3,611	-	-	-	-	-	-	-	-	-
M8 유탄발사기	1,090	66	-	-	-	-	-	-	-	-

75mm 산포	35	-	-	-	-	-	-	-	-	-
M-1903A4 소총	-	100	-	-	-	-	-	-	-	-

종류	부대별 보급수량								기타	연말 재고량
	9 사단	11 사단	12 사단	15 사단	1 훈련소	2 훈련소	기타 부대	계		
칼빈소총 (M1&M2)	445	1,325	-	-	-	1,034	32,081	47,232	62,867	111,956
M1소총	704	-	185	1,181	22,530	9,911	48,715	93,737	41,563	221,079
경기관총 (Cal30 A4)	42	-	40	-	122	200	1,559	2,149	968	3,395
경기관총 (Cal30 A6)	3	5	80	-	100	66	659	1,014	-	1,220
중기관총 (Cal50 HBM2)	19	19	5	46	-	-	1,283	1,532	1,137	2,616
기관단총 (Cal45 M3A1)	570	-	15	275	-	-	15,168	17,432	16,529	23,311
2.36인치 로켓포	5	-	-	-	22	56	267	353	-205	719
3.5인치 로켓포	-	55	2	27	42	18	1,987	2,663	2,338	2,972
60mm 박격포	4	2	-	1	96	25	937	1,078	177	1,475
81mm 박격포	12	9	-	18	37	-	272	402	-87	583
4.2인치 박격포	-	1	12	12	-	-	114	156	66	146
자동소총A2 (M1918)	132	9	100	-	422	232	2,941	4,198	2,031	6,164
M1총검 (M1 s/w)	288	408	505	115	3,429	4,342	68,659	93,666	70,126	120,630
칼빈총검 (M4 s/w)	996	2,547	-	-	-	50	33,485	53,427	39,273	71,269
M7유탄발사기 (GL M7A1)	870	328	1,084	-	-	50	7,109	13,288	10,295	19,262
권총(M1911 A1)	21	5	-	29	-	46	591	692	592	3,251

57mm무반동총 (M18)	28	33	6	-	40	141	535	1,001	842	924
75mm반동포 (M20)	18	16	-	54	41	24	240	556	507	447
105mm곡사포 (M2)	1	-	-	18	-	-	253	274	259	500
155mm곡사포	-	-	-	-	-	-	92	92	84	146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45	7	-	-	4	4	124	224	-188	687
M-1903A3 소총	-	-	-	-	-	-	-	449	-	1,105
M8 유탄발사기	-	-	-	-	-	-	-	-	-	939
75mm 산포	-	-	-	-	-	-	-	6	-	29
M-1903A4 소총	-	-	-	-	-	-	-	100	-	85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21~123쪽.

비고 : 가. 이 자료는 병기감실의 '보급실적통계보고'에 근거한 것임.

나.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표 2-76> 주요 무기 보급실적 IV(1953. 1. 1.~1953. 7. 27.)

종류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부대별 보급수량									
			수도 사단	1 사단	2 사단	3 사단	5 사단	6 사단	7 사단	8 사단	9 사단	11 사단
칼빈소총 (M1&M2)	111,956	68,627	1,076	-	-	-	-	-	-	-	-	1,052
M1소총	221,079	140,235	921	966	450	2,731	1,556	2,556	3,350	1,837	1,900	1,464
경기관총 (Cal30 A4)	3,395	2,057	90	2	-	10	18	29	-	-	3	-
경기관총 (Cal30 A6)	1,220	1,734	-	43	19	28	36	-	57	46	34	120
중기관총 (Cal50 HBM2)	2,616	1,829	29	-	1	-	4	-	-	-	2	-

기관단총 (Cal45 M3A1)	23,311	2,886	113	594	278	655	593	667	180	250	128	858
2.36인치 로켓포	719	98	-	-	-	-	-	-	-	-	-	-
3.5인치 로켓포	2,972	3,177	59	15	2	61	34	58	69	3	18	-
60mm 박격포	1,475	1,291	35	-	-	1	6	-	-	-	-	-
81mm 박격포	583	452	15	-	-	1	1	-	1	-	-	-
4.2인치 박격포	146	135	-	2	5	15	1	53	-	-	-	-
자동소총A2 (M1918)	6,164	4,453	154	4	-	-	-	1	-	-	-	5
M1총검 (M1 s/w)	120,630	57,500	-	-	1,500	4,427	500	500	-	-	-	-
칼빈총검 (M4 s/w)	71,269	42,067	3,898	-	2,148	-	-	-	-	-	-	20
M7유탄발사기 (GL M7A1)	19,262	6,793	844	81	64	18	-	12	96	274	139	130
권총 (M1911 A1)	3,251	3,077	9	-	-	-	22	-	-	-	-	-
57mm무반동총 (M18)	924	1,148	29	-	12	50	23	22	15	-	-	20
75mm반동포 (M20)	447	219	11	-	-	-	-	-	-	-	-	-
105mm곡사포 (M2)	500	499	11	1	4	-	-	1	-	-	18	-
155mm곡사포	146	149	6	3	-	-	-	-	-	-	42	-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687	349	127	-	-	-	-	-	-	-	-	-
M-1903A3 소총	1,105	40	-	-	-	-	-	-	-	-	-	-
M8 유탄발사기	939	-	-	-	-	-	-	-	-	-	-	-
75mm 산포	29	-	-	-	-	-	-	-	-	-	-	-
M-1903A4 소총	85	109	-	-	-	-	-	-	-	-	-	-

종류	부대별 보급수량										기타	연말 재고량
	12 사단	15 사단	20 사단	21 사단	22 사단	25 사단	1 훈련소	2 훈련소	기타 부대	계		
칼빈소총 (M1&M2)	400	350	39	3,357	3,279	3,279	10,100	8,905	35,190	67,027	44,837	158,393
M1소총	452	10	508	270	6,393	6,383	30	1,023	89,319	122,119	27,438	266,633
경기관총 (Cal30 A4)	-	-	20	112	72	22	-	-	570	948	-102	4,402
경기관총 (Cal30 A6)	-	14	-	82	82	82	-	-	694	1,337	-1,440	2,675
중기관총 (Cal50 HBM2)	8	-	26	18	42	48	-	-	1,041	1,219	1,219	4,445
기관단총 (Cal45 M3A1)	-	276	72	71	575	620	-	-	6,550	12,480	25,909	39,626
2.36인치 로켓포	-	-	-	-	-	-	-	-	-	-	-	609
3.5인치 로켓포	4	148	30	30	85	87	-	12	2,086	2,801	1,559	4,907
60mm 박격포	-	-	-	9	84	84	-	-	413	632	129	2,263
81mm 박격포	-	18	-	-	36	36	-	-	307	415	202	822
4.2인치 박격포	-	-	5	8	6	-	-	-	16	111	84	254
자동소총A2 (M1918)	-	-	-	-	252	252	1,000	7,000	3,100	11,768	8,242	7,091
M1총검 (M1 s/w)	-	900	4,863	6,654	6,155	3,900	-	-	34,140	63,539	20,196	134,787
칼빈총검 (M4 s/w)	-	327	-	618	3,330	3,343	-	-	9,431	23,115	-16,334	73,887
M7유탄발사기 (GL M7A1)	-	32	76	169	1,084	1,012	-	99	12,776	16,906	11,642	20,791
권총 (M1911 A1)	-	-	-	-	71	71	267	115	1,131	1,686	3,891	6,604
57mm무반동총 (M18)	-	8	-	54	36	54	25	25	418	791	297	1,578

75mm반동포 (M20)	-	-	-	-	18	18	-	-	176	223	158	601
105mm곡사포 (M2)	1	1	-	-	-	-	-	-	327	364	247	882
155mm곡사포	-	-	-	-	-	-	-	-	68	119	118	294
수냉식중기관총 (M1917A1)	-	-	-	-	-	-	-	-	26	153	-132	751
M-1903A3 소총	-	-	-	-	-	-	-	-	-	155	-597	393
M8 유탄발사기	-	-	-	-	-	-	-	-	-	727	-	334
75mm 산포	-	-	-	-	-	-	-	-	-	-	-	28
M-1903A4 소총	-	-	-	-	-	-	-	-	-	109	7	92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20~121쪽.

비고 : 가. 이 자료는 병기감실의 '보급실적통계보고'에 근거한 것임.

나. 단위는 정(총기류), 문(각종 포).

<표 2-77>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 (1950. 6. 25.~1950. 12. 31.)

단위 : 발

종류		초기 보유량	입수량	소모량	연말 재고량
칼빈소총탄	실탄	-	22,348,839	21,027,864	1,320,975
	예광탄	-	805,570	805,410	160
M1소총탄	실탄	-	59,693,606	57,598,946	2,094,660
	예광탄	-	6,981,891	6,926,415	55,476
자동소총탄	실탄(AP)	-	9,948,364	8,817,160	1,131,204
	예광탄	-	2,821,214	2,821,214	-
경기관총탄 (LMG)	4AP1-T	-	27,784,880	25,718,412	2,066,468
기관단총탄 (SMG)	실탄	-	4,728,513	4,513,693	214,820
중기관총탄 (MG)*	AP1-T	-	4,633,977	4,403,972	220,005

60mm 박격포탄	HE*	-	642,826	592,364	50,456
	WP	-	6,374	3,930	2,444
	조명탄	-	90,678	90,117	561
81mm 박격포탄	HE(LT)	-	959,864	941,406	18,458
	HE(Hry)	-	311,926	296,107	15,819
	조명탄	-	88,741	88,741	-
	WP	-	98,204	93,343	4,861
4.2인치 박격포탄	HE	-	16,232	11,085	5,147
	WP	-	2,557	1,215	1,342
2.36인치 로켓포탄	HE	-	285,042	282,034	3,008
	WP	-	75,348	75,270	78
3.5인치 로켓포탄	HE	-	23,009	21,536	1,473
수류탄	미국제	-	527,424	453,471	73,953
	한국제	-	46,033	6,510	39,523
소총류탄	HE AT	-	144,448	139,508	4,940
	WP	-	24,867	24,487	380
조명탄	M-48*	-	17,761	12,146	5,675
	M-49	-	844	333	511
	T-6	-	-	-	-
57mm무반동 총탄	HE	-	66,192	65,109	1,083
	AP CT	-	36,321	34,819	1,502
	WP	-	-	-	-
75mm유탄 포탄	HE	-	108,602	108,067	535
	EE AT	-	4,925	4,200	725
	WP	-	14,280	14,210	70
37mm대전차 포탄	HE	-	30,725	30,425	300
	AP CT	-	11,739	11,739	-
	WP	-	-	-	-

105mm유탄 포탄	HE(PD)	-	411,235	363,473	47,762
	HE(TSQ)		293,118	233,871	59,247
	HE AT	-	29,087	14,244	14,843
	WP	-	55,316	52,178	3,138
	HC	-	2,280	2,280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30~131쪽.

비고 : 가. 초기보유량은 확인되지 않고, 입수량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나. \*은 입수량, 보급수량, 기말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78>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I(1951. 1. 1.~1951. 12. 31.)

단위 : 발

종류		총 입수량	총 소모량	연말 재고량
칼빈소총탄	실탄	39,651,637	36,330,662	3,320,975
	예광탄	120,260	120,100	160
M1소총탄	실탄	111,730,625	104,635,965	7,094,660
	예광탄	5,344,191	5,288,715	55,476
자동소총탄	실탄(AP)	15,909,791	14,778,587	1,131,204
	예광탄	150,269	150,269	-
경기관총탄 (LMG)	4AP1-T	48,464,412	46,397,944	2,066,468
기관단총탄 (SMG)	실탄	2,349,805	2,125,264	224,541
중기관총탄 (MG)	AP1-T	2,721,380	2,501,375	220,005
60mm 박격포탄	HE	1,278,417	1,227,961	50,456
	WP	32,560	31,999	561
	조명탄	21,303	20,379	924
81mm 박격포탄	HE(LT)	1,046,893	1,028,435	18,458
	HE(Hry)	323,098	307,279	15,819
	WP	33,542	28,681	4,861
	조명탄	705	705	-

4.2인치 박격포탄	HE	61,094	55,947	5,147
	WP	7,360	6,018	1,342
2.36인치 로켓포탄	HE	67,850	64,126	3,724
	WP	2,414	2,406	8
3.5인치 로켓포탄	HE	28,720	26,504	2,216
수류탄	미국제	1,019,118	973,438	45,680
	한국제	477,695	446,151	31,544
소총류탄	HE AT	99,127	95,256	3,871
	WP	8,418	8,034	384
조명탄	M-48	13,240	12,611	629
	M-49	16,579	16,459	120
	T-6	-	-	-
57mm무반동총탄	HE	9,125	8,140	985
	HE AT	19,486	19,143	343
	WP	1,309	1,309	-
75mm무반동총탄	HE	-	-	-
	HE AT	14,403	13,299	1,104
	WP	-	-	-
75mm유탄포탄	HE AT	69,468	69,468	-
	WP	37,415	37,415	-
105mm유탄포탄 M2탄	HE PD	883,010	864,045	18,965
	HE TSQ	219,359	259,975	3,788
	HE AT	19,559	19,559	-
	WP	40,536	38,185	2,351
37mm직사포탄	HE	19,582	19,582	-
	APCT	1,078	1,078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32~137쪽.

비고 : 가. 총 입수량은 전년 재고량 + 금년 입수량의 총계.

나. 총 소모량은 수도·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1사단의 총 탄약소모량을 지칭함.

<표 2-79>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II(1952. 1. 1.~1952. 12. 31.)

단위 : 발

종류		총 입수량	총 소모량	연말 재고량
칼빈소총탄	실탄	38,081,653	28,877,622	9,204,031
	예광탄	166,295	132,775	33,520
M1소총탄	실탄	79,607,889	61,702,745	17,905,144
	예광탄	1,273,464	912,063	361,401
자동소총탄	실탄(AP)	12,702,676	11,315,780	1,386,896
	예광탄*	129,609	71,390	57,619
경기관총탄 (LMG)	4AP1-T	49,073,210	38,863,658	10,209,552
기관단총탄 (SMG)	실탄	3,052,197	2,811,671	240,526
중기관총탄 (MG)	AP1-T	5,858,965	4,585,228	1,273,737
60mm 박격포탄	HE	1,368,353	1,221,952	146,401
	WP	10,473	7,263	3,210
81mm 박격포탄	HE(LT)	929,572	835,858	93,714
	HE(Hry)	434,317	401,623	32,694
	WP	46,853	36,031	10,822
	조명탄	-	-	-
	Sblwnn	25,253	19,932	5,321
4.2인치 박격포탄	HE	257,985	230,598	27,387
	WP	37,204	29,316	7,888
2.36인치 로켓포탄	HE	23,954	20,180	3,774
	WP	1,723	1,569	154
3.5인치 로켓포탄	HE	71,597	55,102	16,495
수류탄	미국제	1,481,328	1,211,311	270,017
	한국제	64,726	64,726	-
소총류탄	HE AT	79,607	60,415	19,192
	WP	13,403	9,764	3,639

조명탄	M-48	6,776	6,083	693
	M-49	16,425	13,468	2,957
	T-6	22,599	17,351	5,248
57mm무반동총탄	HE	126,629	78,370	48,259
	HE AT	10,617	8,088	2,529
	WP	8,883	6,027	2,856
75mm무반동총탄	HE	61,689	48,842	12,847
	HE AT	12,445	11,985	460
	WP	4,825	3,150	1,675
75mm유탄포탄	HE	255	255	-
	WP	10	10	-
90mm직사포탄	HE	40,307	28,469	11,838
	AP CT	6,514	2,381	4,133
	WP	1,614	723	891
105mm유탄포탄	HE	-	-	-
	HE PT	-	-	-
	WP	-	-	-
105mm유탄포탄 M2탄	HE PD	1,135,021	1,042,130	92,891
	HE TSQ	241,306	216,720	24,586
	HE AT	245,480	240,810	4,670
	WP*	4,702	14,846	7,252
	HC*	4,553	1,455	3,386
155mm유탄포 M1탄	HE*	52,114	24,451	37,713
	WP	9,589	1,455	8,134
신호탄	ASSA11	19,660	15,658	4,002
60mm박격포	eltmo	112,046	83,863	28,183
37mm직사포탄	HE APCT	1,153	1,153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38~147쪽.

비고 : 가. 총 입수량은 전년 재고량 + 금년 입수량의 총계.

나. 총 소모량은 수도·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1·제12·제15사단의 총 탄약소모량을 지칭함.

다. \*은 총 입수량, 총 소모량, 연말 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0> 연도별 전방부대 탄약소모량 IV(1953. 1. 1.~1953. 12. 31.)

단위 : 발

종류		총 입수량	소모량	탄약보급소 반납	연말 보유량
칼빈소총탄	실탄	52,100,119	35,837,402	4,156,847	12,105,870
	예광탄	175,858	111,670	4,800	59,388
M1소총탄	실탄	96,795,153	67,348,981	9,030,183	20,415,989
	예광탄*	4,899,784	3,066,983	647,954	1,184,842
자동소총탄	실탄(AP)	16,033,963	10,930,026	1,321,252	3,782,685
	예광탄	580,991	312,253	58,950	209,788
경기관총탄 (LMG)	4AP1-T	64,927,881	46,233,748	5,511,185	13,182,948
기관단총탄 (SMG)	실탄	12,313,943	5,561,460	784,264	5,968,219
중기관총탄 (MG)	AP1-T	10,388,789	7,568,100	985,466	1,835,223
60mm 박격포탄	HE*	3,009,130	1,890,738	961,195	156,439
	WP*	151,905	128,128	10,594	13,188
81mm 박격포탄	HE(LT)	1,489,265	1,301,380	105,045	82,840
	HE(Hry)	75,784	59,890	9,433	6,461
	WP*	69,473	58,503	4,844	6,875
	Sblwnn*	70,222	53,806	7,964	7,703
4.2인치 박격포탄	HE	544,078	503,943	15,790	24,345
	WP	63,534	52,330	5,249	5,955
2.36인치 로켓포탄	HE	11,352	9,754	302	1,296
	WP*	846	408	156	162
3.5인치 로켓포탄	HE	115,214	52,862	10,300	52,052
수류탄	미국제	2,074,907	1,630,126	145,549	299,232
	한국제	-	-	-	-
소총류탄	HE AT*	202,164	7,475	112,299	30,390
	WP	31,538	22,253	2,176	7,109

조명탄	M-48	10,411	6,146	330	3,935
	M-49	15,026	8,708	824	5,494
	T-6	31,660	18,537	2,456	10,667
57mm 무반동총탄	HE	241,131	181,640	24,642	34,849
	HE AT	18,791	12,625	2,583	3,583
	WP	20,165	12,856	3,231	4,078
75mm 무반동총탄	HE*	115,860	84,886	6,950	14,024
	HE AT	9,948	6,424	1,218	2,306
	WP	10,785	7,261	1,361	2,163
75mm유탄포탄	HE AT	-	-	4,619	-
	WP	-	-	344	-
90mm 직사포탄	HE*	190,719	175,859	441	10,241
	AP CT	8,846	6,185	525	2,317
	WP*	7,414	6,198	166	775
105mm유탄포탄	HE*	1,698	560	15	613
	HE PT	606	275	166	165
	WP	348	16	15	317
105mm유탄포탄 M2탄	HE PD	2,930,695	2,711,158	68,602	150,935
	HE TSQ	128,699	109,236	5,947	13,516
	HE AT	43,181	37,706	2,729	2,746
	WP	48,522	28,038	2,380	18,104
	HC	12,607	7,460	2,368	2,779
155mm유탄포 M1탄	HE	661,399	895,833	23,082	42,484
	WP*	25,687	19,459	2,206	4,023
신호탄	ASSA11	25,663	18,099	1,601	5,963
60mm박격포	eltmo	145,596	124,999	-	-
37mm 직사포탄	HE	-	-	-	-
	APCT	-	-	-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48~161쪽.

비고 : 가. 총 입수량은 전년 재고량 + 금년 입수량의 총계.

나. 총 소모량은 수도·제1·제2·제3·제5·제6·제7·제8·제9·제11·제12·제15·제20·제21·제22·제25·제26사단사단의 총 탄약소모량을 지칭함.

다. \*은 총 입수량, 총 소모량, 탄약보급소 반납수량, 연말 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1>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 (1950. 6. 25.~1951. 3. 31.)

종 류	단위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백미(白米)	60kg (가마)	127,800	573,847	659,313	42,374
압맥(壓麥)	kg	1,480,250	1,558,522	2,854,122	184,650
고추장	kg	394,850	611,395	751,591	254,654
된 장	kg	783,434	2,836,369	2,774,325	845,478
건 빵	대(袋)	2,483,476	3,947,532	4,996,158	1,434,850
화랑연초	갑	7,845,421	13,289,724	16,271,891	4,863,254
미국연초	갑	1,864,364	932,405	2,401,915	394,854
통조림	관	784,835	2,072,691	2,073,172	784,354
식염(食鹽)	kg	484,643	617,505	853,608	248,540
단무지	kg	-	752,364	752,150	214

출처 :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72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6쪽.

<표 2-82>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I (1951. 4. 1.~1951. 12. 31.)

종 류	단위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백미(白米)*	60kg (가마)	42,374	785,196	705,922	121,432
압맥(壓麥)*	kg	184,650	5,040,133	4,940,505	384,278
고추장	kg	254,654	881,833	1,088,037	48,450
된장*	kg	845,478	1,599,793	2,211,026	134,245
건빵	대(袋)	1,434,850	8,928,020	8,878,302	1,484,568

화랑연초*	갑	4,863,254	21,999,418	22,378,104	3,484,568
미국연초	갑	394,854	4,575,623	4,485,627	484,850
통조림	관	784,354	4,938,854	4,938,708	784,500
식염(食鹽)	kg	248,540	1,789,505	1,753,200	284,845
단무지	kg	214	-	-	214

출처 :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73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6쪽.

비고 : \*은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3>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II(1952. 1. 1.~1952. 12. 31.)

종 류	단위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백미(白米)	60kg (가마)	121,432	20,422,477	20,432,013	111,896
압맥(壓麥)	kg	384,278	8,595,816	8,655,012	325,082
고추장	kg	48,450	4,736,037	4,217,065	567,422
된장	kg	134,245	13,177,274	12,634,872	676,647
건빵	대(袋)	1,484,568	24,218,690	25,674,594	28,664
화랑연초	갑	3,484,568	74,976,438	73,847,194	4,613,812
미국연초	갑	484,850	12,658,984	11,230,400	1,913,434
통조림*	관	784,500	18,496,313	18,451,392	928,421
식염(食鹽)	kg	284,845	5,027,436	4,567,404	744,877

출처 :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74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7쪽.

비고 : \*은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4> 1종 보급품 보급 현황 IV(1953. 1. 1.~1953. 7. 27.)

종 류	단위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백미(白米)	60kg (가마)	111,896	1,451,821	1,386,511	177,206
백미(白米)	45kg (가마)	-	225,199	224,573	626
압맥(壓麥)	kg	325,082	5,079,372	4,759,470	644,984
고추장	kg	567,422	2,629,660	2,350,753	846,329
된장	kg	676,647	8,217,170	6,132,401	2,761,416
건빵	대(袋)	28,664	10,580,226	7,961,357	2,648,033
화랑연초*	갑	4,613,812	63,567,630	53,529,594	14,651,848
미국연초	갑	1,913,434	7,611,346	8,361,312	1,163,468
통조림*	관	928,421	4,358,943	3,107,068	2,081,296
식염(食鹽)	kg	744,877	3,451,968	3,499,464	697,381
단무지	kg		1,799,726	1,794,167	5,559

출처 :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75쪽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7쪽.

비고 : \*은 초기 보유량,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5> 유지(油脂) 보급 현황 I (1950. 6. 25.~1951. 3.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휘발유*	D/M	256,925	252,345	4,579
항공유	D/M	439	416	23
오일(#10)	G/A	589,038	578,297	10,741
항공오일 (#1100)	G/A	1,140	422	718
항공오일 (#1080)	G/A	600	378	222
GO유(#75)	G/A	102,791	95,655	7,136
그리스 (Grease)I	L/b	199,723	190,648	9,075
경유*	D/M	15,525	14,173	1,352
중유	D/M	2,074	1,739	335
석유	G/A	40,863	39,177	1,686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8쪽.

비고 : 가. 입수수량은 기본보유+군사원조의 수량임.

나. \*은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6> 유지(油脂) 보급 현황 II(1951. 4. 1.~1952. 3.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휘발유	D/M	633,875	625,450	8,425
항공유*	D/M	2,237	1,785	452
오일(#10)	G/A	207,091	205,189	1,902
오일(#30)	G/A	1,091,354	1,077,666	13,688
오일(#50)	G/A	115,542	106,950	8,592
항공오일(#1100)	G/A	4,047	2,098	1,949
항공오일(#1080)	G/A	19,676	10,618	9,058
항공오일(#1065)	G/A	10,962	7,207	3,755
GO유(#75)	G/A	111,158	106,465	4,693
GO유(#90)	G/A	148,319	135,761	12,558
그리스(Grease)1	L/b	309,458	298,007	11,451
그리스(Grease)2	L/b	116,451	101,195	15,256
그리스(Grease)4	L/b	16,782	11,471	5,311
경유	D/M	159,436	149,488	9,948
중유	D/M	6,174	5,439	735
솔벤트(Solvent)	D/M	437	411	26
석유	G/A	51,025	45,239	5,786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8쪽.

비고 : 가. 입수수량은 기말재고+군사원조의 수량임.

나. \*은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7> 유지(油脂) 보급 현황 III(1952. 4. 1.~1953. 3.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휘발유	D/M	664,561	639,251	25,310
항공유	D/M	9,757	8,432	1,325
오일(#10)	G/A	339,996	266,993	73,003
오일(#30)*	G/A	1,054,952	1,023,519	31,439
오일(#50)	G/A	226,292	221,523	4,769
항공오일(#1100)	G/A	22,003	10,489	11,514
항공오일(#1080)	G/A	24,672	16,313	8,359
항공오일(#1065)	G/A	16,599	11,730	4,869
GO유(#75)	G/A	82,406	67,921	14,485
GO유(#90)	G/A	184,266	146,270	37,996
그리스(Grease)1	L/b	197,048	194,995	2,053
그리스(Grease)2	L/b	147,720	140,171	7,549
그리스(Grease)4	L/b	64,538	50,256	14,282
그리스GAA	L/b	267,487	238,480	29,007
경유	D/M	245,586	225,033	20,553
중유	D/M	1,928	1,928	-
솔벤트(Solvent)	D/M	1,283	936	347
석유	G/A	193,509	156,413	37,096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9쪽.

비고 : 가. 입수수량은 기말재고+군사원조의 수량임.

나. \*은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8> 유지(油脂) 보급 현황 IV(1953. 4. 1.~1953. 7. 27.)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
휘발유	D/M	272,021	258,885	13,136
항공유	D/M	5,913	4,746	1,167
오일(#10)	G/A	134,840	59,524	75,316
오일(#30)	G/A	320,092	230,727	89,365
오일(#50)	G/A	256,378	217,219	39,159
항공오일(#1100)	G/A	25,494	11,449	14,045
항공오일(#1080)	G/A	23,444	8,593	13,851
항공오일(#1065)	G/A	5,929	848	5,081
GO유(#75)	G/A	23,635	13,988	9,647
GO유(#90)	G/A	139,094	96,514	40,580
그리스(Grease)1	L/b	3,753	3,343	410
그리스(Grease)2	L/b	52,151	44,797	7,354
그리스(Grease)4	L/b	32,874	21,381	11,493
그리스GAA	L/b	228,010	186,149	41,861
경유*	D/M	43,339	28,801	14,537
중유	D/M	114	114	-
솔벤트(Solvent)*	D/M	1,104	607	496
석유	G/A	113,791	28,487	85,304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69쪽.

비고 : 가. 입수수량은 기말재고+군사원조의 수량임.

나. \*은 입수 수량, 보급 수량, 기말 재고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89> 피복(被服) 보급 현황 I (1950. 6. 25.~1950. 12.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연말 재고
작업모	매(枚)	1,083,891	530,916	552,975
철 모	매(枚)	-	153,796	153,823
화이버모	매(枚)	409,486	188,716	220,770
방한모	매(枚)	426,137	230,469	195,668
러닝셔츠	매(枚)	289,799	185,610	104,189
팬티	매(枚)	853,683	600,849	257,834
동(冬)내의(상)	매(枚)	1,422,392	740,205	682,187
동(冬)내의(하)	매(枚)	1,316,161	677,439	638,722
모(毛)와이셔츠*	매(枚)	501,538	336,030	170,508
작업복(상)	매(枚)	1,006,137	874,003	132,134
작업복(하)	매(枚)	1,054,891	914,297	140,594
방한복(상)	매(枚)	765,086	264,214	500,872
방한복(하)	매(枚)	308,068	239,295	68,773
카키복(상)	매(枚)	236,972	18	236,954
카키복(하)	매(枚)	235,226	90	235,136
동(冬)정복(하)*	매(枚)	235,196	118,800	235,196
우 의	매(枚)	329,114	315,734	13,380
병사의투	매(枚)	507,467	215,576	291,891
야전상의	매(枚)	631,810	209,474	412,336
훈련화	족(足)	1,108,974	908,493	200,481
방한화	족(足)	360,937	151,892	209,045
방한장갑	조(組)	196,124	115,322	80,802

모(毛)양말	족(足)	3,846,105	3,021,140	824,965
모 포	매(枚)	708,283	414,195	294,088
포단(布團)	매(枚)	42,474	0	42,474
요 대	개(個)	179,242	169,295	9,947
권총요대	개(個)	54,149	21,003	33,136
M1탄대	개(個)	104,182	79,119	25,063
배 낭	개(個)	237,268	138,234	99,034
면 양 말*	족(足)	2,860,643	1,563,001	1,297,630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70쪽.

비고 : 가. 입수수량은 기본보유+군사원조+국내조달의 수량임.

나. \*은 입수수량, 보급수량, 기말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90> 피복(被服) 보급 현황 II(1951. 1. 1.~1951. 12.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연말 재고
작 업 모*	매	1,062,884	720,654	342,230
철 모	매	254,341	189,561	64,780
화이바모	매	431,216	215,833	215,383
방 한 모*	매	469,048	269,603	195,445
러닝셔츠*	매	1,728,722	551,717	1,168,005
팬 티	매	1,246,963	834,660	412,303
동(冬)내의(상)	매	1,680,196	914,110	766,086
동(冬)내의(하)	매	1,677,361	785,808	891,553
모(毛)와이셔츠	매	201,006	83,740	117,266
작업복(상)*	매	1,775,615	1,141,550	643,065
작업복(하)*	매	1,782,116	1,113,796	568,320

방한복(상)	매	913,272	409,127	504,145
방한복(하)	매	489,355	120,243	369,112
카키복(상)	매	239,553	60,082	178,471
카키복(하)	매	242,581	60,087	182,494
동(冬)정복(하)	매	238,962	132,474	106,488
우 의	매	123,849	90,985	32,864
병사의투	매	439,522	153,808	285,714
야전상의	매	447,780	111,989	335,791
훈 련 화	족	1,905,597	1,352,186	553,411
방 한 화	족	587,045	368,582	218,463
방한장갑	조	351,102	191,850	159,252
모(毛)양말	족	1,198,485	893,207	305,278
모 포*	매	949,766	397,352	552,414
포단(布團)	매	127,098	83,362	43,736
요 대*	개	283,041	180,405	2,736
권총요대	개	116,047	99,704	16,343
M1탄대*	개	131,102	112,695	3,107
배 낭	개	405,938	190,407	215,531
면 양 말	족	3,965,824	3,130,339	835,485
군 화	족	245,122	18,873	226,249
칼빈탄대	개	171,267	70,723	100,544
수 통	개	489,969	147,012	342,957
반 합*	개	155,156	118,064	37,093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71쪽.

비고 : 가. 수량은 전년제고+군사원조+국내조달의 수량임.

나. \*은 입수수량, 보급수량, 기말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91> 피복(被服) 보급 현황 III(1952. 1. 1.~1952. 12.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연말 재고
작업모*	매	812,230	644,859	267,371
철 모	매	340,780	216,390	124,390
화이바모	매	525,253	306,099	219,154
방한모	매	708,569	375,687	332,882
러닝셔츠*	매	2,570,150	980,150	1,590,130
팬티	매	2,072,418	1,199,157	873,261
동(冬)내의(상)	매	2,469,040	1,269,541	1,199,499
동(冬)내의(하)*	매	1,607,411	1,368,602	1,041,139
모(毛)와이셔츠	매	385,043	111,037	274,006
작업복(상)	매	2,138,146	1,831,621	306,525
작업복(하)	매	8,854,342	1,936,116	918,226
방한복(상)*	매	923,199	692,861	230,334
방한복(하)	매	838,162	684,624	153,538
카키복(상)	매	961,415	112,419	848,996
카키복(하)	매	546,083	112,666	433,417
동(冬)정복(하)*	매	394,361	120,133	374,228
우 의	매	583,769	452,043	131,726
병사의투	매	644,594	301,151	343,443
야전상의*	매	506,545	320,985	185,558
훈련화*	족	2,953,411	2,098,435	854,376
방한화	족	668,463	508,134	160,329
방한장갑	조	629,252	429,772	199,480
모(毛)양말	족	2,774,602	2,001,611	772,991

모 포	매	921,260	748,261	172,999
포단(布團)*	매	163,736	61,329	2,357
요 대	개	205,291	166,261	39,030
권총요대*	개	106,553	76,553	30,023
M1탄대	개	245,247	153,329	91,918
배 낭	개	300,516	228,161	72,355
면 양 말	족	5,878,469	4,460,848	1,417,621
군 화	족	537,532	436,211	101,321
칼빈탄대*	개	100,642	70,257	29,384
수 통	개	598,907	332,994	265,913
반 합	개	417,141	326,794	90,347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72쪽.

비고 : 가. 수량은 전년재고+군사원조+국내조달의 수량임.

나. \*은 입수수량, 보급수량, 기말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92> 피복(被服) 보급 현황 IV(1953. 1. 1.~1953. 7. 31.)

종 류	단위	입수 수량	보급 수량	연말 재고
작 업 모*	매	786,130	509,942	271,188
철 모	매	510,454	168,313	342,141
화이바모	매	315,729	254,489	61,240
방 한 모	매	667,435	133,996	533,439
러닝셔츠*	매	2,743,192	1,802,160	941,130
팬 티	매	2,665,828	881,063	1,784,765
동(冬)내의(상)	매	2,252,227	571,475	1,680,752

동(冬)내의(하)*	매	2,048,755	569,864	1,578,891
모(毛)와이셔츠*	매	406,118	108,159	297,960
작업복(상)	매	2,541,385	1,285,178	1,256,207
작업복(하)*	매	2,611,962	938,601	1,628,361
방한복(상)*	매	439,454	431,910	107,544
방한복(하)*	매	458,604	256,663	205,515
카키복(상)*	매	885,399	131,403	752,996
카키복(하)	매	486,902	116,956	369,946
동(冬)정복(하)*	매	486,990	33,121	153,869
우 의	매	403,083	297,560	105,523
병사의투	매	513,574	80,996	432,578
야전상의	매	372,463	60,809	311,654
훈 련 화*	족	1,567,411	1,087,210	480,731
방 한 화	족	184,716	153,930	30,786
방한장갑	조	199,480	-	-
모(毛)양말	족	2,784,950	1,221,361	1,563,589
모 포	매	522,599	446,617	75,982
포단(布團)	매	122,820	53,146	69,674
요 대	개	456,668	201,947	254,721
권총요대	개	66,302	56,240	10,062
M1탄대	개	272,167	147,852	124,315
배 낭*	개	378,935	164,054	154,881
면 양 말	족	2,952,108	1,930,326	1,021,782
군 화	족	280,419	128,043	152,376

칼빈탄대*	개	31,391	16,359	15,337
수 통*	개	693,767	124,993	435,522
반 합*	개	275,925	98,229	248,594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173쪽.

비고 : 가. 수량은 전년재고+군사원조+국내조달의 수량임.

나. \*은 입수수량, 보급수량, 기말재고량의 수치계산이 틀린 항목임. 이 글에서는 원문대로 수록하였음.

<표 2-93> 전쟁기 국군의 봉급 현황

계 급 \ 기 간	1950. 6. 25.	1950. 10. 1. ~ 1952. 3. 31.	1952. 4. 1. ~ 1952. 9. 30.	1953. 7. 27.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환
대 장	30,000	90,000	90,000	2,700
중 장	24,000	72,000	72,000	2,160
소 장	22,000	66,000	66,000	1,980
준 장	20,000	60,000	60,000	1,800
대 령	16,000	51,300	56,100	1,683
중 령	14,700	46,500	51,300	1,539
소 령	13,900	41,500	46,500	1,395
대 위	11,900	35,700	38,100	1,143
중 위	11,000	33,300	35,700	1,071
소 위	10,300	30,900	33,300	999
준 위	9,900	29,700	32,100	963
특무상사	8,500	25,500	26,100	783
일등상사	8,500	25,500	26,100	783
이등상사	7,700	23,100	24,300	729

일등중사	2,000	6,000	7,200	72
이등중사	1,800	5,400	6,000	60
하사	1,500	4,500	4,500	45
일병	1,200	3,600	3,600	36
이병	1,000	3,000	3,000	30
사관후보생	1,800	5,400	6,000	45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7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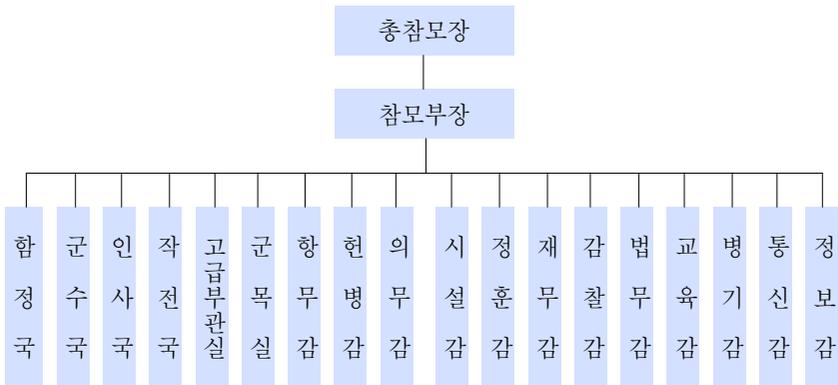
비고 : 가. 1950년 6월 25일 당시 쌀값은 1가마(叵)당 도매가격으로 17,400원임.

나. 1953년 2월 14일 화폐개혁으로 화폐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바뀌었으며, 100원이 1환임.

## 2.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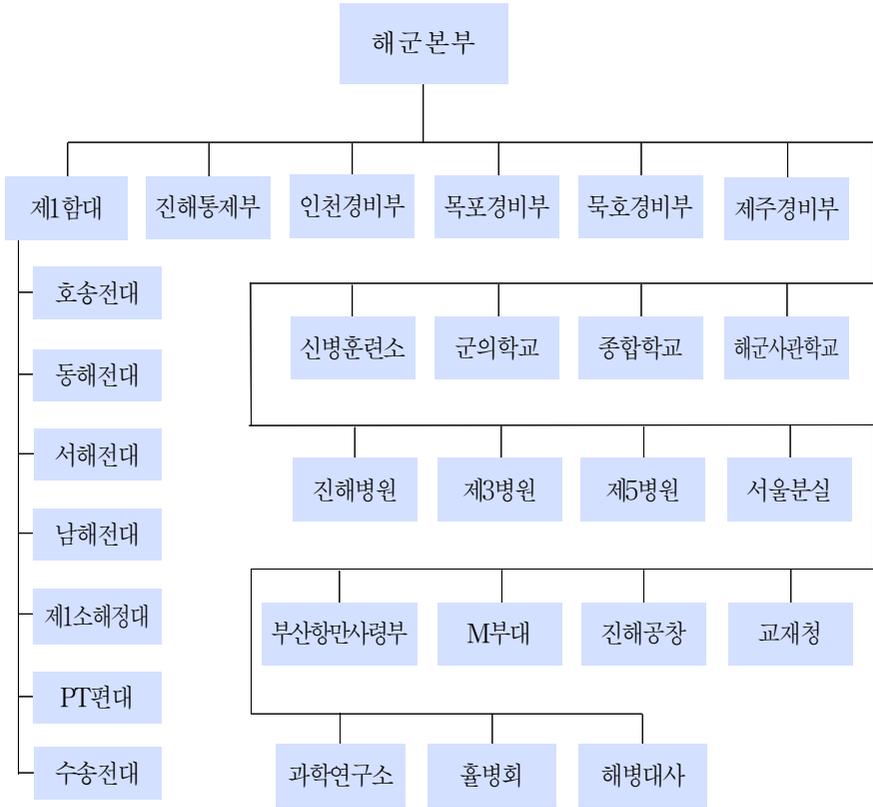
### 1) 편성

<표 2-94> 해군본부 편성표(1950. 10. 10. 현재)<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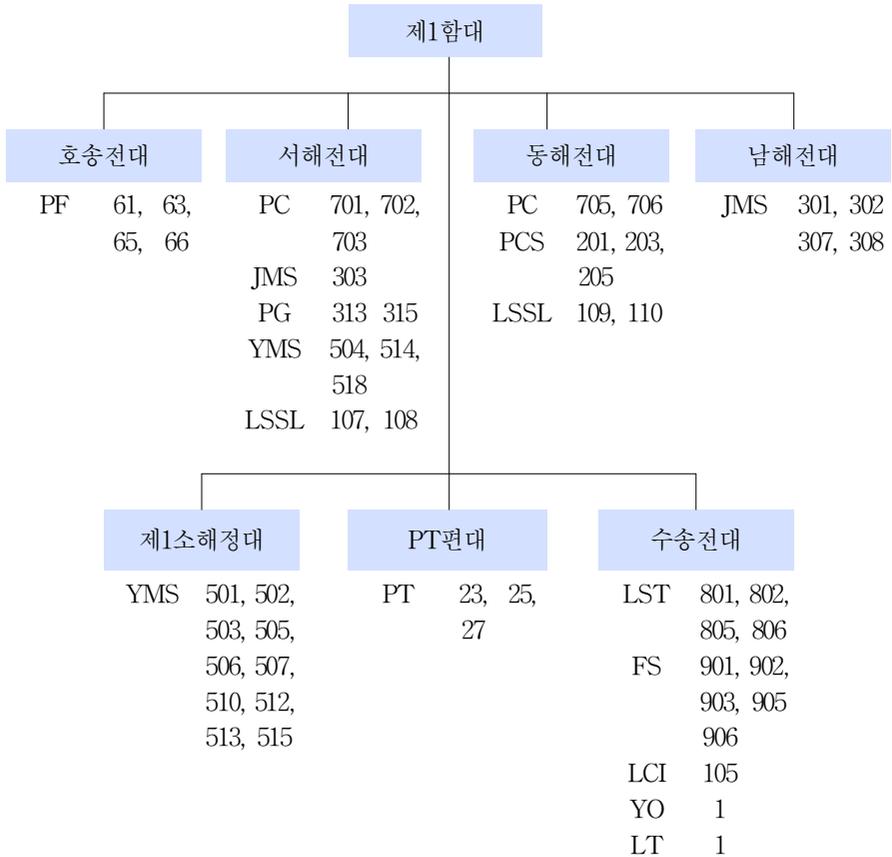
26) 출처 :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제1권, 1970, 1~8쪽.

<표 2-95>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군 편성표(1953. 7. 27. 현재)<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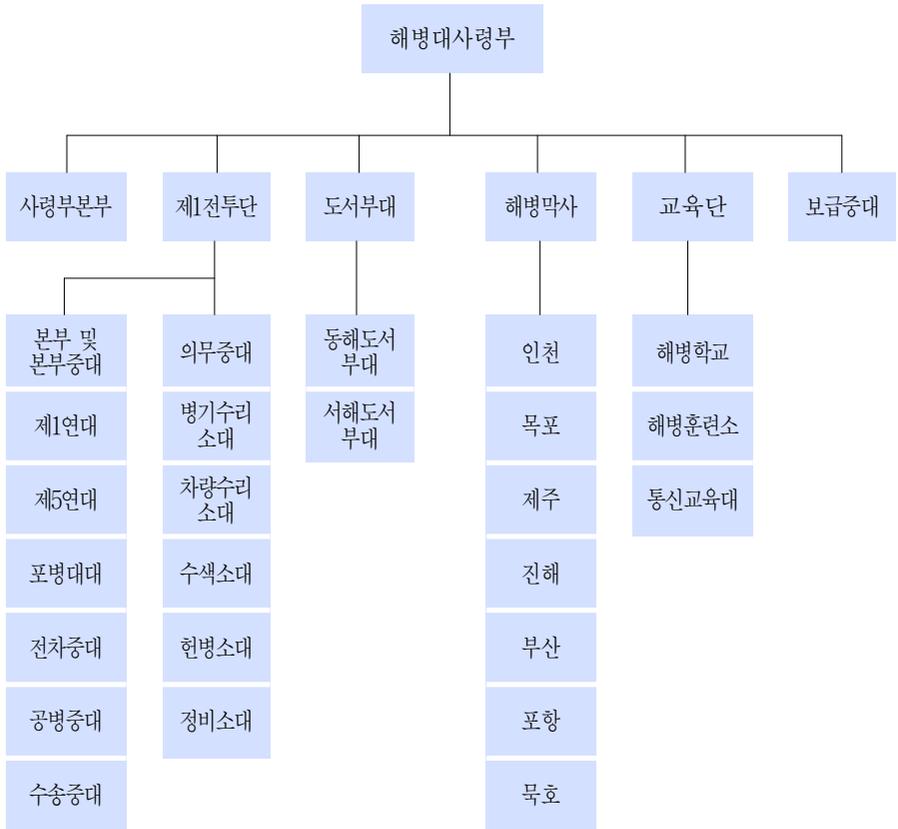
27) 해군본부, 『해군편제사』, 1992, 49쪽.

<표 2-96> 해군 제1함대 조직도<sup>28)</sup>



28)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1958, 208쪽.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 작전』, 2012, 441쪽 재인용. 제1함대는 1950년 8월 16일 창설되었다.

<표 2-97>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병대 조직도(1953. 7. 27. 현재)<sup>29)</sup>



29) 해병대사령부, 『해병발전사』, 1961, 219~220쪽.

<표 2-98> 6·25전쟁 기간 해군 주요 직위자

구 분	역대	계급	성 명	부임일자
해군총참모장	제1대	소장	손원일	1948. 9. 5.
	제2대	소장	박옥규	1953. 6.30.
인사국장	제1대	대령	김일병	1950. 4.10.
	제2대	준장	박옥규	1952. 4.30.
	제3대	준장	김성삼	1952. 7.14.
	제4대	준장	김일병	1952. 8. 8.
	제5대	대령	이재송	1953. 1. 7.
	제6대	대령	이중우	1953. 5. 3.
작전국장	제3대	대령	박옥규	1949. 4. 1.
	제4대	준장	이용운	1950. 7.15.
	제5대(대리)	중령	주철규	1951. 7. 5.
	제6대	중령	김영관	1951.12.13.
	제7대 (작전참모)	중령	김준태	1952. 4.16.
	제8대 (작전참모)	중령	이경원	1953. 4.30.
군수국장	제2대	중령	서상웅	1950. 3.
	제3대 (군수참모)	중령	김익성	1950. 8.15.
	제4대	대령	김경선	1951. 8. 6.
	제5대	대령	김순식	1952.10.12.
함정국장	제3대	중령	이중우	1949. 8.25.
	제4대	준장	정궁모	1950.12. 6.
	제5대	중령	권태춘	1951. 2. 9.
	제6대	중령	민영구	1951. 9.26.
	제7대	소령	최영호	1951.12.23.
	제8대	중령	민영구	1952. 5. 5.
	제9대	대령	장호근	1952. 7.29.

감찰감	제4대	소령	정동호	1951. 2. 1.
	제5대	대령	박옥규	1951. 7. 7.
	제6대(대리)	소령	김영진	1951.12.26.
	제7대(대리)	소령	신소원	1952. 1.10.
	제8대	중령	이종우	1952. 5. 9.
	제9대	대령	권태춘	1953. 5. 3.
	제10대	소령	허승룡	1953. 6.17.
정보감	제2대	소령	함명수	1949. 7. 1.
	제3대	중령	문기섭	1952. 1.27.
통신감	제1대	소령	김대륜	1948. 6.20.
	제2대	중령	한득순	1950.12.16.
	제3대	소령	김대륜	1951. 9.11.
	제4대	소령	김응식	1952. 6.24.
법무감	제2대	소령	강대형	1950. 6.19.
	제3대	중령	박이순	1951. 9.15.
헌병감	제1대	소령	백남표	1949.10.21.
	제2대	소령	김태숙	1950.12.23.
	제3대	중령	김종식	1953. 5. 7.
정훈감	제2대	군무원	송홍국	1949. 10.
	제3대	소령	정달빈	1950. 8.
	제4대	준장	김성삼	1951. 4.
	제5대	중령	김 건	1952. 2.
	제6대	소령	이무영	1953. 3.
군목실장	제1대	대위	추인봉	1950. 11.
	제2대	중령	정달빈	1951. 4.24.
재무감	제1대	중령	서상용	1950. 8.15.
	제2대	대령	김익성	1951. 8.15.
	제3대	대령	서상용	1952. 1.19.

병기감	제1대	중령	김정주	1949. 2.15.
	제2대	준장	정금모	1950.12. 6.
	제3대	소령	남 철	1951. 8.20.
	제4대	소령	장지수	1952. 5.13.
	제5대	중령	권태춘	1953. 1.15.
	제6대	중령	민홍기	1953. 5. 3.
의무감	제2대	중령	박양원	1949. 3. 5.
	제3대	대령	김기홍	1951.11.20.
	제4대	대령	박주병	1952.10.27.
시설감	제2대	중령	김극인	1949. 10.
	제3대	소령	윤승선	1951. 8.
	제4대	소령	양일갑	1952. 4.
진해통제부 사령장관	제3대	준장	김성삼	1950. 4.10.
	제4대	소장	정금모	1951. 2. 9.
인천경비부 사령관	제7대	중령	유해거	1950. 2.18.
	제8대	소령	이희정	1950. 8.25.
	제9대	소령	김종기	1950. 9. 1.
	제10대	중령	최동화	1950.10. 5.
	제11대	대령	이희정	1951. 2.29.
	제12대	중령	김남교	1951.10. 1.
	제13대	중령	최효용	1953. 1.28.
부산경비부 사령관	제6대 (책임장교)	소령	민영구	1949.12.24.
	제7대	대령	김일병	1950. 7.30.
	제8대	중령	김영관	1950.10.31.
	제9대(대리)	소령	김기만	1951. 4. 1.

목포경비부 사령관	제3대	중령	정궁모	1948. 5.10.
	제4대	중령	송인명	1950.12.24.
	제5대	중령	김충남	1952. 6.17.
	제6대	중령	백기조	1952. 8.25.
목호경비부 사령관	제4대	소령	김두찬	1949.11.23.
	제5대	소령	백기조	1950.12.14.
	제6대	소령	윤병춘	1951. 8.23.
	제7대	중령	신영철	1952. 5.10.
제주경비부 사령관	제1대	중령	남상휘	1950.12.11.
	제2대	소령	권순달	1951. 3. 3.
	제3대	중령	김용호	1951. 8. 1.
	제4대	중령	김창현	1953. 2. 2.
제1함대사령관	제1대	중장	손원일	1952. 3. 1.
	제2대	소장	박옥규	1953. 5.24.
해군사관학교장	제4대	준장	김장훈	1949.10.26.
	제5대	준장	정궁모	1953. 4.18.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1958, 11~14쪽, 16쪽, 26쪽, 39쪽, 45쪽, 55쪽, 64쪽, 66쪽, 71쪽, 98쪽, 106쪽, 109쪽, 111쪽, 117~118쪽, 125쪽, 130쪽, 198쪽, 200쪽, 204쪽, 205쪽, 209쪽, 250쪽.

비고 : 1952년 3월 1일 제1함대 창설.

<표 2-99> 6·25전쟁 기간 해병대 주요 직위자

구 분	역 대	계급	성 명	부임일자
사령관	제1대	소장	신현준	1949. 2. 1.
참모장	제2대	중령	김두찬	1949.12.10.
	제3대	중령	김성은	1950. 9.26.
	제4대	대령	김대식	1952. 2. 6.
	제5대	대령	김동하	1952. 3.24.
	제6대	준장	김대식	1952.11. 1.
인사국장	제1대(인사참모)	대령	채정송	1950. 9. 2.
	제2대(인사참모)	소령	김윤근	1951. 3. 1.
	제3대	소령	이학문	1951. 5. 4.
	제4대	중령	강기천	1953. 4.25.
정보국장	제2대(정보참모)	소령	고길훈	1950. 4. 1.
	제3대(정보참모)	중령	김두찬	1950. 7.30.
	제4대(정보참모)	소령	오명복	1951. 1. 4.
	제5대(정보참모)	중령	고길훈	1951. 1.10.
	제6대	대령	염봉생	1951. 4. 1.
작전교육국장	제1대(작전참모)	소령	오명복	1950. 9. 2.
	제2대(작전참모)	소령	김병호	1951. 1.10.
	제3대(작전참모)	소령	윤영준	1951. 7. 4.
	제4대(작전참모)	소령	공정식	1951.10.21.
	제5대(작전참모)	소령	문희석	1952. 1.21.
	제6대	중령	오명복	1952. 6. 6.
	제7대	중령	채택현	1952.12.20.
군수국장	제1대(군수참모)	중령	김동하	1950. 8. 1.
	제2대(군수참모)	중령	김두찬	1951. 8. 1.
	제3대(군수참모)	소령	김윤근	1951. 9.12.
	제4대(군수참모)	소령	변재갑	1952. 7. 7.
	제5대(군수참모)	중령	공정식	1952. 8.23.
	제6대	중령	백남표	1952. 9.27.

제1연대장	제1대	대령	김성은	1950.12.23.
	제2대	대령	김대식	1951. 5. 1.
	제3대	중령	김동하	1951. 7. 1.
	제4대(전투단장겸)	준장	김석범	1952. 3.21.
	제5대(전투단장겸)	대령	김성은	1952.10.16.
	제6대(전투단장겸)	대령	고길훈	1953. 7. 7.
교육단장	제1대	대령	김동하	1953. 1. 1.
	제2대	대령	김대식	1953. 3. 5.
	제3대	준장	김성은	1953. 7. 7.

출처 : 해병대사령부, 『6·25전쟁 해병대전투사』, 2012, 671~676쪽.

<표 2-100> 6·25전쟁 기간 주요 전투함 함장

함정명		역대	계급	성명	재직기간
PF	61함 (두만강)	1대	중령	최효용	1950. 9. 6.
		2대	대령	이용운	1951. 7. 6.
		3대	중령	장지수	1952. 4. 6.
		4대	중령	이용섭	1952. 5.10.
		5대	중령	윤영원	1953. 7.17.
	62함 (압록강)	1대	대령	박옥규	1953.10.23.
		2대	중령	이재송	1951. 4. 1.
		3대	중령	신종섭	1951. 9. 1.
		4대	중령	이재송	1952. 7.13.
	63함 (대동강)	1대	대령	최효용	1951.10. 4.
		2대	중령	이희정	1952. 1.10.
		3대	대령	이용운	1952.11.10.
4대		중령	이중철	1953. 6.20.	

PC	65합 (낙동강)	1대	중령	이재송	1951.10. 8.
		2대	중령	최효용	1952. 7.14.
		3대	중령	장지수	1953. 1.25.
	66합 (임진강)	1대	중령	이성호	1952.11.15.
		2대	중령	이건주	1953. 8.18.
	701합 (백두산)	1대	중령	최용남	1950. 4.10.
		2대	소령	노명호	1950.12. 6.
		3대	소령	김종기	1951. 6.27.
		4대	소령	백운기	1951. 9.11.
		5대	소령	오정원	1952. 2.25.
		6대	소령	인양환	1952. 9.20.
		7대	중령	박경철	1953. 6.14.
702합 (금강산)	1대	중령	이희정	1950. 4.16.	
	2대	소령	이종철	1950.10.16.	
	3대	소령	인양환	1951. 6.27.	
	4대	소령	한문식	1952. 1.10.	
	5대	소령	이인석	1952. 6.18.	
	6대	소령	허덕화	1952. 9.12.	
703합 (삼각산)	1대	중령	이성호	1950. 7.16.	
	2대	소령	최동화	1951. 9. 1.	
	3대	소령	손병일	1952. 1.10.	
	4대	소령	민현식	1953. 2.13.	
704합 (지리산)	1대	중령	최효용	1950. 3.23.	
	2대	소령	현시학	1950. 9. 9.	
	3대	소령	김순일	1951. 2.17.	
	4대	소령	이태영	1951. 5.15.	

	705함 (한라산)	1대	소령	이종철	1951.10.28.
		2대	소령	이기룡	1952. 5. 5.
		3대	소령	한문식	1952. 6.13.
		4대	중령	김영관	1953. 2. 6.
	706함 (묘향산)	1대	중령	이용섭	1951.10.26.
		2대	소령	남 철	1952. 4.26.
		3대	소령	김철웅	1952. 7. 5.
		4대	소령	김동섭	1953. 1.25.
		5대	중령	채규남	1953. 5.15.
		6대	소령	김남교	1953. 5.20.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1958, 210~214쪽, 221~222쪽, 244~244-1쪽.

## 2) 병력

<표 2-101> 해군·해병대 병력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연 도	해 군	해병대	계
1950. 6.25.	6,624	1,166	7,790
1951. 4.22.	7,362	8,577	15,939
1951. 4.29.	7,243	8,793	16,036
1951. 5. 6.	7,237	8,867	16,104
1951. 5.13.	7,210	8,875	16,085
1951. 5.20.	8,030	8,889	16,919
1951. 5.27.	8,528	9,213	17,741
1951. 6. 2.	8,524	9,215	17,739

1951. 6. 9.	8,569	9,246	17,815
1951. 6.16.	8,561	9,246	17,807
1951. 6.23.	8,558	9,209	17,767
1951. 6.30.	8,530	9,242	17,772
1951. 7. 7.	8,499	9,207	17,706
1951. 7.14.	8,495	9,203	17,698
1951. 7.21.	8,477	9,180	17,657
1951. 7.28.	8,477	9,193	17,670
1951. 8. 4.	8,474	9,193	17,667
1951. 8.11.	8,456	9,239	17,695
1951. 8.18.	8,488	9,720	18,208
1951. 8.25.	8,494	9,719	18,213
1951. 9. 1.	8,492	11,068	19,560
1951. 9. 8.	8,459	10,967	19,426
1951. 9.15.	8,455	10,723	19,178
1951. 9.22.	8,485	10,460	18,945
1951. 9.29.	8,589	10,460	19,049
1951.10. 6.	8,581	11,047	19,628
1951.10.13.	8,581	11,047	19,628
1951.10.20.	8,547	11,060	19,607
1951.10.27.	8,547	11,060	19,607
1951.11. 3.	8,525	11,356	19,881
1951.11.10.	8,525	14,267	22,792
1951.11.17.	8,503	14,284	22,787
1951.11.24.	8,501	14,039	22,540
1951.12. 1.	8,505	14,031	22,536
1951.12. 8.	8,927	14,790	23,717

1951.12.15.	8,934	14,785	23,719
1951.12.22.	8,938	14,780	23,718
1951.12.29.	8,940	14,818	23,758
1953. 7.27.	14,862	27,500	42,362

출처 :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22 Apr. 1951-29 Dec. 1951", RG 554, Entry 1362(A1), Box 52, NARA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78쪽.

비고 : 1950년 6월 25일과 1953년 7월 27일 병력수치는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478쪽.

<표 2-102> 6·25전쟁 기간 해군·해병대 보충병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해 군	해 병	계
1950년	장 교	17	25	42
	사 병	2,313	4,258	6,571
	소계	2,330	4,283	6,613
1951년	장 교	343	446	789
	사 병	1,921	8,022	9,943
	소계	2,264	8,468	10,732
1952년	장 교	266	485	751
	사 병	2,313	8,109	10,422
	소계	2,579	8,594	11,173
1953년	장 교	321	141	462
	사 병	2,862	5,397	8,259
	소계	3,183	5,538	8,721
총 계	장 교	947	1,097	2,044
	사 병	9,409	25,786	35,195
	계	10,356	26,883	37,239

출처 : 해군본부, 『한국전쟁 피해자료 보고』, 199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56쪽 재인용.

3) 무기 및 장비

<표 2-103> 전쟁발발 이전과 정전협정 체결시 함정세력 비교

단위 : 척

시 기	계	함 정 유 형													
		PF	PC	PCS	PT	PG	YMS	JMS	LSSL	LST	AKL	LCI	ATA	GB	YO
1950. 6. 25.	36	-	4	-	-	1	15	10	-	1	1	1	-	2	1
1953. 7. 27.	57	4	5	4	3	2	13	8	4	4	5	1	1	1	2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92쪽.

<표 2-104> 6·25전쟁 기간 중 획득한 함정세력

함정유형	함정명	인수일자	함정유형	함정명	인수일자
PF (호위함) 5척	두만강(61)	1950. 10. 23.	LST (상륙함) 4척	철용(802)	1950. 7. 1.
	압록강(62)	1950. 10. 23.		안동(803)	1950. 7. 1.
	대동강(63)	1951. 10. 8.		천보(805)	1950. 7. 1.
	낙동강(65)	1951. 10. 8.		용비(806)	1950. 7. 1.
	임진강(66)	1952. 9. 2.			
PT (어뢰정) 4척	갈매기(23)	1952. 1. 24.	LSSL (대형상륙정) 4척	영흥만(107)	1952. 1. 21.
	기러기(25)	1952. 1. 24.		강화만(108)	1952. 1. 21.
	울빼미(26)	1952. 1. 24.		보성만(109)	1952. 10. 20.
	제비(27)	1952. 1. 24.		영일만(110)	1952. 10. 20.
PCS (구잠정) 4척	수성(201)	1952. 5. 20.	AKL (수송함) 4척	인천(902)	1950. 7. 1.
	금성(202)	1952. 5. 20.		월산(903)	1950. 7. 1.
	목성(203)	1952. 5. 26.		진남포(905)	1950. 7. 1.
	화성(205)	1952. 6. 9.		성진(906)	1950. 7. 1.

PG (경비정) 1척	제2충무공 (315)	1951. 8. 25.	AO (유조함) 1척	천지(2)	1953. 6. 30.
PC (구잠함) 2척	한라산(705)	1952. 1. 21.	ATA (예인함) 1척	인왕(1)	1950. 7. 5.
	묘향산(706)	1952. 1. 21.			
계	30척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491쪽.

<표 2-105>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군 함정 현황(1953. 7. 27. 현재)

함정유형	함정명	함정유형	함정명
JMS(소해정) 8척	대전(301)	YMS(소해정) 13척	금강산(501)
	통영(302)		경주(502)
	대구(303)		광주(503)
	태백산(304)		개성(504)
	단천(307)		김해(505)
	토성(308)		강계(506)
	대동강(309)		강릉(507)
	덕천(310)		강경(510)
	구월산(512)		
	김천(513)		
	길주(514)		
	운남(515)		
	고성(518)		

PF(호위함) 4척	두만강(61)	LST(상륙함) 4척	철용(802)
	대동강(63)		안동(803)
	낙동강(65)		천보(805)
	임진강(66)		용비(806)
PT(어뢰정) 3척	갈매기(23)	LSSL (대형상륙정) 4척	영흥만(107)
	기러기(25)		강화만(108)
	제비(27)		보성만(109)
			영일만(110)
PCS(구잠정) 4척	수성(201)	AKL(수송함) 5척	부산(901)
	금성(202)		인천(902)
	목성(203)		원산(903)
	화성(205)		진남포(905)
			성진(906)
PG(경비정) 2척	제1층무공(313)	AO(유조함) 2척	구룡(1)
	제2층무공(315)		천지(2)
PC(구잠함) 5척	백두산(701)	ATA(예인함) 1척	인왕(1)
	금강산(702)		
	삼각산(703)		
	한라산(705)		
	묘향산(706)		
LCI(상륙정) 1척	청진(105)	GB(항만정) 1척	흑조환(22)
계	57척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38~539쪽.

<표 2-106> 소해함정 출동일수(1951. 7. 1.~1953. 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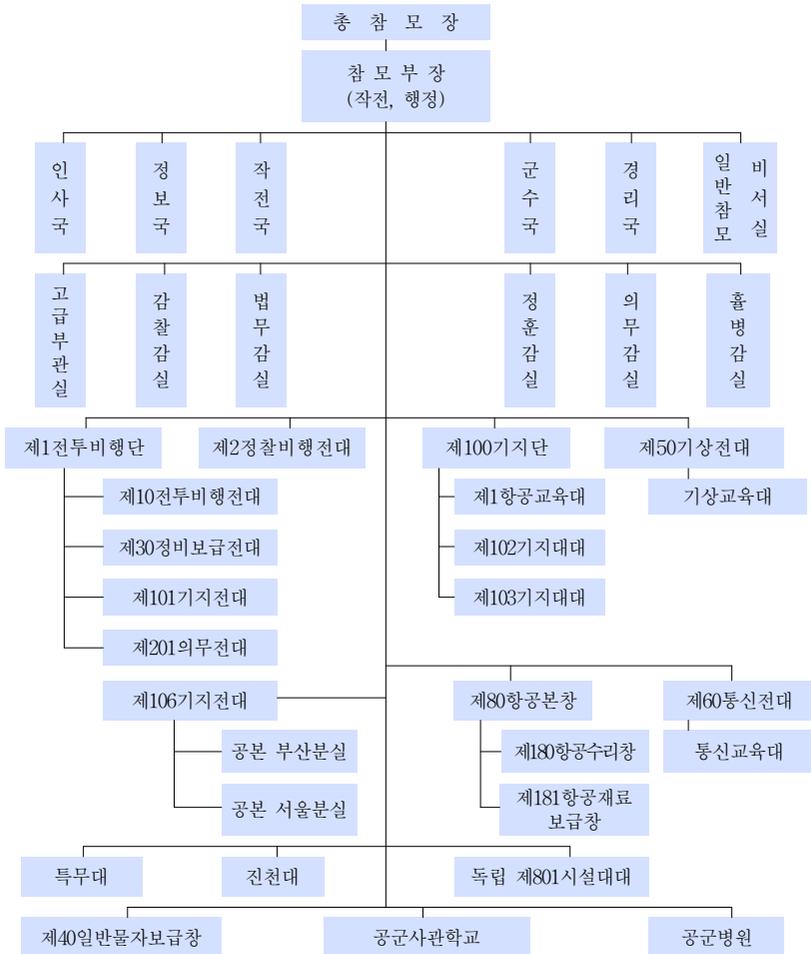
구분 함정	1951년	1952년	1953년	계
501	31	211	62	304
502	-	228	70	298
503	4	205	25	234
504	2	123	-	125
505	33	228	67	328
506	32	218	52	302
507	32	217	32	281
510	27	213	72	312
512	18	204	57	279
513	43	223	52	318
514	-	225	-	225
515	-	205	70	275
518	-	181	-	181
계	222	2,681	559	3,462

출처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961, 263쪽.

### 3. 공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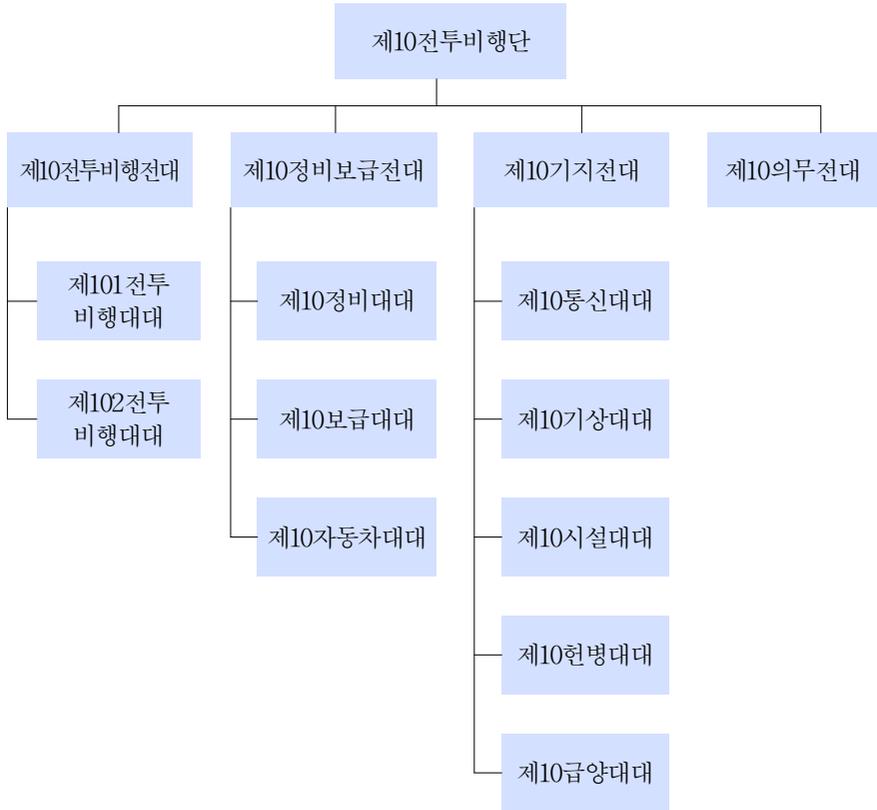
#### 1) 편성

<표 2-107> 공군 편성표(1952. 5. 25. 현재)<sup>30)</sup>



3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385쪽. 공군은 1951년 7월 6일 단일 참모부장제를 작전과 행정의 양개 참모부장제로 개편하였으며, 작전참모부장은 1953년 5월 1일 부로 기획참모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52년 5월 25일의 공군편제는 정전협정 체결시까지 유지되었다.

<표 2-108> 제10전투비행단 편성표(1953. 2. 15. 현재)<sup>31)</sup>



3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346쪽. 공군은 1953년 2월 15일 제1전투비행단 예하 제10전투비행전대를 기간으로 제10전투비행단을 창설하고, 제1전투비행단을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하였다.

<표 2-109> 6·25전쟁 기간 공군 주요 지휘관

구 분		역대	계급	성 명	부임일자
총참모장		제1대	대령	김정렬	1949. 10. 1.
		제2대	소장	최용덕	1952. 12. 1.
참모부장	참모부장	제1대	대령	박범집	1949. 10. 1.
		제2대	준장	최용덕	1950. 11. 28.
	작전참모부장	제1대	준장	최용덕	1951. 7. 6.
		제2대	중장	김정렬	1953. 5. 1.
	행정참모부장	제1대	준장	김창규	1951. 7. 6.
		제2대	소장	장덕창	1953. 5. 1.
비행단장	비행단장	제1대	대령	이근석	1950. 5. 14.
		제2대	준장	김정렬	1950. 7. 6.
		제3대	대령	장덕창	1950. 7. 28.
	제1전투비행단장	제1대	준장	장덕창	1951. 8. 1.
	제1훈련비행단장	제1대	준장	장덕창	1953. 2. 15.
	제10전투비행단장	제1대	대령	김영환	1953. 2. 15.
전대장	제10전투비행전대	제1대	대령	김영환	1951. 8. 1.
		제2대	대령	김 신	1951. 11. 10.
		제3대	중령	강호륜	1952. 6. 16.
		제4대	중령	장지량	1953. 1. 16.
		제5대	대령	박희동	1953. 4. 1.
	제15교육비행전대	제1대	대령	김 신	1952. 6. 16.
		제2대	대령	오점석	1952. 10. 1.
	제101기지전대	제1대	대령	김 신	1951. 4. 1.
		제2대	대령	신유협	1951. 11. 10.
제3대		대령	박두선	1952. 12. 1.	

	제30정비보급전대	제1대	대령	전명섭	1951. 8. 1.
		제2대	대령	신유협	1952. 12. 1.
	제201의무전대	제1대	대령	박천규	1951. 8. 1.
	제10기지전대	제1대	대령	백춘득	1953. 2. 15.
	제10정비보급전대	제1대	대령	김영재	1953. 2. 15.
	제10의무전대	제1대	대령	계원철	1953. 2. 15.
공군사관학교장		제2대	준장	최용덕	1950. 5. 14.
		제3대	소장	김정렬	1952. 12. 1.
		제4대	준장	김창규	1953. 5. 1.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378~379쪽, 568쪽, 629~630쪽.

비고 : 가. 공군은 1951년 7월 6일 단일 참모부장제를 작전과 행정의 양개 참모부장제로 개편함.

나. 작전참모부장은 1953년 5월 1일부로 기획참모부장으로 명칭 변경.

다. 1951년 8월 1일 비행단이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되고, 1953년 2월 15일 제1전투비행단이 제1훈련비행단으로 개편됨.

라.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

## 2) 병력 및 교육

<표 2-110> 6·25전쟁 기간 공군 병력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장교	후보생	사병	계
1950. 6.25.	242	85	1,570	1,897
1950. 7.27.	218	73	1,218	1,509
1950.12.31.	240	75	1,610	1,925
1951. 4.22.	579	446	2,715	3,740
1951. 4.29.	580	446	2,699	3,725
1951. 5. 6.	577	446	2,699	3,722
1951. 5.13.	577	438	2,820	3,835

1951. 5. 20.	585	438	3,102	4,125
1951. 5. 27.	579	438	3,102	4,119
1951. 6. 2.	581	438	3,088	4,107
1951. 6. 9.	580	436	3,044	4,060
1951. 6. 16.	579	436	3,040	4,055
1951. 6. 23.	579	435	3,120	4,134
1951. 6. 30.	579	436	3,115	4,130
1951. 7. 7.	764	296	3,109	4,169
1951. 7. 14.	763	291	3,099	4,153
1951. 7. 21.	843	208	3,697	4,748
1951. 7. 28.	843	213	3,710	4,766
1951. 8. 4.	843	213	3,708	4,764
1951. 8. 11.	888	168	3,729	4,785
1951. 8. 18.	888	168	3,702	4,758
1951. 8. 25.	889	167	3,701	4,757
1951. 9. 1.	888	167	3,693	4,748
1951. 9. 8.	888	167	3,933	4,988
1951. 9. 15.	888	167	3,926	4,981
1951. 9. 22.	888	167	3,925	4,980
1951. 9. 29.	888	167	3,925	4,980
1951. 10. 6.	887	161	3,913	4,961
1951. 10. 13.	887	161	3,922	4,970
1951. 10. 20.	886	156	3,908	4,950
1951. 10. 27.	884	156	3,907	4,947
1951. 11. 3.	883	156	4,145	5,184
1951. 11. 10.	883	156	4,068	5,107
1951. 11. 17.	883	320	3,885	5,088

1951. 11. 24.	883	320	4,227	5,430
1951. 12. 1.	881	321	4,126	5,328
1951. 12. 8.	897	321	4,271	5,489
1951. 12. 15.	899	320	4,265	5,484
1951. 12. 22.	896	320	4,258	5,474
1951. 12. 29.	896	320	4,258	5,474
1952. 6. 30.	1,047	464	4,337	5,848
1952. 12. 31.	1,113	667	7,433	9,213
1953. 6. 30.	1,525	1,038	8,918	11,481
1953. 12. 31.	1,870	694	9,249	11,813

출처 :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22 Apr. 1951-29 Dec. 1951", RG554, Entry 1362(A1), Box 52, NARA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533~541쪽.

비고 : 가. 1950년 6월 25일~12월 31일, 1952년 6월 30일~1953년 12월 31일의 병력수치는 『공군사』, 533~541쪽.

나. 장교수에는 준사관수 포함.

<표 2-111> 6·25전쟁 기간 공군 병력 총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장교	사관생도	사병	계
1950년	159		1,199	1,358
1951년	561	357	2,612	3,530
1952년	164	133	4,558	4,855
1953년	728	200	3,465	4,393
총 계	1,612	690	11,834	14,136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중보판), 1991, 271쪽.

<표 2-112> 6·25전쟁 기간 공군 조종사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F-51D		T-6		L형		계	
	입과	수료	입과	수료	입과	수료	입과	수료
1950년			33	33			33	33
1951년	50	38	36	21	67	14	153	73
1952년	52	48	91	101	127	122	270	271
1953년	126	85	151	96	217	112	494	293
계	228	171	311	251	411	248	950	670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272쪽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397쪽.

### 3) 무기 및 장비

<표 2-113> 6·25전쟁 기간 공군 항공기 보유 현황

구 분	F-51	T-6	L형 항공기	C-47	계	
1950년 12월	8	6	4	1	19	
1951년 12월	17	6	23	1	47	
1952년 12월	39	13	22	1	75	
1953년	1월	38	13	23	1	75
	2월	39	12	21	1	73
	3월	41	16	21	1	79
	4월	72	15	21	1	109
	5월	78	15	21	1	115
	6월	80	17	21	1	119
	7월	78	17	22	1	118

출처 : 공군본부, 『항공전사 : 한국전쟁』, 1989, 232쪽.

<표 2-114> 6·25전쟁 기간 공군 보유 항공기 제원

기종	성능 및 무장		무장
	성능		
L-4	최대속도(km/h)	137	-
	최대상승고도(m)	2,835	
	항속거리(km)	463	
L-5	최대속도(km/h)	209	-
	최대상승고도(m)	4,755	
	항속거리(km)	667	
L-16	최대속도(km/h)	177	-
	최대상승고도(m)	4,420	
	항속거리(km)	583	
L-17	최대속도(km/h)	262	-
	최대상승고도(m)	5,182	
	항속거리(km)	1,296	
L-19/O-1	최대속도(km/h)	241	-
	최대상승고도(m)	6,187	
	항속거리(km)	982	
T-6	최대속도(km/h)	330	7.76mm기총 × 2문
	최대상승고도(m)	24,750	
	항속거리(km)	1,398	
F-51	최대속도(km/h)	703	12.7mm기총 × 6문 5인치 로켓탄 × 10발 1,000lbs폭탄 × 2발
	최대상승고도(m)	12,770	
	항속거리(km)	2,100	
C-47	최대속도(km/h)	370	6,000lbs 화물 적재 또는 28명의 공수병력 탑승
	최대상승고도(m)	7,071	
	항속거리(km)	3,936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676~679쪽.

<표 2-115> 6·25전쟁 기간 공군의 탄약사용량

탄약종류	기간 사용량		계
	1950. 7. 3.~ 1951. 9. 18.	1951. 10. 11.~ 1953. 7. 27.	
폭탄(ton)	94	3,813	3,907
로켓탄(발)	1,506	8,792	10,298
기총탄(발)	51,490	22,985,700	23,037,190
네이팜탄(ton)	64	-	64

출처 : 공군본부, 『공군발전약사』 제1권, 1955, 67~68쪽.

<표 2-116> 6·25전쟁 기간 한반도의 비행장 명칭 및 위치

비행장명	위치	비행장명	위치	비행장명	위치
K-1	김해	K-20	신막	K-39	모슬포
K-2	대구 동촌	K-21	평강	K-40	제주
K-3	포항	K-22	온정리	K-41	충주
K-4	사천	K-23	평양	K-42	안동
K-5	대전	K-24	미림	K-43	경주
K-6	평택	K-25	원산	K-44	장호원
K-7	광주	K-26	선덕	K-45	여주
K-8	군산	K-27	연포	K-46	횡성
K-9	부산 수영	K-28	함흥	K-47	춘천

K-10	진해	K-29	신안주	K-48	이리
K-11	울산	K-30	신의주	K-49	양수리
K-12	무안	K-31	길주	K-50	속초
K-13	수원	K-32	외시촌동	K-51	인제
K-14	김포	K-33	회문	K-52	양구
K-15	목포	K-34	청진	K-53	백령도
K-16	서울 여의도	K-35	회령	K-54	조도
K-17	용진	K-36	강계	K-55	오산
K-18	강릉	K-37	대구 동명		
K-19	해주	K-38	원주		

출처 : 공군본부,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 1집, 2010, 155쪽.

### 제3 절 피해 현황

#### 1. 피해 종합

##### 1) 인적 피해

<표 2-117> 국군 인명 피해 종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군	해군(해병 포함)	공군	계
전/사망	135,858	1,903	138	137,899
실종자	...	...	...	24,495
부상자	443,634	7,108	...	450,742
포로	...	...	...	8,343
총 계	...	...	...	621,479

출처 : '6·25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국군 인명피해 종합 현황은 6·25전쟁 60주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실종자와 포로의 각 군별 구분은 자료의 미비로 생략함.

##### 2) 장비 피해

<표 2-118> 국군 주요 장비 피해 종합 현황

구 분	장비명	단 위	수 량
육 군	칼빈소총	정	38,333
	MI 소총	정	58,560
	기관총류	정	3,419
	로켓포류	정	2,761
	박격포류	문	1,572
	곡사포류	문	181
	무반동총류	정	160

해 군 (해병 포함)	JMS-305 외	척	9
	소총류	정	225
	기관총류	정	15
	박격포류	문	3
	곡사포	문	1
공 군	L-형 항공기	대	45
	T-형 항공기	대	20
	F-형 항공기	대	65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5쪽.

## 2. 각 군별 피해 현황

### 1) 육군

#### ① 인명피해 현황

<표 2-119> 육군 전·사망자 및 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사/사망	부 상	계
전투손실	133,016	218,409	351,425
비전투손실	2,842	225,225	228,067
총 계	135,858	443,634	579,492

출처 : '6·25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39쪽, 441쪽, 444~445쪽, 448쪽 ; 육군본부, 『6·25사변 중 환자통계연보』, 1968, 16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7쪽 재인용.

비고 : 부상자는 1950. 6. 25.~1953. 12. 31.까지의 이동외과병원급 이상 의무시설에 입원한 환자 통계임.

<표 2-120> 육군 입원환자 종합 현황(1950. 6. 25.~1953. 12. 31.)

단위 : 명

구 분	전상(戰傷)	비전상(非戰傷)	계
1950	68,757	24,797	93,554
1951	60,912	44,149	105,061
1952	45,879	65,792	111,671
1953	42,861	90,487	133,348
총 계	218,409	225,225	443,634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39쪽, 441쪽, 444~445쪽, 448쪽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9쪽.

비고 : 가. 입원환자의 수는 이동의과병원, 치료중대, 육군병원의 입원 통계임.

나. 1953년도는 8~12월의 입원환자 46,115명(전상 4,207명, 비전상 41,908명)을 포함한 수치임.

<표 2-121> 육군 병과별 입원환자 현황(1950. 6. 25.~1953. 12. 31.)

단위 : 명

구 분	1950	1951	1952	1953	계
보 병	86,217	92,613	100,461	106,975	386,266
포 병	2,345	2,681	1,227	8,710	14,963
공 병	1,894	4,068	4,031	5,053	15,046
통 신	1,309	1,307	1,905	4,839	9,360
의 무	829	1,812	1,325	2,065	6,031
병 기	168	662	647	1,295	2,772
헌 병	145	713	482	526	1,866
병 참	159	411	436	711	1,717
수 송	50	51	224	541	866

기 갑	231	70	25	46	372
경 리	4	96	110	105	315
부 관	-	-	16	50	66
정 훈	2	16	13	119	150
감 찰	12	81	43	34	170
법 무	8	35	45	16	104
군 약	4	96	73	8	181
기 타	177	349	608	2,255	3,389
총 계	93,554	105,061	111,671	133,348	443,634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53쪽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8쪽.

<표 2-122> 육군 연도별·신분별 사상자 구분 현황(1950. 6. 25. ~1953. 12. 31.)

단위 : 명

구 분		전상(戰傷)	공상(公傷)	사상(私傷)	계
1950년	장 교	2,370	50	357	2,777
	사 병	63,980	3,825	18,894	86,699
	비 군 인	2,407	721	950	4,078
	계	68,757	4,596	20,201	93,554
1951년	장 교	1,922	243	1,520	3,685
	사 병	56,461	5,557	33,839	95,857
	비 군 인	2,529	1,368	1,622	5,519
	계	60,912	7,168	36,981	105,061

1952년	장 교	1,379	268	1,806	3,453
	사 병	43,876	4,573	50,344	98,793
	비 군 인	624	585	8,216	9,425
	계	45,879	5,426	60,366	111,671
1953년	장 교	1,643	251	1,253	3,147
	사 병	39,480	4,487	69,733	113,700
	비 군 인	1,738	470	14,293	16,501
	계	42,861	5,208	85,279	133,348
합 계	장 교	7,314	812	4,936	13,062
	사 병	203,797	18,442	172,810	395,049
	비 군 인	7,298	3,144	25,081	35,523
	계	218,409	22,398	202,827	443,634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54~457쪽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38쪽.

<표 2-123> 육군 입원환자 부대 복귀 현황(1950. 6. 25.~1953. 12. 31.)

단위 : 명

구 분		전상(戰傷)	공상(公傷)	사상(私傷)	계
1950년	장 교	2,100	24	88	2,212
	사 병	31,805	1,897	3,443	37,145
	비 군 인	91	526	225	842
	계	33,996	2,447	3,756	40,199

1951년	장 교	2,084	187	686	2,957
	사 병	42,414	5,394	12,262	60,070
	비 군 인	3,961	1,278	1,952	7,191
	계	48,459	6,859	14,900	70,218
1952년	장 교	1,020	180	1,426	2,626
	사 병	16,060	2,577	31,942	50,579
	비 군 인	1,945	802	7,018	9,765
	계	19,025	3,559	40,386	62,970
1953년	장 교	1,170	190	1,398	2,758
	사 병	19,092	2,834	38,556	60,482
	비 군 인	606	449	15,056	16,111
	계	20,868	3,473	55,010	79,351
총 계	장 교	6,374	581	3,598	10,553
	사 병	109,371	12,702	86,203	208,276
	비 군 인	6,603	3,055	24,251	33,909
	계	122,348	16,338	114,052	252,738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54~457쪽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 전쟁 피해통계집』, 1996, 40쪽.

<표 2-124> 육군 입원환자 중 제대·사망자 현황(1950. 6. 25.~1953. 12. 31.)

단위 : 명

구 분		제대		사망
		명예제대	의병제대	
1950년	장 교	-	-	36
	사 병	-	-	1,445
	비군인	-	-	245
	소계	-	-	1,726
1951년	장 교	446	47	133
	사 병	43,754	9,645	3,117
	비군인	-	-	431
	소계	44,200	9,692	3,681
1952년	장 교	-	281	74
	사 병	12,962	28,147	2,413
	비군인	-	-	284
	소계	12,962	28,428	2,771
1953	장 교	-	-	50
	사 병	13,624	17,153	2,873
	비군인	-	-	436
	소계	13,624	17,153	3,359
총 계	장 교	446	328	293
	사 병	70,340	54,945	9,848
	비군인	-	-	1,396
	계	70,786	55,273	11,537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454~457쪽.

비고 : 1950. 6. 25.~1953. 7. 27.까지의 수치임.

② 물적 피해 현황

<표 2-125> 육군 양곡류 피해 현황(1952~1953년)

구 분	단위	1952. 4.~53. 2	1953. 4.~7.	계
백 미	kg	24,093	80,750	104,843
정 맥	kg	...	640	...
압 맥	kg	4,172	84	4,256
참 쌀	kg	596	...	...
대 두	kg	...	900	...
소맥분	파운드	1,359	150	1,509
전 분	파운드	1,275	...	...
화랑연초	갑	66,186	50,478	116,664
미제연초	갑	6,584	885	7,469
건 빵	자루	83,304	102,792	185,816
야전식량	상자	1,690	159	1,849
식 염	kg	12,803	1,220	14,023
단무지	kg	112,407	...	...
고추장	kg	2,433	1,054	3,487
된 장	kg	517	2,466	2,983
백설탕	kg	35	120	155
각종 통조림	관	60,985	1,691	62,676
건어포	대	69	...	...
공마대	매	115	...	...
공상자	매	22,965	...	...

출처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389~390쪽.

<표 2-126> 육군 병참장비 피해 현황(1951~1952년)

구 분	단위	1951년	1952년	계
철 모	개	153,847	18,140	171,987
화이바모	개	159,344	28,939	188,283
방한모	개	140,660	7,388	148,048
러닝셔츠	매	175,227	8,005	183,232
팬 티	매	382,188	15,009	397,197
동내의상	매	366,841	42,523	409,364
동내의하	매	316,567	38,674	355,241
작업복상	매	362,225	46,595	408,820
작업복하	매	382,873	40,794	423,667
방한복상	매	113,419	11,418	124,837
방한복하	매	122,731	12,869	135,600
약 모	개	172,033	20,333	192,366
사병외투	개	114,726	1,786	116,512
야전상의	개	121,398	...	...
군 화	족	129,495	...	...
훈련화	족	561,729	...	...
방한화	족	96,979	...	...
배 낭	개	149,062	...	...
모 포	매	241,548	...	...
우 의	매	174,080	...	...
수 통	개	77,361	...	...
반 합	개	80,799	...	...
곡괭이	개	8,281	...	...

야전삽	개	59,353	...	...
각 반	개	95,282	...	...
식 기	개	84,355	...	...
천 막(대)	매	536	...	...
개인천막	매	230	...	...
M1 탄입대	개	69,938	...	...
칼빈 탄입대	개	29,645	...	...

출처: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387쪽.

<표 2-127> 육군 차량류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대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트레라 1/4톤(2W)	46	11	-	11	68
트레라 1톤(2W)	55	36	-	29	120
트레라 Aumo.M10	20	17	-	40	77
트레라 1톤 급수	18	11	-	1	30
트럭 1/4톤(4×4)	382	250	3	76	711
트럭 3/4톤(앰블런스)	11	11	1	-	23
트럭 3/4톤 W/O	116	101	2	19	238
트럭 2톤 카고	367	105	-	22	494
트럭 2톤 Wear	1	1	-	-	2
트럭 2톤 덤프	4	13	-	-	17
트럭 도요다 카고	53	270	4	14	341
트럭 닛산 카고	26	133	1	1	161
트럭 Touzu Cargo	1	1	-	-	2

트럭 도요다 덤프	2	6	-	1	9
트럭 닛산덤프	-	43	1	1	45
Carriage mot N36	-	-	-	8	8
트럭 13톤 P-O	62	6	-	18	86
트럭 Cton Nrecker	4	-	-	-	4
트럭 4톤 카고	-	-	-	2	2
Carriage mot M1b-6	-	-	-	3	3

출처: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392쪽.

<표 2-128> 육군 주요 무기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정, 문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칼빈소총	14,785	13,480	1,707	8,361	38,333
M1 소총	31,250	31,224	4,262	18,824	85,560
권 총	1,283	396	29	108	1,816
기관단총	468	325	58	815	1,666
자동소총	1,379	1,799	360	1,326	4,864
공랭식 경기관총	631	524	58	616	1,829
수냉식 중기관총	316	498	11	67	892
중기관총(포)	284	292	2	120	698
3.5인치 로켓포	456	794	29	276	1,555
2.36인치 로켓포	717	481	6	2	1,206
60mm 박격포	341	478	9	143	971
81mm 박격포	287	236	1	34	558
4.2인치 박격포	-	27	-	16	43

105mm 곡사포	66	59	-	1	126
M7 유탄발사기	1,891	5,714	2,819	8,634	19,058
M8 유탄발사기	819	1,249	188	39	2,295
M1 대검	6,823	35,483	14,526	27,762	84,594
M4 대검	3,591	11,872	7,821	15,559	38,843
57mm 무반동총	-	-	3	114	117
75mm 무반동총	-	-	-	43	43
37mm 대전차포	25	6	-	-	31
57mm 대전차포	6	22	-	-	28
75mm 유탄포	54	1	-	-	55

출처: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1955, 392쪽.

<표 2-129> 육군 주요 통신장비 피해 현황(1950. 6. 25. ~ 1953. 7. 27.)

단위 : 대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AN/GRC-9	-	24	-	-	24
BD-71, 72	81	184	-	8	273
C-11	567	1,659	533	669	3,428
EE-8	1,496	2,929	264	621	5,310
HS-30	195	469	94	80	838
I-166	14	10	-	-	24
LC-5	82	136	3	16	237
LC-23	76	127	4	-	207
MC-123	35	241	19	-	295
ME-22	139	8	-	-	147

MX-290	1,075	391	33	46	1,545
PE-75	8	5	-	2	15
PH-358	20	-	-	-	20
PE-210	10	25	-	6	41
RL-27	132	193	11	7	343
RL-31	174	189	8	6	377
RL-39	50	577	183	30	840
SCR-694	74	162	2	1	239
SCR-300	316	420	2	-	768
SCR-536	412	1,983	365	648	3,408
T-45	406	838	216	17	1,022
TL-122	11,852	10,130	4,706	3,224	29,912
TE-33	1,193	3,363	1,129	1,362	7,047
TG-5	37	34	-	-	71
TS-10	294	886	276	821	2,277
BC-191	34	-	-	-	34
PE-95	3	1	-	-	4
PP-68	50	1	-	-	51
PE-110	4	-	-	-	4
SCR-506	34	3	-	127	164
SCR-508	38	1	-	-	39
SCR-510	18	-	1	-	19
TE-21	398	60	4	5	467
TM-184	255	266	3	33	557

출처: 육군본부, 『6·25사면 후방전사』(군수편), 1955, 393~397쪽.

## 2) 해군

### ① 인명피해 현황

<표 2-130> 해군 인명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구 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계
해군	693	501	-	1,194
해병대	1,210	6,607	71	7,888
총 계	1,903	7,108	71	9,082

출처 : '6·25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958, 부록 4 ; 국방부, 「6·25 당시 실종자 송환촉구 대책회의 자료」, 199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57쪽 재인용.

비고 : 가. 해군 인명피해 현황은 6·25전쟁 60주년인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최근 해군에서는 역사기록관리단이 해군·해병대 전사자 명부와 서울·대전 국립 현충원 자료의 검증과정을 거쳐 해군(해병대 포함) 전사자가 2,422명(해군 276명, 해병대 2,146명)이라고 밝히고 있음(해군본부, 『6·25전쟁과 해군작전』(증보판), 2012, 557쪽).

다. 부상자는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에 근거함.

라. 실종자는 「6·25 당시 실종자 송환촉구 대책회의 자료」에 근거함.

② 물적 피해 현황

<표 2-131> 6·25전쟁 기간 함정 피해 현황

일 자	함정명	장 소	원 인	인적피해
1950. 6. 29.	JMS-305 (두만강)	삼척 근해	미 Juneau함의 오인포격으로 침몰	· 전사 8명 · 중상 1명 · 경상 3명
1950. 9. 28.	YMS-509 (가평)	구룡포 근해	기뢰접촉으로 침몰	· 승조원 38명 중 전사/ 실종 25명 · 부상 5명
1950. 10. 18.	YMS-516 (공주)	원산 여도 근해	기뢰접촉으로 침몰	· 승조원 35명 중 전사 15명 · 부상 11명
1951. 5. 5.	JMS-306 (단양)	진남포 석도 근해	기뢰접촉으로 침몰	· 승조원 36명 중 전사 1명, · 실종 1명 · 부상 17명
1951. 12. 26.	PC-704 (지리산)	원산 여도 근해	기뢰접촉으로 침몰	· 승조원 57명 전원 전사
1951.	GB-21 (폭뢰)	...	보조항만정으로 함대세력포에서 제외	-
1952. 1. 24.	LST-803 (안동)	진남포 석도 근해	좌초로 퇴역	-
1952. 5. 21.	PF-62 (압록강)	울릉도 근해	미 유조함 Rainer와 충돌로 파손되어 퇴역	· 전사 21명 · 부상 12명
1952. 9. 18.	PT-26 (올빼미)	진해 공창	공창에서 수리 중 기관실 화재로 전소 침몰	-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37쪽.

<표 2-132> 6·25전쟁 기간 해군의 무기 및 장비 피해 현황

구 분	단 위	해 군	해 병 대	계
함정 손실	척	9	-	9
VP침몰	정	1	-	1
전 차	대	-	2	2
병커파손	개	-	20	20
60mm박격포	문	-	3	3
야 포	문	-	1	1
로켓포	문	-	2	2
중기관총	정	1	3	4
경기관총	정	-	11	11
기관총	정	2	13	15
자동소총	정	-	29	29
권 총	정	2	13	15
칼빈소총	정	4	81	85
M1 소총	정	-	96	96
차 량	대	-	5	5
통신기	대	1	1	2
화염방사기	대	-	2	2
전화기	대	-	5	5
철 모	개	-	73	73
헬 멧	개	-	63	63

해군본부, 『대한민국 해군사 : 작전편』 제2집, 1958, 부록 4.

### 3) 공군

#### ① 인명 피해 현황

<표 2-133> 공군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구 분	전투손실	비전투손실	계
1950	69	1	70
1951	27	5	32
1952	9	20	29
1953	9	8	17
총 계	114	24	138

출처 : ‘공군본부 전사자 명부’, ‘공군본부 순직자명부’,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61쪽 재인용.

비고 : 『한국전쟁 피해통계집』에는 전투손실 인원이 1950년 71명, 1951년 25명, 1952년 8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전사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위의 수치가 정확하여 수정하였음.

#### ② 물적 피해 현황

<표 2-134> 공군 항공기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대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대 파	19	14	26	30	89
파 피	9	9	18	5	41
총 계	28	23	44	35	130

출처 : 공군본부 감찰감실, 『항공기 사고통람』, 1973, 31~37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63쪽 재인용.

<표 2-135> 6·25전쟁 기간 공군 항공기별 피해 현황

단위 : 대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L-4	15	5	2	1	23
L-5	7	5	3	3	18
L-16	-	1	1	-	2
L-19	-	-	2	-	2
T-6	3	2	7	8	20
F-51	3	10	29	23	65
총 계	28	23	44	35	130

출처 : 공군본부 감찰감실, 『항공기 사고통람』, 1973, 31~37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63쪽 재인용.

## 제3 장

# 경찰 및 민간인 통계

### 제1 절 경찰 통계 현황

대한민국 경찰은 미군정 시기인 1945년 10월 21일 군정청 내에 경무국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sup>32)</sup> 1945년 9월 12일에 설립된 미군정청은 설립 이틀 후인 14일에 군정장관 아놀드(A. L. Arnold) 소장의 명의로 치안업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사설치안단체의 해체와 한시적으로 일제하의 조직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능한 한 신속히 한국인 경찰관을 양성해 새로운 경찰조직을 창설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안대·치안대·자위단·학도대·청년대 등 수많은 사설치안단체가 해산 명령을 받았으며, 일본인 경찰관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경찰관 채용 공고가 발표되었다. 채용 공고는 9월 16일부터 광화문 앞에 있던 경찰관강습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일반인과 더불어 식민지시기

32) 경무국 창설일인 10월 21일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면서 '경찰의 날'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관 유경험자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5년 9월 20일부터는 모든 경찰관들이 한국인으로 채워졌다. 이 때 경찰 총 인원은 4,819명이었다.<sup>33)</sup>

경무국 시기에는 중앙과 지방의 경찰조직이 이원화 되었던 특징을 지녔다. 중앙경찰조직의 성격을 띤 경무국은 산하부서인 관방·총무과·공안과·수사과·통신과를 관장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지방경찰조직인 각도 경찰부는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12월 27일 군정청은 지방의 경찰행정권을 도지사의 권한으로부터 분리시켜 경무국장이 직접 담당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행정관서와 경찰간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조직과 편성에서 안정을 이루지 못하던 경찰은 경무국이 경무부로 승격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1946년 1월 16일 군정청은 군정령 제23104호 ‘경무국·경무부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편제와 경찰계급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중앙경찰기구의 개편과 함께 군정청은 1946년 4월 11일 ‘국립경찰조직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각도 경찰부를 관구경찰청으로 개칭하였다. 나아가 군정청은 1946년 9월 17일에 각 관구경찰청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3개의 경무총감부를 신설하였다.<sup>34)</sup>

중앙과 지방 경찰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경무부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교육제도의 정비와 특수경찰대의 창설이었다. 이 시기 경찰은 우수한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7년 9월 1일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간부후보생제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를 선발하여 9~10개월간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한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33)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24~27쪽.

34) <표 3-1> ‘미군정청 경무부 기구표’ 및 <표 3-2> ‘미군정청 경찰청 및 경찰서 현황’ 참조.

임명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경찰은 1~4기생 총 645명의 초급간부를 배출하였다.<sup>35)</sup> 특수경찰로는 기마경찰과 철도경찰이 경무부 시기에 창설되었다. 기마경찰은 1946년 2월 25일 창설되었으며, 이날 각도에 기마경찰대가 만들어졌는데, 6·25전쟁 발발 당시 기마경찰은 360필의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sup>36)</sup> 철도경찰은 운수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운수경찰청이 1946년 3월 5일 경찰에 흡수되어 철도관구경찰청으로 전환되면서 경무부 산하 조직이 되었다. 철도경비와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찰인 철도경찰은 철도관구경찰청 예하에 17개의 철도경찰서가 운영되었는데, 이들 경찰서는 남한의 주요 철도교통 중심지에 설치되어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도 운영되고 있었다.<sup>37)</sup>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경찰이 경무부 시대를 종결하고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수립 후 경찰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조직인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바뀌고, 9월 3일에 정식으로 내무부 산하 조직이 되었으며, 지방조직인 경무총감부와 관구경찰청이 폐지 또는 도경찰국으로 전환하였다.<sup>38)</sup> 이에 따라 경찰은 내무부장관-치안국장-시·도경찰국장-경찰서장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치안국 시대에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 뿐만이 아니라 전투경찰로서의 임무와 소방업무도 관장하는 등 그 범위가 대단히 넓었다.

35) <표 3-11> '경찰 간부후보생 배출 현황' 참조.

36)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49~50쪽. 기마경찰이 보유한 마필은 <표 3-6> '6·25전쟁 직전 경찰의 장비 보유 현황' 참조.

37) 철도관구경찰청은 제1구(개성)·제2구(서울)·제3구(청량리)·제4구(용산)·제5구(영등포)·제6구(인천)·제7구(천안)·제8구(안동)·제9구(대전)·제10구(김천)·제11구(이리)·제12구(대구)·제13구(광주)·제14구(순천)·제15구(마산)·제16구(부산)·제17구(목포)철도경찰서 등 총 17개의 철도경찰서를 운영하였다(경찰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53~54쪽).

38) <표 3-3> '6·25전쟁 전 내무부 기구표' 참조.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로 하여 발생한 일련의 소요사건 진압과 북한에서 납파된 무장계렬과 토벌작전에 적극 가담하였다. 예컨대 강원도비상경비사령부,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 등의 창설은 전투경찰로서의 활동을 잘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치안국 내에 소방과를 신설하여 전국의 소방서를 관할하는 업무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 병력도 정부가 수립될 무렵 약 35,000명에서 1950년 6월에는 약 48,000명으로 증가하였다.<sup>39)</sup>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로 한 혼란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한 경찰은 6·25전쟁 초기부터 군과 합동으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개전 초기 치안국은 수원에서 비상경비사령부가 주도하여 분산 철수하는 경찰병력을 수습해 전투경찰로 전환한 후 국군과 함께 주보급로 경비와 피난민 정리, 중요시설 경비, 후방지구 계렬과 소탕작전에 주력하였다. 특히 영월·울진·충주·대천·금강·청송·보현산·도평동·구산동 지구에서의 활약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작전 시기에는 15,0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전선 후방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전남지역의 경찰 일부는 청산도와 완도 그리고 백운산 등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작전에 들어가면서 치안국 경비사령부는 수복지구에 대한 치안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전투경찰대를 조직하였다. 경찰의 계획은 황해도에 제201대대를, 평안남도에 제202·203대대를, 함경남도에 제205대대를 투입해 치안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39) <표 3-5> '경찰 병력 현황(1948. 1.~1950. 6.)' 참조.

중공군의 개입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수복지구 치안업무를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대는 이후 철도경비 대대로 전환하거나 또는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설치된 전투경찰사령부의 기간부대가 되었다. 제201대대와 제202대대는 철도경비대대로 전환되었고, 제203대대와 제205대대는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의 주력부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2월에는 제200대대와 제207대대가 새로 창설되어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구성하였다. 이들 전투경찰사령부는 1951년 1~4월 군·경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묵계·길안·황학산·황매산·장안산 등지의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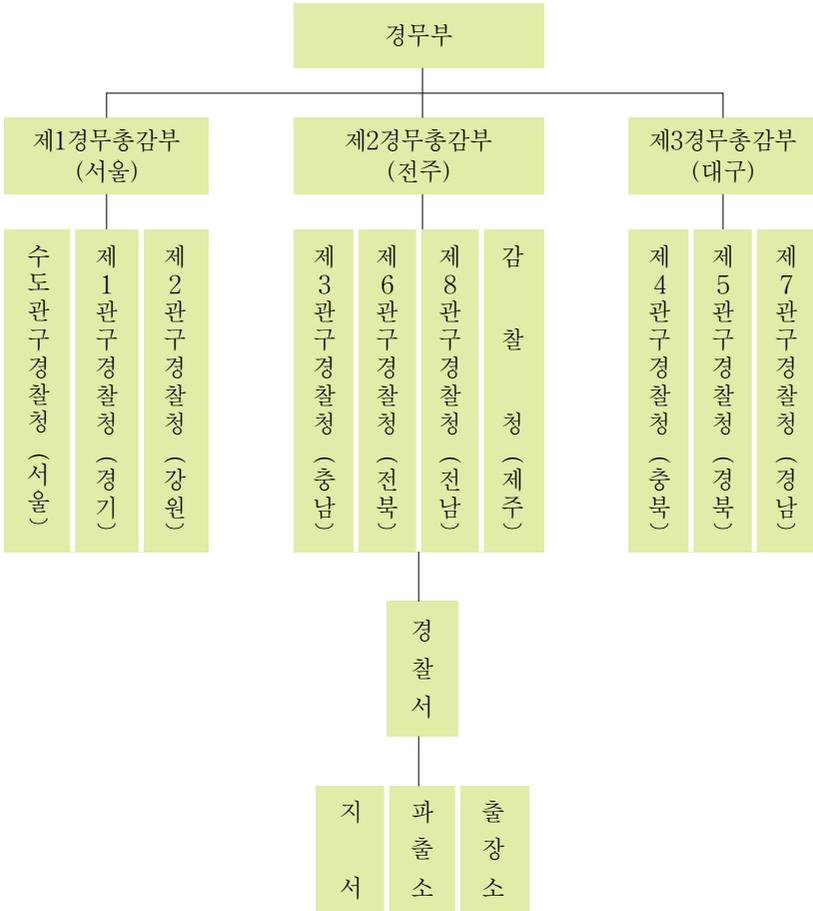
6·25전쟁 기간 동안에 경찰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졌던 시기는 유엔군의 재반격작전과 고지쟁탈전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에 경찰은 제2전선을 구축하려는 재산(在山)공비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참여하여 후방지역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설치된 서남지구전투사령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중부지구전투사령부, 북부지구전투사령부의 작전활동에서 경찰은 독립적이거나 때로는 군의 보조자로서 작전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찰은 크고 작은 여러 전투에 참가해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그만큼 피해도 컸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경찰은 전사 3,131명, 부상 6,760명, 납치 및 실종 7,487명 등 총 17,000여 명의 인명손실을 보았다.

# 1. 6·25전쟁 발발 전 편성 및 병력

## 1) 편성

<표 3-1> 미군정청 경무부 기구표(1946. 9. 현재)



출처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39쪽.

- 비고 : 가. 각 관구경찰청은 1946년 4월 11일부로 각도 경찰부가 개칭된 것임.
- 나. 수도권구경찰청은 1946년 9월 17일 제1관구경찰청에서 분리·창설됨.
- 다. 제1경무총감은 수도권구경찰청장을 겸함.

<표 3-2> 미군정기 경찰청 및 경찰서 현황(1946. 9.~1948. 9.)

경무총감부	관구명	관할구역	경찰서	경찰청장	부임일자
제1경무총감부	수도관구경찰청	서울	10개	장택상	1946. 9. 17.
	제1관구경찰청	경기도	20개	장택상	1946. 1. 12.
				박명제	1946. 9. 24.
				박익홍	1947. 8. 7.
	제2관구경찰청	강원도	12개	김상봉	1946. 9. 18.
				최운철	1946. 12. 6.
박승관				1947. 7. 22.	
제2경무총감부	제3관구경찰청	충청남도	16개	홍락구	1946. 4. 1.
				김정호	1947. 2. 19.
				강보형	1947. 4. 24.
	제6관구경찰청	전라북도	14개	한중건	?
				김상봉	?
				조병계	?
				홍락구	1947. 2. 18.
	제8관구경찰청	전라남도	24개	송병섭	1947. 7. 22.
박승관				1946. 9. 18.	
홍락구				1947. 7. 22.	
제3경무총감부	제4관구경찰청	충청북도	10개	박재수	1946. 3. 10.
				강보형	1946. 9. 30.
				김상봉	1947. 3. 5.
	제5관구경찰청	경상북도	24개	권영석	1946. 2. 13.
				김정호	1946. 10. 5.
				강수창	1947. 2. 20.
	제7관구경찰청	경상남도	24개	장자관	1946. 6. 10.
박명제				1947. 8. 7.	

출처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37~42쪽 ; 내부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1340~14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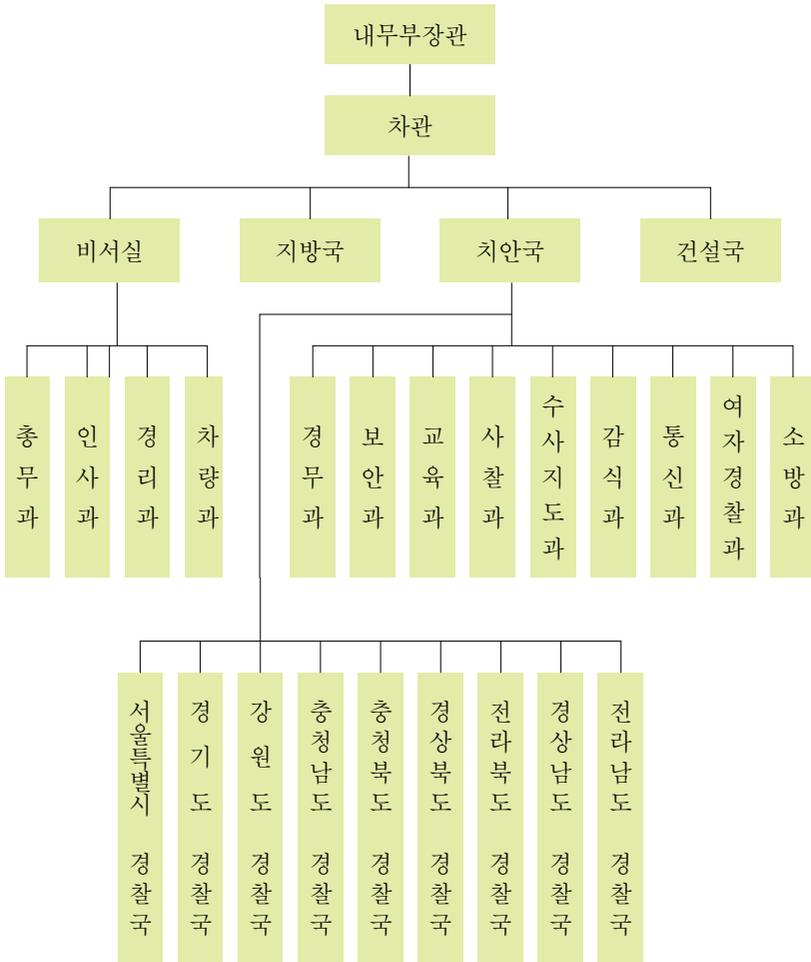
비고 : 가. 경무부와 경무총감부 제도는 1948년 9월 3일까지 존속.

나. 제주감찰청은 1946년 8월 1일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면서 제주경찰감찰서로 발족된 후 제주감찰청으로 개명되었다가 1947년 3월 10일 제주경찰감청이 됨.

다. 수도권경찰청장은 제1경무총감이 겸직.

라. 경무부장은 조병욱, 제1경무총감은 장택상(1946. 9.~1948. 9.), 제2경무총감은 박재수(1946. 9.~1947. 12.)·황옥(1947. 12.~1948. 9.), 제3경무총감은 황옥(1946. 9.~1947. 12.)·박재수(1947. 12.~1948. 9.)임.

<표 3-3> 6·25전쟁 전 내무부 기구표(1949. 10. 현재)



출처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100~107쪽.

비고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치안국 내에 경제과가 있었으나 1949년 7월에 폐지되었으며, 동년 10월 23일에 교육과가 신설됨.

<표 3-4> 전국 경찰관서 현황(1949~1950년)

단위 : 개소

구 분		1949년	1950년
경찰서	1급	54	54
	2급	116	115
	계	170	169
지서·파출소·출장소	지서	1,614	1,023
	파출소	323	320
	출장소	94	202
	계	2,145	2,185
소방서	1급	8	8
	2급	11	12
	계	19	20
소방 파출소·출장소	파출소	34	28
	출장소	5	5
	계	39	33

출처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165쪽.

비고 : 이 시기에는 소방관서도 경찰관서에 포함되었음.

## 2) 병력

<표 3-5> 경찰 병력 현황(1948. 1.~1950. 6.)

단위 : 명

연도	월일	병력	연도	월일	병력
1948	1. 2.	30,000	1949	4. 16.	51,285
	5. 14.	34,330		4. 23.	51,285
	5. 28.	34,900		4. 30.	51,285
	6. 25.	34,900		5. 7.	51,285
	7. 30.	34,900		5. 14.	51,285
	8. 20.	35,000		5. 21.	50,500
	8. 27.	35,000		5. 28.	50,434
	9. 3.	35,000		6. 4.	50,484

1948	9. 10.	35,000	1949	6. 11.	50,214
	9. 17.	35,000		6. 24.	50,484
	9. 24.	35,000		7. 1.	50,484
	10. 1.	35,000		7. 8.	50,484
	10. 9.	35,000		7. 15.	50,484
	10. 23.	34,101		7. 22.	51,615
	11. 20.	34,111		7. 29.	51,615
	12. 31.	34,111		8. 5.	51,615
1949	1. 8.	35,500	1950	8. 12.	51,980
	1. 15.	38,000		8. 19.	51,980
	1. 22.	40,200		8. 26.	50,920
	1. 29.	45,000		9. 2.	50,866
	2. 5.	45,000		9. 9.	50,866
	2. 12.	45,000		9. 16.	50,664
	2. 19.	45,000		9. 23.	50,927
	2. 26.	47,000		9. 30.	50,976
	3. 5.	49,251		10. 7.	50,927
	3. 12.	49,250		5. 19.	48,273
	3. 19.	49,261		5. 26.	48,273
	3. 26.	49,261		6. 2.	48,273
	4. 2.	51,285		6. 9.	48,273
	4. 9.	51,285		6. 15.	48,273

출처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48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1~2권, 영진문화사, 1993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No. 54~75, 1949년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No. 1~17, 1949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JOINT WEEKA*(합동주간요약) 1950년도분,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46쪽.

비고 : 가. 1949년 1월 8일~6월 4일까지는 *JOINT WEEKA*, No. 54~75의 자료이며, 6월 11일~10월 7일까지는 *JOINT WEEKA*, No. 1~17의 자료임.

나. 1950년 4월 7일~6월 9일까지는 *JOINT WEEKA*, No. 14~23의 자료임.

### 3) 무기와 장비

<표 3-6> 6·25전쟁 직전 경찰의 장비 보유 현황(1950. 6. 1. 현재)

품 목	단위	보유 수량	가용 수량
칼빈소총(M1)	정	26,355	25,824
M2 기관총(Cal.50)	정	11	11
기관단총(Cal.45, M3)	정	476	468
45구경 권총(M1911, M1911A1)	정	2,138	2,138
트럭(1/4톤)	대	98	74
트럭(3/4톤, 구급차)	대	39	23
트럭(3/4톤 W/C)	대	249	199
트럭(1½톤, 병력수송)	대	39	30
트럭(2½톤)	대	72	61
일제 99식소총	정	15,930	15,113
일제 38식소총	정	5,740	5,202
일제 경기관총	정	117	112
일제 99식 경기관총	정	45	42
일본해군 중기관총	정	61	57
일제 승용차	대	99	73
일제 각종 트럭	대	125	92
일제 오토바이	대	22	6
일제 3륜오토바이	대	18	5
칼빈소총탄	발	1,061,076	954,924
기관단총탄(Cal.45 SMG)	발	944	850
중기관총탄(Cal.50 MG)	발	55	55
수류탄(파쇄성)	발	776	700
군마(軍馬)	필	360	360

출처 : Office of the Chief, K 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 Annex No. X, Status of Material and Equipment Korean Security Forces",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 2. 6·25전쟁 발발 후 편성 및 병력

### 1) 편성

<표 3-7> 전국 경찰관서 현황(1951~1953년)

단위 : 개소

구 분		1951년	1952년	1953년
경찰서	1급	62	66	69
	2급	107	103	100
	계	169	169	169
지서·파출소·출장소	지서	1,625	1,632	1,642
	파출소	324	328	362
	출장소	236	250	274
	계	2,185	2,210	2,278
소방서	1급	8	9	12
	2급	12	11	12
	계	20	20	14
소방 파출소·출장소	파출소	21	21	32
	출장소	5	5	2
	계	26	26	34

출처 :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1995, 165쪽.

<표 3-8> 6·25전쟁 기간 경찰 주요 지휘관

구 분	역대	계급	성명	부임일자
치안국장	제3대		장석윤	1950. 6.17.
	제4대		김태선	1950. 7.17.

치안국장		제5대		이익홍	1951. 6.24.
		제6대		홍순봉	1952. 3.18.
		제7대		윤우경	1952. 5.25.
		제8대		문봉제	1952. 9. 6.
		제9대		이성주	1953. 1. 5.
시·도 경찰국장	서울경찰국장	제2대	이사관	김태선	1948. 9. 8.
		제3대	이사관	이익홍	1950. 8.11.
		제4대	이사관	윤우경	1951. 6.24.
		제5대	이사관	윤명운	1952. 9. 8.
	경기도경찰국장	제6대	경무관	이하영	1950. 5. 3.
		제7대	경무관	한경록	1950. 8. 3.
		제8대	경무관	윤기병	1951. 7.21.
		제9대	경무관	이순구	1952.11. 7.
	강원도경찰국장	제7대	경무관	윤명운	1950. 1.30.
		제8대	경무관	김익준	1950. 8.12.
		제9대	경무관	황학성	1951. 7.27.
		제10대	경무관	이구범	1952. 7.28.
		제11대	경무관	홍병식	1953. 3.23.
	충청북도경찰국장	제7대	경무관	이시환	1948. 9.15.
		제8대	경무관	김의택	1950. 8. 6.
		제9대	경무관	정태섭	1950.11.12.
		제10대	경무관	이성주	1951. 7. 9.
		제11대	경무관	송관수	1952.11. 7.
	충청남도경찰국장	제6대	경무관	이순구	1949. 6.20.
		제7대	경무관	심형택	1950. 7.21.
		제8대	경무관	김호익	1950. 8.11.
		제9대	경무관	송관수	1951. 7.27.
		제10대	경무관	김우택	1952.11. 7.
		제11대	경무관	황학성	1953. 4.26.

전라북도경찰국장	제10대	경무관	윤기병	1950. 4.27.
	제11대	경무관	정태섭	1950. 7.27.
	제12대	경무관	김의택	1950.12.28.
	제13대	경무관	윤명운	1951. 7. 9.
	제14대	경무관	김삼조	1951.11. 3.
	제15대	경무관	김종원	1952. 7.28.
	제16대	경무관	신상묵	1953. 4.26.
전라남도경찰국장	제6대	경무관	김응권	1950. 4.27.
	제7대	경무관	심형택	1950. 8. 9.
	제8대	경무관	송병섭	1951. 4.19.
	제9대	경무관	한경록	1951. 7.27.
	제10대	경무관	변종현	1952.11. 7.
	제11대	경무관	박근용	1953. 7.11.
경상북도경찰국장	제8대	경무관	한경록	1950. 4.17.
	제9대	경무관	조준영	1950. 8.11.
	제10대	경무관	변종현	1951. 7.27.
	제11대	경무관	김삼조	1952.11. 7.
경상남도경찰국장	제7대	경무관	이동철	1950. 4.27.
	제8대	경무관	최 천	1950. 7.27.
	제9대	경무관	이성주	1950. 11.
	제10대	경무관	이동철	1951. 3.
	제11대	경무관	박병배	1952. 6.27.
	제12대	경무관	이하영	1953. 7.11.
제주도경찰국장	제10대	경무관	이성주	1950. 4.27.
	제11대	경무관	이종극	1950.10.12.
	제12대	경무관	윤명운	1951. 4.18.
	제13대	경무관	조준영	1951. 7.27.
	제14대	경무관	윤석열	1951. 8.17.
	제15대	경무관	이경진	1952.10.13.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1340~1403쪽.

2) 병력

<표 3-9> 6·25전쟁 기간 경찰 병력 현황(1950. 6. 15. ~ 1953. 4. 25.)

단위 : 명

연 도	경 찰		합 계
	경위 이상	경위 이하	
1950. 6. 15.	2,865	45,408	48,273
1951. 4. 22.	3,845	5,9712	63,557
1951. 4. 29.	3,862	59,566	63,428
1951. 5. 6.	3,879	59,947	63,826
1951. 5. 13.	3,919	60,337	64,256
1951. 5. 20.	3,945	58,207	62,152
1951. 5. 27.	3,921	57,799	61,720
1951. 6. 2.	3,900	58,325	62,225
1951. 6. 9.	4,016	57,930	61,946
1951. 6. 16.	4,155	59,342	63,497
1951. 6. 23.	4,124	58,789	62,913
1951. 6. 30.	4,070	58,720	62,790
1951. 7. 7.	4,079	58,996	63,075
1951. 7. 14.	4,130	59,815	63,945
1951. 7. 21.	4,057	60,171	64,228
1951. 7. 28.	3,992	60,396	64,338
1951. 8. 4.	3,896	60,316	64,212
1951. 8. 11.	4,001	61,888	65,889
1951. 8. 18.	3,964	60,170	64,134
1951. 8. 25.	3,971	59,675	63,646
1951. 9. 1.	3,949	59,829	63,778
1951. 9. 8.	3,960	60,242	64,202

1951. 9. 15.	3,897	60,111	64,008
1951. 9. 22.	3,899	60,330	64,229
1951. 9. 29.	4,021	60,182	64,203
1951. 10. 6.	4,013	60,057	64,070
1951. 10. 13.	3,886	60,101	63,987
1951. 10. 20.	3,903	59,811	63,714
1951. 10. 27.	3,905	60,046	63,951
1951. 11. 3.	3,867	60,474	64,341
1951. 11. 10.	3,813	59,362	63,175
1951. 11. 17.	3,749	59,150	62,899
1951. 11. 24.	3,883	59,640	63,523
1951. 12. 1.	3,877	59,762	63,639
1951. 12. 8.	3,894	59,903	63,797
1951. 12. 15.	3,901	59,621	63,522
1951. 12. 22.	3,891	59,644	63,535
1951. 12. 29.	3,855	58,589	62,444
1952. 8. 31.	4,263	55,707	59,970
1952. 9. 30.	4,274	55,542	59,816
1953. 3. 31.	4,428	59,945	64,373
1953. 4. 25.	4,526	60,289	64,815

출처 : 정용욱 편, 『JOINT WEEKA』(영인본), 제3권, 영진문화사, 1993, 342쪽, 348쪽, 355쪽 ;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22 Apr. 1951-29 Dec. 1951”, RG 554, Entry 1362(A1), Box 52, NARA ; HQ KMAG, ‘Staff Annex G-2’,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00 ; HQ KMAG, ‘Staff Annex G-3’, “Command Report, April 1953”,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14, NARA.

비고 : 1950년 6월 15일 병력수는 JOINT WEEKA의 자료이며, 1952년 8월 31일과 9월 30일 병력수는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1953년 3월 31일과 4월 25일 병력수는 “Command Report, April 1953”의 자료임.

<표 3-10> 각 시·도별 경찰 병력 현황(1952~1953년)

단위 : 명

구 분	1952. 8. 31.					1953. 4. 25.				
	총경 이상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총경 이상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치안국	57	97	208	285	75	70	93	210	256	61
서울경찰국	27	78	278	732	4,418	27	85	321	836	5,021
경기도경찰국	16	65	321	869	4,272	17	73	336	950	4,551
강원도경찰국	12	42	228	562	3,431	12	46	245	611	3,708
충청북도경찰국	10	37	151	397	1,844	12	37	163	408	2,008
충청남도경찰국	14	44	200	511	2,382	15	48	208	573	2,767
경상북도경찰국	16	68	356	885	5,293	17	75	382	922	5,906
경상남도경찰국	17	71	381	924	5,976	19	102	514	1,145	8,423
전라북도경찰국	15	45	234	605	3,667	15	67	309	763	5,590
전라남도경찰국	14	53	344	873	5,318	13	75	431	1,057	6,673
제주도경찰국	8	18	81	212	1,137	7	19	77	202	1,227
철도기동부대 사령부	17	66	233	805	4,889	17	72	258	897	5,522
태백산지구전투 경찰사령부	7	42	128	345	2,500	-	-	-	-	-
지리산지구전투 경찰사령부	7	43	114	308	2,192	-	-	-	-	-
치안국 전방지휘소	-	-	-	-	-	5	10	24	50	162

출처 : HQ KMAG, 'Staff Annex G-2',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00 ; HQ KMAG, 'Staff Annex G-3', "Command Report, April 1953",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14.

<표 3-11> 경찰 간부후보생 배출 현황(1948~1953년)

기 수	입학일	졸업일	졸업인원(명)
제1기	1947. 9. 30.	1948. 6. 30.	93
제2기	1948. 3. 1.	1948. 12. 10.	175
제3기	1948. 8. 5.	1949. 5. 5.	115
제4기	1948. 11. 17.	1949. 11. 17.	262
제5기	1950. 11. 6.	1951. 5. 2.	95
제6기	1951. 4. 2.	1951. 9. 3.	97
제7기	1951. 7. 2.	1951. 12. 20.	96
제8기	1952. 11. 22.	1953. 11. 20.	110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92쪽, 1409~1421쪽.

## 제2 절 민간인 통계 현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쟁은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과 민간의 일치된 노력이 승패를 결정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총력전’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전쟁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6·25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향토방위령(1950. 7. 22.)>, <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1950. 7. 26.)> 등 각종 동원령을 공포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전쟁을 수행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전쟁에 대비한 ‘민간인 철수계획’이나 ‘국가동원계획’이 전무했던 정부로서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러한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방위군사건’과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의 동원조치와는 별도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6·25전쟁의 특징 중 하나였다. 전 연령층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한 조직을 결성하거나 자원입대를 통해, 또는 노무자로서 모든 국민은 전쟁에 직접 관여하였다. 여기에는 소년병과 학도의용군, 미 제8240 유격부대, 한국노무단(KSC), 예비전력원의 역할을 자임한 국민방위군, 우익청년들로 구성된 대한청년단 등이 대표적인 조직이었다.

한편 3년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6·25전쟁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그 피해의 대부분은 전쟁 발발 이후 철수와 반격이 반복되는 전쟁 초기에 발생하였으며, 1951년 7월에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는 일부 후방지역에서 게릴라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에 남한지역에서만도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99만여 명에 달했으며, 피난민이 약 650만 명, 전재민(戰災民)이 약 1천만 명에 이르렀다. 인명피해 이외에도 개인의

가옥과 재산은 물론,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국가 기간산업시설과 공공시설마저도 송두리째 파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물적피해액은 약 4,100억환으로, 1953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약 3,570억환임을 감안할 때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sup>40)</sup>

## 1. 인구 현황

<표 3-12> 6·25전쟁 전후 인구 현황(1949년, 1953년, 1955년)

단위 : 명

구 분	1949년	1953년	1955년
서울	1,446,019	1,010,416	1,574,868
경기	2,740,594	2,499,576	2,363,660
충북	1,146,509	1,374,205	1,192,071
충남	2,028,188	2,378,206	2,222,725
전북	2,050,485	2,286,873	2,126,255
전남	3,042,442	3,202,492	3,127,559
경북	3,206,201	3,521,671	3,363,798
경남	3,134,829	3,678,800	3,770,209
강원	1,138,785	1,302,125	1,496,301
제주	254,589	291,884	288,928
총 계	20,188,641	21,546,248	21,526,374

출처 : 통계청, ‘대한민국통계연감(국가통계포털, www.koisis.kr)’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10쪽.

비고 : 가. 1949년과 1955년은 경제기획원 통계국 자료이며, 1953년은 내무부 통계국 자료임.

나. 각 시군별·남녀별 등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서 제6장 참조.

40) 민간부문과 관련해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준군사조직과 국가동원 관련 통계, 그리고 민간부문 피해현황을 주로 다루었으며, 수록대상은 대한민국과 남한지역으로 하였다. 피해현황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각종 통계는 제6장에서 별도로 다루었으며, 북한지역의 민간부문 현황은 제5장 제1절 ‘북한군 통계 현황’에 수록하였다.

<표 3-13> 연령별 인구 현황(1953년)

단위 : 명

도 별	총계	0-4		5-9	
		남	여	남	여
전국	21,546,248	1,285,647	1,254,332	1,452,677	1,373,755
서울특별시	1,010,416	63,092	61,245	75,299	73,035
경기도	2,499,576	130,806	128,373	163,792	157,280
충청북도	1,374,205	80,424	77,848	84,721	77,976
충청남도	2,378,206	147,064	142,087	161,338	150,260
전라북도	2,286,873	138,986	136,816	158,405	147,614
전라남도	3,202,492	195,491	188,207	229,392	213,881
경상북도	3,521,671	228,236	225,109	240,230	226,026
경상남도	3,678,800	220,357	216,081	244,615	238,667
강원도	1,302,125	68,657	66,539	76,433	71,004
제주도	291,884	12,534	12,027	18,452	18,012

도 별	10-14		15-19	
	남	여	남	여
전국	1,366,887	1,261,428	1,150,194	1,043,658
서울특별시	68,377	66,940	57,911	60,464
경기도	155,983	146,284	137,156	129,370
충청북도	86,501	76,647	71,378	63,801
충청남도	148,492	134,981	128,376	113,799
전라북도	145,605	132,266	120,773	106,872
전라남도	211,472	188,233	170,176	145,005
경상북도	226,193	203,925	183,655	165,978
경상남도	223,006	218,909	197,570	180,350
강원도	82,516	75,007	67,365	62,169
제주도	187,42	18,236	15,834	15,850

도 별	20-24		25-29	
	남	여	남	여
전국	715,029	988,111	745,024	914,984
서울특별시	34,911	51,265	39,037	49,540
경기도	112,547	117,801	99,743	105,150
충청북도	54,207	61,468	54,513	55,926
충청남도	89,666	107,465	99,665	96,148
전라북도	69,341	103,831	76,968	95,831
전라남도	84,903	144,728	98,747	135,506
경상북도	97,789	163,674	101,408	151,382
경상남도	95,304	163,923	101,256	159,227
강원도	64,121	59,297	63,037	54,716
제주도	12,180	14,659	10,650	11,558

도 별	30-34		35-39	
	남	여	남	여
전국	821,305	811,190	788,573	778,211
서울특별시	34,051	44,535	32,616	32,010
경기도	104,327	92,886	90,406	90,329
충청북도	59,403	50,101	61,473	50,163
충청남도	90,355	85,389	94,492	84,274
전라북도	78,061	86,416	87,163	83,472
전라남도	116,460	116,916	106,698	109,681
경상북도	126,633	132,586	128,043	131,322
경상남도	142,415	144,056	120,204	139,260
강원도	50,938	48,172	57,798	48,401
제주도	9,662	10,133	9,680	9,299

도 별	40-44		45-49	
	남	여	남	여
전국	721,301	659,460	441,636	436,270
서울특별시	20,773	26,548	18,629	17,732
경기도	96,222	75,919	51,572	48,186
충청북도	53,040	42,136	27,612	26,844
충청남도	78,334	71,490	46,620	45,744
전라북도	80,468	69,077	46,840	44,994
전라남도	105,668	94,526	66,190	64,681
경상북도	112,951	113,223	69,849	71,612
경상남도	114,914	117,600	81,705	84,172
강원도	49,295	39,916	28,176	25,384
제주도	9,636	9,025	4,443	6,921

도 별	50-54		55세 이상	
	남	여	남	여
전국	335,439	356,986	818,821	1,025,330
서울특별시	11,129	12,078	23,973	35,226
경기도	36,238	36,489	87,091	105,716
충청북도	21,545	21,253	53,233	61,927
충청남도	35,886	37,003	85,218	104,060
전라북도	36,806	37,725	85,513	108,030
전라남도	53,600	55,529	137,130	169,672
경상북도	54,270	58,094	138,149	171,334
경상남도	61,999	73,901	144,025	195,284
강원도	19,678	18,769	51,329	53,408
제주도	4,288	6,145	13,245	20,673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10~11쪽.

<표 3-14> 직업별 인구 현황(1953년)

단위 : 명

도 별	총수			농업	
	계	남	여	남	여
전국	21,546,248	10,642,533	10,903,715	3,341,155	2,353,399
서울특별시	1,010,146	479,978	530,618	16,121	9,021
경기도	2,499,570	1,265,793	1,233,783	374,548	152,125
충청북도	1,374,205	708,115	666,090	259,524	99,714
충청남도	2,378,206	1,205,566	1,172,700	422,168	220,937
전라북도	2,286,873	1,133,929	1,152,944	404,359	374,361
전라남도	3,202,492	1,575,927	1,626,565	588,136	648,511
경상북도	3,521,671	1,707,406	1,814,265	552,517	284,114
경상남도	3,678,800	1,747,370	1,931,430	452,744	374,697
강원도	1,302,125	679,343	622,782	228,259	120,820
제주도	291,884	139,346	152,538	42,779	69,099

도 별	수산업		광업		공업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62,117	10,593	19,428	1,554	177,065	27,426
서울특별시	96	9	288	18	26,005	2,547
경기도	4,683	370	759	43	17,848	1,974
충청북도	71	36	2,124	133	7,648	533
충청남도	3,014	821	1,808	117	13,743	1,994
전라북도	2,608	115	340	115	12,133	1,614
전라남도	13,868	5,368	946	163	16,232	2,115
경상북도	7,342	544	2,561	181	26,977	5,443
경상남도	18,173	1,931	1,747	579	46,655	10,430
강원도	10,869	1,246	8,831	202	8,152	623
제주도	1,393	153	24	3	1,672	153

도 별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업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273,261	131,918	63,666	3,317	347,181	32,892
서울특별시	43,182	14,108	9,836	478	38,720	5,093
경기도	26,455	9,130	6,709	158	37,214	2,714
충청북도	12,392	4,463	2,124	67	17,278	1,399
충청남도	26,401	12,313	4,943	235	27,124	2,345
전라북도	22,565	12,221	4,082	231	32,090	2,767
전라남도	27,421	15,778	6,461	325	38,768	2,115
경상북도	42,344	21,590	7,171	363	50,710	4,173
경상남도	56,964	34,959	19,745	1,352	82,476	10,430
강원도	13,587	6,228	2,038	78	18,342	1,246
제주도	1,950	1,068	557	30	4,459	610

도 별	기타자유업		실업		무직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319,453	127,019	271,801	323,708	5,767,406	7,891,889
서울특별시	44,477	11,674	24,230	34,384	276,843	453,226
경기도	43,290	11,227	72,150	65,884	682,137	990,158
충청북도	12,675	5,795	11,967	9,392	382,312	544,558
충청남도	27,847	11,492	24,231	22,282	354,227	900,164
전라북도	22,565	10,722	30,843	45,772	602,344	705,026
전라남도	26,476	15,778	27,421	36,923	830,198	899,489
경상북도	37,051	16,147	17,757	22,497	962,976	1,459,213
경상남도	83,699	32,834	40,714	65,475	944,453	1,398,743
강원도	19,701	10,587	19,701	17,438	349,863	404,314
제주도	1,672	763	2,787	3,661	82,053	76,998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10~11쪽.

## 2. 국가동원 주요 현황

<표 3-15> 6·25전쟁 기간 국가동원 관련 주요 법령

법령명	공포일	내 용	근 거
비상시향토방위령	1950. 7. 22.	14세 이상 남자 향토방위의무	대통령령 제7호 긴급명령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 7. 26.	전쟁에 필요한 자원 동원	대통령령 제6호 긴급명령
전시 육군 장교 보충규정	1950. 8. 16.	전시 간편 절차로 육군 장교 임용	국방부령 임시 제2호
육군보충장교령	1950. 8. 28.	전시 간편 절차로 육군 장교 임용	대통령령 제382호
국민방위군설치법	1950. 12. 21.	만17세 이상 40세 이하인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	법률 제172호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	1951. 5. 12.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	법률 제195호
병역법 중 개정법률	1951. 5. 25.	대통령이 병력 소집을 실시할 때는 병종(兵種)과 연령(年齡)을 공고	법률 제203호
학생군사훈련 실시령	1951. 12. 1.	고등학교 이상 학생의 군사훈련 실시	대통령령 제577호
지원병령	1953. 4. 8.	전시 상황을 고려해 현역복무지원자의 연령을 남녀 공히 만17~55세로 규정	대통령령 제771호
민병대령	1953. 7. 23.	생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을 받고 향토방위에 협조	대통령령 제813호

출처 : 병무청, 『병무행정사』(上), 병무청, 1986, 36~184쪽.

<표 3-16> 시·도별 병사구사령부 설치 현황(1950. 9. 20.~1951. 4. 20.)

설치 연월일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	관련 법령	비 고
1950. 9.20.	경남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75호	부산에 설치
1950. 9.20.	경북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75호	대구에 설치
1950. 9.26.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81호	1950.12.29. 부산으로 이동, 1951.3.15. 서울로 복귀
1950.10. 3.	충북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82호	청주에 설치
1950.10.16.	충남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81호	대전에 설치
1950.10.16.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82호	원주에 설치
1950.10.18.	경기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199호	경기도청내 설치, '50.11.12. 인천으로 이동, '51.1.4. 마산 으로 이동, '51.4.25. 인천으로 복귀
1950.10.19.	전남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82호	광주에 설치
1950.12.16.	제주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124호	제주읍에 설치
1951. 4.20.	전북지구 병사구사령부	국방부 일반명령 (육) 제96호	진주에 설치

출처 : 병무청, 『병무행정사』(上), 1986) 1986, 197~198쪽.

비고 : 병사구사령부는 제2국민병 등록을 비롯해 징병제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949년 9월 1일 각 시·도청 소재지에 창설되었으나 국군 10만 명 편제의 제약으로 징집에 의한 의무병제 실시가 필요하지 않아 1950년 3월 15일 폐지되었던 기구였다.

<표 3-17> 제2국민병 및 예비병 소집 공고 현황

국무원 공고번호	공고일	소집역종	소집대상자 연령	소집대상자 직종	소집실시 기간
제17호	1951. 7. 17.	제2국민병	만 17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제2국민병	지정 없음	지정 없음
제21호	1951. 9. 28.	제2국민병	1951. 9. 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25세 이하 자 (1926. 9. 2. ~ 1932. 9. 1. 출생자)	지정 없음	1951. 10. 1. 부터 소집
제22호	1951. 11. 27.	제2국민병	국무원공고 제21호 중 만 25세 이하를 만 26세 미만으로, 1926. 9. 2. 출생 자를 1925. 9. 2. 출생자로 개정	지정 없음	지정 없음
제41호	1951. 8. 27.	제2국민병	1952. 9. 1. 현재 만 23세 이상 만 28세 미만 자 (1924. 9. 2. ~ 1929. 9. 1.)	지정 없음	1952. 9. 1. 부터 소집
제42호	1952. 9. 27.	예비병	1952. 9. 1 현재, 만 2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자 (1913. 9. 2. ~ 1924. 9. 1. 출생자)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자격이 있는 자	1952.10. 1. ~1953. 8.31.
		제2국민병	1952. 9. 1 현재, 만 28세 이상 만 36세 미만의 자(1916. 9. 2. ~ 1924. 9. 1. 이전 출생자)	자동차기술자, 선박기술자, 토목기술자, 화학기술자, 전기·측량기술자, 통신·금속·인쇄 기술, 선반기술자	

출처 : 병무청, 『병무행정사』(上), 병무청, 1986, 329~330쪽.

<표 3-18> 병역법상의 복무연한 및 취역구분

구 분		복무연한		취역구분
항	역종	공군	해군	
제1	현역	2년	3년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개 한다.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2	예비병역	6년	5년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3	후비역	10년	10년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4	호국병역	2년	3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호국병으로 징집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호국병은 명령에 의한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	제1보충병역	14년	1년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제6	보충병역		제1보충역을 필한 자는 13년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7	제1국민병역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제8	제2국민병역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 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출처 : 국방관계법령집 발행본부, 『국방관계법령 및 예규집』, 보성사, 1950, 280~281쪽, 남정옥,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51쪽 재인용.

### 3. 군사 관련 조직

<표 3-19> 6·25전쟁 기간 소년병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참전자	22,849	2,984	1,197	27,030
전사자	2,573			
총인원	29,603			

출처 : 이상호·박영실, 『6·25전쟁 소년병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108쪽.

비고 : 가. 소년병은 '6·25전쟁 발발 후 만 17세 이하의 나이로 정규군에 복무한 자'를 말한다. 2011년 11월 현재까지 확인된 수임.

<표 3-20> 6·25전쟁 기간 학도의용군 현황

단위 : 명

지 역	인 원	지 역	인 원
부 산	4,500	대 구	2,000
서 울	3,200	기타 각도	18,000
합계		27,700	

출처 : 학군단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68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2012, 18쪽 재인용.

비고 : 가. 1951년 4월 현재 출정 학생 수임.

나. 학도의용군은 6·25전쟁 발발 이후부터 1951년 4월까지 학생의 신분으로 군번을 받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작전, 치안유지활동, 간호활동, 선무공작활동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혹은 단체를 지칭함(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2012, 15~16쪽).

<표 3-21> 미 제8240유격부대 현황

단위 : 명

부 대	한국 유격대원	미 군
유격사령부(서 울)	-	17
제1유격대(백령도)	5,601	40

제2유격대(강화도)	4,204	32
제3유격대(속 초)	4,793	32
제5유격대(연평도)	3,010	34
제6유격대(초 도)	3,001	27
제1공수유격대(서울)	1,533	18
계	22,142	200

출처 : 육군본부,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1988, 164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151쪽.

<표 3-22> 6·25전쟁 기간 노무단(KSC) 현황

단위 : 명

시 기	규 모	시 기	규 모
1951년 9월	34,568	1952년 9월	74,083
10월	44,932	10월	73,947
11월	60,275	11월	73,022
12월	69,218	12월	78,405
1952년 1월	71,808	1953년 1월	80,906
2월	71,493	2월	83,384
3월	69,932	3월	89,137
4월	71,882	4월	91,991
5월	73,294	5월	93,154
6월	74,915	6월	91,922
7월	72,227	7월	90,656
8월	73,142		

출처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17",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표 3-23> 호국군·청년방위대 현황

단위 : 명

연도	월일	병력	연도	월일	병력
1949	3. 5	11,654	1949	8.19	33,677
	6.11	28,585		8.26	34,996
	6.24	28,585		9. 2	34,996
	7. 1	27,961		9. 9	34,996
	7. 9	33,841		9.16	37,328
	7.15	33,841		9.23	37,328
	7.22	30,042		9.30	34,914
	7.29	35,202		10. 7	33,070
	8. 5	33,677		1950	5.19
	8.12	33,677			

출처 : *Joint Weeka*, 1949~1950년도분, 정병준, 『한국전쟁』, 돌베개, 2006, 749~750쪽 재인용.

비고 : 가. 1949년도의 병력은 호국군 병력임. 호국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주지의 소속 연대에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이었음. 호국군은 1949년 1월 3일 발족하였으며, 1월 10일까지 4개 여단(제101·102·103·104여단) 10개 연대(제101·102·103·105·106·107·108·110·111·113연대)를 편성하였음. 호국군 장교 양성을 위해 호국군사관학교가 설립되어 1949년 8월 15일 폐교시까지 1,080명의 호국군 장교를 배출함.

나. 호국군사령부는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1949년 8월 31일 해체되었음. 호국군사령부 해체 이후 예하부대의 호국군 장교들은 각 지구 병사구사령부 기간요원 또는 현역에 편입됨(1,080명 중 640명).

다. 1950년 5월 19일 병력은 청년방위대 병력으로 추정됨. 호국군과 청년방위대와의 관계는 실질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조직과 편성면에서 상당 부분 유사하였음.

<표 3-24> 청년방위대 간부·대한청년단 간부·훈련지도관 현황

성명	청년방위대 직책	대한청년단 직책	방위대 훈련지도관
김윤근	청년방위부장	부단장	대한청년단본부 대령 박시창
문봉제	청년방위차장	부단장	
박경구	청년방위차장	감찰국장	
유지원	총무국장	훈련국장	
윤익현	경리국장	총무국장	
강낙원	제1단장(서울)	최고지도위원	대령 김완용
김득하	제2단장(인천)	인천시단장	대령 김정호
김승한	제3단장(수원)	종로구단장	대령 백홍석
현현문	제4단장(개성)	-	대령 이치업
박승화	제5단장(춘천)	강원도단장	대령 장 흥
임용순	제6단장(강릉)	삼척지단장	소령 권용성
허 화	제7단장(청주)	충북도단장	대령 전봉덕
최익수	제8단장(천안)	-	소령 신구현
박병언	제9단장(대전)	-	대령 오광선
김정식	제10단장(영주)	영주군단장	소령 이기우
남재수	제11단장(안동)	-	소령 신 철
홍명섭	제12단장(대구)	-	소령 이용선
이인목	제13단장(부산)	경남도단장	소령 이두황
이관수	제14단장(진주)	-	중령 이동철
조백린	제15단장(전주)	전주부단장	대령 이용문
황우수	제16단장(순천)	-	소령 최우장
신태익	제17단장(광주)	전남도단장	소령 김우윤
강민엽	독립제1단장(용진)	-	중령 박영호
강성곤	독립제2단장(제주)	제주도단장	소령 이익영
김연익	독립제3단장(의정부)	-	소령 전제선

출처 : 남정옥,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1], 2001, 176쪽.

비고 : 청년방위대는 1950년 3월 15일 대한청년단을 주축으로 리(里) 단위까지 편성을 완료 하였으며,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20개의 청년방위단 창설과 이들을 지도할 훈련지도관이 임명되었음. 청년방위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해 설치된 자위대의 주요 간부로 임명되어 경찰과 함께 치안유지활동과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청년방위대 배속장교들은 현역으로 소집되어 전선에 배치되었음.

### 제3 절 피해 현황

#### 1. 경 찰

##### 1) 인명 피해 현황

<표 3-25> 경찰 인명 피해 종합 현황(1950. 6.~1953. 12.)

단위 : 명

구 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전 사	1,067	1,388	467	209	3,131
부 상	3,364	2,723	474	193	6,760
납 치	52	302	42	7	403
실 종	6,494	518	43	29	7,084
합 계	10,977	4,937	1,026	438	17,378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309쪽, 332쪽, 433쪽, 462쪽, 492쪽.

<표 3-26>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 I (1950. 6. 25.~1951. 4. 15.)

단위 : 명

구 분		1950.6.25.~9.30.	1950.10.1.~1951.4.15.	계
서 울	전사	58	12	70
	부상	198	4	202
	납치	-	-	-
	실종	785	-	785
경 기	전사	123	12	135
	부상	288	54	342
	납치	-	-	-
	실종	1,106	4	1,110

강 원	전사	68	38	106
	부상	875	85	960
	납치	-	2	2
	실종	377	70	447
충 북	전사	69	38	107
	부상	161	45	206
	납치	-	2	2
	실종	112	13	125
충 남	전사	56	23	79
	부상	100	83	183
	납치	-	-	-
	실종	1,231	5	1,236
경 북	전사	61	69	130
	부상	206	256	462
	납치	-	2	2
	실종	75	15	90
경 남	전사	65	75	40
	부상	105	195	300
	납치	-	2	2
	실종	23	15	38
전 북	전사	38	170	208
	부상	158	236	394
	납치	-	8	8
	실종	2,000	46	2,046

전 남	전사	36	103	139
	부상	164	360	524
	납치	-	6	6
	실종	30	100	130
제 주	전사	5	15	20
	부상	12	2	14
	납치	-	-	-
	실종	-	-	-
철 도	전사	19	16	35
	부상	87	3	90
	납치	-	-	-
	실종	532	-	532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전사	-	58	58
	부상	-	142	142
	납치	-	7	7
	실종	-	36	36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전사	-	142	142
	부상	-	283	283
	납치	-	5	5
	실종	-	57	57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309쪽, 332쪽.

<표 3-27>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Ⅱ(1951. 1.~1951. 12.)

단위 : 명

구 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종	계
1 월	115	202	3	78	398
2 월	62	258	-	117	437
3 월	102	214	-	64	380
4 월	86	141	28	-	255
5 월	41	100	-	4	145
6 월	59	123	3	3	188
7 월	180	380	16	6	582
8 월	167	305	175	82	729
9 월	270	489	1	101	861
10 월	153	283	38	44	517
11 월	98	150	30	19	297
12 월	55	84	8	-	147
계	1,388	2,729	302	518	4,937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433쪽.

<표 3-28> 기간별 경찰관 인명 피해 현황Ⅲ(1952. 1.~1953. 12.)

단위 : 명

구 분		1952. 1. ~ 12.	1953. 1. ~ 12.	계
서 울	전사	-	-	-
	부상	-	-	-
	납치	-	-	-
	실종	-	-	-

경 기	전사	1	-	1
	부상	5	-	5
	납치	-	-	-
	실종	-	-	-
강 원	전사	2	4	6
	부상	12	2	14
	납치	-	-	-
	실종	-	-	-
충 북	전사	6	1	7
	부상	7	1	8
	납치	-	-	-
	실종	-	-	-
충 남	전사	1	-	1
	부상	-	-	-
	납치	-	-	-
	실종	-	-	-
경 북	전사	15	6	21
	부상	32	1	33
	납치	2	1	3
	실종	7	-	7
경 남	전사	40	34	74
	부상	40	26	66
	납치	6	2	8
	실종	7	22	29
전 북	전사	160	43	203
	부상	128	33	161
	납치	17	1	18
	실종	11	5	16

전 남	전사	156	53	209
	부상	163	77	240
	납치	8	-	8
	실종	15	-	15
제 주	전사	26	2	28
	부상	29	1	30
	납치	5	-	5
	실종	-	-	-
철 도	전사	9	-	9
	부상	6	-	6
	납치	-	-	-
	실종	-	-	-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전사	21	-	21
	부상	31	-	31
	납치	4	-	4
	실종	3	-	3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전사	30	-	30
	부상	21	-	21
	납치	-	-	-
	실종	-	-	-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전사	-	66	66
	부상	-	52	52
	납치	-	2	2
	실종	-	2	2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462쪽, 492쪽.

2) 물적 피해 현황

<표 3-29> 경찰관서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개소, 동

구 분	경 찰 관 서		
	관서수	동수	연건평
총 계	1,176	1,931	66,471
서 울	60	91	5,651
경 기	202	316	8,573
충 북	79	281	1,710
충 남	60	35	1,141
전 북	127	245	6,836
전 남	226	395	18,119
경 북	140	193	12,200
경 남	131	155	4,743
강 원	151	220	7,498
제 주	-	-	-

<표 3-30> 경찰 장비 피해 종합 현황(1950. 6.~1953. 12.)

구 분	소화기류(정)	중화기류(정)	차량(대)	계
1950년	1,169	12	549	1,730
1951년	1,114	85	-	1,199
1952년	388	6	-	394
1953년	460	10	-	470
총 계	3,131	113	549	3,793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309쪽, 332쪽, 433쪽, 462쪽, 492쪽.

<표 3-31>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 (1950. 6. 25.~1951. 4. 15.)

단위 : 정, 대

구 분		1950. 6.25.~9. 30.	1950. 10. 1.~1951. 4. 15.	계
서 울	소화기류	2	-	2
	중화기류	-	-	0
	차량	3	-	3
경 기	소화기류	115	6	121
	중화기류	-	-	-
	차량	29	3	32
강 원	소화기류	177	-	177
	중화기류	3	-	3
	차량	90	-	90
충 북	소화기류	91	-	91
	중화기류	1	-	1
	차량	153	-	153
충 남	소화기류	15	-	15
	중화기류	-	-	-
	차량	43	-	43
경 북	소화기류	72	7	79
	중화기류	-	1	1
	차량	51	3	54
경 남	소화기류	7	22	29
	중화기류	-	-	-
	차량	15	30	45

전 북	소화기류	23	63	86
	중화기류	-	2	2
	차량	7	12	19
전 남	소화기류	557	73	630
	중화기류	7	3	10
	차량	67	2	69
제 주	소화기류	1	12	13
	중화기류	-	-	-
	차량	1	2	3
철 도	소화기류	3	-	3
	중화기류	-	-	-
	차량	37	-	37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소화기류	-	19	19
	중화기류	-	-	-
	차량	-	3	3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소화기류	-	-	-
	중화기류	-	-	-
	차량	-	-	-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309쪽, 332쪽.

<표 3-32>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I(1951. 1.~1951. 12.)

단위 : 정

구 분	소화기류	중화기류	계
1 월	10	-	10
2 월	5	6	11
3 월	70	1	71
4 월	11	-	11
5 월	4	-	4
6 월	42	4	46
7 월	158	11	169
8 월	237	19	256
9 월	360	25	385
10 월	124	14	138
11 월	66	4	70
12 월	27	1	28
계	1,114	85	1,199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433쪽.

<표 3-33> 기간별 경찰 무기 피해 현황 III(1952. 1.~1953. 12.)

단위 : 정

구 분		1952. 1~12.	1953. 1~12.	계
서 울	소화기류	-	-	-
	중화기류	-	-	-
경 기	소화기류	-	-	-
	중화기류	-	-	-

강 원	소화기류	1	1	2
	중화기류	-	-	-
충 북	소화기류	1	2	3
	중화기류	-	-	-
충 남	소화기류	12	-	12
	중화기류	-	-	-
경 북	소화기류	11	6	17
	중화기류	2	-	2
경 남	소화기류	61	72	133
	중화기류	2	1	3
전 북	소화기류	125	51	176
	중화기류	-	1	1
전 남	소화기류	102	101	203
	중화기류	-	-	-
제 주	소화기류	25	4	29
	중화기류	1	-	1
철 도	소화기류	25	-	25
	중화기류	-	-	-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소화기류	12	-	12
	중화기류	1	-	1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소화기류	13	-	13
	중화기류	-	-	-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소화기류	-	223	223
	중화기류	-	8	8

출처 : 내무부치안국, 『한국경찰사(1948. 8.~1961. 5.)』, 1973, 462쪽, 492쪽.

<표 3-34> 6·25전쟁 기간 경찰 통신(유선)시설 피해 현황

구 분	시설규모(km)	파괴규모(km)	비율(%)
치안국 간선	250	250	100
서울	309	309	100
경기	3,240	2,518	78
강원	2,664	2,246	85
충북	1,718	1,044	60
충남	3,437	2,810	82
경북	2,796	1,389	50
경남	1,915	470	25
전북	2,700	1,294	48
전남	2,929	1,583	55
총계	21,958	13,913	63

<표 3-35> 6·25전쟁 기간 경찰 통신(무선)시설 피해 현황

구 분	기존시설	파괴시설	비율(%)
시설(개소)	234	200	85
송신기(대)	556	505	91
수신기(대)	345	291	84
축전기(대)	43	41	91

## 2. 민간인

<표 3-36> 6·25전쟁 기간 민간인 종합 피해 현황

피해별	전국(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인명(명)	990,968	129,908	128,740	70,003	75,409
피해총액 (1,000환)	410,589,759	176,930,519	39,985,348	12,833,514	19,083,630
건물	-	-	-	-	-
피해액(1,000환)	182,936,470	73,583,038	20,711,469	4,766,369	10,720,523
동수(동)	661,002	53,670	104,154	45,639	17,088
연건평(평)	15,482,772	2,288,825	5,614,620	784,049	518,753
자산 및 시설	-	-	-	-	-
피해액 (1,000환)	220,870,030	103,218,495	17,540,066	7,607,167	7,925,982
동산	56,496,506	17,632,129	7,401,300	2,587,180	1,269,967
시설	80,938,445	41,555,909	4,229,086	2,728,319	2,338,501
집기비품	29,337,290	11,842,687	2,345,423	399,704	3,757,416
기타	54,097,789	32,187,770	3,564,257	1,891,964	560,098
가축	-	-	-	-	-
피해액(1,000환)	6,783,259	128,986	1,733,813	459,978	437,125
수량(마리)	2,928,180	56,665	633,281	216,411	310,160
수량(상자)	49,670	890	11,280	2,352	1,462

피해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인명(명)	91,861	193,788	97,851	72,306	130,777	325
피해총액 (1,000환)	11,435,852	20,068,599	58,589,662	45,620,572	17,868,672	28,324
건물	-	-	-	-	-	-
피해액 (1,000환)	5,210,240	10,448,861	35,573,622	12,356,436	7,916,180	10,177
동수(동)	48,876	69,285	132,276	140,398	49,475	6
연건평(평)	722,590	1,432,357	1,423,831	1,734,676	916,003	210
자산 및 시설	-	-	-	-	-	-
피해액 (1,000환)	5,339,068	9,242,225	23,021,344	32,559,458	8,104,236	6,477
동산	2,138,596	2,253,046	3,047,947	18,544,917	1,621,424	
시설	1,959,028	3,663,248	14,770,729	3,182,212	2,744,490	4,028
집기비품	339,984	2,022,693	2,379,600	1,600,793	2,103,954	2,419
기타	901,460	1,303,238	2,823,068	9,231,536	1,634,368	30
가축	-	-	-	-	-	-
피해액 (1,000환)	886,544	377,513	194,696	704,678	1,848,256	11,670
수량(마리)	461,069	130,217	601,625	268,167	249,915	670
수량(상자)	6,241	3,685	4,030	7,684	11,976	70

출처 : 통계청, '6·25사변 종합 총피해', "대한민국통계연감"(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1) 인명 피해 현황

<표 3-37> 시·도별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구 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계
서 울	29,628	8,800	34,680	20,738	36,062	129,908
경 기	39,728	7,511	25,479	16,057	39,965	128,740
충 북	24,320	3,409	12,658	6,312	23,304	70,003
충 남	23,707	5,561	20,290	10,022	15,829	75,409
전 북	40,462	14,216	15,364	7,210	14,609	91,861
전 남	14,193	69,787	52,168	4,171	53,469	193,788
경 북	35,485	6,609	21,061	7,584	27,112	97,851
경 남	19,963	6,099	32,417	1,841	11,986	72,306
강 원	17,122	6,825	15,483	10,528	80,819	130,777
제 주	55	119	25	69	57	325
계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990,968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12~213쪽.

<표 3-38> 남·녀별 인명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명

시도별	구분	사망	학살	부상	납치	행불	총계
서울	남 자	17,117	6,868	21,716	19,003	27,779	92,483
	여 자	12,511	1,932	12,964	1,735	8,283	37,425
경기	남 자	22,893	6,424	16,855	15,491	33,986	95,649
	여 자	16,835	1,087	8,624	566	5,979	33,091
충북	남 자	20,201	3,074	11,950	5,979	21,938	63,097
	여 자	4,119	335	753	333	1,366	6,906
충남	남 자	19,810	4,898	17,356	9,995	14,874	66,933
	여 자	3,897	663	2,934	27	955	8,476
전북	남 자	26,668	10,565	12,452	6,220	11,365	67,270
	여 자	13,794	3,651	2,912	990	3,244	24,591
전남	남 자	8,753	49,851	37,911	3,104	39,894	136,513
	여 자	5,440	19,936	14,257	1,067	13,575	54,275
경북	남 자	26,903	5,422	16,690	7,196	24,072	80,283
	여 자	8,582	1,187	4,371	388	3,040	17,568
경남	남 자	12,967	5,020	23,661	1,641	9,267	52,556
	여 자	6,996	1,079	8,756	200	2,719	19,750
강원	남 자	10,741	5,462	10,281	9,721	70,051	106,256
	여 자	6,381	1,363	5,202	807	10,768	24,521
제주	남 자	51	96	22	27	45	241
	여 자	4	23	3	42	12	84
계	남 자	166,104	97,680	168,849	78,377	253,271	764,281
	여 자	78,559	31,256	60,776	6,155	49,941	226,687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12~213쪽.

<표 3-39> 시·도별 피난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51. 3. 31.	1951. 5. 31.	1952. 12. 31.	1953. 4. 30.
서 울	128,400	-	72,461	40,219
경 기	1,729,516	1,661,312	723,374	804,030
충 북	700,300	270,051	126,843	156,713
충 남	760,477	802,572	291,152	275,932
전 북	329,032	414,103	383,153	326,331
전 남	523,125	577,737	130,153	156,929
경 북	1,383,208	575,292	227,789	229,089
경 남	558,496	521,414	342,574	440,415
강 원	330,800	987,160	766,04	161,311
제 주	71,228	148,794	20,815	20,359
총 계	6,514,582	5,758,435	2,394,918	2,611,328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D35쪽, D37쪽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1954, D6~D7쪽.

<표 3-40> 전재민(戰災民) 종합 현황(1952. 3. 15.)

단위 : 명

구 분	세대수	인원
남한피난민	421,228	1,714,992
월남피난민	135,745	618,721
전재민	656,949	3,419,996
원주민	890,739	4,375,413
전재고아	-	48,322
기타	-	11,857
총 계	2,104,661	10,189,301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1953, D21쪽.

비고 : 가. 전재민은 직접 전화를 입은 남한의 민간인임.

나. 원주민(原住貧民)은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임.

다. 전재고아(戰災孤兒)는 당시 공·사립 수용소에 수용보호중인 자임.

라. 기타는 전국 각지의 부랑아 및 걸인(乞人)임.

<표 3-41> 시·도별(출신지별) 피난민 현황(1952. 3. 15.)

단위 : 명

구 분	세대수	인원
서울특별시	188,476	895,126
경기도	118,314	263,003
충청북도	10,497	49,491
충청남도	9,620	44,002
경상북도	9,527	44,510
경상남도	11,627	54,414
전라북도	22,346	119,312
전라남도	15,230	74,300
강원도	34,750	167,321
제주도	841	3,513
계	421,228	1,714,992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1953, D21쪽.

<표 3-42> 월남한 피난민 현황(1950. 6. 25. ~ 1952. 3. 15.)

단위 : 명

구 분	세대수	인원
북한 경기도	12,758	59,309
북한 강원도	39,735	191,132
황해도	27,554	122,468
평안남도	20,602	89,607
평안북도	7,296	31,657
함경남도	24,746	111,860
함경북도	3,054	12,688
계	135,745	618,721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1953, D21쪽.

2) 물적 피해 현황

<표 3-43> 가축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마리

구분	소	젖소	말	돼지	토끼	닭	산양	면양	기타
서울	317	241	566	3,375	1,698	48,972	58	11	1,427
경기	34,370	140	390	49,890	24,102	518,413	376	173	5,427
충북	13,753	24	45	40,157	4,878	110,966	4,255	102	42,231
충남	8,821	42	456	26,427	18,929	211,780	2,256	74	41,231
전북	20,590	16	1,001	66,084	16,560	312,357	3,115	26	41,320
전남	7,482	58	327	13,527	1,495	100,757	475	29	6,067
경북	40,830	31	462	90,246	7,688	437,666	4,389	167	20,146
경남	23,613	21	79	38,947	6,140	184,999	1,502	395	12,471
강원	48,892	154	55	30,937	3,959	157,670	313	121	7,814
제주	221	-	449	-	-	-	-	-	-
총계	198,889	727	3,830	359,590	85,449	2,083,580	16,739	1,098	178,278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12~213쪽.

<표 3-44> 주택 피해 현황(1950. 6. 25.~53. 7. 27.)

구분	피해액(단위 : 천환)				동수(동)	연건평(평)
	총액	건물	동산	기타		
총계	161,310,566	79,364,174	56,490,506	25,455,886	612,636	11,911,855
서울	67,270,345	42,394,655	17,632,129	7,263,561	48,543	904,878
경기	20,372,286	10,086,829	7,401,300	2,884,157	96,920	5,184,363
충북	6,457,225	2,499,899	2,587,180	1,370,146	38,955	561,432
충남	3,238,173	1,718,198	1,263,596	256,008	12,950	229,485
전북	5,951,426	3,125,690	2,138,596	687,140	46,386	571,080
전남	7,393,747	4,377,818	2,253,046	762,883	64,997	1,138,830
경북	10,137,651	5,115,747	3,047,947	1,973,957	122,314	1,082,251
경남	35,538,822	7,818,751	18,544,917	9,175,154	135,267	1,530,687
강원	4,930,891	2,226,587	1,621,424	1,082,880	46,304	708,849
제주	-	-	-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14~215쪽.

<표 3-45> 학교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평

구 분	각급 학교		
	학교수(개소)	동수(동)	연건평(평)
서울	202	1,025	583,530
경기	601	1,839	116,808
충북	274	2,354	87,265
충남	407	1,524	85,551
전북	263	627	51,384
전남	417	1,171	71,031
경북	1,030	4,852	151,278
경남	441	1,057	68,488
강원	373	967	62,637
제주	15	11	270
총계	4,023	15,427	1,278,242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0~221쪽.

<표 3-46>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 7.)

단위 : 개소, 동, 평

구 분	금융 기관			의료 기관		
	기관수	동수	연건평	기관수	동수	연건평
총계	443	1,115	48,008	940	1,132	66,950
서울	59	83	12,395	294	275	16,193
경기	72	214	8,303	16	34	2,960
충북	47	78	2,005	137	235	15,601
충남	48	84	2,502	87	86	3,506
전북	31	80	3,393	55	75	2,478
전남	59	96	4,049	75	47	10,107
경북	31	252	6,260	137	191	6,579
경남	56	81	2,424	70	99	2,150
강원	40	147	6,677	69	90	7,376
제주	-	-	-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2~223쪽.

비고 : 금피 피해량 273,968(g).

<표 3-47> 기업체, 각종 단체 및 공영건물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개, 등, 평

구 분	기업체			각종단체			공영건물		
	단체수	동수	연건평	단체수	동수	연건평	단체수	동수	연건평
총 계	10,436	17,051	787,206	1,165	2,104	102,523	542	583	33,918
서 울	1,289	1,804	249,223	107	125	5,732	94	92	2,679
경 기	1,184	2,126	144,687	313	575	24,711	103	114	2,999
충 북	1,751	3,053	78,944	54	87	4,821	-	-	-
충 남	1,698	1,731	67,795	34	49	2,493	2	3	65
전 북	266	437	18,784	69	104	4,729	34	35	931
전 남	789	968	65,227	189	581	30,829	34	33	20,952
경 북	1,572	3,684	81,541	146	195	9,039	-	-	-
경 남	1,709	2,635	52,967	103	179	9,414	180	196	2,463
강 원	177	610	53,964	150	209	10,755	95	109	3,829
제 주	1	3	74	-	-	-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4~225쪽.

<표 3-48> 각 공업별 피해 현황(1952. 4.말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전쟁 전 공장수	피해 공장수
총 계	9,707	914
면방직공업	15	12
모방직공업	11	2
견인견직공업	530	96
메리야스공업	361	103
염색공업	25	15
연사공업	85	21
타-올공업	4	3

기타섬유공업	62	-
고무공업	215	18
피혁공업	101	12
제지공업	23	13
인쇄공업	120	28
유기화학공업	227	40
무기화학공업	112	26
요업공업	301	53
식품공업	156	48
금속공업	605	238
기계공업	754	186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 1953, D19쪽.

<표 3-49> 도로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m

구 분	계		국도		지방도	
	개소	피해연장	개소	피해연장	개소	피해연장
총 계	3,109	548,636	1,119	210,326	1,990	338,310
서 울	228	165,251	28	67,578	200	97,673
경 기	407	40,070	188	25,783	219	14,287
충 북	91	21,046	34	10,498	57	10,548
충 남	114	8,416	58	3,393	56	5,023
전 북	335	61,662	171	8,513	164	53,149
전 남	687	136,209	151	37,532	536	98,677
경 북	293	6,646	149	3,845	144	2,801
경 남	726	34,560	213	15,034	513	19,526
강 원	228	74,776	127	38,150	101	36,626
제 주	-	-	-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6~227쪽.

<표 3-50> 철도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m

구 분	선 로	교 량	수 도	전 선
총 계	329,480	9,315	4,935	60,766
경부선	140,780	3,207	560	8,758
경인선	2,780	66	-	762
경원선	15,628	184	-	27,360
경의선	22,969	976	450	3,713
중앙선	89,153	1,795	3,744	5,587
경춘선	15,900	565	-	433
동해선	-	-	-	274
용산선	1,640	-	-	20
수인선	613	13	-	168
수려선	710	10	-	234
경기선	2,030	13	-	123
충남선	803	446	-	537
충북선	9,901	407	20	312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6~227쪽.

<표 3-51> 시·도별 항만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개소, 동, 평

구 분	피해 항만수	동수	연건평
총 계	15	111	13,137
서울	-	-	-
경기	1	50	6,000
충북	-	-	-
충남	1	3	1,940
전북	2	6	933
전남	2	1	1,200
경북	2	11	486
경남	5	30	1,320
강원	2	10	1,258
제주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8~229쪽.

<표 3-52> 주요 항구별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항구명	주요 피해 상황
인천항	물양장 및 호안 350m, 갑문비 4매, 교량 3기, 상옥급 창고 18,262m <sup>2</sup> , 공사용 선박 17척, 기중기 2대
군산항	부잔교 및 고정잔교 5기, 물양장 및 호안 670m, 상옥급 건물 8,715m <sup>2</sup> , 공사용 선박 16척
목포항	잔교 5기, 물양장 및 호안 300m, 건물 594m <sup>2</sup> , 공사용 선박 12척
여수항	물양장 775m, 방층재 519m, 건물 5,643m <sup>2</sup> , 공사용 선박 10척
포항항	창고 726m <sup>2</sup> , 공사용 선박 12척
목호항	창고 700m <sup>2</sup> , 공사용 선박 14척
삼척항 (경라항)	건물 495m <sup>2</sup> , 공사용 선박 5척
지방항	물양장 및 호안 6,830m, 잔교 12기, 돌제 700m, 상옥 2동, 갑문 1개소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102쪽.

<표 3-53> 수도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km

구 분	피해개소	계	수원시설	수관시설	급수시설	기타
총 계	39,849	136,021	4,141	30,163	34,557	67,160
서울	20,260	1,350	-	1,350	-	-
경기	5,520	2,880	-	2,880	-	-
충북	5,571	-	-	-	-	-
충남	3,598	103,645	105	14,540	21,900	67,100
전북	941	7,753	3,206	1,847	2,700	-
전남	1,047	6,719	830	3,732	2,157	-
경북	6	4,230	-	2,430	1,800	-
경남	1,765	6,444	-	2,384	4,000	60
강원	1,141	3,000	-	1,000	2,000	-
제주	-	-	-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8~229쪽.

<표 3-54> 사방시설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7.)

단위 : 평(면적), m(연장)

구 분	개 소	면 적	연 장
총 계	4,020	1,176,948	228,645
서 울	16	777,519	2,700
경 기	597	15,393	61,120
충 북	592	9,929	28,443
충 남	392	17,780	20,710
전 북	459	15,240	37,844
전 남	239	290,145	8,710
경 북	1,230	29,450	58,600
경 남	363	611	325
강 원	132	20,872	10,193
제 주	-	-	-

출처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1955, 228~229쪽.

## 제4 장

# 유엔참전국 통계

### 제1 절 유엔군의 참전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정착 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UN : The United States)을 창설했다. 51개 국가가 창설 회원국으로 참가한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연합이 창설된 후 ‘평화와 안전’이라는 창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유엔군이라는 집단적인 무력을 사용한 유일무이한 사례가 6·25전쟁이었다. 유엔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한 지 하루 만인 6월 26일(뉴욕 현지시간 25일)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권고’를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당국에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군대를 즉시 38도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41)</sup>

41) “The Requestment of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Korea(S/1501)”, June 25, 1950.

북한의 침략행위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유엔의 ‘6·26결의’는 6·25전쟁에서 유엔이 집단안전보장 조치로 침략을 제재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첫 번째 행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략행위는 계속되었다. 이에 미국은 유엔 결의를 수행하기 위한 해·공군의 지원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유엔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원조제공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8일(뉴욕 현지시간 27일)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결의하였다.<sup>42)</sup> ‘6·28결의안’은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려는 유엔 창설 이후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아울러 이 결의안의 채택은 6·25전쟁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에서 ‘북한 대 유엔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기도 했다.

유엔사무총장은 다수가 참여하는 연합군의 통일된 지휘체계를 갖추고자 7월 3일 미국에게 유엔군을 지휘하도록 제의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들의 군사행동에 통일성을 보장하고자 7월 7일 미국이 작성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제안한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의결하였다. ‘7·7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신해 한국에서 침략자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유엔회원국들이 파견한 군대를 미군의 통일된 지휘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유엔사무총장은 ‘7·7결의’에 따라 당일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통

42) “The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S/1511)”, June 27, 1950.

해 유엔기를 전달하고 당시 미 극동군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미 제8군사령관 위커 장군에게 “7월 13일부로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명령을 받은 위커 장군은 7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구로 이동해 지휘소를 설치하고 미지상군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유엔지상군 부대들을 통합지휘하기 시작했다.<sup>43)</sup>

미국 이외 국가들의 참전은 주로 미국과 유엔사무총장 간의 협의하에 이루어졌다. 전쟁 초기부터 미국은 좀 더 많은 유엔회원국이 미국 측에 동참해 6·25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이 전쟁이 단순히 ‘미국 대 소련’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세계 대 공산세계’ 간의 전쟁이 되기를 희망했다.

미국 정부는 1950년 8월 초 필리핀, 태국,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파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좀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6·25전쟁에 동참시킨다는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이었다.

유엔 회원국 대부분은 북한의 대한민국 침략이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데 공감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집단행동에 의한 평화유지’에는 지지를 보냈지만, 병력의 파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어떤 국가는 참전할 뜻을 밝혀 왔지만 너무 적은 수의 병력을 파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미국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중 유엔결의에 따라 제일 먼저 군사 지원을 약속한 나라는 영연방 국가들이었다. 영국은 해군 기동부대

4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5~28쪽.

의 파견을 통보해 왔고, 호주가 해·공군의 파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구축함 지원을 약속했고, 대만도 지상군 파견의사를 전해왔다. 그러나 대만의 파견 제의는 정치적 문제, 대만의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다.

영국·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으로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유럽 배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미국의 확고한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인접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이었던 캐나다는 초기부터 북한의 남침 배후에는 소련의 팽창욕구가 있다고 판단하고서 유엔의 공동노력으로 이를 강력히 저지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참전을 결정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팽창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은 미래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팽창을 막는 유력한 예방책이라고 판단했다.

터키와 그리스는 다르다넬스 해협과 발칸반도에서 소련과 그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터키와 그리스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유엔의 집단행동에 동참함으로써 강한 결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훗날 자신들의 나라에 좀 더 많은 미국의 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필리핀과 태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을 호

주와 뉴질랜드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인도차이나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의 공산세력이 팽창하고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 활동이 급증하는 것이 이들 나라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는 유엔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참전했다.<sup>44)</sup>

이처럼 6·25전쟁에 전투부대를 파병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은 그들 국가 주변에서 점증하는 공산주의 위협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한국에 대한 침략을 미래에 있을지 모를 공산주의자들의 자국에 대한 공격이나 전복활동의 한 시발점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각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6·25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해 총 16개국이 전투부대를 파병하였다. 그리고 5개국이 의료지원을 하였고 39개국이 물자를 지원하였으며, 3개국이 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결과 6·25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을 지원하거나 지원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총 63개국에 달했다. 이는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 93개국 중 68%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표 4-1> 유엔군 참전일지

국가수	국 가 명	군 별	한국도착일	지상군 전투참가일
1	미 국	해군·공군· 육군	1950. 6. 27. 1950. 7. 1.	1950. 7. 5.
2	영 국	해군· 육군	1950. 7. 1. 1950. 8. 28.	1950. 9. 4.
3	오스트레일리아	공군·해군· 육군	1950. 7. 1. 1950. 9. 27.	1950. 10. 5.

44)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2~24쪽.

4	네덜란드	해군 육군	1950. 7. 19. 1950. 11. 23.	1950. 12. 11.
5	캐나다	공군(수송대) 해군 육군	1950. 7. 28. 1950. 7. 30. 1950. 12. 18.	1951. 2. 15.
6	뉴질랜드	해군 육군	1950. 7. 30. 1950. 12. 31.	1951. 1. 28.
7	프랑스	해군 육군	1950. 7. 1950. 11. 29.	1950. 12. 13.
8	필리핀	육군	1950. 9. 19.	1950. 10. 1.
9	터 키	육군	1950. 10. 17.	1950. 11. 12.
10	태 국	해군 육군 공군(수송대)	1950. 11. 7. 1950. 11. 7. 1951. 6. 18.	1950. 11. 22.
11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1950. 11. 12.	1950. 11. 19.
12	그리스	공군 육군	1950. 12. 1. 1950. 12. 9.	1951. 1. 5.
13	벨기에	육군	1951. 1. 31.	1951. 3. 6.
14	룩셈부르크	육군	1951. 1. 31.	1951. 3. 13.
15	에티오피아	육군	1951. 5. 6.	1951. 7. 11.
16	콜롬비아	해군 육군	1951. 5. 8. 1951. 6. 15.	1951. 8. 1.
17	스웨덴	병원	1950. 9. 23.	1950. 9. 28.
18	인 도	병원	1950. 11. 20.	1950. 12. 4.
19	덴마크	병원선	1951. 3. 2.	1951. 3. 10.
20	노르웨이	병원	1951. 6. 22.	1951. 7. 19.
21	이탈리아	병원	1951. 11. 16.	1951. 12. 6.

출처 : 국방부, 『한국전란 2년지』(C), 483쪽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⑩, 1979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⑪, 1980.

비고 : 가. 참전국 순서는 전투부대와파견국(한국도착일자), 의료부대와파견국(한국도착일자) 순서임.  
나. 한국 도착일과 지상군 전투참가일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⑩~⑪의 각 국 참전기록을 정리한 것임.  
다. 해군의 한국 도착일은 한국해역에서 작전을 개시한 날짜임.  
라. 지상군 전투참가일은 한국에 도착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전선에 투입된 날짜임.

<표 4-2> 유엔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국 명	참전 연인원(명)	참 전 규 모		
		육군	해군	공군
미국	1,789,000	야전군 : 1 군단 : 3 보병사단 : 8 해병사단 : 1 연대전투단 : 2 병 력 : 302,483명	극동 해군 미 제7함대	극동 공군
영국	56,000	보병여단 : 2 해병특공대 1 병 력 : 14,198명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
오스트레일리아	17,164	보병대대 : 2 병 력 : 2,282명	항공모함 : 1척 구 축 함 : 2척 프리깃함 : 1척	전투비행대대 수송기편대
네덜란드	5,322	보병대대 : 1 병 력 : 819명	구 축 함 : 1척	-
캐나다	26,791	보병여단 : 1 병 력 : 6,146명	구 축 함 : 3척	수송기대대
뉴질랜드	3,794	포병대대 : 1 병 력 : 1,389명	프리깃함 : 1척	-
프랑스	3,421	보병대대 : 1 병 력 : 1,185명	구 축 함 : 1척	-
필리핀	7,420	보병대대 : 1 병 력 : 1,496명	-	-
터키	21,212	보병여단 : 1 병 력 : 5,455명	-	-
태국	6,326	보병대대 : 1 병 력 : 2,274명	프리깃함 : 7척 수 송 선 : 1척	수송기편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826	-	-	전투비행대대
그리스	4,992	보병대대 : 1 병 력 : 1,263명	-	수송기편대
벨기에	3,498	보병대대 : 1 병 력 : 900명	-	-
룩셈부르크	100	보병소대 : 1 병 력 : 48명	-	-
에티오피아	3,518	보병대대 : 1 병 력 : 1,271명	-	-
콜롬비아	5,100	보병대대 : 1 병 력 : 1,068명	프리깃함 : 1척	-

비고 : 참전규모의 병력은 전쟁기간 중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병력임.

<표 4-3> 유엔군 의료지원 현황

국명	참전 연인원(명)	참전규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124	170	적십자병원
인도	627	333	제60야전병원
덴마크	630	100	병원선
노르웨이	623	109	이동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72	제68적십자병원

비고 : 참전규모의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중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병력임.

<표 4-4> 유엔군 인명피해 현황

국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미국	33,686	92,134	3,737	4,439	133,996
영국	1,078	2,674	179	978	4,909
오스트레일리아	340	1,216	-	28	1,584
네덜란드	120	645	-	3	768
캐나다	516	1,212	1	32	1,761
뉴질랜드	23	79	1	-	103
프랑스	262	1,008	7	12	1,289
필리핀	112	299	16	41	468
터키	966	1,155	-	244	2,365
태국	129	1,139	5	-	1,273
남아프리카공화국	36	-	-	8	44
그리스	192	543	-	3	738
벨기에	99	336	4	1	440
룩셈부르크	2	13	-	-	15
에티오피아	122	536	-	-	658
콜롬비아	213	448	-	28	689
인도	3	23	-	-	26
노르웨이	3	-	-	-	3
합계	37,902	103,460	3,950	5,817	151,129

비고 :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을 기초로 하여 새로 확인된 내용을 보완하였음.  
 나. 참전국가의 인명피해는 6·25전쟁 기간 동안(1950. 6. 25.~1953. 7. 27.)에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피해만을 산정 기준으로 하였음.  
 다. 터키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종인원과 부상자, 비전투사망자를 전사/사망에 포함하였음.

## 제2 절 전투부대 파병 국가별 참전 현황

### 1. 미 국

북한군의 전면 남침 소식을 접한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일련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육·해·공군을 신속히 참전시켰다. 미국은 유엔의 참전 결의에 앞서 1950년 6월 26일(워싱턴 현지시간 25일)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무·국방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수뇌들이 블레어하우스(Blair House)에 모여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과 유사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였듯이 이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뿐만 아니라 유엔의 창설 원칙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히고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극동군사령부는 6월 26일 공군과 해군을 동원하여 주한미국인들의 수송을 지원하였고, 27일에는 전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치(John H. Church)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급속히 악화되자 6월 27일에 미국은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해·공군에 내려진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제한적 운용 조치’를 철회하고 38선 이남의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한국군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30일에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극동군사령관의 전선시찰보고서를 검토한 후 미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6월 27일(워싱턴 현지시간 26일) 미 해·공군이 한국에서 작전에 들어간데 이어 7월 1일 미 지상군도 한국에 도착하여 7월 5일부터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미 지상군은 1950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7개월 동안 월 평균 약 208,000명을 유지하였으며, 기간 중 최대 병력 규모는 302,483명이었다.<sup>45)</sup> 지상군 전투부대로는 제24사단,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7사단, 제1해병사단, 제40사단, 제45사단 등 9개 사단과 2개 연대전투단, 그리고 기타 지원부대들이었다. 미 지상군은 6·25전쟁이 발발한 후 약 10일간의 전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작전에 참가했다.

미 해군은 극동해군의 통제 아래에서 제7함대가 주로 작전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지원함 등이 참여했다. 미 해군은 개전 후 10일째 되는 1950년 7월 4일부터 북한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후 미 해군은 공중폭격, 함포사격, 상륙병력수송, 미 본토로부터의 인원과 물자수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유엔군 측이 전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인천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은 고도의 숙련된 미 해군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미 공군은 극동공군의 통제 아래에서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폭격과 유엔지상군이 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접항공지원작전, 그리고 공산군측 MIG기와의 공중전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미 공군은 이러한 작전활동을 통해 전쟁의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큰 피해를 입힘으로써 공산

---

45) Frank A. Reister, *Battle Casualties and Medical Statistics : U.S. Army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The Surgeon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86, 3쪽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 III, Figure 2b",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군 측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sup>46)</sup>

6·25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참전 병력은 연인원 1,789,000명이었다. 그 중 33,686명이 전사하고 92,13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176명이 실종 또는 포로가 되었다.

<그림 4-1> 미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94-1
- \* 건립연도 : 1975년 10월 3일

4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15~21쪽.

<상황도 4-1> 미군 주요 전투



<표 4-5> 미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군	공군
1,789,000	보병사단 : 8 해병사단 : 1 연대전투단 : 2 병력 : 302,483명	극동 해군 미 제7함대	극동 공군

출처 : “U.S. Military Korean War Statistics”, 미 국방부 6·25전쟁 기념 웹사이트 ([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

비고 : 가. 참전연인원은 Washington Headquarters Services, Directorate for Information Operations and Reports(WHS/DIOR)의 2000년 6월 1일자 자료임.

나.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1) 육군

<표 4-6> 미국 육군 전투부대 참전 현황

구분	야전군	군단	사단			연대 전투단	보병 연대	포병 대대	기갑 대대
			소계	정규사단	주방위사단				
부대수 (개)	1	3	8	6	2	2	28	54	8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2002, 393쪽.

<표 4-7> 미국 육군 주요 참전부대와 참전기간

부대명	참전 및 주둔 기간	예하부대	비고
제8군사령부	1950. 7.13.~현재	제1·9·10군단	· 제10군단은 1950. 12. 24. 이후 배속
제1군단	1950. 9.12.~1955. 1.		
제9군단	1950. 9.23.~1954. 9.		
제10군단	1950. 9.15.~1954. 9.		

제1기병사단	1950. 7.18.~1951.12.22.	제5·7·8기병연대, 제61·77·99포병대대(105mm), 제82포병대대(155mm), 제71중전차대대 A중대, 제92대공포대대, 제8공병대대	
제2보병사단	1950. 7.31.~1954. 9.21.	제9·23·38보병연대, 제5·37·38포병대대(105mm), 제503포병대대(155mm), 제72중전차대대, 제82대공포대대, 제2공병대대	
제3보병사단	1950.11.10.~1954. 1.	제7·15·65보병연대, 제10·39·58포병대대(105mm), 제9포병대대(155mm), 제64중전차대대, 제3대공포대대, 제10공병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5연대는 1950. 9. 22. 한국도착</li> <li>· 제7연대는 1950. 10. 17. 한국도착</li> <li>· 제15연대는 1950. 11. 11. 한국도착</li> </ul>
제7보병사단	1950. 9.17.~1971. 4. 1.	제17·31·32보병연대, 제48·49·57포병대대(105mm), 제73중전차대대, 제15대공포대대, 제13공병대대	
제24보병사단	1950. 7. 1.~1952. 2. 4.	제19·21·34보병연대, 제13·52·63포병대대(105mm), 제11포병대대(155mm), 제78중전차대대 A중대, 제26대공포대대, 제3공병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 8. 31. 제34연대 해체, 제5연대전투단과 제6중전차대대 배속</li> <li>· 1953. 7. 3. 2차 파견</li> </ul>

제25보병사단	1950. 7.10.~1954. 10.	제24·27·35보병연대, 제8·64·159포병대대(105mm), 제90포병대대(155mm), 제79중전차대대 A중대, 제89중전차대대, 제21대공포대대, 제65공병대대	· 1951. 10. 1. 제24연대와 제159포병대대 해체, 제14연대와 제69포병대대로 교체
제40보병사단	1952. 1.22.~1954. 3.	제160·224보병연대, 제43·980·981포병대대(105mm), 제578대공포대대	· 주(州) 방위사단
제45보병사단	1951.12.17.~1954. 5.	제179·180·279보병연대, 제158·160·171포병대대(105mm), 제189포병대대(155mm), 제245중전차대대, 제14대공포대대, 제120공병대대	· 주(州) 방위사단
제5연대전투단	1950. 9.31.~8.31.		· 제34연대 해체 후 제24사단에 배속
제187공수 연대전투단	1950. 9.24.~1951. 6.28.		
	1952. 5.17.~1952. 7.13.		
	1953. 6.23.~1953. 9.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Ⅲ, 1980, 761~762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2002, 397~425쪽.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1961, 389쪽.

비고 : 가. 참전기간의 시작은 군단의 경우 작전기능을 개시한 시점이며, 사단의 경우 사단 사령부의 한국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나. 예하부대는 참전 당시를 기준으로 함.

<표 4-8> 미국 육군 참전병력 월별 현황(1950. 7.~1953. 7.)

단위 : 명

연도	월	전투병력(Combat)	지원병력(Service)	계
1950	7	39,478	8,790	48,268
	8	72,886	17,206	90,092
	9	103,601	28,507	132,108
	10	104,306	36,624	140,930
	11	114,998	38,538	153,536
	12	113,475	50,032	163,507
1951	1	114,321	61,021	175,342
	2	128,831	65,262	194,093
	3	138,062	64,528	202,590
	4	149,059	67,228	216,287
	5	156,987	73,549	230,536
	6	152,660	76,631	229,291
	7	142,092	75,504	217,596
	8	148,507	74,399	222,906
	9	157,405	75,572	232,977
	10	159,240	80,931	240,171
	11	151,788	80,587	232,375
	12	148,345	79,524	227,869
1952	1	159,931	82,040	241,971
	2	153,567	82,612	236,179
	3	154,399	80,241	234,640
	4	152,145	82,000	234,145
	5	155,281	84,270	239,551
	6	152,260	86,355	238,615
	7	153,005	86,138	239,143
	8	147,991	88,237	236,228
	9	145,620	85,735	231,355
	10	143,484	88,288	231,772
	11	145,991	83,735	229,726
	12	139,106	80,632	219,738

1953	1	139,460	77,131	216,591
	2	138,650	81,443	220,093
	3	140,499	82,796	223,295
	4	142,700	83,516	226,216
	5	156,433	85,889	242,322
	6	158,016	88,567	246,583
	7	188,174	88,407	276,581

출처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2b",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표 4-9> 6·25전쟁 기간 유엔군사령관 및 제8군사령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비고
유엔군 사령관	원수	Douglas MacArthur	1950. 7. 7.~1951. 4.11.	
	중장	Matthew B. Ridgway	1951. 4.11.~1952. 5.12.	1951. 5.11. 대장 진급
	대장	Mark W. Clark	1952. 5.12.~1953.10. 7.	
제8군 사령관	중장	Walton H. Walker	1950. 7.13.~1950.12.23.	1951. 1. 2.대장 추서
	중장	Matthew B. Ridgway	1950.12.26.~1951. 4.14.	1951. 5.11. 대장 진급
	중장	James A. Van Fleet	1951. 4.14.~1953. 2.10.	1951. 8. 1. 대장 진급
	중장	Maxwell D. Taylor	1953. 2.11.~1955. 3. 1.	1953. 6.23. 대장 진급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757쪽.

<표 4-10> 6·25전쟁 기간 미국 육군 군단장 및 사단장 현황

구 분		재임 기간	비 고	
제 1 군단장	중장	John B. Coulter	1950. 8. 2.~1950. 9.10.	
	중장	Frank W. Milburn	1950. 9.11.~1951. 7.18.	
	중장	John W. O'Daniel	1951. 7.19.~1952. 6.28.	
	중장	John W. Kendal	1952. 6.29.~1953. 4.10.	1952. 9.16 중장 진급
	중장	Bruce C. Clarke	1953. 4.11.~1953.10.13.	
제 9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1950. 8.10.~1950. 9.11.	
	소장	John B. Coulter	1950. 9.12.~1951. 1.31.	
	소장	Bryan E. Moore	1951. 1.31.~1951. 2.24.	1951. 2.23 헬기사고 사망
	중장	William H. Hoge	1951. 3. 5.~1951.12.23.	1951. 6. 3 중장 진급
	소장	Willard G. Wyman	1951.12.24.~1952. 7.30.	
	중장	Reuben E. Jenkins	1952. 8. 9.~1953. 8. 9.	1952.11. 8 중장 진급
제 10 군단장	중장	Edward M. Almond	1950. 8.26.~1951. 7.15.	1951. 2. 12 중장 진급
	소장	Cloves E. Byers	1951. 7.15.~1951.12. 5.	
	중장	Williston B. Palmer	1951.12. 5.~1952. 8.11.	
	중장	Issac D. White	1952. 8.15.~1953. 8.15.	1952.11. 7 중장 진급
제 1 기병사단	소장	Hobert R. Gay	1950. 7.18.~1951. 2. 4.	
	소장	Charles D. Palmer	1951. 2. 5.~1951. 7.16.	
	소장	Thomas L. Harrold	1951. 7.17.~1951.12.22.	
제 2 사단	소장	Laurence B. Keiser	1950. 7. 8.~1950.12. 6.	
	소장	Robert B. McClure	1950.12. 7.~1951. 1.14.	
	소장	Clark L. Ruffner	1951. 1.14.~1951. 9. 1.	
	소장	Robert N. Young	1951. 9.21.~1952. 5. 4.	
	소장	James C. Fry	1952. 5. 5.~1953. 5. 4.	
	소장	William L. Barriger	1953. 5. 4.~1954. 3.	

제 3사단	소장	Robert H. Soule	1950.11.10.~1951.10.19.	
	준장	Thomas J. Cross	1951.10.20.~1952. 4.28.	
	준장	Robert I. Dulaney	1952. 4.29.~1952.10.8.	
	소장	George W. Symthe	1952.10.9.~1953. 5. 9.	
	소장	Eugene W. Ridings	1953. 5.10.~1953.10.16.	
제 7사단	소장	David G. Barr	1950. 9. 5.~1951. 2.11.	
	소장	C .B. Ferenbough	1951. 2.12.~1951.12.4.	
	소장	L. L. Lemnitzer	1951.12. 5.~1952. 7. 3.	
	소장	Wayne C. Smith	1952. 7. 4.~1953. 3.21.	
	소장	Arthur G. Trudeau	1953. 3.22.~1953.10.13.	
제 24사단	소장	William F. Dean	1949.10. 5.~1950. 7.21.	
	소장	John H. Church	1950. 7.22.~1951. 1.24.	
	소장	B. N. Bryan	1951. 1.25.~1951.12.20.	1952.1.~2.4. 일본 이동
	소장	Charles L. Dasher	1952.11.3.~1953.10.25.	1952. 7. 3 다시 내환
제 25사단	소장	William B. Kean	1948. 8.25.~1951. 2.24.	
	소장	J. S. Bradley	1951. 2.25.~1951. 7.13.	1951. 6. 22소장 진급
	소장	Ira P. Swift	1951. 7.14.~1952. 7.17.	
	소장	Sammuel T. Williams	1952. 7.18.~1953. 6.26.	
	소장	Louis T. Heath	1953. 6.27.~1953. 8. 2.	
제 40사단	소장	Daniel H. Hudelson	1951. 1.19.~1952. 6. 2.	
	소장	J. P. Cleland	1952. 6. 3.~1953. 4.19.	
	소장	Ridgely Gaither	1953. 4.19.~1954. 1.17.	
제 45사단	소장	James C. Stylon	1951.12.14.~1952. 5.20.	
	소장	David L. Ruffner	1952. 5.21.~1953. 3.15.	
	준장	Philip Ginder	1953. 3.16.~1953.12. 1.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757~760쪽.

2) 해군

<표 4-11> 미국 해군 참전 함정 현황

구분	함정명	
항공모함 (Carrier) 36척	Antietam CV36	Midway CV41
	Badoeng Strait CVE116	Mindoro CVE120
	Bairoko CVE115	Oriskany CVA34
	Bataan CVL29	Philippine Sea CV47
	Bennington CVA20	Princeton CV37
	Bon Homme Richard CV31	Point Cruz CVE119
	Boxer CV21	Rendova CVE114
	Cabot CVL28	Saipan CVL48
	Cape Esperance CVE88	Siboney CVE112
	Coral Sea CV 43	Sicily CVE118
	Corregidor CVE58	Sitkoh Bay CVE86
	Essex CV9	Tarawa CV40
	Gilvert Islands CVE107	Tripoli CVE64
	Homet CVA12	Valley Forge CV45
	Kearsage CV33	Wasp CV18
	Kula Gulf CVE108	Windham Bay CVE92
	Lake Champion CV39	Wright CVL49
Leyte CV32	Yorktown CV10	
전함 (Battleship) 4척	Iowa BB61	New Jersey BB62
	Missouri BB63	Wisconsin BB64
순양함 (Cruiser) 13척	Bremerton CA130	Pittsburg CA72
	Canberra CA70	Quincy CA71
	Columbus CA74	Rochester CA124
	Helena CA75	Saint Paul CA73
	Juneau CLAA119	Toledo CA133
	Los Angeles CA135	Worcester CL144
	Manchester CL83	

구축함 (Destroyer) 121척	Agerholm DD826	Erben DD631
	Allen M. Summer DD692	Fechteler DD870
	R. B. Anderson DD786	Leonard F. Mason DD852
	Arnold J. Isbell DD869	Lyman K. Swenson DD729
	Barton DD722	Mackenzie DD836
	Bausell DD845	Maddox DD731
	Black DDE666	Mansfield DD728
	Boyd DD544	Marshall DD676
	Bristol DD857	McDermott DD677
	Brush DD745	McGowan DD678
	Buck DD761	McKean DD784
	Carpenter DDE825	McNair DD679
	Champlain DD601	Miller DD535
	Charles S. Sperry DD697	Moale DD693
	Chevalier DDR805	New DD818
	Clarence K. Bronson DD668	Nicholas DDE449
	Colahan DD658	Norris DDE859
	Collett DD730	O'bannon DDE450
	Cowell DD547	O'Brien DD725
	Cony DD508	Orleck DD886
	Corry DD817	Ozboum DD846
	Cotten DD669	Perkins DDR877
	Dashiell DD659	Philip DDE498
	De Haven DD727	Picking DD685
Douglas H. Fox DD779	Porter DD800	
Duncan DDE874	Preston DD795	

English DD696	Pritchett DD561
Ernest G. Small DD838	Purdy DD734
Epperson DDE719	Radford DDE446
Fiske DD842	Remey DD688
Fletcher DDE445	Renshaw DDE499
Floyd B. Parks DD884	Robinson DD562
Forest B. Royal DD872	Rodgers DD876
Frank E. Evans DD754	Rooks DD804
Frank Knox DD742	Rowan DD782
Fred T. Berry DDE858	Rupertus DD851
Gregory DD802	Samuel M. Moore DD747
Gurke DD783	Soley DD707
Hailey DD556	Southerland DDR743
Hale DD642	Stemmel DD644
Halsey Powell DD686	Stockham DD683
Hamner DD718	Stormes DD780
Hancock DD675	Strong DD758
Hank DD702	Taussing DD746
Hanson DD832	Theodore E. Chandler DD717
Harry E. Hubbard DD748	The Sullivans DD537
Hawkins DD873	Tingey DD539
Healy DD672	Trathen DD530
Henderson DD785	Twining DD540
Henley DD762	Uhlmann DD687
Henry W. Tucker DDR875	Walke DD723

	Hickox DD673	Walker DDE571
	Higbee DDR806	Wallace L. Lind DD703
	Hopewell DD681	Watts DD567
	Ingraham DD694	Wedderburn DD684
	James C. Owens DD776	Wilkinson DD930
	Joseph P. Kennedy Jr. DD850	Wiltsie DD716
	John R. Pierce DD753	Wm R. Rush DD714
	Kepler DDE765	Yarmall DD541
	Laffey DD724	Zellars DD777
	Laws DD558	
호위구축함 (Destroyer Escorts) 12척	Blair DE147	Howard DE462
	Charles Berry DE1035	Lewis DE535
	Currier DE700	McCoy Reynolds DE440
	Darby DE218	McMorris DE1036
	Foss DE59	Whitehurst DE634
	Hana DE449	Wiseman DE667
기함 (Flagship) 4척	Eldorado AGC11	Mt McKinley AGC7
	Estes AGC12	Taconic AGC17
유조함 (Fleet Oilers) 13척	Ashtabula AO51	Passumpsic AO107
	Chikaskia AO54	Patapsco AOG1
	Cimarron AO22	Platte AO24
	Kankakee AO39	Taluga AO62
	Guadalupe AO32	Tolovana AO64
	Misphillion AO105	Aucilla AO56
	Navasota AO106	

프리깃함 (Frigate) 8척	Albuquerque PF7	Glendale PF36
	Baoyonne PF21	Glouschester PF22
	Burlington PF51	Hoquiam PF53
	Everett PF8	Tacoma PF3
상륙선거함 (LSD) 6척	Cabildo LSD16	Gunston Hall LSD5
	Colonial LSD18	Tortuga LSD26
	Comstock LSD19	Whetstone LSD27
중형상륙함 (LSM) 2척	LSM 266	LSM 546
상륙로켓함 (LSMR) 8척	LSMR 401	LSMR 412
	LSMR 403	LSMR 525
	LSMR 404	LSMR 527
	LSMR 409	LSMR 536
상륙함 (LST) 29척	LST 391	LST 973
	LST 503	LST 975
	LST 529	LST 1006
	LST 561	LST 1032
	LST 629	LST 1048
	LST 692	LST 1073
	LST 715	LST 1078
	LST 722	LST 1080
	LST 758	LST 1081
	LST 762	LST 1082
	LST 772	LST 1083
LST 819	LST 1089	

	LST 822	LST 1101
	LST 914	LST 1148
	LST 963	
잠수함 (Submarine) 14척	Besuga	Perch(Special Operation)
	Blackfin SS322	Pickeral SS534
	Bowfin SS287	Queenfish SS393
	Bream	Sea Fox SS402
	Catfish SS339	Segundo SS398
	Greenfish SS351	Swordfish
	Hammerhead SS364	Tang
공격수송함 (Transport, Attack) 36척	Achermar AKA53	Oglethorpe AKA100
	Algol AKA54	Pass AW3
	Bayfield APA33	Renville APA227
	Belatrix AKA3	Sandoval PA194
	Bexar APA237	Skagit AKA105
	Cavalier APA37	Sussex AK213
	Chara AKA58	Talladega APA208
	Deuel APA160	Telfair APA210
	Diachenko APD123	Thomas Jefferson APA30
	George Clymer APA27	Titiania AKA13
	Grainger AK184	Union AKA106
	Henrico APA45	Uvalde AKA88
	Horace A. Bass APD124	Virgo AKA20
Lenawee APA195	Walter B Cobb APD106	
Marquette AK95	Wantuck APD125	

	Menard APA201	Weiss APD135
	Merrick AKA97	General W. H. Gordon TAP117
	Montrose APA212	Winston AKA94
소해함 (Mine Sweepers) 66척	Carmick DMS33	Minah AMC204
	Chatterer AMS40	Mockingbird AMS27
	Chief AM315	Murrelet AM372
	Competent AM316	Osprey AMS28
	Curlew AMS8	Partridge AMS31
	Defense AM317	Pelican AMS32
	Devastator AM318	Pigeon AM374
	Dextrous AM341	Pirate AMS275
	Doyle DMS34	Pledge AM277
	Ellyson DMS19	Plover AMS33
	Endicott DMS35	Ptarmigan AM37
	Fitch DMS25	Redhead AMS34
	Gladiator AM319	Redstart AM378
	Grosbeak AMS14	Rodman DMS21
	Gull AMS16	Ruddy AM380
	Gwin DM33	Sage AM111
	Hambleton DMS20	Seagull AMS55
	Harry MBauer DM26	Seer AM112
	Heron AMS18	Shea DM30
	Hobson DMS26	Shoveler AM382
Hombill AMS19	Strive AM117	

	Hummer AMS20	Surfbird AM383
	Impeccable AM320	Sustain AM119
	Incredible AM249	Swallow AMS36
	Instill AM252	Swan AMS37
	Jubliant AM255	Swift AM122
	Kite AMS22	Symbol AM123
	Lark AMS23	Thomas E Fraser DM24
	Linnet AMS24	Toucan AM387
	Macomb DMS23	Tumult AM127
	Magpie AMS25	Waxbill AMS39
	Mainstay AM261	Waxwing AM389
	Merganser AMS26	Zeal AM131

출처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21~526쪽.

비고 : 함정 주요 약어는 CV(항공모함), CVA(공격항공모함), CVE(호위항공모함), CVL(경항공모함), BB(전함), CA(중순양함), CL(경순양함), CLAA(대공경순양함), DD(구축함), DDE(대잠구축함), DDR(레이더감시함), DE(호위구축함), AGC(기함), AO(유조함), PF(프리깃함), LSD(상륙선거함), LSM(중형상륙함), LSMR(상륙로켓함), LST(전차상륙함), SS(제재식잠수함), AK(화물수송함), AKA(공격화물수송함), APA(공격수송함), APD(고속수송함), AM(철제 연안소해함), AMS(목제 연안소해함), DM(기뢰부설함), DMS(소해구축함).

<표 4-12> 6·25전쟁 기간 미국 해군 참전 주요지휘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극동해군 사령관	중장	Charles T. Joy	1950. 6.27.~1952. 6. 4.
	중장	Robert P. Briscoe	1952. 6. 4.~1954. 4. 2.
제7함대 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1950. 6.27.~1951. 3.28.
	중장	Harold M. Martin	1951. 3.28.~1952. 3. 3.
	중장	Robert P. Briscoe	1952. 3. 3.~1953. 5.20.
	중장	Joseph J. Clark	1952. 5.20.~1953. 7.27.
제90기동 함대 사령관	소장	J. H. Doyle	1950. 6.27.~1950. 9.27.
	소장	L. A. Thackrey	1950. 9.27.~1950.10.11.
	소장	J. H. Doyle	1950.10.11.~1951. 1.24.
	소장	I. N. Kiland	1951. 1.24.~1951. 9. 3.
	소장	T. B. Hill	1951. 9. 3.~1951.10. 8.
	소장	C. F. Espe	1951.10. 8.~1952. 6. 5.
	소장	F. X. McInerney	1952. 6. 5.~1953.11.21.
제95기동 함대 사령관	소장	J. M. Higgins	1950. 6.27.~1950. 7.25.
	소장	C. C. Hartman	1950. 7.25.~1950. 9.12.
	소장	A. E. Smith	1950. 9.12.~1951. 2.19.
	소장	W. Andrews	1951. 2.19.~1951. 4. 3.
	소장	A. E. Smith	1951. 4. 3.~1951. 6.20.
	소장	G. C. Dyer	1951. 6.20.~1952. 5.31.
	소장	J. E. Gingrich	1952. 5.31.~1953. 2.12.
	소장	C. E. Olsen	1953. 2.12.~1953. 7.27.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760쪽.

### 3) 공군

<표 4-13> 6·25전쟁 참전 미국 공군부대 현황(1953. 7.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기종
극동공군 사령부	사령부	도쿄(東京)	
제5공군	사령부	이다쓰게(板付)	
	제8전폭비행단	수원(K-13)	F-86
	제18전폭비행단	오산(K-55)	F-86
	제49전폭비행단	군산(K-8)	F-84
	제58전폭비행단	대구(K-2)	F-84E
	제474전폭비행단	대구(K-2)	F-84E
	제51전투요격비행단	수원(K-13)	F-86
	제4전투요격비행단	김포(K-14)	F-86
	제3폭격비행단	군산(K-8)	B-26
	제17폭격비행단	부산 수영(K-9)	B-26
극동공군 폭격사령부(임시)	사령부	요코타(横田)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제98폭격비행단	요코타(横田)	B-29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극동공군 수송사령부 (임시) 겸 제315항공 사단	사령부	히가시후주(東府中)	
	제314공수비행전대	아시야(蘆屋)	C-119
	제315공수비행단	일본 브래디(Brady)	C-46
	제374공수비행단	다치카와(立川)	C-124
	제403공수비행단	아시야(蘆屋)	C-119/46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Ⅱ, 2013, 599쪽.

<표 4-14> 6·25전쟁 참전 미국 항공기 종류

구 분	폭격기	전투/전투폭격기	수송기
기 종	B-26 Invader, B-29 Superfortress	AD Skyraider F-51 Mustang F2H Banshees F-80 Shooting Star F3D2 Skynight F-82 Twin Mustang F4U Corsairs F-84 Thunderjet F7F Tigercats F-86 Sabrejet F9F Panthers	C-46 Commando C-47 Skytrain C-54 Skymasters C-97 Stratofreighters C-119 Flying Boxcar C-121 Liftmasters C-124 Globemaster
수 량	2종	11종	7종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2002, 433쪽.

<표 4-15> 미국 공군 참전병력 현황(1950. 7.~1953. 7.)

단위 : 명

연도	월	한국주둔병력	일본주둔병력	계
1950	6	1	21,324	21,325
	9	4,904	30,768	35,672
	12	10,063	34,923	44,986
1951	3	11,582	36,466	48,048
	6	20,908	35,059	55,967
	9	26,776	37,250	64,026
	12	34,895	43,468	78,363
1952	3	36,012	44,870	80,882
	6	42,376	46,543	88,919
	9	42,963	50,098	93,061
	12	46,388	54,418	100,806
1953	3	46,351	56,167	102,518
	6	44,650	60,297	104,947
	7	43,791	60,299	104,090

출처 : A. Timothy Warnock, 'Appendix I Tabular Summaries : USAF Military Personnel in Theate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000(www.afhra.af.mil).

<표 4-16> 6·25전쟁 기간 미국 공군 참전 주요지휘관 현황

구분	계급	성명	참전기간	비고
극동공군 사령관	중장	George E. Stratemyer	1949. 4.26.~1951. 5.21.	
	중장	Earle E. Partridge	1951. 5.21.~1951. 6.10.	
	중장	Otto P. Weyland	1951. 6.10.~1954. 3.31.	
제5공군 사령관	중장	Earle E. Partridge	1950. 6.27.~1951. 5.21.	
	소장	E. J. Timberlake	1951. 5.21.~1951. 6. 1.	
	소장	Frank F. Everest	1951. 6. 1.~1952. 5.30.	'51.12.20. 중장 진급
	소장	Glenn O. Barcus	1952. 5.30.~1953. 5.31.	'52. 6.10. 중장 진급
	중장	Samuel E. Anderson	1953. 5.31.~1954. 6.	
극동공군 폭격사령관	소장	Emmett O'Donnell, Jr.	1950. 7. 8.~1951. 1.10.	
	준장	James E. Briggs	1951. 1.10.~1951. 5.23.	
	준장	Robert H. Terrill	1951. 5.23.~1951. 9.30.	
	준장	Joe W. Kelly	1951. 9.30.~1952. 3.15.	
	준장	Wiley D. Ganey	1952. 3.15.~1952.10. 5.	
	준장	William P. Fisher	1952.10. 5.~1953. 6.15.	
	준장	Richard H. Carmichael	1953. 6.15.~	
극동공군 수송사령관	소장	William H. Tunner	1950. 8.26.~1951. 2. 8.	
	준장	John P. Henebry	1951. 2. 8.~1952. 2.26.	
	대령	Cecil H. Childre	1952. 2.26.~1952. 4.10.	대리
	소장	Chester E. McCarty	1952. 4. 10.~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1], 1980, 760쪽 ;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Revised Edition)*,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Washington, D.C., 1983, 773~776쪽.

4) 해병대

<표 4-17> 미국 해병대 참전병력 월별 현황(1950. 7.~1953. 7.)

단위 : 명

연 도	월	전투병력	지원병력	계
1950	7	3,477	0	3,477
	8	4,468	0	4,468
	9	21,525	0	21,525
	10	27,306	0	27,306
	11	24,928	0	24,928
	12	22,104	0	22,104
1951	1	21,873	3,385	25,258
	2	22,084	3,366	25,450
	3	22,372	3,323	25,695
	4	22,431	3,235	25,666
	5	22,297	3,193	25,490
	6	21,120	2,839	23,959
	7	22,047	2,831	24,878
	8	22,114	3,010	25,124
	9	20,919	3,141	24,060
	10	21,352	3,147	24,499
	11	19,641	3,027	22,668
	12	21,458	3,077	24,535
1952	1	20,835	2,701	23,536
	2	22,261	1,806	24,067
	3	23,696	3,469	27,165
	4	22,740	3,594	26,334
	5	23,042	3,804	26,846
	6	23,192	4,057	27,249
	7	22,424	3,905	26,329
	8	21,541	3,779	25,320
	9	22,768	3,606	26,374

	10	23,241	3,756	26,997
	11	24,000	4,038	28,038
	12	24,000	4,002	28,002
1953	1	24,000	3,872	27,872
	2	24,000	4,007	28,007
	3	24,000	3,410	27,410
	4	24,000	2,887	26,887
	5	24,000	3,811	27,811
	6	24,000	3,379	27,379
	7	24,000	1,902	25,902

출처 :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ChapterIII, Figure 2c",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HD00303.

<표 4-18> 6·25전쟁 기간 미국 해병대 참전 지휘관 현황

구 분	계급	성 명	재임 기간
제1임시해병여단	준장	Edward A. Craig	1950. 7. 7.~50. 9.13.
제1해병사단	소장	Oliver P. Smith	1950. 7.25.~51. 2.23.
	준장	Lewis B. Pullar(대리)	1951. 2.24.~51. 3. 4.
	소장	Oliver P. Smith	1951. 3. 5.~51. 4.24.
	소장	Gerald C. Thomas	1951. 4.25.~52. 1.10.
	소장	John T. Seldon	1952. 1.11.~52. 8.28.
	소장	Edwin A. Pollock	1952. 8.29.~53. 6.15.
	소장	Randolph McC. Pate	1953. 6.16.~53. 7.27.
제1해병비행단	소장	Thomas J. Cushman	1950. 7. 7.~50. 9.13.
	소장	Field Harris	1950. 9.13.~51. 5.28.
	소장	Thomas J. Cushman	1951. 5.29.~51. 7.26.
	소장	Christian F. Schilt	1951. 7.27.~52. 4.11.
	소장	Clayton C. Jerome	1952. 4.12.~53. 1. 8.
	소장	Vernon E. Megee	1953. 1. 9.~53. 7.27.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761쪽.

5) 피해

<표 4-19> 미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계
사 망(a+b+c+d)		27,728	492	1,198	4,268	33,686
전 사(a)		19,754	364	198	3,321	23,637
부 상 중 사 망(b)		1,904	28	16	536	2,484
실 종 중 사 망(c)		3,317	97	960	385	4,759
포 로	사 망(d)	2,753	3	24	26	2,806
	귀 환	...	...	...	...	4,418
	거 부	...	...	...	...	21
	소 계	5,356	286	926	677	7,245
비 전투손실 (Non-battle Deaths)		...	...	...	...	2,830
부상자		...	...	...	...	92,134

출처 : “U.S. Military Korean War Statistics”, 미 국방부 6·25전쟁 기념 웹사이트 ([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

비고 : 가. 이 통계는 2000년 ‘6·25전쟁 50주년’에 미 국방부 발표 자료임.

나. 실종 관련 자료는 Defense Prisoners of War/Missing Personnel Office(DPMO)의 자료이며, 그 외의 자료는 Washington Headquarters Services, Directorate for Information Operations and Reports(WHS/DIOR)의 자료임.

다. 6·25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미군은 17,730명임.

라. 부상자 92,134명에는 2차례 이상 중복부상자 11,150명 포함.

마. ‘...’은 미 국방부에서 제시하지 않은 자료를 나타낸 것임.

## 2. 영 국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시기에 전투부대를 파견했으며, 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컸다. 1950년 6월 28일 유엔이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다음날 영국 정부는 홍콩에 있는 극동함대 소속의 일부 함정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은 1950년 6월 30일 항공모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3척, 프리깃함 4척을 파견해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서 한반도 동서 해상의 작전에 참가했다.<sup>47)</sup>

영국 지상군은 홍콩에 주둔하던 영국군 중 2개 대대<sup>48)</sup>와 지원부대로 구성된 제27여단이 제일 먼저 한국에 파견되었다. 본래 영국 정부는 영국 내의 제29여단을 파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전선상황의 심각성과 이동거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홍콩에 주둔 중이던 병력을 먼저 파병하였다. 제27여단은 8월 25일 홍콩을 출발해 8월 28일 부산에 도착한 후 9월 4일 낙동강전선에 투입되었다.

영국은 제27여단에 이어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와 제29여단을 파병하였다. 영국 해병대는 제41해병독립특공대에서 차출된 2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미 해병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sup>49)</sup> 그리고 제29여단도 11월 3일 선발대가, 11월 18일 본대가 부

47) James A. Field, Jr.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해군본부 역, 『미 해군 한국전 참전사』, 1985, 72쪽.

48) 2개 대대는 아질대대(1st Battalions of the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와 미들섹스 대대(1st Battalions of the Middlesex Regiment)였다.

49) 영국 해병대는 인천상륙작전에 앞서 실시된 군산지역 양동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동해안의 공산군 병참선 교란작전 등을 수행한 후 1951년 12월 23일 원산항에 정박 중인 북한군 선박을 기습 공격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철수하였다.

산항에 도착하였다. 영국군의 참전은 영연방 계열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참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제27여단과 제29여단으로 참전한 영국 지상군은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을 창설하고 영연방 부대들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영연방 제1사단의 창설은 영연방국가의 부대들이 군사작전상의 절차와 지휘체계, 탄약 등의 보급문제까지 모두 영국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 제8군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영연방 제1사단은 영국군 제28여단과<sup>50)</sup> 제29여단(벨기에·룩셈부르크군 배속), 캐나다군 제25여단이 주축이 되었으며,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군 포병과 영국·캐나다군의 전차대대 및 공병대대가 배속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위부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부대가 참여한 것은 전사상의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영국 지상군은 낙동강방어선 전투를 시작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반도의 남북을 오르내리며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들의 대표적인 전투는 낙동강방어선 전투, 성주 전투, 사리원 전투, 정주·박천 전투, 고양 전투, 설마리 전투, 가평 전투, 고왕산 전투, 후크고지 전투 등이었다. 특히 1951년 4월 22일~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제29여단 글로스터(Gloucester)연대 제1대대의 설마리 전투는 6·25전쟁사에서 고립방어 전투의 대표적인 전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중공군의 총공세를 3일간 저지함으로써 미 제1군단 주력부대의 철수와 서울 방어 준비에 크게 공헌하였다.

영국 해군은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50여 척의 함정을 정전협정

50) 제28여단은 1951년 4월 26일에 제27여단이 명칭을 바꾼 부대였다.

체결시까지 교대로 투입하여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 참전 이후 한반도 동·서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영국 해군은 인천상륙작전 직후에 서해지원전대(TG-95.1)로 승격되어 서해안지역의 전략도서 방어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의 주요 도시 및 시설에 대한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국 해군은 지상군에 대한 함포사격 지원과 함재기들을 동원한 북한군 해안포 진지에 대한 폭격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sup>51)</sup>

영국군은 연인원 56,000명이 참전했다. 그 중 1,078명이 전사하고 2,764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79명이 실종되고 978명이 포로가 되었다. 영국군 전사자 중 885명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묻혀 있다. 영국군은 해군이 1955년 3월에, 지상군이 1954~1957년 사이에 철수했다.

<그림 4-2> 영국군 전적비



-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12-1
- \* 건립연도 : 1957년 6월 29일

5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160~188쪽.

<상황도 4-2> 영국군 주요 전투



<표 4-20> 영국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해군
56,000	보병여단 : 2 해병특공대 : 1 병력 : 14,198명	함정 17척 (항모 1척 포함)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표 4-21> 영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재임기간	
영연방 제1사단	소장	A.J.H Cassels	1951. 7.~1952. 9.	· 1951. 7. 28.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창설
	소장	M.M. A·R·West	1952. 9.~1953. 10.	
	소장	H. Murray	1953. 10.~미상	
영 제27보병여단	준장	B.A. Coad	1950. 8.~1951. 3.	· 1951. 4. 26.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
	준장	B.A. Burke	1951. 3.~1951. 4.	
영연방 제28보병여단	준장	G. Taylor	1951. 4.~1951. 10.	· 1952. 6~1954. 12. 호주군 장군이 여단장을 역임
	준장	J.F.M. Macdonald	1951. 11.~1952. 6.	
영 제29보병여단	준장	T. Brodie	1950. 11.~1951. 10.	
	준장	A.H.G. Ricketts	1951. 10.~1952. 12.	
	준장	D.A.Kendrew	1952. 12.~1953. 11.	
	준장	R.N.H.C. Bray	1953. 11.~미상	
Middlesex연대 제1대대	중령	A.M. Man	1950. 8.~1951. 5.	· 제27여단 배속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연대 제1대대	중령	C.L. Neilson	1950. 8.~1951. 4.	· 제27여단 배속
Royal Northumberland Fusiliers연대 제1대대	중령	K.O.N. Foster	1950. 11.~1951. 4.	· 제29여단 배속
	중령	M.C. Speer	1951. 4.~미상	
Gloucester연대 제1대대	중령	J.P.Carne	1950. 11.~1951. 10.	· 제29여단 배속
		D.B.A. Grist	1951. 4.~미상	

Royal Ulster Rifles연대 제1대대	중령	R.J.H. Carson	1950. 11. ~1951. 10.	· 제29여단 배속
King's Own Scottish Borderers연대 제1대대	중령	J.F.M. Macdonald	1951. 4. ~1951. 10.	· 제28여단 배속
		D.H. Tadman	1951. 10. ~미상	
King's Shropshire Light Infantry연대 제1대대	중령	V.W. Barlow	1951. 5. ~1952. 9.	· 제28여단 배속
Royal Norfolk연대 제1대대	중령	H.R. Orlebar	1951. 10. ~1952. 11.	· 제28여단 배속
Leicester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G.E.P. Hutchins	1951. 10. ~1952. 6.	· 제28여단 배속
Welch연대 제1대대	중령	H.H. Deane	1951. 11. ~1952. 11.	· 제29여단 배속
Black Watch연대 제1대대	중령	D. McN.C. Rose	1952. 6. ~1953. 7.	· 제29여단 배속
Royal Fusiliers연대 제1대대	중령	G.R. Stevens	1952. 8. ~1953. 8.	
Durham Light Infantry 연대 제1대대	중령	P.J. Jeffreys	1952. 9. ~1953. 9.	· 제28여단 배속
King's Liverpool연대 제1대대	중령	A.J. Snodgrass	1952. 9. ~1953. 10.	· 제29여단 배속
Duke of Wellington연대 제1대대	중령	F.R.St.P. Bunbury	1952. 10. ~1953. 11.	· 제29여단 배속
Royal Scots연대 제1대대	중령	M.E. Melvill	1953. 7. ~미상	
Essex연대 제1대대	중령	P.S.C. Smith	1953. 8. ~미상	
Royal Warwick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R.C. Macdonald	1953. 9. ~미상	
King's Own Royal연대 제1대대	중령	W.P. Scolt	1953. 10. ~미상	
North Staffordshire연대 제1대대	중령	A.D. Bird	1953. 11. ~미상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Ⅱ, 1980, 544~545쪽.

비고 : 영연방 제28보병여단은 1952년 6월 이후부터 호주군 장군이 여단장을 역임함(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707쪽).

<표 4-22> 영국 해군 함대사령관 및 참전 함정

함대사령관			함정구분	함정명
계급	성명	재임기간		
소장	W.G. Andrewes	1950. 6. 30. ~ 1951. 4. 10.	항공모함 (5척)	Triumph, Ocean, Theseus, Glory, Unicorn
			순양함 (6척)	Belfast, Jamaica, Ceylon, Kenya, Newcastle, Birmingham
소장	A.K. Scott-Moncrieff	1951. 4. 10. ~ 1952. 9. 23.	구축함 (7척)	Cossack, Consort, Comus, Concord, Constance, Cockade, Charty
			프리깃함 (13척)	Mounts Bay, Morecamble, Black Swan, Whitesand Bay, Cardigan Bay, St. Brides Bay, Alarcrity, Modeste, Hart, Opossum, Sparrow, Crane, Amethyst
소장	E.G.A. Clifford	1952. 9. 23. ~ 1953. 7.	기타 (21척)	Maine(병원선), Tyne(보급선), Ladybird(본부선), 보조군무선(18척)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546쪽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 해군작전』, 2012, 527쪽.

<표 4-23> 영국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합계
1,078	2,674	179	978	4,909

출처 :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in the Korean War, vol. 2*, London : HMSO, 1995, 486쪽, 491쪽,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132~134쪽 재인용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포로는 송환포로이며, 포로 중 사망(확인 71명, 추정 10명)과 송환거부 포로(1명)는 제외.

나. 전사/사망, 부상, 포로는 *The British in the Korean War, vol. 2*의 자료이며, 실종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임.

### 3. 오스트레일리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8일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정부는 6월 30일 주미 호주대사를 통해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중인 2척의 함정과 일본에 주둔 중인 1개 비행대대의 파견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이날 호주 함정들이 미 극동해군과 합류하기 위해 홍콩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繩)로 향했으며, 7월 1일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77전투비행대대(No. 77 RAAF Squadron)가 미 제5공군에 배속되었다.

호주 정부는 해·공군의 참전에 이어 미국 정부와 유엔사무총장의 지상군 파병 요청에 따라 8월 초에 파병을 결정하고 9월에 1개 대대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였다. 본래 호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병들과 지원병들로 구성된 1개 여단 규모의 파병을 계획하고 모병에 착수하였지만 한반도의 전황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하던 제76보병대대 소속의 지원병들과 본국에서 보충한 일부 병력으로 제3대대<sup>52)</sup>를 편성하여 조기에 파견하였다.

호주군 제3대대는 1950년 9월 27일 한국에 도착해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어 유엔군의 북진단계부터 작전에 참가했다. 제3대대는 10월 10일 개성 북동쪽 화장산에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인 후 10월 17일에 있었던 사리원전투에서 패주하는 북한군 약 2,000명을 생포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이후 제3대대는 영유리 전투, 박

52) 제3대대의 공식 부대명칭은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The 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이며, 영문 약칭으로 ‘3RAR’을 사용했다.

천 전투, 가평 전투 등에서 뛰어난 전투능력을 과시했다.

호주군 제3대대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이 1951년 4월 26일 영연방 제28여단으로 개칭됨에 따라 제3대대도 영연방 제28여단의 예하부대가 되었다. 제3대대는 1951년 10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기도 연천의 마량산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다.

호주군 제3대대가 연천지역에서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1952년 4월 9일 왕립호주연대 제1대대가 한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호주 지상군은 2개 대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호주 출신의 지휘관이 영연방 제28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약 1년간 전투에 참가한 후 제3진으로 한국에 파병된 제2대대와 1953년 3월 21일 동두천에서 임무교대식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호주 해군은 1950년 7월 1일 함정 2척이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호주 해군은 개전 초기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인 소개 선박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군수물자 수송선단의 엄호임무를 맡다가 7월 7일 서해안으로 이동해 해안봉쇄작전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해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기간 동안 호주 해군은 2~3척의 함정을 교대로 파견하여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유격대의 상륙작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sup>53)</sup>

호주 공군은 제77비행대대가 유엔군 수송기와 폭격기 엄호비행, 38도선 이북에 대한 초계임무, 공산군측 항공기와의 공중전,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항공폭격 등을 수행하였다. 호주 공군에서는 제77비행대대 이외에 제36수송편대, 제91혼성비행단, 제391기

53)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194~215쪽.

지대대, 제491정비대대, 제30통신부대, 제30수송부대 등이 참전하였다.<sup>54)</sup>

호주군은 연인원 17,164명이 참전했다. 그 중 340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21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sup>55)</sup> 참전한 호주군은 공군이 1953년 10월에, 해군이 1954년 2월에, 육군이 1956년 3월에 각각 철수를 완료했다.

<그림 4-3> 오스트레일리아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691-1
- \* 건립연도 : 1963년 4월 24일(1983년 12월 27일 재건립)

54)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707~708쪽.

55) 전사 또는 사망자에는 포로로 억류중에 사망한 1명을 포함하였으며, 포로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상황도 4-3> 오스트레일리아군 주요 전투



<표 4-24> 오스트레일리아군 참전 현황

참전 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해군	공군
17,164	보병대대 : 2 병력 : 2,282명	항공모함 : 1척 구축함 : 2척 프리깃함 : 1척	전투비행대대 : 1 수송기편대 : 1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연인원 17,164명은 2012년 1월 25일 주한호주대사관에서 제공한 자료(육군 10,657명, 해군 4,507명, 공군 2,000명)에 근거함.

나. 현재(2014년 기준) 호주전쟁기념관 홈페이지(<http://www.awm.gov.au/atwar/korea/>)에는 참전 연인원을 17,000명 이상으로 기록하고 있음.

다.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25> 오스트레일리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재임기간	
영연방 제28보병여단	준장	T.J. Daly	1952. 6.~1953. 3.	· 1952. 6~1954. 12. 호주군에서 여단장을 맡음
	준장	J.G.N. Wilton	1953. 3.~1954. 4.	
	준장	I.T. Murdoch	1954. 4.~1954. 12.	
왕립호주연대 제3대대 (3RAR)	중령	C.H. Green	1950. 9.~1950. 11.	· 1950. 9. 27. 한국 도착 · 1954. 11. 9. 부산항 에서 철수
	중령	F.S. Walsh	1950. 11.	
	중령	I.B. Ferguson	1950. 11.~1951. 7.	
	중령	F.G. Hassett	1951. 7.~1952. 7.	
	중령	R.L. Hughers	1952. 7.~1953. 2.	
왕립호주연대 제1대대 (1RAR)	중령	I. Hutchison	1952. 3.~1952. 10.	· 1952. 4. 9. 한국 도착(1차) · 1953. 3. 21. 제2대 대와 임무교대 후 본국 귀환 · 1954. 3. 30. 한국 도착(2차) · 1956. 3. 24. 인천항 에서 철수
	중령	M. Austin	1952. 10.~1953. 9.	

왕립호주연대 제2대대 (2RAR)	중령	G.F. Larkin	1953. 3.~1954. 9. · 1954. 4. 2. 철수
--------------------------	----	-------------	------------------------------------

출처 :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590~591쪽, 707쪽.

비고 : 지휘관 재임기간은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지휘관으로서 전체 보임기간임.

<표 4-26>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항공모함 (1척)	Sydney	1951. 8.~1952. 6.	대령	D.H. Harries
		1953. 10.~1954. 6.	대령	G.C. Oldham
구축함 (4척)	Bataan	1950. 7.~1951. 5.	중령	B.M. Marks
		1952. 2.~1952. 8.	중령	S. Bracegirdle
	Warramunga	1950. 8.~1951. 8.	대령	O.H. Becher
		1952. 2.~1952. 7.	중령	J.M. Ramsay
	Anzac	1951. 8.~1951. 9.	중령	J. Plunkett-Cole
		1952. 9.~1953. 6.	대령	G.G.O. Gatacre
	Tobruk	1951. 8.~1952. 6.	중령	R.I. Peek
		1953. 6.~1954. 2.	중령	I.H. McDonald
프리깃함 (4척)	Shoalhaven	1950. 7.~1950. 9.	중령	I.H. McDonald
	Murchison	1951. 5.~1952. 2.	중령	A.N. Dollard
	Condamine	1952. 8.~1953. 4.	중령	R.C. Savage
	Culgoa	1953. 4.~1953. 6.	중령	D.A.H. Clarke

출처 :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590~591쪽, 708~709쪽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sup>10)</sup>, 1979, 157쪽.

<표 4-27>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제77전투비행대대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중령	L. T. Spence	1950. 7.~1950. 9.
소령	R. C. Cresswell	1950.11.~1951. 8.
중령	G. H. Steege	1951. 8.~1951.12.
소령	R. T. Susans	1951.12.~1952. 5.
중령	J. R. Kinninmont	1952. 7.~1953. 1.
중령	J. W. Hubble	1953. 1.~1953. 6.
중령	A. Hodges	1953. 6.~1953.11.

출처 :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707쪽.

<표 4-28> 오스트레일리아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포로	합계
340	1,216	28	1,584

출처 : Robert O'Neil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710쪽.

비고 : 가. 포로는 총 29명이었으며, 이중 28명은 귀환하고 1명은 억류 중 사망하였음. 억류 중 사망자 1명은 전사/사망에 포함하였음.

나. 호주전쟁기념관은 전사 340명, 부상 1,500명 이상, 포로 29명으로 기록하고 있음 (<http://www.awrn.gov.au/atwar/korea/>).

#### 4. 네덜란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네덜란드 정부는 이에 적극 동의하고 구축함 1척을 우선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는 당시 인도네시아에 정박하고 있던 구축함 에베르센(Evertsen)호를 한국 해역에 파견하였다. 에베르센호는 1950년 7월 16일 일본 사세보(佐世保) 해군기지를 거쳐 7월 19일 서해안에서 활동하고 있던 영국 해군에 배속되었다. 전통적 해운국인 네덜란드는 전쟁기간 동안에 6척의 함정을 교대로 파견했다.

해군 파병에 이어 네덜란드 정부는 1950년 8월 28일 지원병들로 구성된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래 네덜란드 정부는 지상군 병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더불어 그 병력마저도 상당수가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국민과 언론이 참전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도 이를 수용하여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9월 9일 지원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646명으로 본부중대, 2개 소총중대, 화기중대로 편성된 네덜란드 대대가 창설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본대의 파견에 앞서 연락단을 유엔군 사령부에 파견하여 작전·교육 및 군수·행정의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 대대의 편성은 미국식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장비와 보급도 미군측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네덜란드 대대는 1950년 10월 26일 수송선(Zuiderkruis호)을 타고 네덜란드를 출발하여 11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네덜란드 대대는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에서 장비 수령과 현지적응훈련을 거친 후 12월 11일 당시 청천강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고 부대정비

중이던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대가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할 때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총공세로 큰 타격을 입고 다시 남쪽으로 철수를 하던 시기였다.

중공군의 총공세로 유엔군이 또다시 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네덜란드 대대의 투혼이 빛을 발했다. 대대는 1951년 2월 12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2월 공세 때 중부전선에 큰 돌파구가 형성될 위기의 상황에서 대대장 오우덴(M.P.A. denOuden) 중령을 비롯해 17명의 장병이 전사하면서도 유일한 철수로인 황성교를 확보함으로써 유엔군이 수많은 인명과 장비를 보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리고 대대는 황성 전투의 처절함을 채 잊기도 전인 2월 14일,

<그림 4-4>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



\* 소재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20번지

\* 건립연도 : 1975년 9월 29일

원주 325고지 전투에 투입되어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중공군의 후방진출을 좌절시킴으로써 서울-원주 간의 병참선 확보는 물론 중공군의 2월 공세를 저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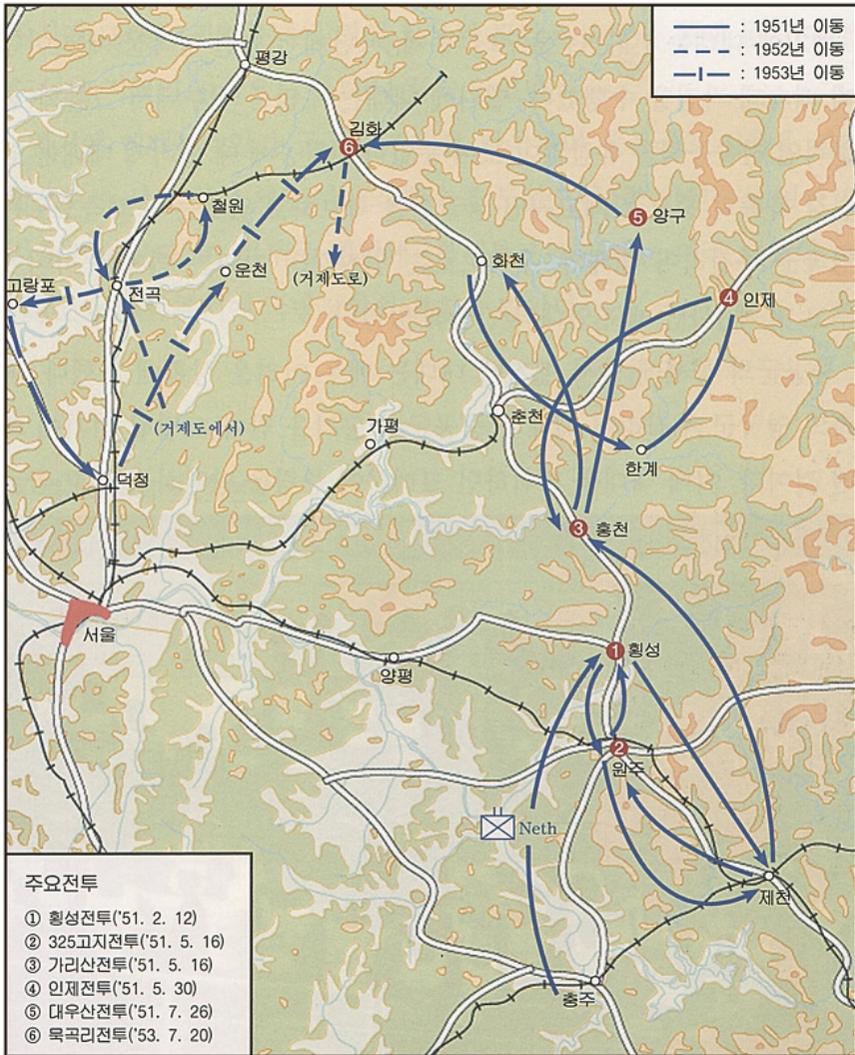
네덜란드 대대는 황성·원주 전투 이후 계속해서 유엔군의 재반격작전에 참가해 현재의 군사분계선까지 진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기간 중에 그동안 1개 중대가 부족했던 대대에 1951년 5월 25일 C중대가 파견됨으로써 네덜란드 대대는 편성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다. 네덜란드 대대가 참가한 주요 전투는 1951년 5월 가리산 전투와 인제 전투, 7월 대우산 전투, 1952년 2월 별고지 전투, 1953년 7월 묵곡리 전투 등이었다.<sup>56)</sup>

네덜란드군은 연인원 5,322명이 참전했다. 그중 120명이 전사하고 64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네덜란드군은 지상군이 1954년 10월 17일에, 해군이 1955년 1월 24일에 귀국했다.

---

5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17~234쪽.

<상황도 4-4> 네덜란드군 주요 전투



<표 4-29> 네덜란드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군
5,322	보병대대 : 1 병력 : 819명	구축함 또는 프리깃함 : 1척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30> 네덜란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네덜란드대대	중령	M.P.A. denOuden	1950. 11. ~ 1951. 2.	미 제2사단 배속
	중령	W.D.H. Eekhout	1951. 2. ~ 1951. 11.	
	중령	G.H. Christen	1951. 11. ~ 1952. 8.	
	중령	C.M. Schilperoord	1952. 8. ~ 1953. 8.	
	중령	C. Knulst	1953. 8. ~ 1954. 7.	
	중령	J. Raaymakers	1954. 7. ~ 1954. 12.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⑩, 1979, 840쪽.

<표 4-31> 네덜란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구축함 (3척)	Evertsen	1950. 7. ~ 1951. 4.	소령	D.J. van Doornink
	Van Galen	1951. 4. ~ 1952. 3.	중령	A.M. Valkenburg
	Piet Hein	1952. 3. ~ 1953. 1.	중령	A.H.W. von Freytag Drabble
프리깃함 (3척)	Van Nassau	1953. 1. ~ 1953. 11.	중령	N.W. Slujiter
	Dubois	1953. 11. ~ 1954. 9.	소령	T. Jellema
	Van Zijl	1954. 9. ~ 1955. 1.	중령	F.G.H. van Straaten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⑩, 1979, 841~842쪽.

<표 4-32> 네덜란드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0	645	-	3	768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5. 캐나다

미국의 인접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원이었던 캐나다는 미국과 유엔이 북한군의 남침을 응징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자 이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파병의사를 밝혔다. 로랭(Louis St. Laurent) 수상은 1950년 6월 30일 의회에서 “유엔 결의에 참여하는 것은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안보 활동의 일부를 캐나다가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캐나다 의회도 “집단안보의 효율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먼저 해군과 공군을 파견하였다. 캐나다 해군은 7월 4일 유럽 순방을 준비하고 있던 함대에서 구축함 3척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아다바스칸(Athabaskan), 캐유가(Cayuga), 수우(Sioux) 등 3척의 구축함은 진주만을 경유해 7월 30일 한국해역에 진입하여 미 극동해군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캐나다 해군은 7월 31일부터 미 병력수송선 엄호를 시작으로 해상초계, 해상봉쇄, 해안포격, 상륙작전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캐나다 공군은 공중전 경험이 있는 전투기 조종사 22명을 선발하여 미 공군에 파견하였다. 또한 제426항공수송대대의 수송기 6대를 7월 26일 미국 워싱턴의 맥코드(McChord)기지로 이동시켜 수송작전에 투입하였는데, 이 수송기들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다.

캐나다는 해·공군을 참전시킨데 이어 여단급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파견했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캐나다는 3개의 보병연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각 연대의 병력은 1개 대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1950년 8월 7일 지상군의 파병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한국에 파견할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캐나다 육군은 이들 지원병들을 근간으로 하여 11월 25일 제25여단을 창설하였다.

캐나다 지상군의 파병은 11월 25일 제2대대<sup>57)</sup>가 시애틀(Seattle)항을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한 때 캐나다 정부는 북진한 유엔군이 한·만국경선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시 참전을 재검토하였으나 다시 전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히 참전을 결정하였다. 제2대대는 1950년 12월 18일 부산에 도착한 후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1951년 5월 6일 캐나다 제25여단의 본대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캐나다 제25여단은 1951년 7월 28일 영연방 제1사단이 창설되면서 영연방 제28·제29여단과 더불어 사단의 주축 부대가 되었다.

캐나다군은 1952년 2월 중부전선에서 유엔군이 실시한 킬러작전(Operation Killer)에 참가해 흥천진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1951년 4월에는 가평 전투에서 한반도의 중앙부를 돌파하고자 총공세를 실시한 중공군을 맞아 백병전까지 벌이면서 가평을 사수하여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가평전투의 공로로 캐나다군은 미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았다. 가평전투 이후 캐나다군이 참가한 주요전투로는 자일리전투, 코멘도작전(Operation Commando), 고왕산전투, 나부리전투 등이 있다.<sup>58)</sup>

57) 제2대대의 공식 부대명칭은 '파트리카 공주 캐나다 경보병(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제2대대'이다.

58)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53~2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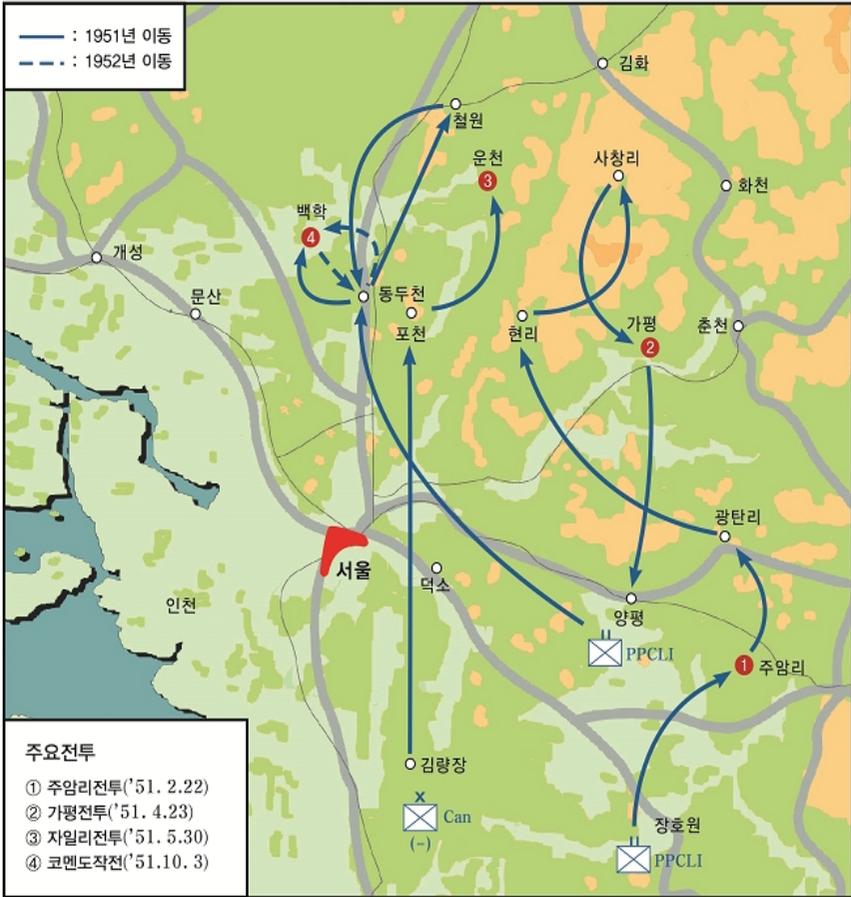
캐나다군은 연인원 26,791명이 참전했다. 그중 516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21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명이 실종되고 32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캐나다군은 공군이 1953년 7월에, 해군이 1955년 9월에, 지상군이 1957년 6월에 각각 귀국했다.

<그림 4-5> 캐나다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이곡리 207-4
- \* 건립연도 : 1975년 11월 7일(1983년 12월 30일 재건립)

<상황도 4-5> 캐나다군 주요 전투



<표 4-33> 캐나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군	공군
26,791	보병여단 : 1 병력 : 6,146명	구축함 : 3척	수송기대대 : 1

출처 :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 '6·25참전국헌 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연인원은 주한캐나다대사관 자료, 참전규모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임.  
나. 참전규모는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34> 캐나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 대 명		지 휘 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제25보병여단		준장	J.M Rockingham	1951. 5.~1952. 4.
		준장	M.P. Bogert	1952. 4.~1953. 4.
		준장	J.V. Allard	1953. 4.~1954. 6.
		준장	F.A. Clift	1954. 6.~1954. 12.
파트리카공주 캐나다 경보병연대 (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PPCLI)	제2대대	중령	J.R. Stone	1950. 12.~1951. 11.
	제1대대	중령	N.G. Wilson Smith	1951. 10.~1952. 11.
		중령	J.R. Cameron	
	제3대대	중령	G.C. Corbould	1952. 10.~1953. 10.
		중령	H.F. Wood	
		중령	C.E.C. MacNeill	
왕립 캐나다연대 (The Royal Canadian Regiment, RCR)	제2대대	중령	R.A. Keane	1951. 5.~1952. 4.
		중령	G.C. Corbould	
	제1대대	중령	P.R. Bingham	1952. 4.~1953. 3.
제3대대	중령	K.L. Campbell	1953. 3.~1954. 3.	
왕립 제22연대 (Royal 22e Regiment, R22eR)	제2대대	중령	J.A. Dextraze	1951. 5.~1952. 4.
		중령	J.A.A.G. Vallée	
	제1대대	중령	L.F. Trudeau	1952. 4.~1953. 4.
	제3대대	중령	H. Tellier	1953. 4.~1954. 4.
중령		J.L.G. Poulin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⑩, 1979, 345쪽.

<표 4-35> 캐나다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구축함 (8척)	Cayuga	1950. 7.~1951. 3.	대령	J.V. Brock
		1951. 7.~1952. 6.	중령	J. Plomer
		1954. 1.~1954. 11.	중령	W.P. Hayes
	Athabaskan	1950. 7.~1951. 5.	중령	R.P. Welland
		1951. 9.~1952. 6.	중령	D.G. King
		1954. 11.~1953. 11.	중령	J.C. Reed
	Sioux	1950. 7.~1951. 1.	중령	P.D. Taylor
		1951. 4.~1952. 2.	중령	P.D. Taylor
		1954. 12.~1955. 9.	중령	A.H. Rankin
	Crusader	1952. 6.~1953. 6.	중령	J.H.G. Bovey
		1953. 11.~1954. 8.	중령	W.H. Willson
	Haida	1952. 11.~1953. 6.	중령	Dunn Lantier
		1954. 2.~1954. 9.	대령	J.A. Charles
	Huron	1951. 3.~1951. 8.	중령	E.T.G Madgwick
		1953. 6.~1954. 2.	중령	R.C. Chenoweth
		1954. 10.~1954. 12.	중령	J.C. Pratt
	Iroquois	1952. 6.~1952. 11.	중령	W.M. Landymore
		1953. 6.~1954. 1.	대령	W.M. Landymore
		1954. 8.~1954. 12.	중령	M.F. Oliver
	Nootka	1951. 1.~1951. 7.	중령	A.B.F. Fraser-Harris
1952. 2.~1952. 11.		중령	R.M. Steele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⑩, 1979, 346쪽.

<표 4-36> 캐나다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516	1,212	1	32	1,761

출처 :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http://www.Canadainternational.gc.ca/>)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전사/사망은 주한캐나다대사관, 부상/실종/포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를 근거로 함.

## 6. 뉴질랜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안이 통과되자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정부는 참전 의사를 표명하고 먼저 해군 함정 2척을 파견했다. 뉴질랜드 해군의 프리깃함 2척은 1950년 7월 3일 뉴질랜드를 떠나 7월 30일 한국해역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유엔군의 해상작전에 참가하였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뉴질랜드 해군은 8척의 함정을 교대로 투입하면서 수송선단 엄호, 해상초계, 기뢰 제거작업 지원, 지상군 함포사격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군을 참전시킨데 이어 뉴질랜드는 지상군 부대로 포병부대를 파견했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뉴질랜드는 제한된 정규군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의 파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정부는 1950년 7월 14일 유엔사무총장이 지상군 파병을 요청하자 7월 말 1,000명 규모의 포병부대를 새로 편성하여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질랜드 육군은 한국에 파견할 부대를 'Korean Force(약칭 : Kayforce)'라 명명하고 1,000명을 모병한 후 포병교육을 실시하였다. 뉴질랜드 육군은 11월 26일 포병교육 수료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장교 38명과 사병 64명으로 편성된 제16포병연대를 창설하였다.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1950년 12월 31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연대는 부산과 밀양에서 장비수령과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후 장호원으로 이동하여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다. 당시 영국군 제27여단은 자체 포병부대가 없어 미군 포병부대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때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가 배속됨에 따라 영국군 제27여단은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받게 되었다.

뉴질랜드 제16포병연대는 1951년 4월 가평전투에서 영국군 미들섹스(Middlesex)연대 제1대대와 아길(Argyll)연대 제1대대, 호주연대 제3대대에 대한 화력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뉴질랜드 포병연대는 마량산 전투, 제임스타운선 방어작전 등에서 영연방 제28여단을 화력으로 지원하면서 큰 전공을 세웠다.<sup>59)</sup>

뉴질랜드군은 연인원 3,794명이 참전했다. 그중 23명이 전사하고 7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뉴질랜드군은 해군이 1954년 3월에, 지상군이 1955년 11월에 각각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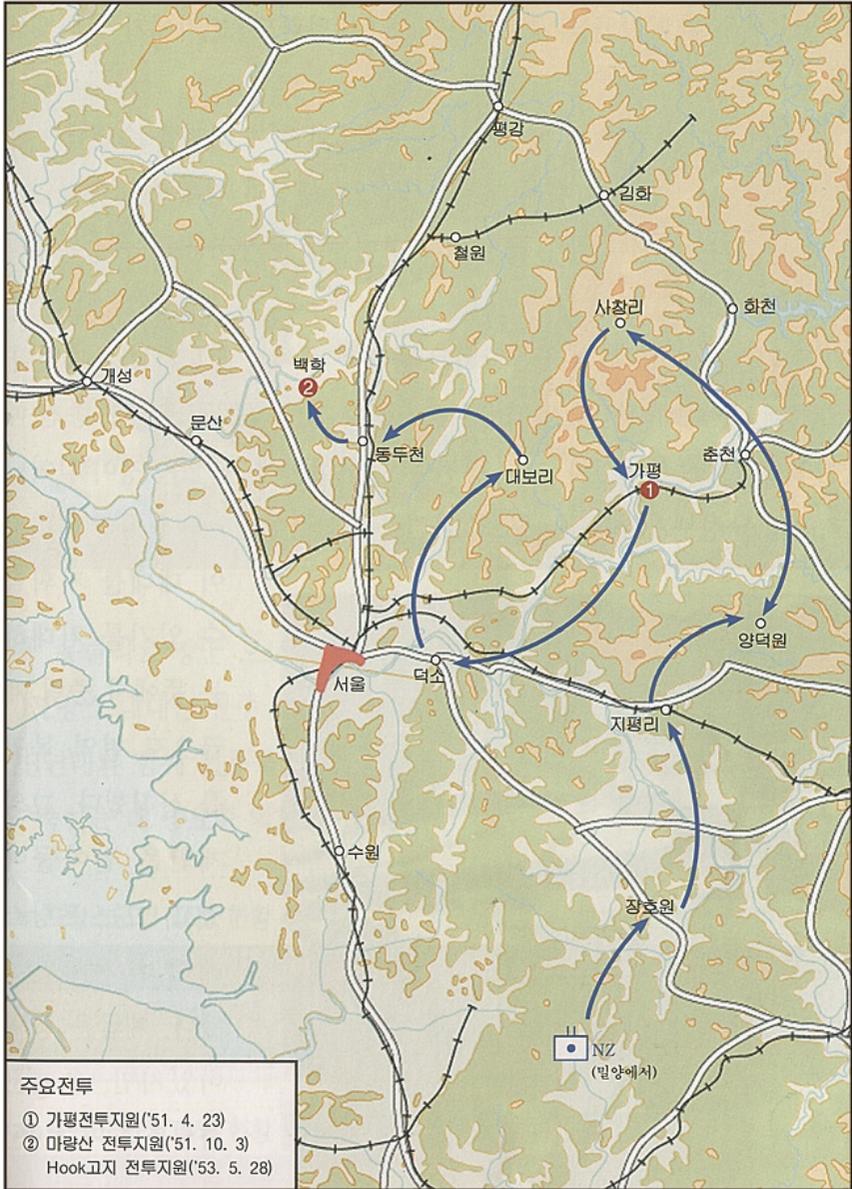
<그림 4-6> 뉴질랜드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산 691-1
- \* 건립연도 : 1988년 9월 23일(재건립)

59)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38~249쪽.

<상황도 4-6> 뉴질랜드군 주요 전투



<표 4-37> 뉴질랜드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지 상 군	해 군
3,794	포병대대 : 1 병력 : 1,389명	프리깃함 : 1척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나. 뉴질랜드 포병부대는 자체적으로 제16포병연대로 호칭하였으나 규모는 대대급이었음.

<표 4-38> 뉴질랜드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제16포병연대	중령	J.W. Moodie	1950. 12. ~ 1951. 9.	· 1951. 4. 26. 이전에는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 이후에는 제27여단이 부대명칭을 영연방 제28여단으로 바꾸면서 제28여단에 배속
	중령	R.J.H. Webb	1951. 9. ~ 1952. 3.	
	중령	McK. Paterson	1952. 3. ~ 1953. 2.	
	중령	J. Burns	1953. 2. ~ 1954. 3.	
	중령	J.A. Pountney	1954. 8. ~ 1954. 11.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66쪽.

<표 4-39> 뉴질랜드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프릿깃함 (6척)	Pukaki	1950. 7.~1950. 12.	소령	L.E. Herrick
	Tutira	1950. 7.~1951. 5.	소령	P.J.H. Hoare
	Rotoiti	1950. 10.~1951. 11.	중령	B.E. Turner
		1952. 1.~1953. 3	소령	G.O. Graham
	Hawea	1951. 3.~1952. 3.	소령	F.N.F. Johnston
		1952. 8.~1953. 8.	대령	G.R. Davis-Goff
	Taupo	1951. 8.~1952. 10.	소령	K.A. Cradock
	Kaniere	1953. 3.~1954. 3.	중령	L.G. Carr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Ⅱ, 1980, 66쪽.

<표 4-40> 뉴질랜드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3	79	1	-	103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실종자(1명)는 포로 송환시 귀환.

## 7. 프랑스

프랑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한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었지만,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한국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의 지원요청을 받아 1950년 7월 22일 극동함대에서 활동 중인 구축함 1척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엔 해군에 합류한 구축함 그랑디에르(La Grandiere)호는 1950년 12월에 한국해역을 떠날 때까지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해 다양한 해상작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 초기에 해군 함정 1척의 파견 외에 자국의 군사상황을 이유로 파병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던 프랑스 정부는 국내에서 참전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집단안보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프랑스 육군은 9월 18일 현역과 예비역에서 지원한 인원으로 보병 1개 대대와 지원부대를 편성하였다. 프랑스 보병대대는 해병대, 수도방위 보병부대, 공수부대, 외인부대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프랑스군의 지휘관은 몽끌라르(Ralph Monclar) 중령이 임명되었다. 몽끌라르 중령은 매우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프랑스군의 장군으로 종군했다. 종전 후 중장 계급으로 예편한 그는 프랑스 정부가 대대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자, 스스로 계급을 중령으로 낮추고 프랑스

군의 지휘관이 되었다.<sup>60)</sup>

프랑스대대는 과전에 필요한 특수훈련이 완료되자 10월 25일 수송선편으로 프랑스의 마르세유(Marseille)항을 출발하여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프랑스대대는 한국에 도착한 후 곧바로 대구의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해 부대정비와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천강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미 제2사단의 재편성이 시급함에 따라 프랑스대대는 12월 13일 수원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프랑스대대는 줄곧 미 제2사단 제23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는데, 특히 1951년 2월의 지평리 전투에서 용맹함과 뛰어난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지평리 전투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처음으로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에 물러서지 않고 싸움으로써 진지를 고수한 전투였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월 공세에 실패하였다.

이외에도 프랑스군은 원주 쌍터널 전투, 단장의 능선 전투, 티본(T-Bone)고지 전투, 화살머리고지 전투, 증가산 전투 등 격전의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작전임무를 완수하였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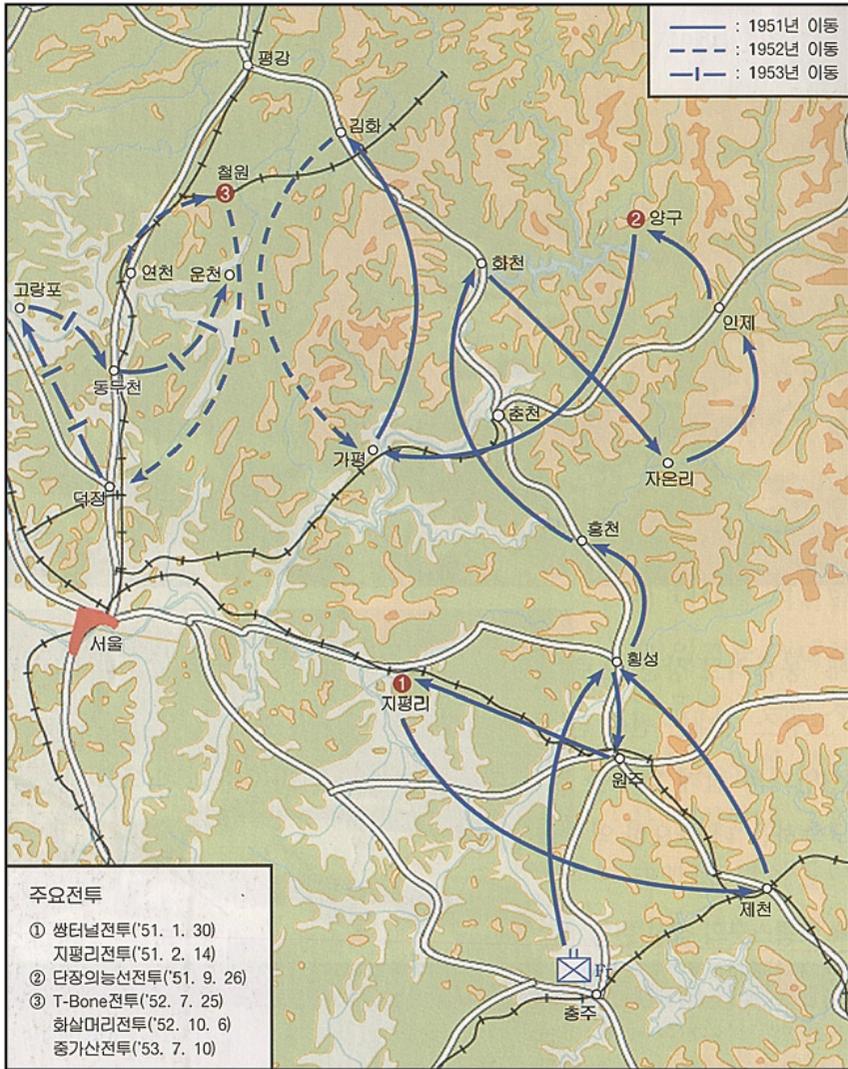
프랑스군은 연인원 3,421명이 참전했다. 그중 262명이 전사하고 1,00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 7명, 포로 12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프랑스군은 해군이 1950년 12월에, 지상군이 1953년 10월 23일에 각각 귀국했다.

---

60) 몽끌라르 중령은 프랑스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주로 정책 및 행정 분야를 관장하였으며, 실제 병력 지휘는 대대장 르미르(Lemire) 소령이 맡았다.

61)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78~291쪽.

<상황도 4-7> 프랑스군 주요 전투



<그림 4-7>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1-2
- \* 건립연도 : 1974년 10월 3일(1989년 3월 16일 재건립)

<표 4-41> 프랑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해군
3,421	보병대대 : 1 병력 : 1,185명	구축함 : 1척

출처 : '6·25참전국헌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42> 프랑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직위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프랑스대대	총지휘관	중령	Monclar	1950. 11.~1951. 11.	미 제2사단 배속
	대대장	중령	Lemire	1950. 11.~1951. 9.	
		중령	Beaufond	1951. 9.~1951. 11.	
		중령	Borreil	1951. 12.~1952. 11.	
		중령	Germiny	1952. 12.~1953. 10.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10, 1979, 557쪽.

<표 4-43> 프랑스 해군 참전 함정 및 기간

구분	함정명	참전기간
구축함	La Grandiere	1950. 7~1950. 12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92쪽.

<표 4-44> 프랑스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62	1,008	7	12	1,289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10, 1979, 557쪽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8. 필리핀

필리핀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4년 전에 독립하였으나 줄곧 공산반란군과 교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매우 불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유엔이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먼저 전차 17대에 이어 1개 연대전투단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필리핀의 어려운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제의는 실행여부가 의문시되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으로 파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리핀과 미국은 협의를 통해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의 파병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필리핀을 참전시킴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아시아에서 백인들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을 들어 필리핀군의 파병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공산반란군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 중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제10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0대대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여 1,367명으로 3개 소총중대, 수색중대, 그리고 경전차,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등 제병과를 망라한 지원중대를 편성함으로써 독립전투능력을 갖춘 부대로 재편성되었다. 필리핀정부는 이 부대를 ‘필리핀한국원정군(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 to Korea, PEFTOK)’으로 명명하였다.

필리핀 한국원정군은 1950년 9월 2일 시민들이 운집한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Rizal Memorial Stadium)에서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파병식을 가졌다. 그리고 9월 15일 미 수송선편으로 마닐라(Manila)항을 출발하여 4일 만인 9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필리핀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지상군 참전국이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필리핀군은 모든 장병이 미군 무기로 무장하고

현지적응과 전술훈련을 받았다. 10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마친 필리핀군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10월 1일 경상남도 진주 남쪽의 사천으로 이동해 비행장 경비임무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필리핀군은 낙동강방어선에서부터 38도선을 넘어 평양, 군우리까지 진격했고, 1·4후퇴시 서울방어와 1951년 3월 서울 재탈환 작전에 참가했다. 또 필리핀군은 서부전선의 문산에서부터 중부전선의 철의삼각지대, 동부전선의 편치불지역까지 한반도의 동·서 전선을 누비며,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캐나다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sup>62)</sup>

필리핀군은 연인원 7,420명이 참전했다. 그중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실종 16명, 포로 41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필리핀군은 1955년 5월 13일에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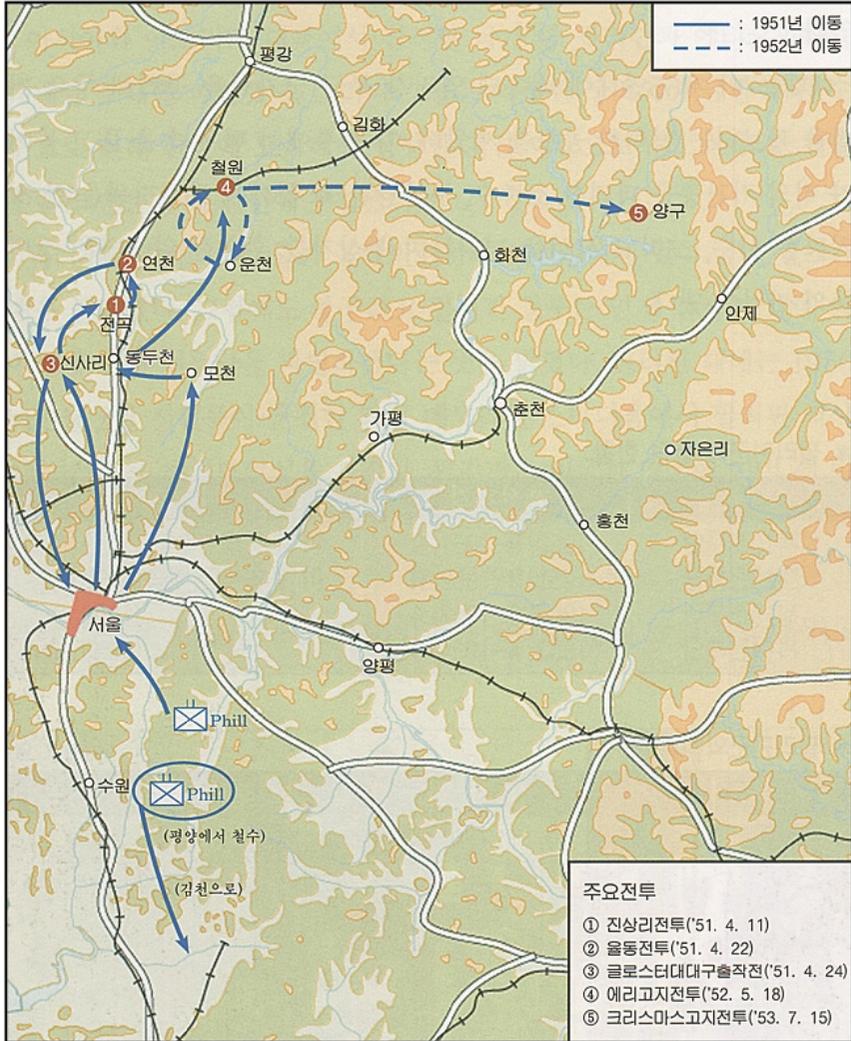
<그림 4-8>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산 97-6
- \* 건립연도 : 1974년 10월 2일

62)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295~309쪽.

<상황도 4-8> 필리핀군 주요 전투



<표 4-45> 필리핀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7,420	보병대대 전투단 : 1 병력 : 1,496명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46> 필리핀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제10대대전투단	중령	Mariano C. Azurin	1950. 9.~1950. 11.	·미 제25사단, 미 제187공수연대, 미 제3사단 배속
	중령	Dionisio S. Ojeda	1950. 12.~1951. 9.	
제20대대전투단	중령	Salvador Abcede	1951. 9.~1952. 6.	·미 제3사단, 미 제45사단 배속
제19대대전투단	중령	Ramon Z. Aquirre	1952. 6.~1953. 4.	·미 제45사단 배속
제14대대전투단	중령	Nicanor Jimenez	1953. 4.~1954. 4.	·미 제45사단 배속
제2대대전투단	중령	Antonio De Veyra	1954. 4.~1955. 5.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1], 1980, 160쪽.

<표 4-47> 필리핀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12	299	16	41	468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10쪽 ; 국가보훈처, 『자유의 수호신, 한국과 필리핀 : 필리핀군 6·25전쟁 참전사』, 2009, 15쪽.

## 9. 터 키

터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2월 22일 독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를 계기로 연합군 측에 가담함으로써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친서방정책을 채택한 국가였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터키는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주변의 공산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유엔이 대한군사원조를 결의하자 이에 적극 동의하여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터키 정부는 1950년 7월 18일 군 수뇌부를 포함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1개 여단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터키 국회도 7월 25일 파병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터키 육군은 보병 제28사단 제241연대와 제2기갑여단 제2포병대대의 장병들을 주축으로 공병, 수송, 의무, 병기, 통신부대 등을 제8군단 예하 제4군관구에서 차출해 지원부대를 편성함으로써 독립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여단편성을 완료했다.

터키 제1여단으로 명명된 터키군은 3개 제대로 나뉘어 1950년 9월 25일부터 미 수송선편으로 이스켄데룬(Iskendrun)항을 출발해 제1진이 10월 1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터키 제1여단은 곧바로 대구에 위치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한 후 미 제8군의 예비인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대전-대구 간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부여받았다. 터키 제1여단은 경계임무를 수행하면서 생소한 미제 무기의 사용법과 실탄사격 등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터키군은 1950년 11월 12일 장단지역으로 이동하여 잠시 동안 경계임무를 수행한 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군우리 전투와 평양철수작전에 참가하였다. 터키 제1여단은 와원리·신립리·봉오리·군우리·평양 전투 등 일련의 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전술 공격을 맞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처절한 혈투를 벌였다. 특히 군우리 전투에서는 계곡을 통과하는 부대를 양쪽 고지에서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중공군의 ‘태형(笞刑)’ 공격에 말려들어 순식간에 지휘체계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터키 장병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착검한 채 적진으로 돌격해 부대의 강한 군기와 응집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7일간의 악몽 같은 군우리 부근 전투에서 터키 제1여단은 총 병력의 15%와 105mm곡사포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70%를 잃었다.

군우리 전투를 교훈삼아 터키군은 이후 전투 때마다 강한 투지와 부대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터키군은 1951년 1월 김량장과 151고지 전투에서 군우리의 불명예를 만회하고자 자신들이 믿는 ‘알라’를 외치면서 돌격해 백병전으로 목표지점을 탈환하고 중공군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터키 장병들은 총검에 의한 백병전으로 중공군을 무찌름으로써 ‘용감한 터키’군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3일간의 전투에서 확인된 중공군의 시체만도 474명이었는데, 전사자의 대부분이 개머리판에 의해 턱이 깨지고, 총검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백병전 하면 터키군을 연상시키게 되었으며, 참전국들은 ‘인류 역사상 길이 빛날 터키군의 전공’이라고 극찬하였다.

터키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 제1·제2·제3여단이 약 1년 단위로

교대하면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군우리 전투와 김량장리 전투 이외에 터키군이 참여한 주요 전투로는 수리산 전투, 장승천 전투, 사기막 전투, 네바다전초전 등이 있다.<sup>63)</sup>

터키군은 연인원 21,212명이 참전했다. 그중 966명(전사 692명, 부상사 34명, 비전투 사망자 74명, 실종 166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15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44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터키군은 1954년 여름에 제16중대만 남기고 본대가 귀국하였다. 그리고 1966년 7월 6일 의장대 1개 분대를 남기고 제16중대가 철수했으며, 그 후 1971년 6월 27일 의장대 11명이 마지막으로 철수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임무를 종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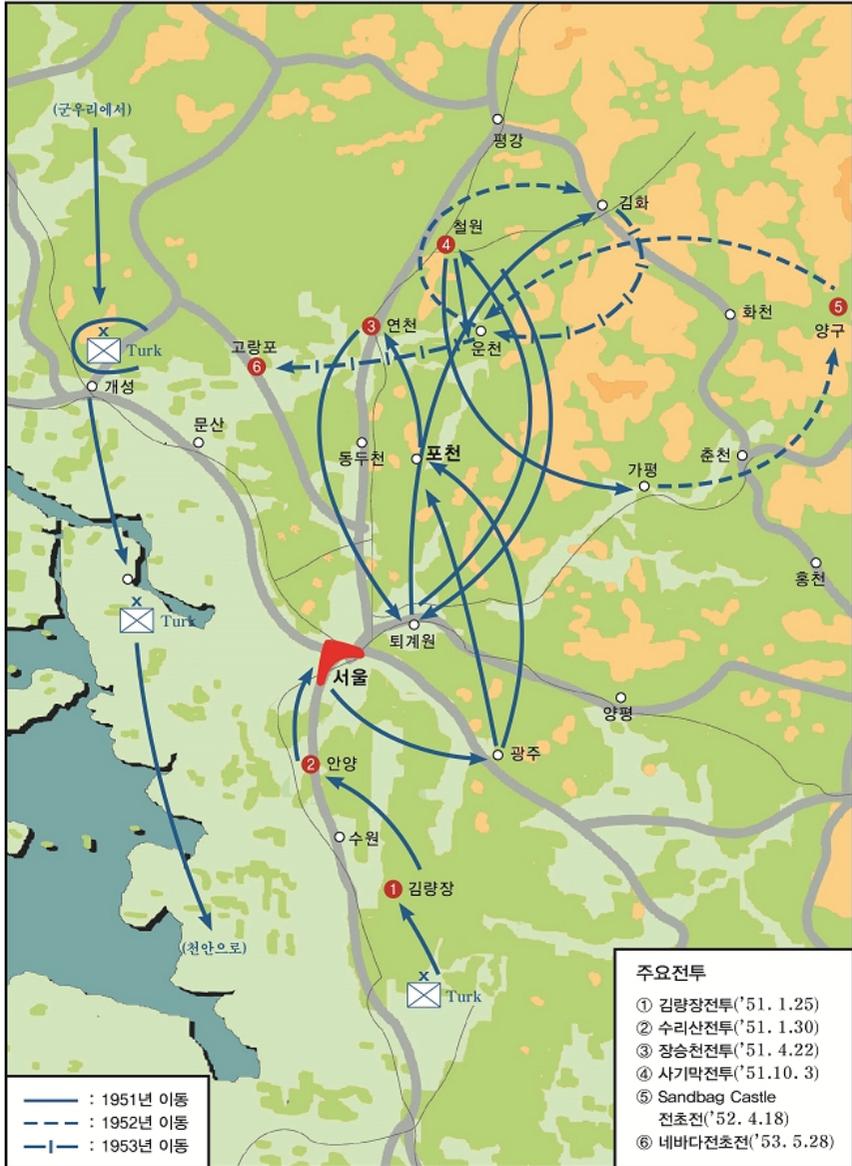
<그림 4-9> 터키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산 16
- \* 건립연도 : 1974년 9월 6일

63) 국가보훈처,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2007, 64~97쪽.

<상황도 4-9> 터키군 주요 전투



<표 4-48> 터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지 상 군
21,212	보병여단 : 1 병력 : 5,455명

출처 : 터키 국방부 제공자료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연인원은 터키 국방부 제공 자료이며, 기간은 터키군 참전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 도착한 인원으로 민간인 4명 포함.

나. 1953년 7월 27일 이후 한국에서 복무한 인원은 35,324명(지상군 35,310명, 민간인 14명).

다.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49> 터키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직위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제1여단	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1950. 9~1951. 12	
	제1대대장	소령	Imadetin Kuranel	1950. 9~1951. 4	
	제2대대장	소령	Mithat Uluunlu	1950. 9~1951. 5	· 1951. 5. 17. 전사
	제3대대장	소령	Lutfu Bilgin	1950. 9~1951. 5	· 1951. 5. 23. 전사
	포병대대장	소령	Tahsin Kurtay	1950. 9~1951. 8	
	여단장	준장	Namc Arguc	1951. 8~1952. 9	
	제1대대장	소령	Tahir Alaybeyii	1951. 6~1952. 8	
	제2대대장	소령	Enver Saltik(Atak)	1951. 8~1952. 9	

제2여단	제3대대장	소령	Yekta Koran	1951. 8~1952. 9	
	포병대대장	소령	Kerim Kirtes	1951. 6~1952. 8	
제3여단	여단장	준장	Sirri Acar	1952. 7~1953. 9	
	제1대대장	소령	Fahrettin Ulukan	1952. 7~1953. 9	
	제2대대장	소령	Nizazi Bengisu	1952. 7~1953. 9	
	제3대대장	소령	Turgut Vural	1952. 7~1953. 9	
	포병대대장	소령	Faruk Guventurk	1952. 7~1953. 9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II], 1980, 387~388쪽.

<표 4-50> 터키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966	1,155	-	244	2,365

출처 : 터키 국방부 제공자료.

비고 : 가. 인명피해는 터키군 참전 이후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기간 동안의 피해임.

나. 전사/사망은 전사자 692명, 부상사 34명, 비전투 사망자 74명, 실종 166명을 모두 합친 숫자임.

다. 포로는 포로교환시 모두 복귀함.

## 10. 태 국

태국은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유엔의 한국지원에 호응해 지원의사를 표명했다. 태국은 6·25전쟁 발발 5일 후인 1950년 6월 30일 자국의 주산물인 쌀 4만 톤을 제공하겠다고 유엔에 통보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각서를 보냈다.

태국 정부는 1950년 7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1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파병규모를 1개 대대로 축소 조정하였다. 미국은 태국군이 장비와 훈련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시아지역에서의 참전국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고려하여 파견에 동의하였다.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한 태국 정부는 황태자(Pisit Dispongsa-Diskul 소장)를 태국 원정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등 참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태국 정부는 지상군에 이어 해군부대의 파견도 결정했다. 1950년 10월 22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구성된 태국함대는 지상군 1개 대대 병력과 적십자 의무요원들을 싣고 방콕(Bangkok)을 출항하여 1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병력 수송 후 태국함대는 미 극동해군사령부의 제95기동부대에 배속되어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을 기지로 삼아 해상작전을 수행하였다.

지상군과 해군을 파견한 데 이어 태국 정부는 1951년 6월 18일 1개 수송기편대(C-47 쌍발수송기 3대)와 항공의무대(외과의사 2명 및 간호사 3명)를 일본 다치가와(立川)에 위치한 미 공군 제315비행사단 소속의 제374비행단에 파견하여 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태국은 육·해·공군 모두를 파견하여 참전하게 된 국가가 되었다.

태국 지상군은 1950년 겨울 평양으로 진출한 이래 개성지구 방어 및 철수 엄호작전, 상주-문경지구 주보급로 경계 및 대비정규전, 제임스타운(Jamestown)선 진출과 방어전, 철의 삼각지대의 포크찹(Porkchop)고지 전투, 김화 351고지 전투 등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특히 포크찹(Porkchop)고지 전투에서 태국군은 3차에 걸친 중공군의 공격을 백병전으로 격퇴함으로써 ‘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s)’라는 애칭을 얻기도 하였다.<sup>64)</sup>

태국군은 연인원 6,326명이 참전했다. 그중 129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태국군은 1954년에 1개 중대만을 남기고 본대가 귀국했으며, 포천

에 주둔하던 1개 중대는 1972년 6월에 철수했다. 해군은 1955년 1월에 한반도 해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공군은 1964년 11월에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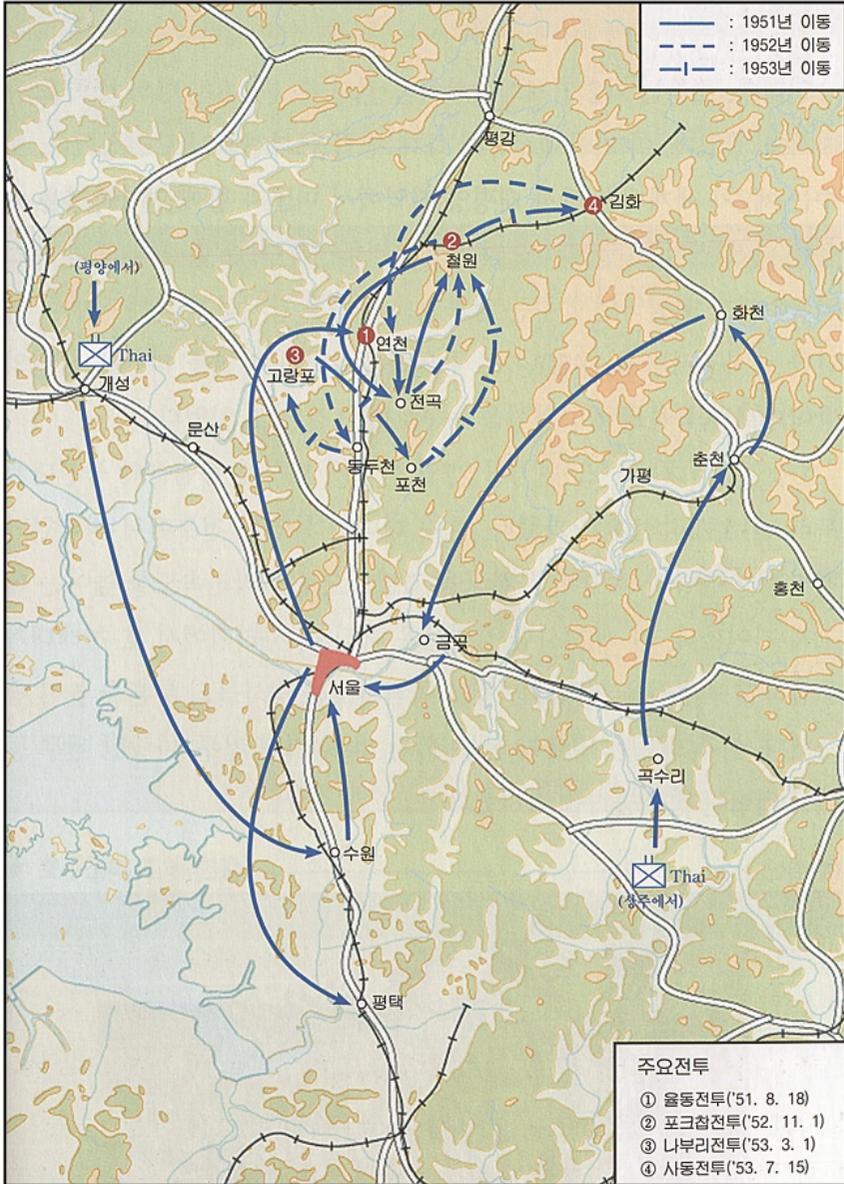
<그림 4-10> 태국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산 24
- \* 건립연도 : 1974년 10월 1일

64)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태국 : 태국군 6·25전쟁 참전사』, 188~189쪽.

<상황도 4-10> 태국군 주요 전투



<표 4-51> 태국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지상군	해군	공군
6,326	보병대대 : 1 병력 : 2,274	프리깃함 : 3척 수송선 : 1척	수송기편대: 1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528쪽.  
비고 : 참전규모는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52> 태국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 휘 관		
	계급	성 명	참전기간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장 겸 지상군 대표	소장	Pisit Dispongsa-Diskul	미상
	대령	Chan Angsuchote	
	대령	Vitton Hansaves	
	대령	Pralong Virapriya	
	대령	Prayauth Charumani	
태국군대대	중령	Kriengkrai Attanantna	1950. 10. ~ 1951. 10.
	중령	Prayuth Nuchakanjonkul	1951. 7. ~ 1952. 8.
	중령	Oang Potikanita	1952. 5. ~ 1953. 2.
	소령	Boon RangKaratana	1952. 12. ~ 1953. 9.
	중령	Parti Yotesakrai	1953. 5. ~ 1954. 6.
	중령	Amunay Somanas	1954. 5. ~ 1955. 3.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283쪽.  
비고 : 지휘관 참전기간은 태국 출국-귀국까지의 시기임.

<표 4-53> 태국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구분	함정명	작전기간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프리깃함 (4척)	Prasae	1950. 11.~1951. 1.	중령	Uthaichalermarp Uthichai	50년 1차
	Bangpakong	1950. 11.~1952. 2.	중령	Oab Sundrasima	50년 1차
			중령	Juab Hongsakul	51년 2차
	Prasae II	1951. 12.~1955. 1.	중령	Amorn Sirikaya	51년 3차
			중령	Chedchai Tomya	52년 4차
			중령	Ketch Santhiwechakul	53년 5차
			중령	Adul Thulyanonta	53년 6차
	Tachin	1951. 12.~1955. 1.	중령	Charoon Osataroop	51년 3차
			중령	Suvuchien Fungladda	52년 4차
			중령	Snorng Nisalakсна	53년 5차
			중령	Sa-Ngart Chalor-Yoo	53년 6차
	수송선 (1척)	Sichang	1950. 11.~1951. 7.	중령	Prasert Chun-Ngarm
대위				Vichien Sangkorntnakich	51년 2차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285쪽.

<표 4-54> 태국 공군 참전 기간 및 지휘관

기종	참전기간	지 휘 관	
		계급	성 명
C-47수송기 (3대)	1951. 8. 18 ~ 1964. 11. 6	소령	Pramoth Puthipanta
		소령	Kaiwal Thawornthan
		소령	Surayuth Rungswang
		소령	Jua Eamkanuch
		중령	Sart Walnamra
		중령	Singh Sirikupth
		소령	Jaras Suraswadi
		소령	Chalerm Pungkilpa
		소령	Chumpol Radungkich
		소령	Narong Karthiyachpte
		소령	Pridoo Israngkul-Nr-Ayuthya
		소령	Chitlon Suthat-Na-Ayuthya
		소령	Charoo Sa-Nguanpokai
		소령	Udom Ritthibutr
		대위	Wattana Phongsawasdi
소령	Somboon Rahong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286쪽.

<표 4-55> 태국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9	1,139	5	-	1,273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11.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의 대한군사원조 결의안이 통과되자 1950년 7월 1일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지원방식에 관해 협의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제2전투비행대대(No. 2 SAAF Squadron) 파견을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동부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및 중동지구 전선에서 용맹을 떨쳐 ‘나는 치타(Flying Cheetah)’라는 별명이 붙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제2전투비행대대는 1950년 9월 26일 더반(Durban)항을 출발해 긴 항해 끝에 11월 5일 요코하마(横浜)에 도착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엔 참전국 중 유일하게 공군부대만 파견한 국가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2전투비행대대는 미군으로부터 F-51전투기 16대를 넘겨받은 후 미 제18전투비행단에 배

<그림 4-11>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산 1
- \* 건립연도 : 1975년 9월 29일

속되어 일본과 한국의 기지에서 근접항공지원과 차단폭격작전에 참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전투비행대대는 실질적으로 전투임무를 개시한 1950년 11월 12일부터 정전협정이 조인되던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2년 8개월 8일 동안을 부산 수영, 평양, 수원, 진해, 여의도, 황성 및 오산 비행장 등 최전방기지에 배치되어 주요 작전을 수행하였다.

제2전투비행대대는 연인원 총 826명이 참전하여 연 95대의 F-51기와 20대의 F-86제트기로 총 12,405회라는 놀라운 출격기록을 수립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또한 이들이 지불한 대가도 결코 적지 않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6명이 전사하고 8명이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F-51기 74대와 F-86제트기 4대를 잃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제2전투비행대대는 1953년 10월 29일 본국으로 귀국했다.<sup>65)</sup>

---

65)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48~358쪽.

<상황도 4-11>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주요 전투



<표 4-56> 남아프리카공화국군의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공 군
826	전투비행대대 : 1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57>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참전기간	지휘관		비 고
		계급	성 명	
제2전투 비행대대	1950. 8.~1951. 3.	중령	S.V.B. Theron	미 제18전투비행단 배속(1950.11)
	1951. 3.~1951. 7.	중령	R.F. Armstrong	
	1951. 7.~1951. 9.	중령	J.P.D. Blaauw	
	1951. 9.~1952. 1.	중령	B.A.A. Wigget	
	1952. 1.~1952. 6.	중령	R. Clifton	
	1952. 6.~1952. 9.	중령	H.J.P. Berger	
	1952. 9.~1953. 4.	중령	R.A. Gerneke	
	1953. 5.~1953. 9.	중령	J.S.R. Wells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편』Ⅱ, 1980, 220쪽.

<표 4-58> 남아프리카공화국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포로	계
36	-	8	44

출처 : 공군본부, 『6·25전쟁의 기억 : 6·25전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2010, 54쪽.

비고 : 전사/사망에는 비전투손실 2명 포함.

## 12. 그리스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이다. 때문에 그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소련과 그 위성국이 지원하는 국내 공산당과의 내전을 치러야 했다.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리스 정부는 내란을 수습한 지 1년도 채 못 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 20일 6대의 C-47수송기, 3,800명으로 증강된 1개 보병여단, 그리고 이들을 통합 지휘 할 그리스군 사령부 등을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스가 파병을 준비하는 동안에 전황이 급격히 호전되면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스군의 파견 규모가 대대 규모로 축소되었다.

그리스 정부는 내전에 참전하여 전투경험이 풍부한 장병들을 엄선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스 지상군은 1950년 11월 16일 미 수송선편으로 그리스를 출발해 2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9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그리스대대는 부산에 도착한 후 곧바로 김해 공군기지 부근에 설치된 유엔군수용소로 이동해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미 제1기병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 1월초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대대는 이천 부근 381고지 방어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공산군의 주요 거점인 임진강 부근의 고양대·대노리고지 등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펼쳤다. 그리스 지상군이 참여한 주요 전투는 충주지역 잔적 소탕작전, 이천 381고지 전투, 홍천-춘천-화천 진격전, 연천 313고지 전투, 임진강 부근의 대노리고지 공방전, 철원지구 420고지 전투, 북정령 전투 등이 있다.

아울러 그리스 정부는 C-47수송기 7대와 병력 67명을 차출하여 제13수송편대를 창설하였다. 제13수송편대는 1950년 12월 1일 일본 이타즈케(板付) 기지에 도착한 후 미 제5공군에 배속되었다. 제13

수송편대는 일본에 도착한 이후 장진호 전투를 지원했으며, 미 해병사단을 직접 지원해 전·사상자를 후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편대는 1955년 3월말까지 연포, 수영, 대구, 김포 및 여의도기지와 일본의 이타츠키, 다치가와(立川), 아시야(芦屋) 및 코마키(小牧) 기지를 이용하면서 병력과 장비 및 물자를 수송하였으며, 총 3,983회를 출격하여 13,777시간의 비행실적을 보였다.<sup>66)</sup>

그리스군은 연인원 4,992명이 참전했다. 그중 19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54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그리스군의 본대는 1955년 12월 11일 장교 1명과 사병 9명으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과 1개 중대만을 남기고 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연락장교단은 1956년 1월 22일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포천에 주둔하던 1개 중대는 1972년 6월에 철수했다. 해군은 1955년 1월에 한반도 해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고 공군은 1955년 3월말에 지원임무를 종료하고 철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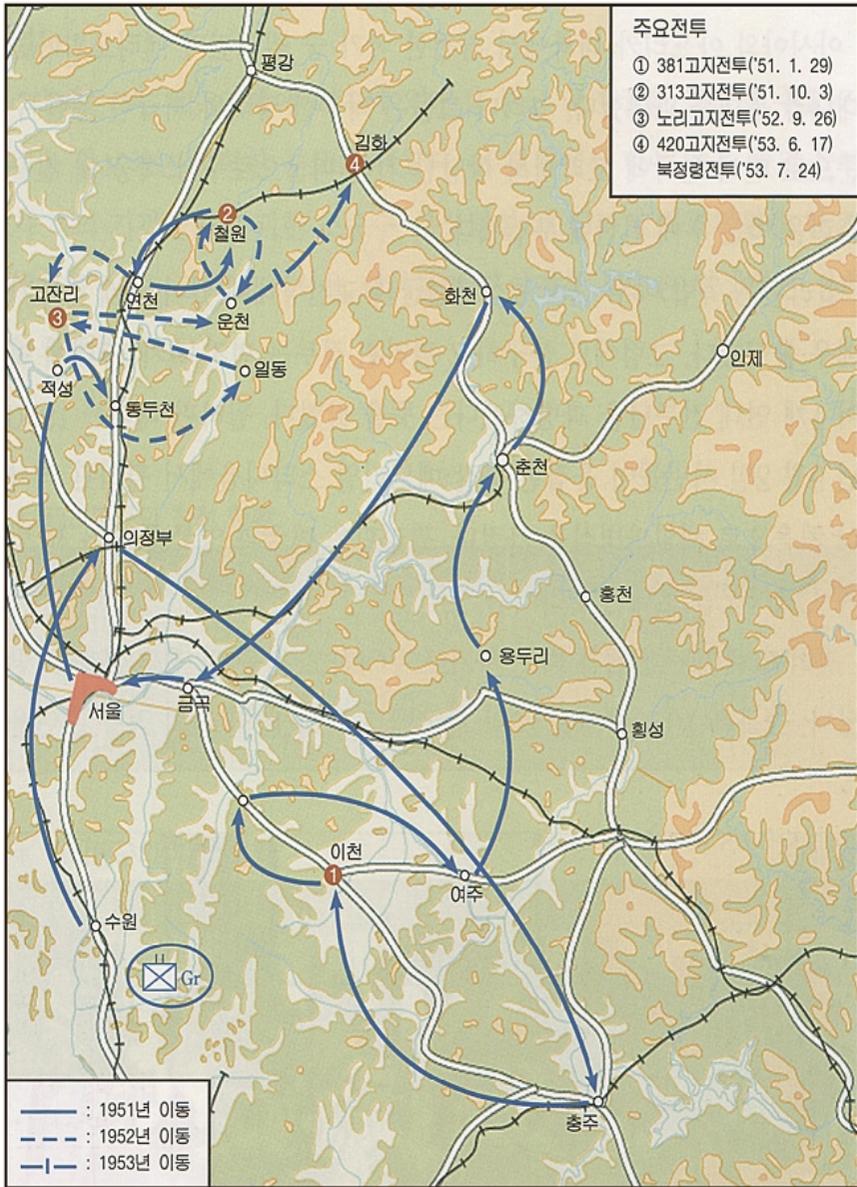
<그림 4-12>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687
- \* 건립연도 : 1974년 10월 3일

66)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61~376쪽 ; 국가보훈처, 『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2006, 89~91쪽.

<상황도 4-12> 그리스군 주요 전투



<표 4-59> 그리스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공군
4,992	보병대대 : 1 병력 : 1,263명	수송기 편대 : 1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연인원은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임. 그리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지상군을 연대규모로 확대해 한국에 파견함. 1955년 12월 11일 지상군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의 연인원은 공군 병력(397명)을 합쳐 10,581명임.  
 나.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60> 그리스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유엔군사령부 연락장교단	소장	Athanasios Daskarolis	1951. 1.~1951. 10.
	소장	Nenelaos Pandelidis	1951. 10.~1952. 5.
	소장	Nicolaos Tassonis	1952. 5.~1952. 11.
	소장	Kon/Nos Kostopoulos	1952. 11.~1953. 6.
	준장	Georgios Vlassis	1953. 6.~1953. 12.
	소장	Alexandros Christeas	1953. 12.~1954. 10.
	대령	Ioannis Gennimatas	1954. 11.~1955. 5.
	대령	Panagiotis Christopoulos	1955. 5.~1954. 1.
그리스대대	중령	Arboutzis Dionysios	1950. 11.~1951. 8.
	중령	Apiliopoulos Kyriakos	1951. 8.~1952. 4.
	중령	Tamvakas Nicolas	1952. 4.~1953. 1.
	중령	Georgios Koumanakos	1953. 1.~1953. 7.
	중령	Prokos Elias	1953. 7.~1954. 1.
그리스연대	대령	Ioannis Gennimatas	1954. 1.~1954. 10.
	중령	Christopoulos Panagiotis	1954. 10.~1955. 5.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⑩, 1979, 705쪽.

<표 4-61> 그리스 공군 제13수송편대 지휘관

계급	성명	참전기간
소령	Chatzakis Ioannis	1950. 11.~1951. 4.
소령	Demiris Panagiotis	1951. 4.~1951. 10.
소령	Plionis Georgios	1951. 10.~1952. 8.
중령	Panayotis Fragoyannis	1952. 8.~1952. 12.
중령	Kostakos Jaomes	1953. 1.~1953. 10.
소령	Voutsas Jaomes	1953. 10.~1954. 12.
소령	Boujouvalas Theodros	1955. 1.~1955. 5.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⑩, 1979, 706쪽.

<표 4-62> 그리스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92	543	-	3	738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13. 벨기에

벨기에는 1949년에 영세중립국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나라로서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미국의 군사력에 자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1950년 7월 14일 유엔의 지원요청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파병을 권고 받았으나 즉각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상비군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정부는 지원병 모집을 통해 대대 규모의 병력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벨기에 정부가 8월 25일 파병을 공표하고 지원병 모집을 개시하자 현역, 예비역, 레지스탕스 출신 등 여러 계층에서 2,000여 명이 지원하였다. 벨기에 정부는 엄격한 파병 기준으로 700여 명을 선발해 제1벨기에대대(The 1st Belgium Battalion)를 창설하였다. 벨기에대대는 대대본부, A중대, B중대, C중대, 화기중대로 구성되었다. A중대에는 48명으로 편성된 룩셈부르크 소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벨기에대대는 1950년 12월 18일 영국 수송선편으로 벨기에를 출발하여 1951년 1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벨기에대대는 현지 적응훈련과 병참선 경계임무를 병행하면서 6주간을 보낸 후 3월 6일 미 제3사단에 배속되어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벨기에대대는 참전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전문적인 전술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1951년 중공군의 4월 공세 때 벨기에대대는 임진강 북쪽의 감제고지인 금굴산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2일간 막아내어 영국군이 철수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벨기에대대는 좌측으로 영국군 푸질리어대대(Royal Fusiliers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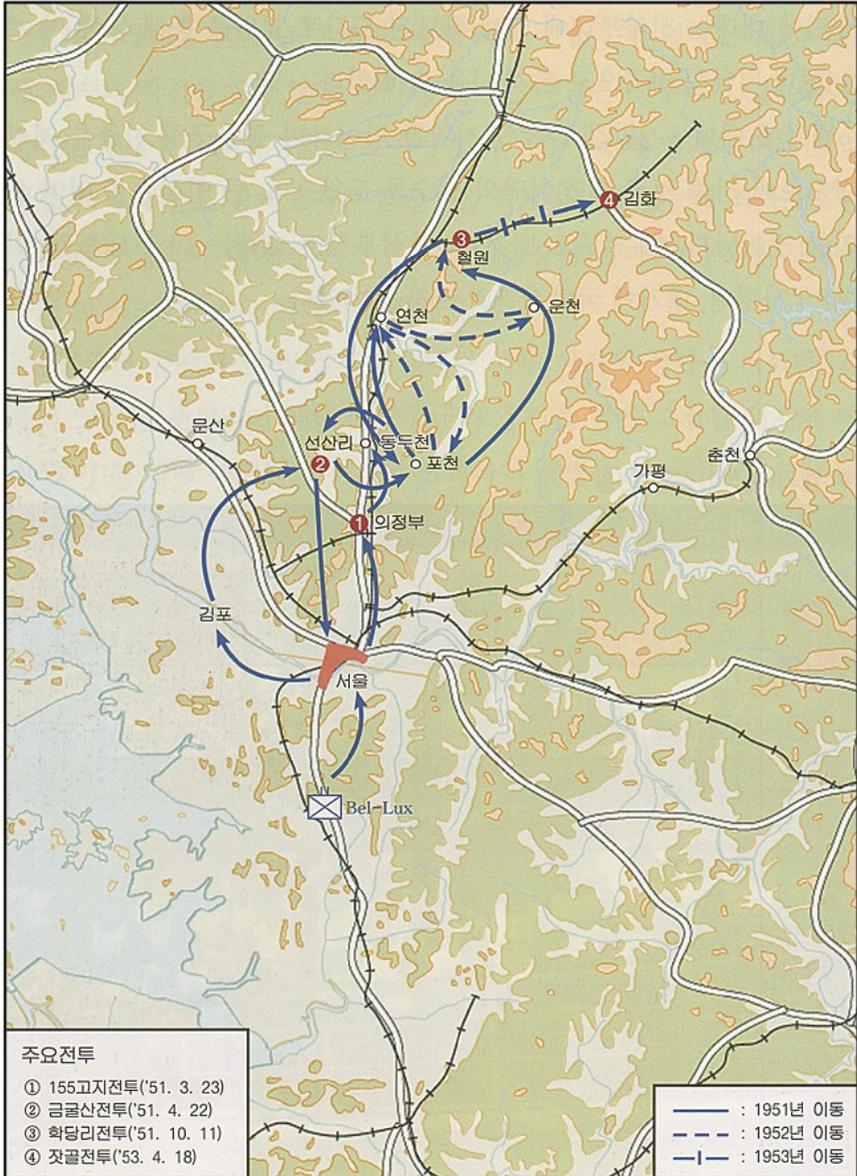
대 제1대대), 우측으로 미 제65연대와 인접해 있었다. 이때 좌측의 영국군 푸질리어대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고립될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벨기에대대도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대대장 크레하이(Crahay) 중령은 당황하지 않고 금굴산을 끝까지 지키면서 철수로를 확보했다. 그 결과 푸질리어대대는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으며, 벨기에대대도 전차부대가 확보한 도감포교량을 통해 우측의 미 제65연대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이 전투로 벨기에대대는 미국 대통령, 미 제8군사령관, 벨기에 국방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벨기에대대는 금굴산 전투 이후에도 철원의 학당리와 김화의 잣골 전투에 참가하여 큰 전공을 세웠다.<sup>67)</sup>

벨기에군은 연인원 3,498명이 참전했다. 그중 99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336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명이 실종되고 1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전한 벨기에군은 김화지역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5년 6월 15일 본국으로 귀국했다.

---

67)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80~390쪽.

<상황도 4-13> 벨기에-룩셈부르크군 주요 전투



<표 4-63> 벨기에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 (명)	참전규모
	지상군
3,498	보병대대 : 1 병력 : 900명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64> 벨기에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지휘관			비고
	계급	성명	참전기간	
벨기에대대	중령	Crahay	1950. 9.~1951. 4.	
	소령	Vivario, G.	1951. 4.~1951. 7.	대리
	중령	Crahay	1951. 7.~1951. 9.	
	소령	Vivario, G.	1951. 9.~1951. 10.	대리
	중령	Crahay	1951. 10.~1951. 11.	
	중령	Cools	1951. 11.~1952. 2.	
	중령	Vivario, G.	1952. 2.~1952. 12.	
	중령	Gathy	1952. 12.~1953. 1.	대리
	중령	Vivario, G.	1953. 1.~1953. 2.	
	중령	Gathy	1953. 2.~1953. 7.	
	소령	Bodart	1953. 7.~1953. 8.	
	소령	Brichant	1953. 8.~1953. 9.	대리
	중령	Bodart	1953. 9.~1953. 12.	
	소령	Brichant	1953. 12.~1954. 2.	대리
	소령	Pirilot	1954. 2.~1955. 8.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편』<sup>10)</sup>, 1979, 246쪽.

비고 : 미 제3사단 배속(1951. 3), 영연방 제29여단 배속(1951. 4), 미 제3사단 배속(1951. 8).

<표 4-65> 벨기에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99	336	4	1	440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그림 4-13> 벨기에·룩셈부르크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30
- \* 건립연도 : 1975년 9월 26일

## 14.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유엔 참전국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소대 병력을 파견한 국가였다. 과병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에서는 “참전국의 병력이 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00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예외가 된 국가가 룩셈부르크였다. 전체 인구가 20여만 명에 불과했던 룩셈부르크는 병력 과건이 곤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벨기에와 협의해 벨기에대대에 1개 소대 병력을 포함시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를 유엔이 받아들이면서 과병이 가능하게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벨기에대대의 창설과 훈련일정에 맞추어 48명의 지원병을 모집해 1개 소대의 ‘참전 룩셈부르크 지원군’을 편성하였다. 룩셈부르크 소대는 1950년 10월 1일 벨기에로 이동해 벨기에대대 A중대에 배속되었다. 룩셈부르크군은 벨기에대대와 함께 1951년 1월 31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벨기에군은 연인원 100명이 참전했다. 그중 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룩셈부르크군은 1953년 1월 7일 본국으로 귀국했다.<sup>68)</sup>

<표 4-66> 룩셈부르크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지 상 군
100	보병소대 : 1 병력 : 52명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편』<sup>10)</sup>, 1979, 245쪽.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68)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sup>10)</sup>, 1979, 161~164쪽, 245쪽.

<표 4-67> 룩셈부르크 지상군 참전 부대 및 기간

부대명	참전기간	비고
룩셈부르크 소대(1차)	1951. 1. 31.~1951. 8. 25.	벨기에대대 배속
룩셈부르크 소대(2차)	1952. 3. 28.~1953. 1. 7.	벨기에대대 배속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 참전편』<sup>10)</sup>, 1979, 245쪽.

<표 4-68> 룩셈부르크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	13	-	-	15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15.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유엔참전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였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에티오피아는 이를 무력으로 응징하기 위한 유엔안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를 즉각 지지하고 나섰다. 1950년 7월 2일,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의 위기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유엔의 결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요지의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들은 유엔사무총장의 물자지원과 파병 호소에 적극 부응하여 8월 5일 약 1만 4천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고, 8월 중순에 파병을 결정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에 의해서 군대가 무장을 해제 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군대 창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에티오피아군의 군사장비는 낙후되어 있었으며, 1950년에 영국의 지원을 받아 10개 대대를 창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들 대부분은 황실근위대에 불과하여 전투부대로서의 임무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가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은 폭력을 증오하고 꺼지지 않는 자유를 열망하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1935년 10월 이탈리아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제연맹에 지원을 호소했으나 국제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는 6년간 식민지로 전락하고 황제는 해외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벌여야 하는 아픈 경험을 안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절박한 호소를 국제사회는 외면했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인들은 집단안보라는 이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될 때 그 이념을 적극 지지하면서 창립 회원국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에티오피아는 1950년 8월 황실근위대가 한국에 파견될 부대의 편성을 맡아 1개 대대를 새로이 편성하여 약 8개월간 영국군 교관의 지도하에 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을 마친 에티오피아대대는 황제로부터 ‘각뉴(Kagnew)대대’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각뉴는 에티오피아어로 ‘격파한다’라는 뜻이었다.

<그림 4-14> 에티오피아군 참전 기념비



- \*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407-2
- \* 건립연도 : 1968년 5월 7일

에티오피아 각뉴대대는 1951년 4월 14일 한반도로 향하는 수송선에 올라 5월 6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각뉴대대는 8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7월 11일 가평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에 배속된 후 중동부전선인 적근산 전투에서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각뉴대대는 1952년 3월과 1953년 4월에 2차례 부대교대를 실시하였으며, 계속 미 제7사단에 배속 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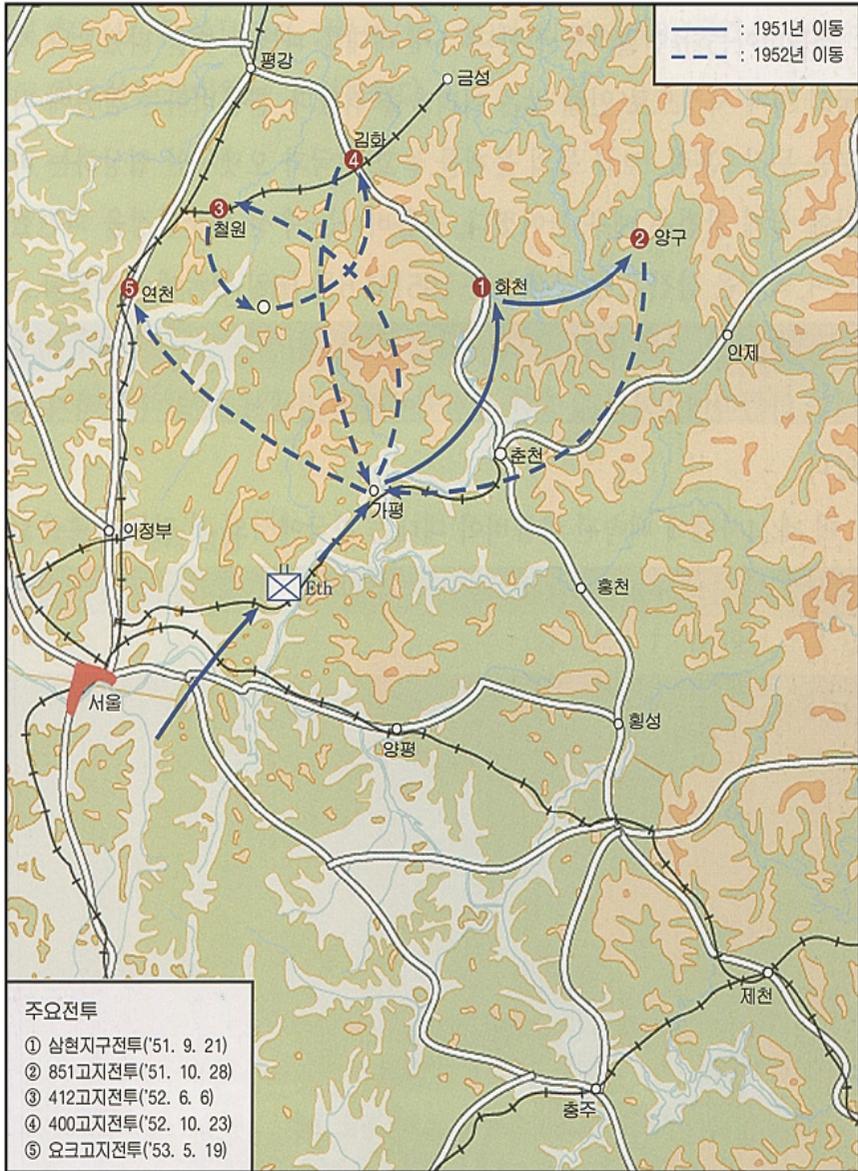
각뉴대대는 6·25전쟁 기간 동안 화천지구 전투, 양구부근 전투, 삼각고지 부근 전투, 요크 및 잉클고지 전투 등 무려 250여 차례에 달하는 전투를 수행하여 대부분 승리하는 전과를 이루었다.<sup>69)</sup>

에티오피아군은 연인원 3,518명이 참전했다. 그중 122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군은 1965년 1월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임무를 종료하였다.

---

69)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51~53쪽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394~405쪽.

<상황도 4-14> 에티오피아군의 주요 전투



<표 4-69> 에티오피아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3,518	보병대대 : 1 병력 : 1,271명

출처 : '6·25참전국헌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70> 에티오피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부대명	참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각뉴(Kagnew) 제1대대	1951. 5. 6.~1952. 3. 28.	중령	Teshome Irgetu
각뉴 제2대대	1952. 3. 29.~1953. 4. 30.	중령	Asfaw Andargue
각뉴 제3대대	1953. 4. 16.~1954. 7. 10.	중령	Wolde Yohannis Shitta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sup>10)</sup>, 1979, 492쪽 ; 국가보훈처,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2012, 170쪽.  
비고 : 가. 참전기간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한국을 떠난 시점까지임.  
나. 에티오피아군은 참전기간 동안 미 제7사단 제32연대에 배속.  
다. 정전 후 각뉴부대는 1년마다 새로운 부대를 교체하면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함.

<표 4-71> 에티오피아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122	536	-	-	658

출처 : '에티오피아 전사자 명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참전용사 묘지"(2014년 현재)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sup>10)</sup>, 1979, 492쪽.

## 16.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6·25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콜롬비아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붕괴되고, 사회적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이에 따라 반정부 게릴라 집단의 반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집단 안전보장에 대한 도덕적 책임, 간접적인 국가방위, 그리고 자유세계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하에 파병을 결정했다.

콜롬비아는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국제공산주의의 팽창전쟁으로서 유엔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간주하였다. 즉 전쟁의 발발로 인해 한국은 냉전의 첫 번째 실질적인 전장이 되었고 북한의 남침이 동서진영간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6·25전쟁 참전의 명분으로 유엔헌장에 입각한 평화의 십자군이라는 논리와 집단안보체제 유지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당시 콜롬비아정부의 현실적인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유엔결의를 접한 후 파병을 적극 검토한 결과 먼저 해군함정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주미 콜롬비아대사를 통해 미 합동참모본부와 함정 파견을 위한 세부철차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콜롬비아 정부는 프리깃함 1척을 가능한 한 신속히 유엔 해군작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9월 18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지상군의 파견 결정은 자국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참전에 따르는 무장·훈련·보급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오랫동안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10월 하순에 미국 정부로부터 과병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약속을 받음으로써 11월 14일 지상군 1개 대대규모의 참전을 선언하였다.

콜롬비아 해군은 1951년 5월 8일에 한국 해역에 파견되어 해상작전을 실시하였고, 육군은 1개 보병대대가 1951년 6월 15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유엔군이었던 콜롬비아군은 미 제24사단에 배속되어 흑운토령에서 첫 전투를 수행한 후 금성 전투, 인제 전투, 연천 불모고지 전투 등 다수의 전장에 참가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sup>70)</sup>

콜롬비아군은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다. 그중 213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44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8명이 포로가 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콜롬비아의 지상군은 1954년 10월 29일에 한국을 떠났으며, 해군도 1955년 10월 11일 한국해역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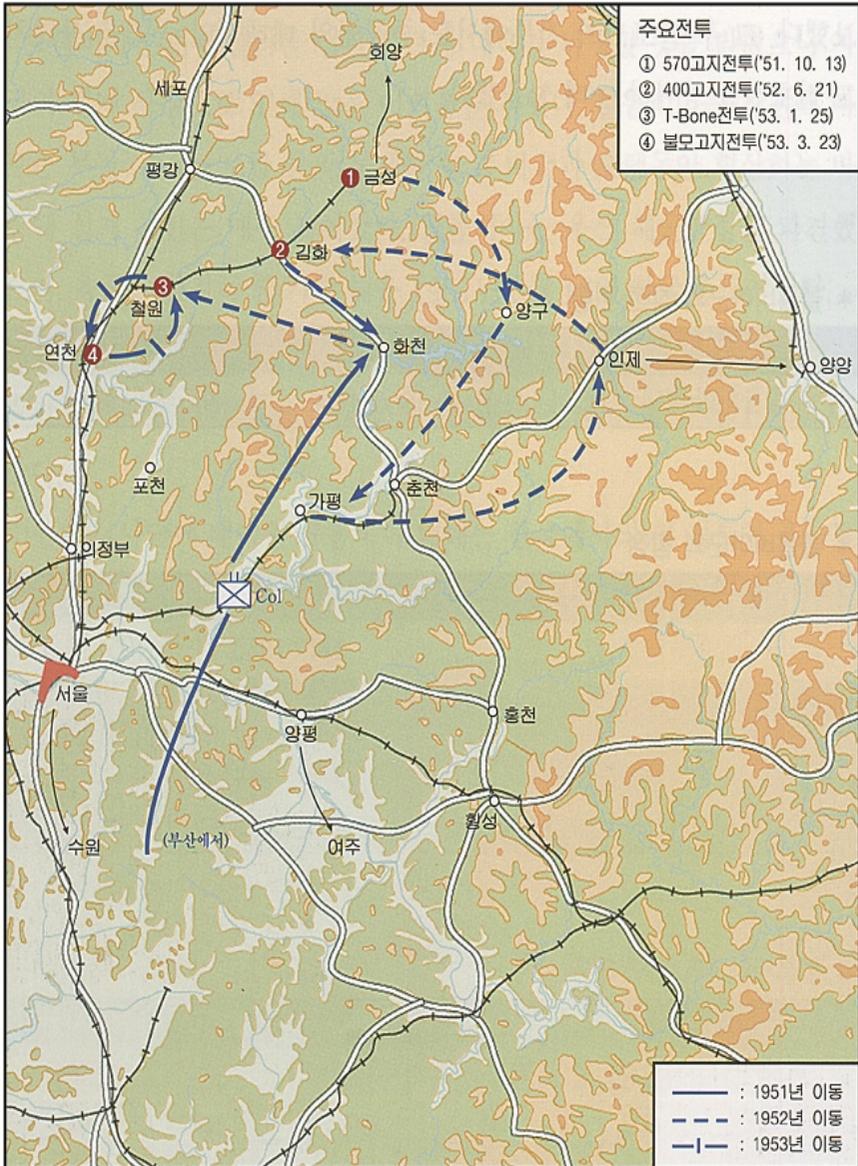
<그림 4-15>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12  
\* 건립연도 : 1975년 9월 24일

70) 국가보훈처,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2008, 26쪽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06~420쪽.

<상황도 4-15> 콜롬비아군의 주요 전투



<표 4-72> 콜롬비아군 참전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지상군	해군
5,100	보병대대 : 1 병력 : 1,068명	프리깃함 1척

출처 : '6·25참전국현황(전투부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비고 : 가. 참전규모는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나. 해군은 프리깃함 3척을 순환 파견함.

<표 4-73> 콜롬비아 지상군 참전부대 및 지휘관

구분	참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콜롬비아대대(제1차)	1951. 6. 15.~1952. 7. 4.	중령	Jaime Polania Puyo
콜롬비아대대(제2차)	1952. 7. 4.~1953. 6. 25.	중령	Alberto Ruiz Novoa
콜롬비아대대(제3차)	1953. 6. 25.~1954. 10. 29.	중령	Carios Ortiz Torres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⑩, 1979, 399쪽.

<표 4-74> 콜롬비아 해군 참전 함정 및 지휘관

함정명	참전기간	지휘관	
		계급	성명
Almirante Padilla	1951. 5.~1952. 2.	소령	Julio Cesar Reyes Canal
Capitan Tono	1952. 4.~1953. 1.	소령	Hernado Beron Victoria
Almirante Brion	1953. 6.~1954. 4.	소령	Carlos Prieto Silva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⑩, 1979, 400쪽.

비고 : 콜롬비아 해군은 정전 이후 Capitan Tono호(1954. 4~1955. 3)와 Almirante Padilla 호(1955. 3.~1955. 10.)가 유엔 해군으로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5년 10월 11일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결함.

<표 4-75> 콜롬비아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213	448	-	28	689

출처 : 전쟁기념관, 유엔한국참전국협회, UN기념공원.

### 제3절 의료지원국 현황

#### 1. 스웨덴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서방국가와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국의 지리·역사적 특수사정으로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영세중립국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1950년 6월 27일 한국에 대한 원조 결의안을 채택하자 7월 14일 1개 야전병원단의 파견의사를 유엔에 통보하였다. 야전병원단의 파견 결의안이 8월 10일 스웨덴 국회에서 통과되자 스웨덴 정부는 적십자사에 이 임무를 위임하였다. 스웨덴 적십자사는 의료파견단을 3~6개월마다 교대시킨다는 방침하에 의사, 간호사, 지원요원 등 160여 명을 선발하여 야전병원을 편성하고 필요한 다수의 의료기자재와 의약품을 확보하였다.

스웨덴 의료지원부대는 1950년 8월 24일 스톡홀름을 출발하여 9월 23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9월 28일 미 제8군에 배속된 스웨덴 적십자병원(The Swedish Red Cross Hospital : SRCH)은 본래 200병상 규모의 이동야전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부상자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400병상 규모의 후방병원으로 임무가 변경되었다.

스웨덴 의료지원부대는 서둘러 부산상업고등학교로 이동하여 10월 초에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안과, 방사선과, 수술실, 연구실, 조제실을 갖춘 병원을 개소하였다. 병원을 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수가 급증하자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병상수를 450병상으로 확장하였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1년 여름부터 전선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민간인 환자진료와 한국 의료진에 대한 의료기술지원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1952년 5월 초에는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독립된 부속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정전 이후 부산스웨덴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상자와 피난민, 그리고 극빈자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었다. 부산스웨덴병원은 1955년 5월에 국립부산수산대학교로 이전하였으며, 종합병원 체제를 갖추고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충원하여 연간 5,3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스웨덴 적십자병원은 1950년 9월부터 1957년 4월 철수할 때까지 6년 6개월 동안 참전함으로써 6·25전쟁에 파견된 의료지원 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 기간 중 연인원 1,124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들은 한국 의료진이 진료하기 어려운 중환자들을 거의 도맡아 치료하였고, 한국의 의료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하여 한국의 보건사에 길이 남을 커다란 족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노르웨이, 덴마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한 것이다.<sup>71)</sup>

<표 4-76> 스웨덴 의료지원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전규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1,124	170	스웨덴 적십자병원

출처 : '6·25참전국현황(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

비고 :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71)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815~820쪽.

<표 4-77> 스웨덴 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주요 내용
1950. 9. 28.	스웨덴 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950. 10월 초	적십자병원 개소
1951. 6.	민간진료 개시
1952. 5.	민간인 진료소 개소
1954. 12.	민간인 치료로 전환
1957. 4.	적십자병원 철수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26쪽.

<표 4-78> 스웨덴 적십자병원 지휘관

역대	성명	역대	성명	역대	성명
제1대	Carl-Erik Groth	제7대	Ola Mansson	제13대	Sture Røden
제2대	Nils Tolagen	제8대	Sven Akesson	제14대	Gösta Rylander
제3대	arne Ekengren	제9대	Bo Ewert	제15대	Frilz Karlström
제4대	Rolf Kaijser	제10대	Einar Franke	제16대	Sven Rydman
제5대	Bodo Von Garrelts	제11대	Ake S. Hager		
제6대	Gunnar Jungner	제12대	Bergwik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⑩, 1979, 399쪽.

## 2. 인 도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한 이후 줄곧 중립 또는 비동맹노선을 견지하였다. 인도는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의 조속한 통일을 위하여 구성된 유엔한국위원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었던 인도는 1950년 6월 27일에 채택된 유엔의 한국원조 결의안에 대해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 기권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7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가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를 결의하자 이에 찬성표를 던져 한국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리고 1950년 11월 초에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인도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던 제60야전병원을 파견하였다. 제60야전병원은 외과의사 4명, 마취의사 2명, 일반의사 8명, 치과의사 1명, 보급관 1명 등 총 331명의 장병으로 2개의 외과반과 1개의 치과반으로 편성되었다.

1950년 11월 20일 부산에 도착한 제60야전병원은 2개 제대로 나뉘었다. 란가라지(Rangaraj) 중령이 지휘하는 본대는 영국군 제27여단에 배속되었고, 배너지(Banerjee) 소령이 지휘하는 분견대는 대구에 배치되어 영국군 후방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한국 육군병원을 지원했다.

제60야전병원 본대는 12월 4일 6개월분의 의약품과 장비를 휴대하고 평양으로 이동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제60야전병원은 1951년 2월 말에 호주대대를 지원했고, 3월 하순에는 경기도 문산에서 공수작전을 실시한 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을 지

원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코만도작전을 수행한 영연방 제1사단을 지원했다.

인도는 연인원 627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제60야전병원은 외래수술 약 2,300건을 실시하였으며, 입원환자 약 20,000명을 치료하였다. 제60야전병원은 1953년 9월부터 송환거부 포로 경비를 위한 인도 포로송환관리단(Custodian Force)과 합류하여 포로송환 업무를 지원하다가 1954년 2월에 인도 포로송환관리단과 함께 귀국했다.<sup>72)</sup>

<표 4-79> 인도 의료지원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627	333	제60야전병원

출처 : '6·25참전국현황(의료지원 및 시설과견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

비고 :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표 4-80> 인도 제60야전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 도	월 일	주 요 내 용
1950	11. 20.	제60야전병원 부산 도착
	12. 4.	대구에서 평양으로 이동
	12. 5.	평양에서 철수
	12. 14.	제60야전병원(-), 영 제27여단 배속
	12. 말	제60야전병원 대구과견대, 병원 개소

72)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779~799쪽.

1951	1. 4.	제60야전병원(-), 수원으로 철수
	1. 6.	수원에서 장호원으로 이동
	2. 19.	남한강 도하 새말로 이동
	3. 23.	이동외과반, 문산 공수투하작전 지원
	4. 말	제60야전병원(-), 영 제28여단으로 배속 전환
	5. 21.	임진강 부근에서 영 제28여단 지원
	10. 3.	영 제28여단의 코만도작전 지원
1952	1.	영 제28여단의 임진강 부근 전투 지원
	6.	대구과견대, 민간병원 순회진료 개시
1953	4. 8.	제60야전병원(-), 임진강 전선으로 복귀
	7. 28.	제60야전병원(-), 임진강 남쪽으로 철수
	9.	인도 포로송환관리단(Custodian Force)과 합류
1954	2.	귀국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35~436쪽.

<표 4-81> 인도 제60야전병원 지휘관

계급	성명	기간
중령	A. G. Rangaraj	1950. 11. 20.~1953. 2. 27.
중령	M. B. K. Nair	1953. 2. 28.~1954. 2. 9.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822쪽.

<표 4-82> 인도 제60야전병원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3	23	-	-	26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32~434쪽.

### 3. 덴마크

덴마크 정부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이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유엔회원국 중에서 제일 먼저 지원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적십자사에 병원선인 유틀란디아(Jutlandia)호를 한국에 파견하도록 조치하였다.

덴마크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의무요원, 행정요원, 선박요원으로 구성되었고, 진료과목은 외과, 내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고 있었다. 유틀란디아호의 지휘관은 병원선내 제반 업무의 지휘·감독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병원장은 의료 업무를, 그리고 선장은 항해와 안전을 담당하였다.

100명 내외를 승선시킨 8,500톤급의 유틀란디아호는 1951년 1월 23일 덴마크를 출발해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미 해군기지에서 식량과 유류 등을 재보급 받은 후 3월 7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1950년 3월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병원선은 의료시설과 의료진의 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중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이 빨랐다. 유틀란디아호는 주로 부산항에 정박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공산군 측으로부터의 포격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항구로 이동하여 의료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의사와 남자간호사들은 육지로 나가 어린이 전용병원 ‘해피마운틴’에서 진료를 돕고 의약품도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1951년 7월부터는 민간인의 입원과 치료도 병행하였다.

유틀란디아호는 8개월마다 근무요원들의 교대와 의약품 및 부수기재 등을 획득하기 위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전쟁기간 중에 유

트란디아호는 2차례 본국으로 귀환하여 재정비한 후 재차 파견되었다. 특히 1952년 4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덴마크에 머물던 2차 귀환 때에는 헬리콥터 착륙장, 에어컨 설치, 환자 수송용 보트 탑재 등의 시설을 새로 갖추거나 개조했다. 이에 따라 전선에서 부상당한 중상자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신속히 유트란디아호로 이송되어 사망자의 비율을 줄일 수 있었다.

유트란디아호는 1951년 3월부터 1953년 8월까지 3차에 걸쳐 한국에 파견되었으며, 연인원 630명이 근무하였다. 의료지원활동 기간 중 6,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후송하거나 치료했다. 이들 환자 중에는 대수술이 필요한 중환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사망자는 25명에 지나지 않았다. 덴마크는 휴전 이후에도 노르웨이, 스웨덴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 설립에 참여하였다.

한국에서 임무를 마친 유트란디아호는 1953년 8월 16일에 인천항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이때 유트란디아호는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및 영국의 송환포로 총 651명을 싣고 이들 각자의 본국 후송을 지원하였다.<sup>73)</sup>

<표 4-83> 덴마크 의료지원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630	100	병원선(유트란디아호)

출처 : '6·25참전국현황(의료지원 및 시설파견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

비고 :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73)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773~778쪽.

<표 4-84> 덴마크 유트란디아호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내용
1951	3. 7.	병원선 유트란디아호, 부산 도착
	6. 30.	유엔군사령관, 휴전회담 장소로 유트란디아호 제의
	7. 24.	유트란디아호 제1차 파견 임무 마치고 출항
	11. 16.	유트란디아호 2차로 부산 도착
1952	3. 29.	유트란디아호 2차 파견 임무를 마치고 출항
	11. 20.	유트란디아호 3차로 인천 도착
1953	8. 16.	유트란디아호 귀국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44쪽.

<표 4-85> 덴마크 유트란디아호 주요 지휘관

구분	기간	지휘관	
		직위	성명
유트란디아호(제1차)	1951. 3. 7. ~ 1952. 7. 24.	총사령관	Kai Hammerich 준장
		병원장	Mogens Wingé
		선장	Christen Mikkelsen Kondrup
유트란디아호(제2차)	1951. 11. 16. ~ 1952. 3. 29.	총사령관	Kai Hammerich 준장
		병원장	Harry Brocks
			Hakon H. Zimsen
선장	Christen Mikkelsen Kondrup		
유트란디아호(제3차)	1952. 11. 20. ~ 1953. 8. 16.	총사령관	Kai Hammerich 준장
		병원장	Hakon H. Zimsen
			Helge Tramsern
선장	Christen Mikkelsen Kondrup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775~778쪽, 822쪽.

비고 : 기간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한국을 떠난 시점까지임.

#### 4. 노르웨이

노르웨이 정부는 유엔이 한국 군사원조를 결의하자 1950년 7월 초순에 주유엔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유엔사무총장에게 해상운송을 위한 선박 지원을 제의하였다. 이후 유엔이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요구하자 노르웨이 정부는 적십자사를 통하여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을 계획하였다. 노르웨이 국회가 1951년 3월 2일 의료지원부대의 파견에 동의하자 적십자사는 6개월마다 파견인원을 교대시킨다는 방침하에 의료지원부대를 구성하였다.

노르웨이 적십자사가 편성한 83명으로 구성된 이동외과병원은 1951년 5월 31일 항공기 편으로 일본에 도착하여 미군으로부터 60병상 규모의 이동외과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의료기자재를 구입하였다.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은 6월 22일 한국에 도착한 후 미 제1군단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동두천으로 이동하였다. 이동외과병원은 7월 19일 천막으로 된 임시건물에서 진료업무를 개시하였다. 노르웨이 육군 이동외과병원(NORMASH)으로 명명된 외과병원은 한국인 경비요원과 노무자를 지원받아 190명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였고, 1951년 12월에는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외래환자진료소도 설치 운영하였다.

1954년 10월 철수할 때까지 NORMASH에 입원한 환자는 총 14,755명이었는데, 이 중 정전협정 체결 전에 입원한 환자가 12,201명, 그 이후가 2,554명이었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은 국군, 미군, 영국군이었다. 그리고 입원환자 중 4,3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잔여환자 10,288명은 후방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NORMASH에서

사망한 환자의 수는 150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1.2%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51년 12월 동두천에 개설한 외래환자진료소는 월평균 600명 이상을 진료하였는데, 당시 입원환자의 15%는 한국 민간인들이었다.

NORMASH가 한국에서 활동한 기간은 1951년 7월 19일부터 1954년 10월 18일까지 3년 3개월이었고, 각 제대의 근무기간은 6개월로서 기간 중 7회에 걸쳐 제대가 교대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의료인들은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1~2년 동안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가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민간병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NORMASH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일반의사 80명, 치과의사 5명, 약제사 6명, 군목 7명, 여자간호사 111명, 남자간호사 22명, 기타 지원요원 292명 등 총 623명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NORMASH가 철수한 이후에도 스웨덴, 덴마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립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의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sup>74)</sup>

<표 4-86> 노르웨이 의료지원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623	109	이동외과병원

출처 : '6·25참전국현황(의료지원 및 시설과건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

비고 :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74)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45~449쪽.

<표 4-87>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내용
1951	6. 22.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한국 도착
	7. 19.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개소
	12.	동두천에 외래진료소 개소
1952	8.	노르웨이 군의관, 치과진료 개시
1953	10. 18.	이동외과병원 귀국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49쪽.

<표 4-88>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지휘관

계급	성명	재임기간
대령	Hermann Ramstad	1951. 5. 1.~1951. 12. 31.
대령	Arne Hvoslef	1951. 12. 1.~1952. 5. 15.
대령	Erling Falsen Hjort	1952. 5. 3.~1952. 9. 22.
대령	Petter Ingvald Sundt	1953. 11. 7.~1953. 5. 14.
대령	Egil Moe	1953. 4. 10.~1953. 10. 21.
대령	Eiril Thoresen	1953. 9. 11.~1954. 2. 28.
대령	Rangnar Nordlie	1954. 1. 22.~1954. 7. 20.
대령	Atle Berg	1954. 6. 20.~1954. 11. 15.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823~824쪽.

<표 4-89>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전사/사망	부상	실종	포로	계
3	-	-	-	3

출처 :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imhc.mil.kr/>).

## 5. 이탈리아

6·25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탈리아는 서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에 적극 참여한 창설국의 일원이었으나 유엔회원국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1951년 8월 국제적십자연맹이 6·25전쟁에서의 전상자 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각국 적십자사 기구에 호소하자 정치·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의무장교 6명, 행정관 2명, 약제사 1명, 군목 1명, 간호사 6명, 사병 50명으로 제68적십자병원을 편성하였다. 제68적십자병원은 1951년 10월 16일 수송선으로 이탈리아를 출발하여 11월 16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제68적십자병원은 12월 6일 서울 영등포 우신초등학교에 병원을 개소하였다. 당시 병원은 150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방사선과를 두었다. 아울러 12월 12일에는 민간인을 위한 진료소를 영등포에 설치하였다. 민간진료소는 내과, 소아과, 외과, 안과, 간결핵과를 두고 매일 06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였다. 이 진료소는 고지쟁탈전이 격화될 무렵인 1952년 5월 31일까지 운영되었다.

이렇듯 제68적십자병원의 활동은 전사상자의 치료에서부터 민간인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1952년 9월 17일 열차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었다. 경인선 구로동 부근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열차충돌사고가 나자 제68적십자병원은 즉시 응급조치반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기민한 구조 활동으로 161명을 치료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헌신적인 의료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제68적십자병원은 1952년 11월 말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병원건물이 소실되는 불행을 겪기도 했지만 1953년 2월 23일 새로운 퀘셋(Quonset) 건물을 완공하고, 전에 보다 더 많은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한 단계 높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때부터 제68적십자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외래진료실도 설치하였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민간인들 진료에도 주력하였다.

1951년 12월 6일에 개소하여 1955년 1월 2일 귀국할 때까지 제68적십자병원의 의료지원활동 성과는 외과수술 3,297명, 입원환자 7,250명, 외래환자 222,885명, 치과 1,115명, 병리시험 8,444명, 방사선 검사 17,115명 등이었다.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은 참전기간 중 연인원 128명이 근무하였고, 그들의 헌신적인 의료지원과 구호활동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의료장비와 시설을 한국정부에 기증한 후 1955년 1월 2일 귀국함으로써 임무를 종료하였다.<sup>75)</sup>

<표 4-90> 이탈리아 의료지원 현황

참전연인원(명)	참 전 규 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128	72	제68적십자병원

출처 : '6·25참전국현황(의료지원 및 시설과건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imhc.mil.kr/>).

비고 : 근무인원은 전쟁기간 동안 최대수준을 유지한 시기의 규모임.

75)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50~453쪽.

<표 4-91>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주요 활동 연표

연도	월일	주요 내용
1951	11. 16.	제68적십자병원 부산 도착
	12. 6.	서울 우신초등학교에 병원 개소
	12. 12.	민간인진료소 설치
1952	9. 17.	경인선 열차충돌사고 발생, 응급조치반 투입
	10. 6.	이승만 대통령, 병원방문 부대표창
	11. 30.	화재로 병원 소실
1953	2. 3.	병원 신축 완료
1955	1. 2.	제68적십자병원 철수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UN군지원사』, 1998, 454쪽.

<표 4-92> 이탈리아 제68적십자병원 지휘관

계급	성명	기간
대위	Luigi Coia	1951. 11. 16.~1952. 8. 29.
소령	Fabio Pennacchi	1952. 8. 29.~1955. 1. 2.

출처 : 국방부, 『한국전쟁사 : 유엔군참전편』Ⅱ, 1980, 823쪽.

## 제4 절 물자지원국 현황

6·25전쟁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쳐 너무나 큰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은 민생안정과 전후복구, 나아가 재건과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었다.

유엔은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자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군대와 물자의 지원을 회원국들에게 호소하였다. 그 결과 유엔의 깃발 아래 다국적군으로 유엔군이 창설되었다. 한국에 대한 구호와 재건지원은 유엔군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수행해야만 하는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유엔군은 미국의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 ECA)와 유엔 계통의 전문기구인 한국민간구제단(Civil Relief in Korea : CRIK), 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 : UNCACK), 유엔한국재건단(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회원국들에게도 지원을 호소하였다. 전쟁 중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받은 구호원조의 총액은 4억 7천 1백 9십만 달러에 달했다.<sup>76)</sup>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한(對韓)원조는 계속되었으며, 1958년에 유엔기구를 통한 원조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이때까지 미국과 유엔 원조기구를 통한 무상원조의 총액은 매년 3~4억 달러의 군사원조 액수를 제외하고도 30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전체 원조액의 구성은 미국의 직접 원조가

76) 물자지원국 현황은 양영조,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제8호, 2013.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3~84쪽을 참고하였다. 1953년 기준 4억 7천1백9십만 달러는 현재(2014년) 가치로 약 41억 1천8백9십만 달러이다.

80%, 유엔을 통한 원조가 20%를 차지하였다.<sup>77)</sup>

유엔을 통해 한국에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총 60개국이었다. 전 투부대 파견 16개국과 의료부대 파견 5개국, 그리고 순수하게 물자만을 지원한 39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수치는 당시 세계가 독립국가 93개국(유엔회원국가 60개국)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하면, 전 세계국가 중 63%가 한국을 지원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 물자지원을 하지는 못했지만 3개 국가가 물자지원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총 63개국이 한국을 지원하거나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표 4-93> 유엔의 물자지원 관련 결의와 주요 내용

연월일	주체	문서번호	주요 내용
1950. 6. 25.	안전보장이사회	S/1501	한국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권고 결의
1950. 6. 27.	안전보장이사회	S/1511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즉각적인 군사원조 결의
1950. 7. 7.	안전보장이사회	S/1588	유엔군사령부 창설과 운용 결의
1950. 7. 13.	유엔사무총장		한국에 대한 원조 호소
1950. 7. 31.	경제사회이사회		한국 민간인 구호 결의
1950. 9. 8.	유엔사무총장		유엔으로 기부되는 징수금과 기타 모든 현금수입을 유엔군사령관을 통해 한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구제원조자금' 설치

77) 유엔 관련 원조에서도 미국의 지원 비율이 민간구제단 원조의 경우 97%, 한국재건단 원조의 경우 66%에 해당하였다.

1950. 10. 7.	유엔총회	376-V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설립 결의
1950. 11. 14.	유엔총회		한국구제재건 계획 결의, 경제사회이사회에 2억 5천만 달러 사용계획안 검토 지시
1950. 12. 1.	유엔총회	410-V	한국의 부응과 재건을 위해 유엔한국재건단(UNKRA) 설립 결의
1951. 1. 31.	UNCURK		세계 각국 정부와 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 요청
1953. 3. 11.	유엔총회	701-V	한국에 대한 구호와 재건 결의

비고 : 날짜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을 따름.

<표 4-94> 유엔군사령부의 긴급 물자지원 요청 현황(1951. 2. 7.)

순번	요청일자	요청내용	평가금액 (달러)	대상국가, 기구
1호	1950. 8. 5.	의료보급품 29종	735,000	34개 회원국, WHO, IRO
2호	1950. 8. 5.	지방단위 보건반(의료요원 : 5명, 후생전문가 : 5명, 행정관: 5명)	-	WHO, IRO
3호	1950. 9. 1.	국가단위 보건위생요원(단장, 보건관, 보건후생관, 행정관 각 1명)	-	WHO
4호	1950. 9. 5.	미곡 : 40,000톤, 대맥 : 4,100톤	6,875,000	12개 회원국
5호	1950. 9.14.	미곡 : 20,000톤, 대맥 : 27,400톤, 소맥 : 20,000톤, 소맥분 : 10,000톤, 단백질식품 : 10,000톤	7,912,500	15개 회원국
6호	1950. 9.16.	사탕 : 3,000톤	375,000	8개 회원국
7호	1950. 9.18.	식염 : 50,000톤	1,250,000	2개 회원국
8호	1950. 9.20.	일반보급품 13종(천막, 모포, 모직, 면피복, 비누, 우유 등)	14,378,000	54개 회원국, UNICEF
9호	1950.10.12.	모포 : 1,000,000장	2,000,000	11개 회원국, IRO, UNICEF

10호	1950.11. 6.	의료보급품 12종	3,236,830	전회원국, IRO, UNICEF
11호	1950.11. 1.	목재 : 110,000톤	500,000	13개 회원국
12호	1950.11.11.	보건후생요원(보건관 : 9명, 보건후생관 : 9명, 위생전문가 : 9명, 행정관 : 1명, 보급관 : 1명)	-	WHO, 적십자자연맹
13호	1950.11.28.	보건후생요원(보건관 : 5명, 후생관 : 5명, 위생전문가 : 5명, 행정관 : 4명, 재무관 : 3명, 노무관 : 2명, 토목기술자 : 5명, 보급관 : 5명)	-	ILO, WHO, IRO
14호	1950.12. 4.	교육용 보급물	4,000,000	UNESCO
15호	1951. 1. 3.	의료보급품	-	제10호와 동일
16호	1951. 1.10.	피복	15,000,000	전회원국, UNICEF, 기타 비정부기관

출처 :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C189~190쪽.

<표 4-95> 한국재건단(UNKRA)의 재건 계획

부 문	세 부 사 업	할당금액(달러)
생 필 품	식량, 식염, 콩, 비료 등 수입	1천4백만
주요기계	공업재건용 기계수입	1천1백5십만
교 육	학교실험기구, 직업교육, 학교교수 및 재건, 수산학교 설립 등	8백만
전 력	변전 및 송전선 정비, 발전소 재건, 발전소 신설 등	7백1십만
교통 및 통신	항만 확충, 철로 및 침목 수리 등	7백만
식량 및 농업	농업연구, 수리사업 확충 등	6백9십만
주 택	전재민용 주택 건축 등	3백만
보건위생 및 후생	병원 재건, 이동진료소 설치 등	2백5십만
지하자원	광물연구소 재건, 광물장려금 등	2백만

출처 : 국방부, 『한국전란 3년지』, 1953, C110.

<표 4-96> 유엔 회원국의 물자지원 제의 수락 현황(1951. 2. 7.)

국 가 명	지원 제의일	물자 품목	수 량	비 고
브라질	1950. 9.22.	크루제이토스	270만 달러 상당	요청 수락, 국회통과 대기
중국(대만)	1950.10. 4.	석탄	9,900톤	직접 한국정부에 운송
		미곡	1,000톤	
		식염	3,000톤	
		DDT	2,000톤	
쿠바	1950.10. 2.	사탕	2,000톤	제6호 요청 수락
		혈장	-	제1호 요청 미 결정
		주정	10,000갤런	요청 수락
에콰도르	1950. 8.1.	의료물품	-	요청 미 수락
	1950.10.12.	미곡	500톤	제5호 요청 수락
아이슬란드	1950. 9.14.	간유	125톤	요청 수락
이스라엘	1950. 8.22.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수락
레바논	1950. 7.26.	현금	5만 달러	미 결정
라이베리아	1950. 7.17.	생고무	10톤	제8호 요청 수락
멕시코	1950. 9.30.	두류, 닭고기		제5호 요청 수락
니카라과	1950.11.16.	미곡	50톤	미 결정
	1950.12.16.	미곡	100톤	
			주정	5,000쿼트
파키스탄	1950. 8.29.	소맥	5,000톤	제5호 요청 수락
파라과이	1950.11. 3.	의료보급품	-	미 결정
페루	1950.11.21.	군화 밀창		미 결정
우루과이	1950. 9.14.	현금	200만 달러	미 결정
	1950.10.26.	모포	70,000매	제9호 요청 수락
베네수엘라	1950. 9.14.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 수락

출처 : 양영조, 위의 논문, 72쪽.

비고 : 한국민간구제단(CRIK)를 통한 물자지원이며, 전투부대 파견과 의료지원 21개국은 제외.

<표 4-97> UNCACK의 CRIK을 통한 물자지원 접수 현황(1951년)

회원국 지원	항구	항구별 지원(톤)	총 계
멕시코	부산 인천 홍남 마산 군산 대구 김포 대전 원산 형산 청주 원주 여수 포항		158,359,679톤, 금액으로 환산 시 3천1백9십7만 달러 (1천9백19억 3천6백만원) 규모
파키스탄			
중국(대만)			
베네수엘라		99,367,019	
자메이카		32,165,911	
헝가리		10,663,911	
일본		12,273,032	
버마(미얀마)		77,781	
쿠바		68,877	
이스라엘		73,718	
캄보디아		16,799	
코스타리카		14,823	
에콰도르		2,655	
아이슬란드		1,400	
라이베리아		560	
	1,868,074		
	1,765,390		

출처 : UNCACK, "Statistical Report on Status of CRIK Supplies Received against FY 1951", 양영조, 위의 논문, 73쪽 재인용.

<표 4-98> UNC의 CRIK을 통한 물자지원 접수 현황(1950. 6. 25.~1952. 5. 22.)

회원국	식량(제의/지원)	의약품(제의/지원)	비누(제의/지원)	연료 (제의/지원)
아르헨티나	500,000/500,000	136,653/136,653	19,950/19,950	-
오스트리아	201,026/201,026	81,085/81,526	15,250/11,844	-
버마(미얀마)	50,000/50,000	-	-	-
캄보디아	4,020/1,780	-	-	-
코스타리카	-	-	-	-
중국(대만)	346,532/346,532	41,123/41,123	-	229,475/229,475
쿠바	250,000/250,000	9,000/9,000	-	-
에콰도르	119,978/119,978	-	-	-
이란	-	-	-	-
이스라엘	38,800/38,800	63,825/64,404	-	-
자메이카	25,167/25,167	-	-	-
멕시코	437,270/394,744	85,125/85,079	-	-
파키스탄	379,850/379,850	-	-	-
우루과이	-	-	-	-
베네수엘라	38,450/38,450	58,745/44,842	20,450/20,450	-

출처 : UNC, “Estimated dollar value on UN contributions by contributing Nation for CRIK(25 June 1950 - 22 May 1952)”, 양영조, 위의 논문, 74쪽 재인용.

<표 4-99>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현황(1953. 12. 31.까지)

회원국	약속금액	'52년 12월까지	'53년 6월까지	'53년 12월까지	지원총액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	500,000
오스트리아	4,415,036	412,326	685,440	315,045	1,412,811
버마(미얀마)	49,934	49,934	-	-	49,934
칠레	250,000	-	-	250,000	250,000
도미니카	860,000	-	200,000	75,200	275,200
이집트	28,716	-	-	9,189	9,189
엘살바도르	500	-	-	500	500
과테말라	목재 수천톤				미 산정
온두라스	2,500	2,500	-	-	2,500
인도네시아	100,000	100,000	-	-	100,000
이스라엘	33,600	33,600	-	-	33,600
레바논	50,000	50,000	-	-	50,000
라이베리아	15,000	15,000	-	-	15,000
파나마	3,000	-	-	3,000	3,000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	20,000
시리아	11,408	-	-	3,650	3,650
베네수엘라	70,000	70,000	-	-	70,000
오스트리아	40,000	40,000	-	-	40,000
스위스	30,000	-	30,000	-	30,000
베트남	10,000	10,000	-	-	10,000

출처 : UNKRA, "Statement of Contribution Received and Anticipated through FY 1953", 양영조, 위의 논문, 76쪽 재인용.

<표 4-100> 각국의 한국 구호재건 지원 현황(1954. 8. 31. 현재)

국 가	지원약속	지원 총액	미결제 잔액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브라질	2,702,703	-	2,702,703
버마(미얀마)	49,934	49,934	-
칠레	250,000	-	250,000
중국(대만)	634,782	634,782	-
쿠바	279,962	270,962	-
도미니카	10,000	-	10,000
에콰도르	99,441	99,441	-
이집트	28,716	-	28,716
엘살바도르	500	500	-
아이티	2,000	2,000	-
온두라스	2,500	2,500	-
아이슬란드	45,400	45,400	-
인도네시아	143,706	100,000	43,706
이스라엘	96,600	96,600	-
레바논	-	-	-
라이베리아	-	-	-
멕시코	-	-	-
파키스탄	-	-	-
파나마	-	-	-
파라과이	10,000	10,000	-
페루	58,723	58,723	-
사우디	20,000	20,000	-
우루과이	2,250,780	250,780	2,000,000
베네수엘라	180,842	180,842	-

오스트리아	174,474	174,474	-
캄보디아	27,429	27,429	-
서독	47,619	47,619	-
일본	50,000	50,000	-
모나코	572	572	-
스위스	255,814	255,814	-
베트남	11,943	11,943	-

출처 : 국방부, 『한국전란 5년지』, 1955, D19~21쪽 ;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 2, 양영조,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제87호, 2013.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70쪽 재인용.  
 비고 : 가. 긴급구호계획 및 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 의한 지원약속 및 지원 현황임.  
 나. 브라질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이었음.

<표 4-101>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1956. 6. 30.까지)

회원국	약속금액	현금지원	물품지원	지원총액	미결제잔액
아르헨티나	500,000	-	500,000	500,000	-
오스트리아	3,616,446	3,616,446	-	3,616,446	-
버마(미얀마)	49,934	-	49,934	49,934	-
캄보디아	1,000	1,000	-	1,000	-
칠레	250,000	250,000	-	250,000	-
도미니카	10,000	-	-	-	10,000
이집트	28,716	-	28,716	28,716	-
엘살바도르	500	500	-	500	-
과테말라	7,704	-	-	-	7,704
온두라스	2,500	2,500	-	2,500	-
인도네시아	143,706	143,706	-	143,706	-
이스라엘	36,100	-	36,100	36,100	-
레바논	50,000	50,000	-	50,000	-

라이베리아	15,000	-	15,000	15,000	-
멕시코	40,000	-	-	-	40,000
파키스탄	315,000	315,000	-	315,000	-
파나마	3,000	-	-	-	3,000
파라과이	10,000	10,000	-	10,000	-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20,000	-
베네수엘라	100,000	30,000	70,000	100,000	-
리히텐슈타인	465	465	-	465	-
모나코	1,144	858	-	858	286
스위스	313,954	290,698	23,256	313,954	-
바티칸(교황청)	10,000	10,000	-	10,000	-
베트남	10,000	10,000	-	10,000	-

출처 :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to the UNKRA as at the 30 June 1956", 양영조, 위의 논문, 77쪽 재인용.

<표 4-102> 유엔의 긴급구제계획(ERP)을 통한 지원 현황(1956.6.30.까지)

지원국	약속 금액	지원 총액	미결제 잔액
브라질	2,702,707	-	2,702,703
캄보디아	27,429	27,429	-
중국(대만)	634,782	634,782	-
쿠바	270,962	270,962	-
에콰도르	99,441	99,441	-
아이티	2,000	2,000	-
아이슬란드	45,400	45,400	-
이스라엘	63,000	63,000	-

라이베리아	10,000	10,000	-
멕시코	346,821	346,821	-
파키스탄	378,285	378,285	-
페루	58,723	58,723	-
우루과이	2,250,780	250,780	2,000,000
베네수엘라	80,842	80,842	-
독일(서독)	47,619	47,619	-
일본	50,000	50,000	-
베트남	1,943	1,943	-

출처 : UNKRA, "Statement of government pledges and contribu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ertaining to the Emergency Relief Programme, Korea, as at 30 June 1956", 양영조, 위의 논문, 78쪽 재인용.

<표 4-103> 각국의 UNKRA를 통한 물자지원 약속 및 지원 현황(1958. 12. 31.까지)

지원국	약속 금액	지원 액수	미결제 잔액
아르헨티나	500,000	500,000	-
오스트리아	179,474	179,474	-
버마(미얀마)	49,934	49,934	-
캄보디아	1,000	1,000	-
칠레	250,000	250,000	-
도미니카	10,000	10,000	-
이집트	28,716	28,716	-
엘살바도르	500	500	-
과테말라	7,704	7,704	-

온두라스	2,500	2,500	-
인도네시아	143,706	143,706	-
이스라엘	36,100	36,100	-
레바논	50,000	50,000	-
라이베리아	15,000	15,000	-
멕시코	40,000	40,000	-
파키스탄	315,000	315,000	-
파나마	3,000	-	3,000
사우디아라비아	20,000	20,000	-
베네수엘라	100,000	100,000	-
리히텐슈타인	465	465	-
모나코	1,144	1,144	-
스위스	313,954	313,954	-
바티칸(교황청)	10,000	10,000	-
베트남	10,000	10,000	-

출처 : 양영조, 위의 논문, 80쪽.

<표 4-104> 유엔을 통한 물자지원국 현황(1950. 7. ~ 1956. 6.)

국가수	국명	제의 시기	지원 기관	지원액	지원시기	비고
1	과테말라		UNKRA	7,704	'53.12. 이전	목재(미산정)
2	도미니카		UNKRA	275,200	'53.6.	
3	독일(서독)		ERP	47,619(현물)	'54.8. 이전	
4	라이베리아	50년	CRIK	15,000(현물)	'51년	생고무
5	리히텐슈타인		UNKRA	465(현금)	'56.6. 이전	
6	레바논	50년	UNKRA	50,000(현금)	'52.12.이전	현금

7	모나코		UNKRA	1,144	'54.8.이전	현금, 물자
8	멕시코	50년	CRIK	346,821(현물)	'51년	두류, 닭고기
9	버마(미얀마)		CRIK	49,934(현물)	'51년	식량
10	베네수엘라	50년	CRIK	180,842	'51년	현금, 의약품
11	베트남		UNKRA	11,943(현물)	'52.12. 이전	현금, 물자
12	사우디아라비아		UNKRA	20,000(현금)	'52.12. 이전	
13	시리아		UNKRA	3,650	'53.12.	
14	스위스		UNKRA	313,954	'53.6. 이전	현금, 물자
15	아르헨티나		CRIK	500,000(식량)	'52.5. 이전	식량, 의약, 비누
16	아이슬란드	50년	CRIK	45,400(현물)	'51년	간유
17	아이티		ERP	2,000(현물)	'54.8. 이전	
18	이스라엘	50년	CRIK	96,600(현물)	'51년	미곡, 의약
19	이란		CRIK	3,900(현물)	'52.5. 이전	미곡, 직물
20	이집트		UNKRA	28,716(현물)	'53.12. 이전	
21	인도네시아		UNKRA	143,706(현금)	'52.12. 이전	
22	일본		CRIK	50,000(현물)	'51년	
23	에콰도르	50년	CRIK	99,441(현물)	'51년	미곡
24	엘살바도르			500(현금)	'53.12. 이전	
25	오스트리아		CRIK	3,616,446	'52.5.이전	현금, 미곡
26	온두라스		UNKRA	2,500(현금)	'52.12. 이전	
27	우루과이	50년	ERP	250,780(현물)	'54.8. 이전	모포 등
28	자메이카		CRIK	25,167(현물)	'51년	미곡
29	중국(대만)	50년	CRIK	634,782(현물)	'52.5. 이전	석탄, 미곡, 연료
30	칠레		UNKRA	250,000(현금)	'53.12.	
31	쿠바	50년	CRIK	270,962(현물)	'51년	미곡, 의약
32	캄보디아		CRIK	27,420(현물)	'51년	현금, 미곡
33	코스타리카		CRIK	?	'51년	물품

34	파나마		UNKRA	3,000	'53.12. 이전	
35	파라과이	50년	UNKRA	10,000(현금)	'54.8. 이전	
36	파키스탄	50년	CRIK	378,285(현물)	'51년	소맥, 현금
37	페루	50년	ERP	58,723(현물)	'54.8. 이전	근화밀창
38	헝가리		CRIK	?	'51년	물자
39	교황청		UNKRA	10,000(현금)	'56.6. 이전	
40	니카라과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41	볼리비아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42	브라질	50년	UNKRA			지원의사표명

출처 : 양영조, 위의 논문, 83쪽.

비고 : 가. 전투부대 및 의료지원 국가를 제외한 순수 물자지원 국가임

나.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은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임.

#### <표 4-105> 국제기구들의 물자 및 전문가 지원 현황

지원기관	일 자	품 목	수 량	비 고
ILO	-	노무관	2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WHO	1950. 8. 8.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 4.	보건후생고문관	3명	제3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2.	보건관, 위생관	각 5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IRO	1950. 8. 3.	피복, 각종보급품	-	
	1950. 8. 8.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8.19.	후생관	5명	제2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7.	후생관	4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UNICEF	1950. 9.27.	모포	300,000매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분유	150톤	
	1950. 9.28.	의료보급품	-	제1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1. 1.26.	피복	20만 달러	제16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1. 2. 1.	피복	20만 달러	제16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 9.28.	비누	100,000파운드	제8호 요청에 의한 제공
미국우호봉 사단	1950.11.16.	중고의류, 신발, 비누	104,000달러 상당	
	1951. 1.23.	중고의류	-	
유럽 구제기관	1950. 9.21.	식품 및 의복	100,000달러 상당	
	1950.11.20.	모포 및 직물	237,150달러 상당	미결중
세계교회 봉사단	1950. 9.25.	중고의류 및 일반보급품	104,958달러 상당	
	1950.11.16.	비타민 조제	5,600달러 상당	
		중고의류	100,000달러 상당	
1951. 1.30.	중고의류	60,000달러 상당	미결중	
적십자사 연맹	1950.11.11.	보건후생관	13명	제12호 요청에 의한 제공
		보건후생관	14명	제12호 요청에 의한 제공
	1950.11.20.	천막, 모포, 의료보급품, 피복	-	대한적십자에 직접 제공
미국 적십자사	1951. 1.12.	후생관	1명	제13호 요청에 의한 제공
아동구조 연맹	1950.12.12.	중고의류	5,033달러 상당	
전쟁구제 봉사단	1950.10.17.	중고의류, 비누	290,749달러 상당	
	1950.10.27.	의료반	7명	거절
	1950.11.17.	의류, 신발, 비누	99,738달러 상당	
	1950.11.29.	중고의류	100만 달러 상당	
	1950.12. 7.	중고의류	100만 달러 상당	
중고의류		7만 달러 상당		

출처 : 국방부, 『한국전란 1년지』, 1951, C193~194쪽 ; “General Records Department of State, Contributions by Govts Other than US”, RG 59, UD-07D78, Box.2.

## 제5 장

# 공산군 통계

### 제1 절 북한군 통계 현황

북한군은 1945년 11월에 조직된 보안대와 1946년 1월에 설립된 철도보안대를 근간으로 창설되었다. 보안대는 소련군정이 1945년 10월 21일 북한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무장단체를 해산시키고 11월에 새로이 만든 조직이었다. 2,000여 명 규모로 진남포에서 창설된 보안대는 1946년 초까지 각도마다 설치되었고, 그 규모도 약 10,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보안대는 치안과 시설경비를 임무로 하였으며, 개천·신의주·정주·강계 등에 설치된 보안훈련소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였다. 보안대가 주로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면 철도보안대는 장차 정규군으로 전환할 목적아래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철도보안대는 1946년 1월 11일 창설되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1946년 7월 13일 13개 중대로 편성된 철도경비대로 개편되었다. 철도경비대의 주된 임무는 철도·터널·역 등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정규군 편성에 대비하는 것이었으며, 철도경비대원들은 개천·나남에 설치된 철도경비훈련소에서 충원되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정규군 창설 준비는 군과 정치 간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sup>78)</sup>

보안대와 철도경비대가 증편되고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훈련소, 철도경비훈련소 등에서 군 인력이 양성되자, 북한은 군사력 건설과 유관한 부대들을 통합 지휘할 기구로 1946년 8월 15일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였다. 훈련대대부는 예하에 직할 3개 대대와 3개 훈련소를 두었다. 직할 3개 대대는 북한내의 12개 주요 도시들에 중대별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개천·나남·평양에 보안훈련소·철도경비훈련소·철도경비대를 통합 개편한 훈련소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북한의 모든 군사조직들은 최고의 단일기구 아래 일원화되었으며, 훈련대대부는 곧 형성될 북한군 최고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지에 분산 배치된 직할 3개 대대와 3개 훈련소는 유사시에 실전부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sup>79)</sup>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예하부대는 개편과 통합을 몇 차례 거치면서 정규군의 모체로 변모해 갔다. 북한은 보안간부훈련소를 통해 신병을 대거 모집하여 1946년 말에 2개 보병사단으로 확장하면서 정규군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훈련대대부의 창설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46년 9월에 소련군 사고문단이 북한에 도착, 각 훈련소와 군사학교에 배치되어 신병훈련과 간부교육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1947년 초에는 소련의 무기와 군복이 북한으로 수송되어 훈련대대부 예하부대에 지급되었다.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225~244. 평양학원은 1946년 2월 23일 정치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정식 설립되었으며, 1949년 1월 제2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평양학원과 제2군관학교에서는 6·25전쟁이 발발 하기 전까지 총 2,500명의 군과 정치 간부를 배출하였다. 중앙보안간부학교는 군 초급간부(소대장)를 양성할 목적으로 1946년 7월 8일 창설되었으며, 1948년 12월 제1군관학교로 개칭되었다. 중앙보안간부학교와 제1군관학교 출신자들은 북한군 확장시 주요 간부로 보직되었으며, 남침시 북한군 장교의 대부분이 이 학교 졸업생들이었다.

79)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90, 78쪽.

이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북한 정규군의 편성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집단군사령부 예하에는 2개 경비병사단과 1개 혼성여단이 있었으며, 각 부대는 소련이 제공한 곡사포, 대전차포, 박격포, 기관총, 다발총 등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48년 2월 4일 민족보위국을 설립하고 마침내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sup>80)</sup>

정권을 수립하기 7개월 전에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북한은 이후 무력증강을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갔다. 1948~49년에 북한은 추가로 1개 보병사단, 독립전차여단, 독립포병, 고사포병, 공병연대, 통신연대, 독립항공사단과 해군을 창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국공내전에 참가하였다가 입북한 병력을 근간으로 하여 2개 보병사단(제5·제6사단)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1950년 전반기에 1개 보병여단을 사단으로 개편하고, 3개의 새로운 보병사단을 창설하였으며, 4월에 중공군 제12보병사단에 편성되었던 병력으로 1개 사단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6·25전쟁 발발 직전 북한의 지상군은 보병사단 10개(제1·2·3·4·5·6·10·12·13·15사단)와 제105전차여단, 제603모터사이클연대, 독립포병연대(122mm 곡사포 12문, 122mm 평사포 24문), 독립고사포연대(37mm 고사포 24문, 85mm 고사포 12문, 대구경 고사기관총 30문), 독립연대(통신·공병·경비) 3개와 독립대대(2개 보병과 1개 경비) 3개, 4개의 독립여단(국경경비대), 3개의 군사학교 등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해군은 소형 경비정 3척, T-5급 어뢰정 5척, 예인선 3척(미 YMC급 2척, 구 일본 예인선 1척), 250~800톤급 함정 7척, 2,000톤급 수송선 1척 및 2개의 육전대(945부대, 918부대), 해안방어 포병연대, 고사포병연대(M3A 37mm

8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245~303쪽.

24문, C3A 85mm 12문), 1개의 해군군관학교 등으로 구성되었다.<sup>81)</sup>

공군은 1개 항공사단으로 2,800명의 병력에 추격기 84대, 저공습격기 113대, 기타 항공기 29대 등 총 22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sup>82)</sup>

북한군은 남침계획 단계에서부터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3단계 작전에 의한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단계 작전은 38도선에서 수원-원주-삼척선에 이르는 중심 90km를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제1단계 진출선에서 전주-대구-포항선에 이르는 중심 180km를 14일 만에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제3단계 작전은 제2단계 진출선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중심 80km를 10여일 만에 점령함으로써 남침개시 후 한 달 만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sup>83)</sup>

북한군의 공격은 초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의 증가와 병참선의 차단 등으로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한 1950년 8월에 북한군의 병력과 장비는 개전 초기에 비해 약 5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8~9월 공세 이후 북한군의 전투력은 최저점에 도달하여 방어작전을 수행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가 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계속된 반격작전으로 주력이 붕괴된 북한군은 외부의 지원이 없는 한 38도선 이북지역을 지키는 것도 어

- 
- 81) С. С. Лотоцкий (ред.),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32-33. 이 책은 1950년대 말 소련군 역사학자 로토츠키(Лотоцкий)의 지도하에 쓰여진 집단 저작으로, 소련군 장군들과 장교들을 위한 대외비 저작물이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상태로 묶여 있다가 2000년에 공개 출간되었다(정병준, 『한국전쟁』, 돌베개, 2006, 324쪽). 국내에서는 2002년에 김종국이 번역 출간하였다(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 2002).
- 82)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년 12월 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군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5~11쪽.

럽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소련과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의 압록강 도하와 1950년 10~12월 소련 공군의 참전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북한군 전투력의 회복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병력과 장비를 증강시켜 나갔다. 그 결과 정전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북한군은 25개 사단·여단, 총 병력 383,384명과 각종 포 6,043문, 전차와 자주포 382문, 항공기 412대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sup>84)</sup>

6·25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군의 인명 손실은 사망자만 6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민간인 사망·실종자는 1백 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sup>85)</sup> 또한 1954년 북한의 중앙통계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공업 총생산량이 약 40% 이상 감소하였으며, 산업 시설물 약 9,000동, 주택 60만 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설물의 파괴와 수십만에 이르는 각종 가축들의 피해 등으로 총 피해액이 4,2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sup>8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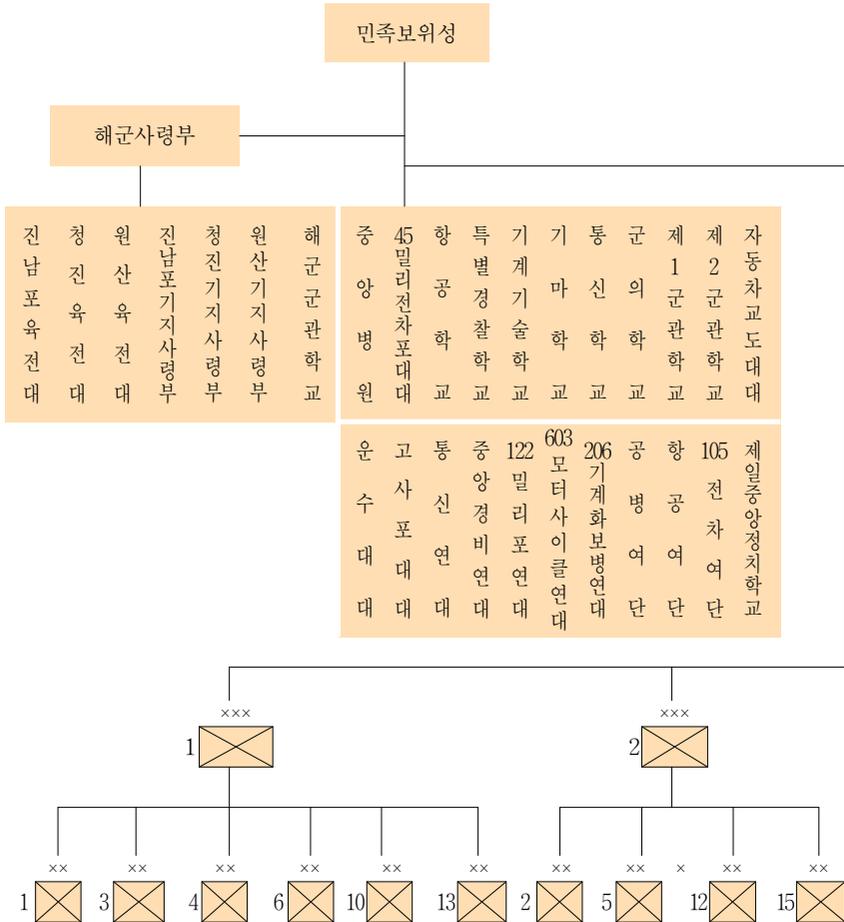
84) <표 5-39> ‘1950년 8월 북한군 병력 현황’, <표 5-41> ‘1950년 9월 북한군 병력 현황’, <표 5-42> ‘1950년 8~9월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포병·기갑 전력’, <표 5-43> ‘북한군 전력 변화(1950. 10.~1953. 7.)’ 참조.

85) <표 5-46> ‘북한군 인명피해 현황’, <표 5-46> ‘북한지역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 참조. 북한은 현재 6·25전쟁 기간 북한군의 인명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인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전쟁 직후 북한의 중앙통계국 자료로 1,098,000명의 사망·실종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86) 북한 중앙통계국 자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2001, 33~130쪽 참조. 북한의 화폐단위는 원이며, 1953년 기준으로 쌀 1kg의 평균시장가격이 72원, 1가구 당 평균소득이 3,388원이었다.

# 1.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전투력

<표 5-1> 북한 민족보위성 편성표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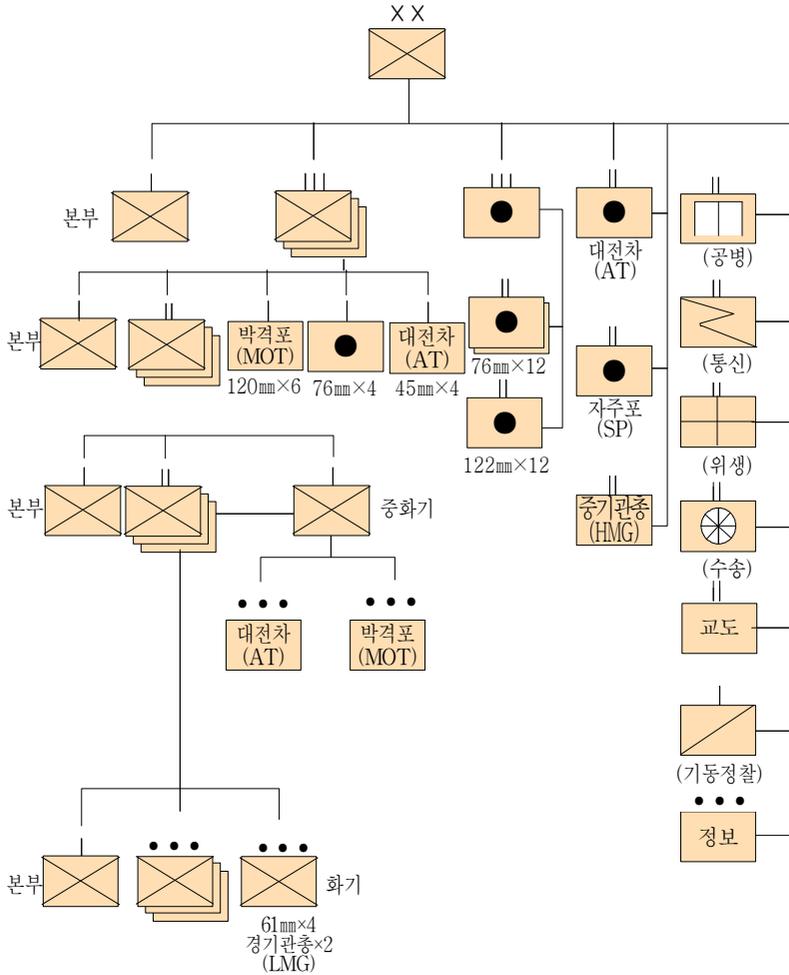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298쪽.

1)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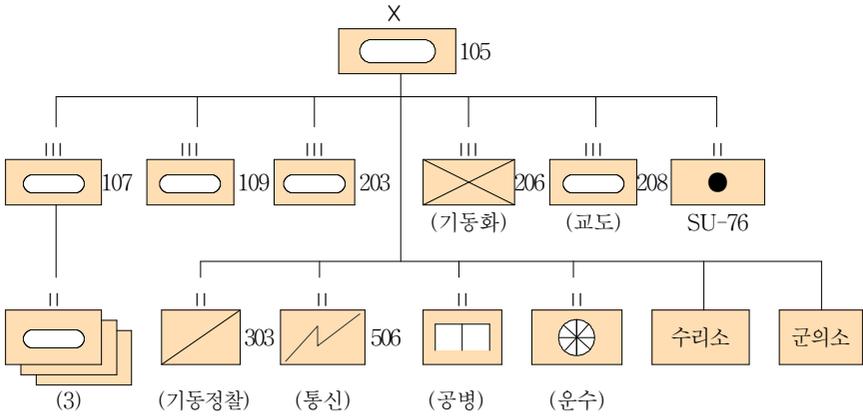
① 편성

<표 5-2> 북한군 보병사단 편제표<sup>8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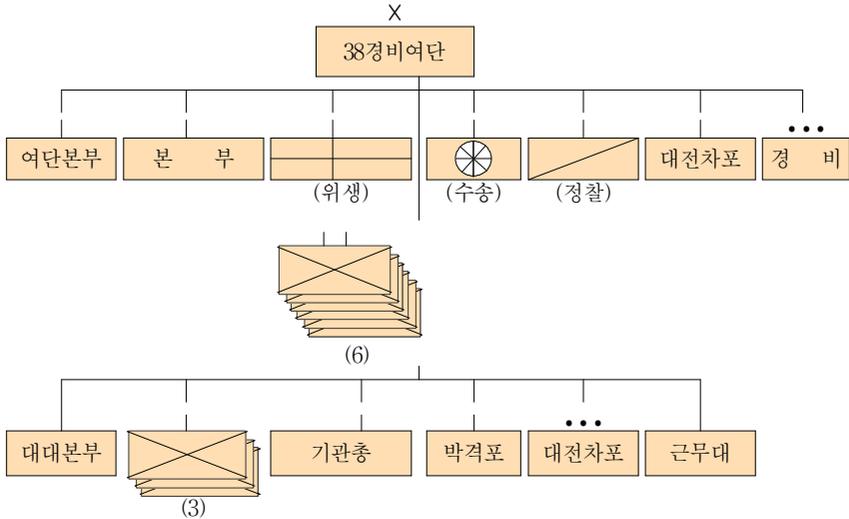


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249쪽.

<표 5-3> 북한군 전차여단 편성<sup>89)</sup>



<표 5-4> 북한 내무성 38경비여단 편성(1950. 6. 현재)<sup>90)</sup>



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2004, 285쪽.

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60쪽.

<표 5-5> 북한군 사단·여단 창설표(1947. 5. 17. 현재)

부 대 명	사령부	지휘관	창설 경위 및 예하 부대
제1사단	개 천	소장 전승화	개천 보안간부훈련소(제1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1·2·3연대, 포병연대
제2사단	나 남	소장 강 건	나남 보안간부훈련소(제2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4·5·6연대, 포병연대
제3독립 혼성여단	평 양	소장 최민철	원산 보안간부훈련소(제3소) 병력을 기간으로 창설, 제7·8·9연대, 포병연대

출처 : 육군본부, 『北傀 6·25 南侵分析』, 1970, 39~41쪽 ; GHQ,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31 July 1952, MacArthur Memorial Archives, 94~95쪽.

비고 : 가. 제1사단은 1948년 3월 24일부로 김웅이 사단장을 맡음.

나. 제3독립혼성여단은 1947년 8월에 김책이 여단장을 맡고, 1949년 9월 9일에 제3사단으로 개칭됨.

<표 5-6> 북한군 사단 증편표(1948. 10.~1950. 6. 현재)

부 대	사령부	지휘관	창설 시기	창설 경위	예속 부대
제4사단	진남포	이권무	'48.10.	총사령부 직할부대	제16·17·18연대
제5사단	나 남	마상철	'49. 8.	중국 제164사	제10·11·12연대
제6사단	신의주	방호산	'49.10.	중국 제166사	제13·14·15연대
제12사단	원 산	전 우	'50. 5.	중국 제15사 동북의용군	제20·31·32연대
제10사단	숙 천	이익성	'50. 3.	숙천 제2민청훈련소와 평남지역 병력	제25·27연대·제107전차연대
제13사단	신의주	최용진	'50. 6.	신의주 제1민청훈련소와 평북지역 병력	제19·21·23연대
제15사단	화 천	박성철	'50. 6.	회령 제3민청훈련소와 함북지역 병력	제45·49·50연대

출처 : GHQ,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69~75쪽.

<표 5-7> 북한군 경비여단 및 특수부대 창설표(1949. 5.~1950. 4. 현재)

부대 구분	사령부	창설 시기	병 력(명)
38경비 제1여단	간 성	1949. 5.	5,000
38경비 제3여단	죽 천	1948. 9.	4,000
38경비 제7여단	시변리	1949. 1.	4,000
철도경비 제5여단	평 양	1949. 1.	3,000
한·만 국경경비 제2여단	...	1949. 9.	2,600
제766부대	회 령	1949. 4.	...
제12모터사이클연대	청 진	1950. 4.	...

출처 : GHQ,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69~75쪽.

<표 5-8> 북한군 제1군단 부대표(1950. 6. 25. 현재)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보병부대	제1사단	제2·3·14보병연대, 포병연대	• 보병·포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
	제3사단	제7·8·9보병연대, 포병연대	
	제4사단	제5·16·18보병연대, 포병연대	
	제6사단	제1·13·15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3사단	제19·21·23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5사단	제45·49·50보병연대, 포병연대	
전차부대	제105 전차여단	제107·109·203전차연대, 독립전차대대	• 전차연대는 3개 대대 • 전차대대는 3개 중대 • 전차중대는 전차 4대 * 대대(13대), 연대(40대)
포병부대	제17포병 연대(군단)	제1·2·3포병대대	• 122mm 평사포대대/ 곡사포대대로 편성
경비부대	제3경비 여단	제1·2·3·4·5·6·7대대	• 대대는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로 편성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16쪽.

<표 5-9> 북한군 제2군단 부대표(1950. 6. 25. 현재)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보병부대	제2사단	제4·6·17보병연대, 포병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병연대는 3개 대대</li> <li>•포병연대는 3개 대대</li> <li>•포병대대는 76mm 2개 대대(12문), 122mm 1개 대대(12문)</li> </ul>
	제5사단	제10·11·12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2사단	제30·31·32보병연대, 포병연대	
모터사이클 부대	제603 모터사이클 연대	모터사이클 4개 대대 장갑차 1개 대대(BA-64형 54대) 대전차포 1개 대대(45mm 16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대는 3개 중대</li> <li>•중대는 모터사이클 45대로 편성</li> </ul>
경비부대	38경비 제1여단	제1·2·3·4·5·6·7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대는 3개 보병중대, 기관총중대, 박격포중대로 편성</li> </ul>
특수지원 부대	제766 유격부대	제1·2·3대대, 강·표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편성병력 3,000여 명
	제945 육전대	3개 대대	편성병력 3,000여 명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17쪽.

<표 5-10> 북한군 최고지휘부 현황(1950. 6. 25. 현재)

직 책	이 름	계급	나이	주요 경력
내각수상	김일성	원수	38세	제88여단 제1대대장, 소련군 대위
민족보위상	최용건	대장	50세	제88여단 정치부 지도원, 소련군 대위
총참모장	강 건	중장	32세	제88여단 제4대대장, 소련군 대위
해군사령관	한일무	중장	42세	소련에서 출생, 소련군관학교 졸업
공군사령관	왕 연	중장	38세	제88여단 정치부 지도원, 소련군 대위
포병사령관	김무정	중장	45세	팔로군 포병단장, 조선의용군 사령원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②, 2005, 15쪽.

<표 5-11> 북한군 사단장 및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현황(1950. 6. 25. 현재)

직 책		이 름	계급	나이	주요 경력
제 1 군 단	군 단 장	김 응	중장	38세	중국 중앙군관학교 제10기생, 중공 팔로군 연대장
	제1사단장	최 광	소장	32세	제88여단 제4대대, 소련군 중위
	제3사단장	이영호	소장	?	제88여단, 소련군 상위
	제4사단장	이권무	소장	36세	팔로군 여단참모부 작전훈련 견습 참모
	제6사단장	방호산	소장	37세	중공 독립4사 166사 정치위원
	제105전차여단장	유경수	소장	35세	제88여단 제1대대 제1중대 제1소대장, 소련군 중위
	제3경비여단장	최 현	소장	39세	제88여단 제1대대 경리소대장, 소련군 상위
	제13사단장	최용진	소장	39세	제88여단 제1대대 제1중대장, 소련군 상위
	제15사단장	박성철	소장	38세	제88여단 분대장, 소련군 중위
제 2 군 단	군 단 장	김광협	소장	35세	제88여단, 소련군 상위
	제2사단장	이청송	소장	?	제88여단 특무장, 소련 한인 2세
	제5사단장	김창덕	소장	48세	조선의용군 출신, 독립11사 164사 부사장
	제12사단장	전 우	소장	36세	조선의용군 출신, 독립156사 부사장
	제1경비여단장	오백룡	소장	39세	소련군 정찰부대
	제766부대장	오진우	총좌	34세	제88여단 전사
전략 예비	제10사단장	이방남	소장	34세	조선의용군 출신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 2005, 15쪽.

## ② 병력 및 주요장비

<표 5-12> 북한 지상군 병력 및 주요장비(1950. 6. 25. 현재)

주요 부대	병력(명)	주요 장비	화포 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병사단 : 10개 제1·2·3·4·5·6·10·12·13·15사단</li> <li>• 경비여단 : 4개 제1·3·7여단, 제5철도여단</li> <li>• 전차여단 : 1개</li> <li>• 포병연대 : 1개</li> <li>• 고사포연대 : 1개</li> <li>• 모터사이클연대 : 1개</li> <li>• 공병연대 : 1개</li> <li>• 통신연대 : 1개</li> <li>• 경비연대 : 1개</li> </ul>	175,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포 : 565문</li> <li>• 대전차포 : 552문</li> <li>• 고사포 : 72문</li> <li>• 박격포 : 875문</li> <li>• T-34 전차 : 242대</li> <li>• SU-76 자주포 : 186문</li> <li>• 장갑차 : 59대</li> <li>• 모터사이클 : 500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mm곡사포 : 11,710문</li> <li>• 76mm곡사포 : 9,000문</li> <li>• 76mm자주포 : 11,260문</li> <li>• 76.2mm평사포 : 13,090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5mm대전차포 * 최대사거리: 5km * 관통능력: 500m 거리에서 66m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mm박격포 : 3,041문</li> <li>• 120mm중박격포 : 5,700문</li> </ul>

출처 :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년 12월 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군사편찬위원회, 2006, 59~60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78쪽 ; 육군본부, 『육군전사』 제2권, 1954, 9쪽 ;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사』, 교학사, 1984, 327쪽 ;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소비에트군사백과사전』 ] T. 4. M., 1977, c. 358, 정병준, 『한국전쟁』, 돌베개, 2006, 324쪽 재인용.

비고 : 가. 주요부대와 병력수, 주요장비 중 SU-76자주포, 장갑차, 모터사이클 보유수는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자료임.

나. 주요장비 중 야포·대전차포·고사포·박격포 보유수는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자료임.

다. 전차 보유수는 『육군전사』 자료임. 개전 당시 북한군의 전차 보유수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간된 공식 전사(戰史)에서는 북한군의 전차 보유수를 242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950년 3월 육군본부 정보국의 정보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1950년 3월 현재 북한군이 총 242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육군본부, 『육군전사』 제2권, 1954, 9쪽)고 밝힌 것이 오늘날까지 한국 내의 공식 견해가 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6·25전쟁에 관한 미 육군 공식 전사를 집필한 애플만은 북한노획문서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군이 150대(제105전차여단 120대, 인제방면 제12사단 3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었다고 기록하고 있음(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1961, 10쪽). 그러나 이는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전차의 수만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소련측에서는 151대(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 1951년 12월 3일”)와 258대(『소비에트군사백과사전』, 1977)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라. 화포제원은 『한국전사』 자료임.

<표 5-13> 북한군 포병화력(1950. 6. 20. 현재)

무기명	군 병기고 보유	야전군 보유	해군 보유	총 계
82mm 박격포	-	705	18	723
120mm 박격포	-	152	-	152
45mm 대전차포	-	521	31	552
76mm 연대포	2	112	-	114
76mm 사단포	4	234	60	298
122mm 곡사포	4	125	-	129
122mm 평사포	-	24	-	24
76mm 자주포	-	-	-	-
37mm 대공포	-	24	24	48
86mm 대공포	-	12	12	24
쌍안경	1,035	4,898	811	6,744
나침반	46	456	46	548
포대경(砲臺鏡)	13	261	41	315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78쪽.

비고 : 가. 45mm대전차포의 총계가 원문에는 52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인 것으로 추정되어 552문으로 수정하였음.

나. 76mm사단포는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76.2mm(ZIS-3)평사포가 정확한 명칭이며, 76mm연대포는 76mm곡사포임.

다. 이 자료에서는 SU-76자주포의 야전군 보유수와 총계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은 186문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었음.

<표 5-14> 북한군 사단 포병화력(1950. 6.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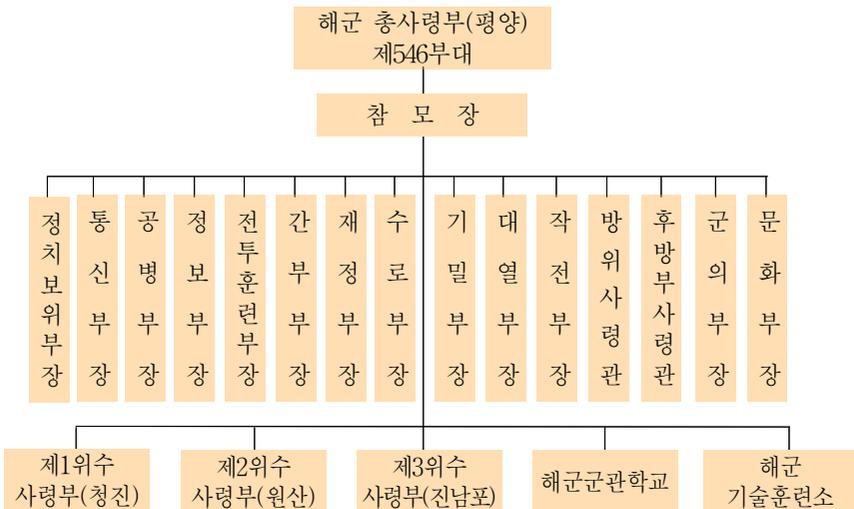
구분	자주포	박격포		사단포			
		82mm	120mm	45mm 대전차포	1927년식 76mm포	76mm ZIS-3	1938년식 122mm 곡사포
보병사단	16	81	18	48	12	24	12
보병연대	-	27	6	18	4	-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76쪽.

비고 : 북한군 보병사단 예하의 포병은 2개 76mm 포중대와 1개 122mm 곡사포중대 등 각종 구경의 포를 보유한 3개 대대로 편성된 1개 포병연대와 45mm 대전차포로 무장한 1개 대전차포대대, SU-76 자주포로 무장한 1개 자주포대대를 보유하고 있음.

## 2) 해군

<표 5-15> 북한 해군 총사령부(제546부대) 조직(1950. 6. 25. 현재)<sup>91)</sup>



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712쪽.

<표 5-16> 북한 해군 병력현황(1950. 6. 25. 현재)

단위 : 명

해상병력	육전대	해안방어병력	합계
3,680	5,483	1,134	10,297

출처 : С. С. Логоцкий (ред.),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33.

비고 : 가.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1950~1953년 한국전쟁』] 은 1950년대 말 소련군 장교들과 장교들을 위해 대외비로 만들어진 저작물로서, 비밀상태로 묶여 있다가 2000년에 러시아에서 공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2년에 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 오비기획으로 번역 출간되었음.

나. 해군 병력 수에 관해서는 자료마다 상이함. 국내에서는 1954년에 발간된 『대한민국해군사』에서 약 20,000명(해군본부 전사편찬감실,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1집, 1954, 39쪽)으로 추산한 이후 1977년에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이 발간되면서 15,570명(국방부, 『한국전쟁사 : 북한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개정판), 1977, 97쪽)으로 수정되고, 이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활용됨. 이는 공산군측 자료가 공개되기 이전에 활용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 소련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음. 한편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자료에는 북한 해군 병력이 1만 명으로 제시되어 있음(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년 12월 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다. 육전대는 상륙부대로서 한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

<표 5-17> 북한 해군 함정(1950. 6. 25.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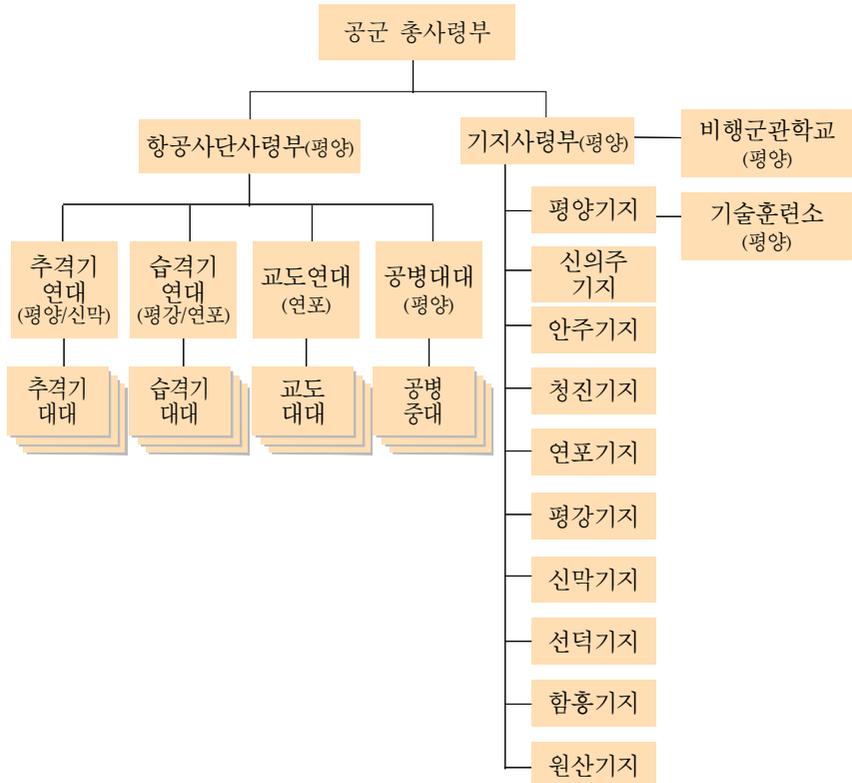
함정유형	소형경비정	T-5급 어뢰정	미 YMC급 예인선	구 일본 예인선
보유수(척)	3	5	2	1
함정유형	250~800t급 함정	2,000t급 수송선	기타	계
보유수(척)	7	1	96	115

출처 : С. С. Логоцкий (ред.),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32~33 ; ‘인민군 해군 원산기지’, “아침보고서”(1950.5.1~1950.9.28.), NARA RG 242, 소장자료 문서번호 불명,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5쪽 재인용 ; 해군본부,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2012, 80~81쪽.

비고 : 6·25전쟁 직전 북한 해군이 보유한 군용 함정은 19척이었으며, 기타는 대부분 30~80t급의 소형 어선이었음.

3) 공군

<표 5-18> 북한 공군 편성(1950. 6. 25. 현재)<sup>92)</sup>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2], 2005, 748쪽.

<표 5-19> 북한 공군의 병력 및 항공기수(1950. 6. 25. 현재)

병력(명)	항공기(대)			
	추격기	저공습격기	기타	계
2,800	84	113	29	226

출처 :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 “1950년 6월 25일 현재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의 전력 현황(1951년 12월 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군사편찬위원회, 2006, 60쪽.

비고 : 가. 북한 공군 전력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존재함. 1991년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사』 제1집(증보판)에는 북한의 항공기 보유대수를 198대, 병력을 2,200명(소련 내에서 양성된 인원 제외)으로 기술하고 있음(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증보판), 1991, 64~65쪽). 그리고 미 공군의 공식 전사기록에는 132대의 전투기와 병력 2,000명을 보유하고었다고 기록함(Robert F. Futrell 편저, 강승기 역, 『한국전쟁에서의 미 공군 전략』, 행림출판사, 97쪽). 이 두 가지의 경우, 기록의 출처는 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들을 심문하여 얻은 정보들로 신뢰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구 소련 자료인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이 작성한 자료를 제시하였음.

나. 추격기와 습격기는 한국의 전투기와 폭격기에 해당하며, 기타 항공기에는 훈련 및 통신 항공기 등이 포함됨.

<표 5-20>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제원(1950. 6. 25. 현재)

항공기종	최대속력 (km/h)	항속거리 (km)	상승한도 (m)	무장
YAK-9	698	925	11,500	• 기관포 : 1×23mm • 기관총 : 2×12.7mm
LA-9	690	1,735	10,800	• 기관포 : 4×23mm
LA-11	674	2,300	10,250	• 기관포 : 3×23mm
IL-10	507	1,000	7,500	• 기관포 : 4×23mm, 1×30mm • 폭탄(로켓) : 400~600kg
TU-2	547	2,100	9,500	• 기관포 : 2×20mm • 기관총 : 3×12.7mm • 폭탄(로켓) : 1,000~3,000kg

출처 : 아바꾸모프 베. 에스, 「북한의 하늘에서」, 『항공연감』, 1980, 18쪽, 전현수,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31쪽 재인용.

## 2. 6·25전쟁 기간 북한군 전투력

### 1) 개전 초기 북한군 전투력

#### ① 북한군 공격제대

<표 5-21> 북한군 초기 공격제대 편성(1950. 6. 25.)

구 분	제1제대	고속 기동부대	상륙부대	산악 침투부대	제2제대
제1군단	제1·3·4·6사단(-) 제3경비여단(+)	제105전차 여단	-	-	제13사단 제15사단
제2군단	제2·12사단 제1경비여단(+)	제603모터 사이클연대	제945육전대 제766부대	제1경비여단 4개 대대	제5사단(-1)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19쪽.

<표 5-22>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통제 방법(1950. 6. 25.)

구 분	최근임무계선	차후임무계선	1일차 진출목표	전투지대(폭)	
				주공사단	조공사단
거리/폭	3~5km	13~15km	18~35km	20km	45~60km
진출선	전방사단 주방어지대후방	전방사단 예비연대 지역	작전목표 달성 기여지점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20쪽.

<표 5-23> 개전 초기 북한군 제1군단 축선별 전투 편성

구분	용진/연안축선 (조공)	개성축선 (조공)	문산축선	동두천축선	포천축선	제2제대
주요 부대	38경비 제3여단 (7개 대대)	제6사단(-)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13사단 제15사단
배속	· 제6사단 1연대 · 치안대대	-	-	-	-	-
직접 지원	-	17포병연대 제2대대	-	17포병연대 제1대대	제17포병연대 제3대대	-
후속	-	-	203전차 연대(-)	203전차연대 제3대대	제105전차여단 제107·109전차 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137~13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24쪽 재인용.

<표 5-24> 개전 초기 북한군 제1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구 분	우측 경계선	전투정면 (km)	국 군 방어지역	
제 1 군 단	제3경비여단	서해안-예성강	115km	제17연대
	제6보병사단 (-)	와룡대(개성 동북쪽 16km)-대월리(개성 동북쪽 6km)-고두산리(개성 동쪽 6km)-사천 하구	25km	제1사단 제12연대
	제1보병사단	354고지(고왕산)-주월리(문산 동북쪽 17km)-금곡리(문산 동북쪽 10km)-가좌미 고개(문산 동남쪽 8km)-신기리(서울 북쪽 3km)	21km	제1사단 제13연대
	제4보병사단	부곡동(신망리 남동쪽 5km)-종현산(신망리 동남쪽 14km)-535고지(칠봉산, 포천 서북쪽 11km)-금오리(의정부 동북쪽 3km)를 연하는 선	20km	제7사단 제1연대
	제3보병사단	도평리(신망리 동남쪽 28km)-628고지(포천 동북쪽 18km, 사직리 부근)-운악산(936m, 포천 동쪽 10km)-수택리(서울 동쪽 15km, 현 구리시 수택동)를 연하는 선	20km	제7사단 제1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25쪽.

<표 5-25> 개전 초기 북한군 제2군단 축선별 전투편성

구 분	춘천 축선 (조공)	홍천 축선 (주공)	동해안 축선 (조공)	예 비
주요부대	제2사단	제12사단	38경비 제1여단 제766·549부대	제5사단 (-1)
배 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사단포병연대</li> <li>제603모터사이클포병</li> </ul>	제5사단 10연대	-
후 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603모터사이클연대</li> <li>제5사단(-1)</li> </ul>	-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137~139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33쪽 재인용.

<표 5-26> 개전 초기 북한군 제2군단 사·여단별 전투지경선

구 분	우측 경계선	전투정면 (km)	국 군 방어지역
제 2 군 단	제2보병사단 사명산(화천 동남쪽 17km)-청평리 (춘천 동북쪽 11km)-춘천-발산리 (가평 동남쪽 13km)	25km	제6사단 제7연대
	제12보병사단 인제-부소현(인제 서남쪽 8km)-홍천	24km	제6사단 제2연대
	제1경비여단 동해 연안	60km	제8사단 제10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34쪽.

<표 5-27> 북한군의 서울방면 공격부대의 방향 및 목표

구분	제1군단				제2군단		
	제1사단	제4사단	제3사단	제105 전차여단	제6사단	제12사단	모터사이클 연대
공격 방향	문산- 서울서쪽 (수색)	동두천- 서울북쪽 (수유리)	포천- 서울동쪽 (상봉동)	1·43·47번 도로	개성- 김포 (영등포)	춘천- 한강이남 (하남)	홍천- 수원
목표	서울서측 점령	서울북측 점령	서울동측 점령	한강교 점령	한강이남 포위	한강이남 포위	수원이남 포위
비고	1차 양익포위(한강이북)			1차 퇴로 차단(한강)	2차 양익포위 (한강이남)	2차 퇴로 차단(수원)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13쪽.

② 축선별 전투편성 및 전투력

<표 5-28> 개전 초기 옹진-개성-고랑포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제1제대	제3경비여단	제1·2·3·4·5·6·7대대 및 제6사단 제1연대, 치안대대 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병연대는 3개 대대</li> <li>• 포병연대는 76mm(2개 대대), 122mm(1개 대대)로 편성</li> </ul>
	제6사단(-)	제13·15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사단	제2·3·14보병연대, 포병연대	
고속 기동부대	제203 전차연대(-)	제1, 제3전차대대 제2전차대대 : 동두천 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연대는 3개 대대</li> <li>• 전차대대는 3개 중대</li> <li>• 전차중대는 전차 4대 편성 * 대대(13대), 연대(40대)</li> </ul>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139~150쪽.

<표 5-29> 개전 초기 웅진-개성-고랑포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단위 : 문

방면	부대	122mm 견인포		76mm 곡사포		45mm 대전차포	박격포		계
		평사포	곡사포	자주포	견인포		120mm	82mm	
웅진, 연안	제3경비여단 포병	-	-	-	20	33	10	68	131
	제1연대 포병	-	4	5	12	12	6	27	66
개성	제6사단 포병	-	8	11	28	36	12	54	149
	제17포병연대 제2대대	8	4	-	-	-	-	-	12
고랑포	제1사단 포병	-	12	16	36	48	18	18	211
계		8	28	32	96	129	46	167	569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85~288쪽.

<표 5-30> 개전 초기 동두천-포천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제1제대	제3사단	제7·8·9보병연대, 포병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병연대는 3개 대대</li> <li>• 포병연대는 76mm(2개 대대), 122mm(1개 대대)로 편성</li> </ul>
	제4사단	제5·16·18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제대	제13사단	제19·21·23보병연대, 포병연대	
	제15사단	제45·49·50보병연대, 포병연대	
고속기동부대	제105 전차여단(-)	동두천 축선 : 제203전차연대 제3대대 포천 축선 : 제107·109전차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차연대는 3개 대대</li> <li>• 전차대대는 3개 중대</li> <li>• 전차중대는 전차 4대 *대대(13대), 연대(40대)</li> </ul>
군단포병	제17포병연대	동두천 축선 : 제1포병대대 포천 축선 : 제3포병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2mm 평사포대대/ 곡사포대대로 편성</li> </ul>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135~177쪽.

<표 5-31> 개전 초기 동두천-포천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단위 : 문

부 대		122mm 견인포		76mm 곡사포		45mm 대전차포	박격포		계
		평사포	곡사포	자주포	견인포		120mm	82mm	
제3사단포병		-	12	16	36	48	18	81	211
제4사단포병		-	12	16	36	48	18	81	211
제105전차여단		-		-	12	12	-	-	24
제17포병연대		16	8	-	-	-	-	-	24
제2 제대	제13사단포병	-	12	16	36	12	18	-	94
	제15사단포병	-	12	16	36	12	18	-	94
계		16	56	64	156	132	72	162	658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88쪽.

<표 5-32> 개전 초기 춘천-홍천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제1제대	제2사단	제4·6·17보병연대, 포병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병연대는 3개 대대</li> <li>•포병연대는 76mm(2개 대대), 122mm(1개 대대)로 편성</li> </ul>
	제12사단	제30·31·32보병연대, 포병연대	
제2제대	제5사단	제10·11·12보병연대, 포병연대	
고속기동 부 대	제603모터 사이클연대	모터사이클 4개 대대 장갑차 1개 대대(BA-64형 54대) 대전차포 1개 대대(45mm 16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터사이클대대는 3개 중대</li> <li>•모터사이클중대, 사이클 45대로 편성</li> </ul>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418쪽.

<표 5-33> 개전 초기 춘천-홍천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단위 : 문

구 분	화 포						박격포		계
	37mm 대전차포	122mm 곡사포	76mm 견인포	76mm 자주포	75mm PP	45mm 대전차포	120mm	82~61mm	
제2사단 포병	-	12	36	16	-	43	18	81	206
제12사단 포병	12	-	-	16	24	32	12	63	159
제5사단 포병	-	12	36	16	-	48	18	-	130
제603모터 사이클연대포병	-	-	-	-	-	16	12	-	28
계	12	24	72	48	24	139	60	144	523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89~290쪽.

<표 5-34> 개전 초기 강릉 방면 북한군 전투편성

구 분		주요 부대	비 고
제1제대	제1경비여단	제1·2·3·4·5·6·7대대	• 보병연대는 3개 대대로 편성
제2제대	제5사단	제10연대, 포병대대, 자주포포대	
상륙부대	제766부대	제1·2·3대대, 포병대대, 통신대대, 강·표대대	
	제945육전대	제1·2·3대대, 통신중대, 후방근무중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②, 2005, 555쪽.

<표 5-35> 개전 초기 강릉 방면 북한군 포병전력

단위 : 문

부 대	122mm 견인포		76mm 곡사포		45mm 대전차포	박격포		계
	평사포	곡사포	자주포	견인포		120mm	82mm	
계	-	4	4	24	20	14	36	102
제1경비여단포병	-	-	-	12	8	8	36	64
제10연대 포병	-	4	4	12	12	6	-	38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 2001, 291쪽.

## 2) 전쟁기간 북한군 전투력 변화

### ① 북한군 8~9월 공세시 전력

<표 5-36> 북한군 8월 공세시 전투편성(1950. 8. 현재)

구 분	예하 부대	공격 축선	국군/유엔군
제1군단 (마산-왜관)	• 제6사단	• 마산-부산 축선	• 미 제1기병사단
	• 제4사단	• 영산-밀양 축선	• 미 제24사단
	• 제3사단	• 왜관-대구 축선	• 미 제25사단
	• 제10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13사단	• 다부동-대구 축선	• 국군 제1사단
	• 제15사단		
	• 제1사단	• 군위-대구 축선	• 국군 제6사단
	• 제8사단	• 의성-영천 축선	• 국군 제8사단
	• 제12사단	• 기계-경주 축선	• 국군 수도사단
• 제5사단	• 영덕-포항 축선	• 국군 제3사단	
지원부대 (제1·2군단)	• 제105전차사단 • 독립전차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5, 2008, 45쪽.

<표 5-37> 1950년 8월 북한군 병력 현황

부대 명칭	병 력(명)	부대 명칭	병 력(명)
제1사단	5,000	제12사단	6,000
제2사단	7,500	제13사단	9,500
제3사단	6,000	제15사단	5,000
제4사단	7,000	예비 제10사단	10,000

제5사단	6,000	제105전차사단	3,000
제6사단	3,600	제83독립전차연대	1,000
제8사단	8,000	제766부대	1,500
합 계	79,100명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⑤, 2008, 48쪽.

<표 5-38> 북한군 9월 공세시 공격집단 편성(1950. 9. 현재)

구 분	공격 집단	전투 편성	공격 축선
제1군단 (마산-왜관)	• 제1공격집단	• 제6·제7사단 • 제104치안연대	• 마산-김해-부산 축선
	• 제2공격집단	• 제2·4·9·10사단	• 영산-밀양-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6기갑여단	
제2군단 (왜관-포항)	• 제3공격집단	• 제1·3·13사단	• 왜관/다부동-대구 축선
	• 제4공격집단	• 제8·15사단	• 영천-대구/경주 축선
	• 제5공격집단	• 제5·12사단	• 안강/포항-부산 축선
	• 배속 부대	• 제105전차사단(-) • 제17기갑여단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⑤, 2008, 52쪽.

<표 5-39> 1950년 9월 북한군 병력 현황

부대 명칭	병 력(명)	부대 명칭	병 력(명)
제1사단	5,000	제10사단	7,500
제2사단	6,000	제12사단	5,000
제3사단	7,000	제13사단	9,000
제4사단	5,500	제15사단	7,000
제5사단	7,000	제104치안여단	2,000
제6사단	10,000	제105전차사단	1,000
제7사단	9,000	제16기갑여단	500
제8사단	6,500	제17기갑여단	500
제9사단	9,350		
합 계	97,850명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5, 2008, 53쪽.

<표 5-40> 1950년 8~9월 낙동강전선의 북한군 포병·기갑 전력

단위 : 문

구 분	122mm 견인포	76mm 곡사포		45mm	박격포		계
		자주포	견인포	대전차포	120mm	82mm	
1950. 8월 초	130	58	280	467	124	900	1,959
1950.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포 및 박격포 총 811문(대구 서북쪽 주공방향에 236문)</li> <li>• 전차 총 40대(대구 서북쪽 주공방향에 20대)</li> </ul>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2001, 356쪽 ; С. С. Лотоцкий (ред.),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121.

비고 : 가. 8월 초의 북한군 전력은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의 자료임.  
나. 9월 15일의 북한군 전력은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의 자료임.

<표 5-41> 북한군 전력 변화(1950. 10.~1953. 7.)

구 분	1950. 10월말	1950. 12월초	1951. 7. 10.	1953. 6. 15.	1953. 7. 27.
사단/여단	4	17	23/4	18/7	18/7
병력	32,840	103,000	393,014	394,121	383,384
야포 (76mm이상)	35	117	731	1,066	1,060
대전차포 (45, 57, 75mm)	20	67	537	682	720
고사포 (37mm 이상)	5	27	278	729	736
박격포 (60mm)	-	-	1,248	3,471	3,527
박격포 (81mm 이상)	60	230			
전차 및 자주포	41	67	243	396	382
항공기	?	30	136	492	412

출처 :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의 보고서, 1953년 6월 15일 현재 조선인민군 전투인력에 대하여”,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643~644쪽 ; С. С. Лютовский (ред.),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155, 168, 251, 286.

비고 : 가. 1953년 6월 15일자는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이외는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자료임.

나. 1953년 6월 15일 북한군 병력은 육군이 381,254명, 공군이 10,547명, 해군이 2,320명.

다. 1953년 6월 15일 북한군은 전차 269대, 자주포 127문, MIG-15기 149대 등 전투기 215대, TU-2기와 IL-10기 등 폭격기·습격기 131대, 기타 항공기 146대를 보유.

라. 단위는 개(사단/여단), 명(병력), 문(각종 포), 대(전차 및 항공기).

<표 5-42> 북한군 부대 단대호(1951. 7. 현재)

군단 (대호)	사단 (대호)	연대(대호)	군단 (대호)	사단 (대호)	연대(대호)
I 군단 (169)	8사단 (169)	81연대(415)	IV군단 (269)	5사단 (615)	10연대(617)
		82연대(417)			11연대(619)
		82연대(421)			12연대(621)
		포병연대(419)			포병연대(623)
	9사단 (315)	85연대(317)		10기계화 보병사단 (745)	25연대(747)
		86연대(319)			27연대(749)
		포병연대(323)			107탱크연대 (751)
	47사단 (361)	2연대(367)			160포병연대 (753)
		3연대(393)		105전차 사단 (105)	1탱크연대(107)
		4연대(368)			2탱크연대(109)
		포병연대(369)			3탱크연대(203)
		208장갑훈련 연대(208)			
II 군단 (179)	2사단 (235)	4연대(238)	21여단(579)		
		6연대(244)	23여단(239)		
		17연대(247)	26기계화 포병여단[264(226)]		
		포병연대(253)	6사단 (655)	1연대(659)	
	13사단 (715)	19연대(717)		13연대(657)	
		21연대(719)		15연대(661)	
		23연대(721)		포병연대(663)	
		포병연대(723)	12사단 (825)	30연대(827)	
	27사단 (772)	7연대(172)		31연대(829)	
		14연대(173)		32연대(831)	
		32연대(174)		포병연대(405)	
		포병연대(407)			

Ⅲ군단 (259)	1사단	2연대(127)	Ⅶ군단 (324)	46사단 (407)	93연대(158)	
		3연대(133)			94연대(159)	
		14연대(117)			95연대(160)	
		포병연대(139)			포병연대(?)	
	15사단	45연대(777)		25기계화 포병여단[507(632)]		
		48연대(779)				
		50연대(781)		3사단 (362)	7연대(389)	
		포병연대(783)			8연대(383)	
	45사단	89연대(581)			9연대(377)	
		90연대(704)			포병연대(371)	
91연대(705)		7사단 (625)	51연대(627)			
포병연대(706)			53연대(629)			
IV군단 (269)	4사단		5연대(241)	37사단 (842)	54연대(631)	
			18연대(661)		포병연대(?)	
		29연대(657)	74연대(604)			
		포병연대(496)	75연대(605)			
				76연대(606)		
				포병연대(607)		
				24기계화포병여단(249)		

출처 :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31 July 1952. 87~89쪽.

비고 : 단대호(單隊號: Unit Identification)는 어떤 군사부대의 완전한 명칭으로서 이는 수자상 호칭, 병과 그리고 지휘계대(指揮梯隊)를 나타냄. 전투서열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한 것임(육군본부, 『육군군사술어사전』, 1977, 107쪽.

### 3. 북한군 및 북한지역 피해 현황

#### 1) 인명피해

<표 5-43> 북한군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출 처 문 헌	사 망	실종/포로	비전투손실	총 계	비 고
한국전란4년지	508,797	98,599	-	607,396	
군사정전위원회편람	520,000	120,000	-	640,000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522,000	102,000	177,000	801,000	사망에 부상 포함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피해통계집』, 1996, 144쪽.

<표 5-44> 북한지역 민간인 피해 현황

단위 : 명

사 망	실종	중국·소련 등 국외 소개	정전 후 대한민국 편입	군징집	총 계
282,000	796,000	80,000	40,000	600,000	1,798,000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36쪽.

비고 : 가. 자료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임.

나. 전쟁 전 북한군 병력 185,097명과 전쟁 기간 징집 병력 600,000명을 더하면, 남한지역을 제외하고 북한지역에서만 최소 785,097명 이상이 북한군으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2) 물적 피해

<표 5-45> 북한지역 산업 피해 종합 현황(1950. 6. 25.~1953. 7. 23.)

산업별	1949년 대비 1953년 생산 감소 비율	산업별	1949년 대비 1953년 생산 감소 비율
연료공업	77%	농업	10%
금속공업 (야금공업)	88%	어업	70%
화학공업	80%	임업	47%
제지공업	82%	광업	33%
고무공업	33%	인쇄업	57%
식품공업	12%	전력생산	74%
방직공업	25%	건축자재	54%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37쪽.

<표 5-46> 북한지역 주요 가축·건물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구 분	피해현황	구 분	피해현황
소	109,000두	학교	5,000개
돼지	135,000두	병원	1,000개
주택	600,000동	극장/영화관	263개
산업건물	약 9,000동	기타 문화기간	수 천 개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36쪽.

<표 5-47> 북한의 물적 총 피해상황 일람(1950. 6. 25.~1953. 7. 23.)

구분	종 류	건축물수/ 전부파괴	면적(m <sup>2</sup> )/ 전부파괴	부분파괴 (m <sup>2</sup> )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물	공장건물	8,737	2,489,148	1,185,344	13,964
	철도역사	474	63,210	8,330	305
	사무소	14,352	2,048,688	155,021	8,872
	창고	13,756	3,077,880	163,673	8,456
	우체국	377	39,500	25,500	260
	전신/전화/무선전신국	7	1,400	13,150	56
	라디오방송국	12	2,839	-	14
	상점	2,190	275,669	17,493	1,141
	식당 및 여관	952	122,448	9,976	542
	공공기업	1,006	125,560	9,919	540
	은행	270	53,071	1,963	287
	학교	5,169	2,545,497	282,980	12,477
	극장 및 영화관	263	89,853	12,642	529
	과학연구시설	68	24,514	2,422	127
	도서관 및 독서실	607	16,233	30,159	185
	병원 및 진료소	1,060	259,686	44,676	1,350
	요양소 및 휴양소	608	102,396	48,359	585
	가옥	605,564	28,055,731	877,941	108,913
	기타 건물 (부속건물, 절 등)	75,781	1,905,980	409,551	8,861
	계	731,253	41,299,303	3,299,099	167,464

구분	명 칭	측정 단위	전부파괴	부분파괴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조물	철로	km	75.3	2,656.8	4,768
	분기선	"	267	54.8	201
	터널	"	33.8	16.7	1,180
	도로	m <sup>2</sup>	1,608,188	254,367	546
	철도교량 등	"	626,483	482,238	19,742
	항구 및 항만	개소	14	16	204
	둑, 제방	m	169,493	82,106	117
	통신설비(전선)	m	104,768,732	-	3,441
	발전소 및 변전소	개소	278	382	1,832
	송전선	m	13,449,001	-	2,184
	저수지	개소	5,221	116	90
	상수관	m	479,563	172,007	1,101
	하수관	"	72,567	35,385	133
	공원	개소	297	1,034	178
	저수지(인공)	"	905	810	81
	저수탑	"	50	13	10
	관개망	m	9,014	5,590	12
	기타건조물 (공장굴뚝, 담장 등)	-	-	-	10,109
	계				45,929

기계설비	원동기/발전기/발전기	대	13,278	10,264	2,670
	압착기(프레스)	"	565	138	115
	공작기계	"	12,556	1,396	1,909
	야금설비	"	848	532	391
	기중기	"	1,356	986	565
	전도장치	"	16,405	228	181
	기타 설비	"	237,128	12,353	16,710
	계	-	-	-	22,541
운송수단	기관차	대	424	1,060	6,520
	객차	"	910	362	4,479
	화차	"	10,208	9,970	9,042
	전차	"	105	64	87
	자동차	"	3,854	501	1,108
	선박	"	4,770	100	1,835
	집마차	"	26,946	103	727
	기타 운송수단	"	30,241	2,900	1,218
	계	-	-	-	25,016
가축	소	두	109,255	-	7,295
	말	"	3,682	-	138
	돼지	"	134,569	-	3,415
	기타 가축 및 가금류	"	325,513	-	1,203
	계	-	-	-	12,051

과종		정보	371,070	-	2,353
과수		그루	89,257	-	89
산림		정보	300,314	-	1,646
문화재, 역사유적		-	-	-	13,965
기타		-	-	-	1,464
농산품	알곡	톤	398,223	-	50,787
	기타	-	33,692	-	3,464
	계	-	-	-	54,251
임업품	산업용재	m <sup>3</sup>	260,369	-	187
	목재	-	36,047	-	166
	기타 임업품	-	-	-	169
	계	-	-	-	522
수산품		톤	12,809	-	469
기업제품	완제품	-	-	-	1,660
	반제품	-	-	-	489
	계	-	-	-	2,149
원료 및 재료		-	-	-	5,772
상품(상점)		-	-	-	6,959
화폐		-	-	-	523
기타(의류, 가구 등)		-	-	-	56,965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42~44쪽.

비고 : 자료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임.

<표 5-48> 북한의 공공부문 물적 피해현황(1950. 6. 25. ~ 1953. 7. 23.)

구분	명 칭	건축물수/ 전부파괴	면적(㎡)/ 전부파괴	부분파괴(㎡)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물	공장건물	6,013	2,115,733	1,182,987	11,116
	철도역사	474	63,210	8,330	305
	사무소	13,450	1,960,408	148,949	8,340
	창고	13,445	3,045,049	162,079	8,368
	우체국	377	39,500	25,500	260
	전신/전화/무선전신국	7	1,400	13,150	56
	라디오방송국	12	2,839	-	14
	상점	1,610	248,436	14,460	979
	식당 및 여관	748	107,815	8,667	478
	공공기업	915	118,735	9,635	505
	은행	270	53,071	1,963	287
	학교	5,159	2,543,911	282,980	12,470
	극장 및 영화관	263	89,853	12,642	529
	과학연구시설	68	24,514	2,422	127
	도서관 및 독서실	604	16,091	30,159	185
	병원 및 진료소	1,060	259,686	44,676	1,350
	요양소 및 휴양소	608	102,396	48,359	585
	가옥	82,382	6,235,075	800,859	29,444
	기타 건물 (부속건물/부속실 등)	17,166	837,316	72,492	3,232
	계	144,631	17,865,038	2,870,309	78,630

구분	명 칭	측정 단위	전부파괴	부분파괴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조물	철로	km	75.3	2,656.8	4,768
	분기선	"	267	54.8	201
	터널	"	33.8	16.7	1,180
	도로	m <sup>2</sup>	1,608,188	254,367	546
	철도교량 등	"	626,483	482,238	19,742
	항구 및 항만	개소	14	16	204
	둑, 제방	m	169,493	82,106	117
	통신설비(전선)	m	104,767,385	-	3,441
	발전소 및 변전소	개소	278	382	1,832
	송전선	m	13,449,001	-	2,184
	저수지	개소	5,221	116	90
	상수관	m	479,563	172,007	1,101
	하수관	"	72,567	35,385	133
	공원	개소	297	1,034	178
	저수지(인공)	"	905	810	81
	저수탑	"	50	13	10
	관개망	m	9,014	5,590	12
	기타 건조물 (육교/공장굴뚝/담장 등)	-	-	-	9,972
	계	-	-	-	45,792

기계 설비	원동기/발동기/발전기	대	6,841	10,063	2,334
	압착기(프레스)	"	561	138	114
	공작기계	"	11,942	1,382	1,865
	야금설비	"	848	532	391
	기중기	"	1,356	986	565
	전도장치	"	16,186	224	177
	기타 설비	"	181,774	12,347	15,746
	계	-	-	-	21,192
운송 수단	기관차	대	424	1,060	6,520
	객차	"	910	362	4,479
	화차	"	10,208	9,970	9,042
	전차	"	105	64	87
	자동차	"	3,209	487	941
	선박	"	1,327	73	1,525
	짐마차	"	3,455	102	90
	기타 운송수단	-	5,879	2,900	723
	계	-	-	-	23,407
가축	소	두	6,326	-	429
	말	"	679	-	54
	돼지	"	23,220	-	544
	기타 가축 및 가금류	"	19,701	-	121
	계	-	-	-	1,149

	과중	-	21,967	-	171
	과수	그루	89,257	-	89
	산림	정보	300,314		1,646
	문화재, 역사유적	-	-	-	1,297
	기타	-	-	-	1,381
농산품	알곡	톤	303,266	-	32,675
	기타	-	11,101	-	452
	계	-	-	-	33,127
임업품	산업용재	m <sup>3</sup>	260,064	-	186
	목재	-	35,255	-	163
	기타 임업품	-	-	-	161
	계	-	-	-	510
수산물		톤	11,537	-	368
기업 제품	완제품	-	-	-	1,560
	반제품	-	-	-	473
	계	-	-	-	2,033
원료 및 재료		-	-	-	5,551
상품(상점)		-	-	-	5,900
화폐		-	-	-	478
기타(의류, 가구 등)		-	-	-	7,454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45~47쪽.

비고 : 자료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임.

<표 5-49>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물적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순서	명 칭	건축물수/ 전부파괴	면적(m <sup>2</sup> )/ 전부파괴	부분파괴(m <sup>2</sup> )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물	공장건물	185	18,093	2,357	76
	사무소	902	88,280	6,072	532
	창고	311	32,831	1,594	88
	상점	580	27,233	3,033	162
	식당 및 여관	204	14,633	1,309	64
	공공기업	91	6,825	284	35
	학교	10	1,586	-	7
	도서관 및 독서실	3	142	-	0.2
	가옥	1,460	59,701	77,082	684
	기타 건물	775	37,451	337,059	1,905
소계	4,421	286,775	428,790	3,553	

순서	명 칭	단위	전부파괴	부분파괴	피해액 (단위:백만원)
운송수단	자동차	대	316	14	106
	선박	"	892	27	83
	짐마차	"	174	1	7
	기타 운송수단	"	1,526	-	29
	계	-	-	-	225
가축	소	두	198	-	13
	말	"	25	-	0.6
	돼지	"	130	-	4
	기타 가축 및 가금류	"	454	-	7
	계	-	-	-	25

파종		-	-	-	0.4
과수		-	-	-	0.3
문화재, 역사유적		-	-	-	12,668
농산물	알곡	톤	234	-	26
	기타	"	76	-	56
	계	-	-	-	82
임업품	산업용재	m <sup>3</sup>	305	-	0.5
	목재	"	792	-	3
	기타 임업품	"	-	-	8
	계	-	-	-	12
수산물		톤	1,272	-	101
기업 제품	완제품	-	-	-	100
	반제품	-	-	-	16
	계	-	-	-	116
원료 및 재료		-	-	-	221
상품(상점)		-	-	-	1,059
화폐		-	-	-	45
기타		-	-	-	420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48~49쪽.

비고 : 자료는 1954년 북한 중앙통계국에서 발표한 것임.

<표 5-50> 북한의 개인 물적 피해 현황(1950. 6. 25.~1953. 7. 23.)

순서	명 칭	건축물수(채)/ 전부파괴	면적(m <sup>2</sup> )/ 전부파괴	부분파괴 (m <sup>2</sup> )	피해액 (단위:백만원)
건물	공장건물	2,539	355,322	-	2,772
	가 옥	521,822	21,760,955	-	78,785
	기타 건물	57,840	1,031,213	-	3,724
	소 계	582,201	23,147,490	-	85,281

순서	명칭	측정 단위	전부파괴	피해액(단위:백만원)
	건조물	-	-	120
기계 설비	원동기, 발동기	대	6,188	305
	기타 설비	"	45,801	758
	계	-	-	1,063
운송 수단	자동차	대	329	61
	선박	척	2,551	227
	짐마차	대	23,317	630
	기타 운송수단	"	22,836	466
	계	-	-	1,384
가축	소	두	102,731	6,853
	말	필	2,978	83
	돼지	두	111,219	2,866
	기타 가축 및 가금류	"	305,358	1,075
	계	-	-	10,877
파종		정보	349,102	2,182
농산품	알곡	톤	94,723	18,086
	기타	"	22,515	2,956
	계	-	-	21,042
가계재산 및 자산		-	-	49,091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50쪽.

<표 5-51> 전쟁 전후 북한의 산업 비중 현황

순서	내 용	단위	1949년	1953년
1	1953년 말 인구(군 제외)	천명	9,472	7,891
	남자	천명	4,710	3,541
	여자	천명	4,762	4,350
2	공업 총생산(유통세 포함)	백만원	32,839	19,139
3	공업생산 비중(유통세 제외)			
	생산수단 생산부문(A그룹)	비율(%)	61.8	45.7
	소비재 생산부문(B그룹)	비율(%)	38.2	54.3
4	총생산량 비중			
	공업총생산	비율(%)	49	37
	농업총생산	비율(%)	51	63
5	공공 부문 비중			
	공업총생산	비율(%)	92	99
	농업총생산	비율(%)	0.6	5
6	과종면적	천 정보	2,386	2,296
7	소 두수	천 마리	788	504
8	돼지 두수	천 마리	660	543
9	운송수단의 화물수송	백만톤	186	129
10	소매 유통(해당연도 가격)	백만원	18,101	39,805
11	경제 종사자수	천명	565	542
12	총 임금	백만원	7,779	7,752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57쪽.

<표 5-52> 북한의 산업인구 변화(1949년, 1953년)

구 분	경제인구(천명)		비율(%)	
	1949년	1953년	1949년	1953년
총수	565	642	100	100
공업	245	165	43	31
농업	17	56	3	10
기간건설	82	91	15	17
운수 및 체신	65	60	12	11
상업 및 조달	25	17	4	3
기타(예산 조직 포함)	131	153	23	28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③, 2001, 59쪽.

## 제2 절 중공군 통계 현황

중공군은 1927년 8월에 창설된 후 1937년에 ‘팔로군’, 1946년에 ‘인민해방군’으로 발전하면서 6·25전쟁 발발 직전에 정규군 5개 야전군 217개 사단(165만 명)과 지방군 22개 사단(100만 명)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6·25전쟁에 최초로 투입된 중공군은 제4야전군 예하 제13병단의 6개 군이었다. 이들은 1950년 10월 19일 이후 10월 말까지 압록강을 도하하였으며, 모두 약 20만 명이었다. 중공군 편제상 1개 병단은 유엔군의 1개 군급에 해당하며, 1개 군은 군단급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리고 1개 군은 3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13병단의 6개 군은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만주에 주둔해 있던 제42군과 중국 본토를 석권한 후 화중 및 화남지방에서 만주로 이동해 온 제38·39·40·50군, 그리고 6·25전쟁에 개입하기 바로 직전에 산둥지방에서 이동한 제66군으로 구성되었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저녁에 우선 제38·39·40·42군과 3개 포병사단, 직할부대 등을 한반도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세갈래로 나뉘어 10월 19일에서 25일 사이에 신의주·삭주·만포 지역의 교량을 이용하여 야간에 은밀히 압록강을 건넜다. 중공군 제40군은 안둥(安東)에서 압록강을 건너 구장, 덕천, 영원지역으로 침투하였고, 제39군은 안둥과 장전하구로부터 도하하여 일부는 비현, 남시동 지역에 이르는 방어선에 투입하고 주력부대는 귀성, 태천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제42군은 지안(輯安)에서 도하해 시장리, 오로리 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제38군은 제42군을 뒤따라 도하하여 강계 지역으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군수물자가 10월 25일까지 운반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6일에는 2차로 제50·66군의 6만 6,000여 명이 각각 신의주와 만포 지역으로 압록강을 건넜다.<sup>93)</sup>

9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1권, 1990, 361~362쪽.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 첫 전투에 참가한 후 전쟁기간 동안에 조·중연합사령부를 편성하여 전쟁을 주도하였다.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한·만 국경선으로 진출하던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증원 부대의 도착과 전개 시간을 획득하기 위해 전개한 1차 공세를 시작으로 1953년 7월 20일 금성지구에서 마지막 공세를 펼칠 때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세를 펼쳤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중공군의 최대 규모는 병력이 58개 사단 122만 여명이었으며, 전차 및 자주포 약 390대, 각종 포 약 12,000문이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은 만주지역 일대에 항공기 480대를 보유하고 항공작전을 전개하였다.<sup>94)</sup>

6·25전쟁 기간 동안에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사망 11만 6,000여 명, 부상 22만 여명, 행방불명 및 포로 2만 9,000여 명 등 총 36만 5,000여 명이었다.<sup>95)</sup> 그리고 중공군은 항공기 231대, 전차 9대, 자동차 6,060대와 각종 화포(파괴된 것은 포함시키지 않음) 4,371문의 장비 피해를 입었으며, 전쟁비용으로 62억 위안을 지출하고, 560여만 톤의 작전물자를 소모했다.<sup>96)</sup>

---

94) 이 수치는 1953년 7월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5-58> ‘중공군 병력 및 주요 무기’ 참조).  
95) 비전투손실은 제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 5-60>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중국측 발표)’와 <표 5-63>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한국측 주장)’ 참조.  
96)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699쪽.

## 1. 중공군 편제

<표 5-53> 중공군 전투서열 I (1950. 11.초 현재)

군	사 단	연 대	군	사 단	연 대
제38군	제112사단	제334·335·336연대	제39군	제115사단	제343·344·345연대
	제113사단	제337·338·339연대		제116사단	제346·347·348연대
	제114사단	제340·341·342연대		제117사단	제349·350·351연대
제40군	제118사단	제352·353·354연대	제42군	제124사단	제370·371·372연대
	제119사단	제355·356·357연대		제125사단	제373·374·375연대
	제120사단	제358·359·360연대		제126사단	제376·377·378연대
제50군	제148사단	제442·443·444연대	제66군	제196사단	제586·587·588연대
	제149사단	제445·446·447연대		제197사단	제589·590·591연대
	제150사단	제448·449·450연대		제198사단	제592·593·594연대
포병 사령부	제1사단	제25·26·27연대			
	제2사단	제28·29·30연대			
	제8사단	제46·47·48연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7], 2010. 283쪽.

비고 : 가. 중공군의 군은 유엔군의 군단에 해당함.

나. 각 군은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부대임.

<표 5-54> 중공군 전투서열 II(1950. 12.말 현재)

병 단	군	사 단	연 대
중공군 사령부 직할 (제13병단)	제38군	제112사단	제334·335·336연대
		제113사단	제337·338·339연대
		제114사단	제340·341·342연대
	제39군	제115사단	제343·344·345연대
		제116사단	제346·347·348연대
		제117사단	제349·350·351연대
	제40군	제118사단	제352·353·354연대
		제119사단	제355·356·357연대
		제120사단	제358·359·360연대
	제42군	제124사단	제370·371·372연대
		제125사단	제373·374·375연대
		제126사단	제376·377·378연대
	제50군	제148사단	제442·443·444연대
		제149사단	제445·446·447연대
		제150사단	제448·449·450연대
	제66군	제196사단	제586·587·588연대
		제197사단	제589·590·591연대
		제198사단	제592·593·594연대
제9병단	제20군	제58사단	제172·173·174연대
		제59사단	제175·176·177연대
		제60사단	제178·179·180연대
	제26군	제76사단	제226·227·228연대
		제77사단	제229·230·231연대
		제78사단	제232·233·234연대

제9병단	제27군	제79사단	제235·236·237연대
		제80사단	제238·239·240연대
		제81사단	제241·242·243연대

출처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559~560쪽.

<표 5-55> 중공군 전투서열 III(1951. 12.말 현재)

병 단	군	사 단	비 고
중공군 사령부 직할 (제13병단)	제38군	제112·113·114사단	
	제39군	제115·116·117사단	
	제40군	제118·119·120사단	
	제42군	제124·125·126사단	
	제47군	제139·140·141사단	제19병단 예속
	제50군	제148·149·150사단	
제3병단	제12군	제31·34·35사단	중공군 총예비대
	제15군	제29·44·45사단	
	제60군	제179·180·181사단	
제9병단	제20군	제58·59·60사단	
	제26군	제76·77·78사단	
	제27군	제79·80·81사단	
제19병단	제63군	제187·188·189사단	
	제64군	제190·191·192사단	
	제65군	제193·194·195사단	

제20병단	제67군	제199·200·201사단	
	제68군	제202·203·204사단	
제23병단	제36군	제106·107사단	태주·박천 지역 비행장 건설
	제37군	제109·110사단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9], 2012, 302~303쪽.

<표 5-56> 중공군 전투서열 IV(1952. 8.말 현재)

구 분		군	사 단
전투부대	중공군사령부 직할	제42군	제124·125·126사단
		제50군	제148·149·150사단
		제64군	제190·191·192사단
		제47군	제139·140·141사단
	제3병단	제15군	제29·44·45사단
		제38군	제112·113·114사단
		제60군	제179·180·181사단
	제9병단 (동해안사령부 겸)	제20군	제58·59·60사단
		제27군	제79·80·81사단
	제19병단	제39군	제115·116·117사단
		제40군	제118·119·120사단
		제63군	제187·188·189사단
		제65군	제193·194·195사단
	제20병단	제12군	제31·34·35사단
		제67군	제199·200·201사단
		제68군	제202·203·204사단

사령부/ 지휘소	후방병참사령부	제1·2·3·4·5분부, 공안 제18사단
	공군사령부	제3·4·6·12·15·17·18사단
	포병지휘소	유탄포 제1·2·7·8사단, 로켓포 제21사단, 대전차포 제31사단, 고사포 제61사단
	장갑병지휘소	전차 제1·2·3연대, 전차독립 제1연대
	공병지휘소	공병 제4·7·10·12·14·15· 16·17·18·21·22연대
	전방철도운수사령부	철도병 제1·2·3·4사단, 고사포 제62·63·64사단

출처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841~851쪽.

<표 5-57> 중공군 전투서열 V(1953. 5. 현재)

구 분		군	사 단	
전투부대	서해안사령부	제16군	제32·46·47사단	
		제38군	제112·113·114사단, 제137사단(배속)	
		제39군	제115·116·117사단	
		제40군 (2선)	제118·119사단	
		제50군	제148·149·150사단	
		제54군 (2선)	제130·134·135사단	
			포병 제1사단, 장갑병 제2지휘소(전차 제1·2연대, 전차독립 제3연대), 해군관공실(해군 쾌속정 대대), 공군전방지휘소	
	동해안사령부 (제3병단 겸)	제12군 (2선)	제31·34·35사단	
제15군		제29·44·45사단		

	제19병단	제1군	제1·2·7사단
		제46군	제133·136·120사단(배속)
		제63군 (제2선)	제187·188·189사단
		제64군 (제2선)	제190·191·192사단
		제65군	제193·194·195사단
		포병 제8사단	
	제9병단	제23군	제67·69·73사단
		제24군	제70·72·74사단
		포병 제7사단	
	제20병단	제60군	제179·180·181·33사단
		제67군	제199·200·201사단
제68군		제202·203·204사단	
사령부/ 지휘소	후방병참사령부		제1·2·3·4·5분부, 공안 제1사단
	공군사령부		제3·4·6·12·15·16·17사단
	포병지휘소		포병 제1·2·7·8·10사단, 로켓포 제21·22사단, 대전차포 제33사단, 고사포 제61사단
	장갑병 제1지휘소		전차 제4·5·6연대, 전차독립 제2연대
	공병지휘소		공병 제3·4·6·7·9·10·12·14·18·21·22연대, 공병 제17연대(1개 대대), 공병 제26연대(1개 대대)
	전방철도운수사령부		철도 제1·2·3·4·5·6·9·10·11사단, 철도 제1·2·3·4·5분국
	안동 방공구 사령부		고사포 제62·63·64사단, 도시방어 고사포부대 4개 연대
중공군 총예비대	제21군	제61·62·63사단	
	제47군	제139·140·141사단	
	철도병 제7사단		

출처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841~851쪽.

## 2. 중공군 병력 및 장비

<표 5-58> 중공군 병력 및 주요 무기(1950. 10. 28.~1953. 7. 27.)

구 분	1950. 10. 28.	1950. 12월초	1951. 7. 10.	1953. 7. 27.
사 단	18	31	51	58
병 력	203,640	531,500	948,299	1,221,058
야포(76mm이상)	835	1,097	1,249	2,018
대전차포(45·57·75mm)	81	141	498	2,843
고사포(37mm 이상)	42	128	750	1,135
박격포(60mm)	1,512	2,487	1,737	5,184
박격포(81mm 이상)	702	1,048		
전차 및 자주포	...	...	118	391
항공기	...	120	452	480

출처 : С. С. Логоцкий (ред.), Вой 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с. 155, 168, 251, 286.

비고 : ‘...’은 해당 숫자 미상을 의미함.

<표 5-59> 6·25전쟁기 중국 공군의 항공기 제원

기 종	성능 및 무장		
	성 능		무 장
MIG-15	최대속도(km/h)	1,078	23mm기총 × 2문 37mm기총 × 1문 로켓탄 1,100lbs폭탄
	최대상승고도(m)	15,545	
	항속거리(km)	2,141	
YAK-7	최대속도(km/h)	655	20mm기총 × 1문 12.7mm기총 × 2문 RS82로켓탄× 6발
	최대상승고도(m)	5,517	
	항속거리(km)	1,035	

YAK-9	최대속도(km/h)	673	20mm기총 × 1문 12.7mm기총 × 2문 220lbs폭탄 × 2발
	최대상승고도(m)	9,997	
	항속거리(km)	1,382	
YAK-11	최대속도(km/h)	465	12.7mm기총 × 1문 또는 7.7mm기총 × 2문
	최대상승고도(m)	7,100	
	항속거리(km)	1,472	
YAK-15/17	최대속도(km/h)	787	23mm기총 × 2문
	최대상승고도(m)	13,350	
	항속거리(km)	852	
YAK-18	최대속도(km/h)	370	200lbs폭탄
	최대상승고도(m)	5,182	
	항속거리(km)	833	
IL-10	최대속도(km/h)	500	23mm기총×2문 7.62mm기총×2문 20mm/12.7mm기총×1문 RS82/132 로켓탄×4발 1,000lbs폭탄
	최대상승고도(m)	7,500	
	항속거리(km)	1,150	
IL-12	최대속도(km/h)	364	-
	최대상승고도(m)	6,797	
	항속거리(km)	2,315	
PO-2	최대속도(km/h)	129	100lbs폭탄
	최대상승고도(m)	5,730	
	항속거리(km)	496	
TU-2	최대속도(km/h)	550	20mm기총 × 2문 7.62mm 기총 × 3문 또는 12.7mm기총 6,614lbs폭탄
	최대상승고도(m)	9,510	
	항속거리(km)	2,306	

출처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개정판), 2010, 695~699쪽.

비고 : 중국 공군은 6·25전쟁 기간 동안에 총 10개 전투비행사단(21개 비행연대), 2개 폭격기사단(3개 비행연대), 조종사 800여 명, 지상지원 병력 59,700명이 항공작전에 참여했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III, 2013, 617쪽).

### 3. 중공군 피해 현황

<표 5-60>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중국측 발표)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총 계
사망	부상	행불/포로	소계	사망	
116,000여 명	220,000여 명	29,000여 명	366,000여 명	25,000여 명	391,000여 명

출처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699쪽.

비고 : 전투손실에서 전사+부상자+행불/포로의 수는 365,000여 명이나, 여기서는 중국측이 발표한 자료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음.

<표 5-61> 6·25전쟁 기간 중공군 물적 피해 현황(중국측 발표)

지 상 군			공군	전쟁비용	작전물자 소모량
전차	자동차	각종 화포	항공기		
9대	6,060대	4,371대	231대	62억 위안	560여 만톤

출처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699쪽.

비고 : 가. 중국측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각종 화포의 경우 완전 파괴된 것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음.

나. 항공기의 경우 MIG-15기 224대를 비롯해 231대가 격추되고 319대가 파손되었으며, 116명의 조종사가 전사하였다는 연구가 존재함(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 141쪽).

<표 5-62> 6·25전쟁 기간 중공군 인명피해 현황(한국측 추정)

구 분	전투 손실	비전투 손실	계
사 망	135,600	13,000	148,600
부 상	208,400	590,000	798,400
실 종	3,900	-	3,900
포 로	21,700	-	21,700
총 계	369,600	603,000	972,600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1996, 145쪽.

비고 : 가. 부상(비전투손실)에는 질병에 의한 입원치료자(447.0000여 명)를 포함.

나. 미국의 자료(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 ~ 1982*,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88쪽)에 의하면, 총 피해인원이 123만여 명으로 26만 여명의 차이가 있음.

### 제3 절 소련군 통계 현황

소련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고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는 것에 더하여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참전시켰다. 소련의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제28·50·151전투비행사단을 근간으로 하여 1950년 11월 15~24일 중국의 선양(瀋陽)에서 창설되었다.

제64전투비행군단의 지휘부는 선양에 주둔했으며, 항공부대들은 선양, 안산(鞍山), 안둥(安東)의 비행장들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후 군단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라도 기본적으로 2~3개 전투비행사단, 1개 독립야간전투비행연대, 3개 고사포병사단, 1개 고사포탐조연대, 1개 비행기술사단으로 구성되었다. 각급 부대는 평균 8~14개월간의 전구 주둔을 마친 후에 교체되었다. 6·25전쟁 기간 동안에 제64전투비행군단은 12개 전투비행사단(제28, 제151, 제50, 제303, 제324, 제97, 제190, 제32, 제216, 제133, 제37, 제100전투비행사단), 2개 독립야간전투비행연대(제351, 제298독립야간전투비행연대), 해군 항공기로 구성된 2개 전투비행연대(제578, 제781전투비행연대), 4개 고사포병사단(제87, 제92, 제28, 제35고사포병사단), 2개 비행기술사단(제18, 제16비행기술사단) 그리고 기타 지원부대 등이 교체되었다.

제64전투비행군단은 1950년 11월 27일부터 직접적인 전투행동을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150대에서 300대의 항공기를 교대로 투입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전쟁 기간 동안에 연인원 4만 명 이상의 병력이 제64전투비행군단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1952년 7월에서 1953년 8월까지 약 2만 6천 명이 주둔하여 최대인원을 기록했다. 공산군 측 참전 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에 약 9만 여 소트를 비행하였다. 이들 중 약 2/3가 소련 공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가 중국과 북한 공군에 의한 것이었다.<sup>97)</sup>

9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2006, 809~811쪽.

<표 5-63> 중국 파견 소련 비행부대와 전차부대의 인적구성(1950. 12. 2. 현재)

부대명	인적구성						고용된 인원
	장군	장교	하사관		사병	총계	
			장기 복무	단기 복무			
비행부대	-	4,340	445	6,086	5,944	16,815	9
전차부대	-	815	77	1,570	1,960	4,422	-
합계	-	5,155	522	7,656	7,904	21,237	9

출처 :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의 보고서, 1950년 12월 2일 현재 중국에 특별과편된 소련 비행부대 및 탱크부대의 인적구성에 대하여”,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569쪽.

비고 : 이동 중인 병력 포함.

<표 5-64> 중국 주둔 소련 공군부대 현황(1950. 12. 31.)

부대	항공기				병력	주둔지	중국 도착일	지휘관
	전투기	훈련기	연락기	합계				
제64전투 비행군단/ 제81통신 중대	-	-	Yak-12 2대	2	123	선양 (瀋陽)	'50.11.27. 창설	소장 벨로프 I. V.
제17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1,304	선양	'50.11.20.	대좌 체르보치코프 니콜라이 필립포비치
제20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Yak-12 1대	72	1,308	탕산 (唐山)	11. 19.	대좌 소트니코프 세르게이 레온티예비치
제50전투 비행사단	MIG-15 62대	-	-	62	1,295	안산, 안동	11. 20.	대좌 과쉬케비치 알렉세이 바실리예비치

제65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1,317	광저우 (廣州)	12월	대좌 판크라토프 세르게이 스테파노비치
제144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1,288	상하이 (上海)	11. 19.	대좌 네고다 알렉세이 이바노비치
제151전투 비행사단	MIG-15 124대	Yak-17 15대	-	201	2,000	선양	8. 10.	중좌 사포즈니코프 알렉세이 야코블레비치
제28전투 비행사단	MIG-15 62대						칭다오	11. 1.
제297전투 비행사단	La-9 62대	-	-	62	984	지린 (吉林), 하얼빈 (哈爾濱)	12. 18.	대좌 스미르노프 아르카디 표도로비치
제324전투 비행사단	MIG-15 62대	Yak-17 1대 Yak-11 6대	Yak-12 3대	72	1,312	둥펑 (東鳳)	12. 23.	중좌 코제들 이반 니키토비치
제328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1,317	베이징	11. 14.	대좌 마치예비치 바실리 안토노비치
제309전투 비행사단	MIG-9 62대	Yak-17 4대 Yak-11 2대	Po-2 3대	71	1,318	군추린	12. 10.	중좌 스타트케비치 니콜라이 이그나티예비치
제186습격 항공사단	IL-10 92대	UIL-10 6대	Yak-12 3대	71	1,761	카이 위안 (開原)	11. 25.	대좌 자로즈드라 블라지미르 그레고리예비치
제162폭격 비행사단	TU-2 62대	UTu-2 6대	Po-2 3대	71	1,479	스파이 가이	12월	대좌 파블렌코르 미하일 이바노비치
제6통합항공 기술비행 학교 과견					1,126			

계	MIG-15 350대	Yak-17 40대	Yak-12 9대	968	17,932		
	MIG-9 372대	Yak-11 18대					
	IL-10 92대	UTu-2 6대					
	TU-2 62대	UIL-10 6대					
	La-9 62대						

출처 :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서, 비행사단의 편성과 중국 파견에 대하여, 1950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124~125쪽 ; “소련 공군 총참모장이 소련군 총참모장에 보낸 보고서, 중국으로 파견된 소련 공군 부대의 편성에 대한 정보자료, 1950년 12월 4일”, 같은 책, 128~129쪽 ; “소련 공군 총참모장이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에게 보낸 보고서, 중국에 파견된 비행 사단 및 연대의 지휘 성원 명단, 1950년 12월 30일”, 같은 책, 134~138쪽.

비고 : 가. 1949~50년 북한과 중국에 보내거나 보낼 예정인 병력과 장비는 제외.

나. 소련 비행부대가 보유한 차량은 경자동차 97대, 트럭 645대, 특수차 1,056대, 트랙터 73대.

<표 5-6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창설 당시 예하부대 편성(1950. 11. 27.)

구 분	보유량/항공 기종	주둔기지 (11.27. 기준)	기지 재배치 (일자)	지 휘 관
제64군단		선양(瀋陽)		소장 벨로프 I. V.
제151전투 비행사단		선 양		중좌 사포즈니코프 알렉세이 야코블레비치
28전투비행연대	30/MIG-15	선 양		소좌 콜라딘 빅토르 이바노비치
72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산(鞍山)	선양북부기지 (12.7.)	중좌 볼코프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제50전투비행사단		안산(鞍山)		대좌 파쉬케비치 알렉세이 바실리에비치
177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 산	안동(安東) (12.25.)	중좌 티렌티예프 바실리

29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 산	안동(12.3.)	소좌 비리치 드미트리 바실리에비치
제28전투비행사단		랴오위안 (遼源)		대좌 알렐류힌 알렉세이 바실리에비치
139전투비행연대	30/MIG-15	랴오위안		중좌 톨카체프 표트르 드미트리
67전투비행연대	30/MIG-15	랴오위안		중좌 켈추코프 표트르 니콜라에비치
총 계	180/MIG-15			

출처 : “1950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투 행동 개관, 전투비행군단의 현성과 최초의 전투 임무에 대하여, 1951년 1월 9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132~134쪽.

비고 : 가. 제28전투비행사단은 1950년 12월 말 전투임무 종료.

나. 안동은 1965년에 단둥(丹東)으로 개칭됨.

<표 5-66>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1. 1.~1951. 12.)

구 분	보유량/항공기종	주둔지	활동기간
제64군단		선 양	
제151전투비행사단 (제28·72연대)	60/MIG-15	선 양	'50. 11.~'51. 9.
제50전투비행사단 (제29·177연대)	60/MIG-15	안 산	'50. 12.~'51. 2.
제303전투비행사단 (제17·18연대)	90/MIG-15	안 동	'51. 5.~'52. 2.
제324전투비행사단 (제176·196연대)	60/MIG-15	안 동	'51. 4.~'52. 1.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20/La-11	안 동	'51. 6.~'53. 1.
제18비행기술사단	독립차량대대 7개 돌립비행기술대대 2개	안 동	'51. 6.~'53. 8.

제87고사포병사단 (제151·제1777연대)	각 연대, 37mm고사포 28문, 85mm고사포 32문	박 천	'51. 6. ~ '53. 1.
제92고사포병사단 (제661·제666·제667연대)		안 등	'51. 6. ~ '53. 1.
제10고사탐조연대	레이더 72기, 전방위탐지기 1기	안 등	'51. 6. ~ '53. 1.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⑧, 2011, 681쪽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⑨, 2012, 705쪽 ; “제64전투비행군단장 대공방어군 담당 부관이 군단장에게 보낸 조사 보고서에서, 1951년 6~12월 고사포병부대와 고사탐조부대의 전투행동에 대해서, 1952년 1월”,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군사편찬위원회, 2006, 507~509쪽.

비고 : 가. 제87고사포병사단 1951년 4월 하바로프스크에서 창설, 6월 4~12일 안등 배치.  
나. 제92고사포병사단 1951년 4~5월 이르쿠츠크에서 창설, 6월 1~10일 안등 배치.  
다. 제10고사탐조연대 1951년 6월 15일 안등 배치.  
라. 1951년 10월 로보프 근위소장이 군단장으로 부임.

<표 5-67>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편성(1952. 1.~1952. 12.)

구 분	보유량/항공기종	주둔기지	활동기간
제64전투비행군단	4/MIG-15bis	선 양	
제97전투비행사단 (제16, 148연대)	116/MIG-15bis	다동고우 안등, 선양	'52. 1. ~ '52. 8.
제190전투비행사단 (제256, 494, 821연대)	120/MIG-15bis	안 등	'52. 1. ~ '52. 8.
제32전투비행사단 (제224, 535, 913연대)	120/MIG-15bis	안 등	'52. 9. ~ '53. 7.
제133전투비행사단 (제147, 415, 726연대)	120/MIG-15bis	선양, 안등 동평, 안산	'52. 4. ~ '53. 8.
제216전투비행사단 (제676, 781, 878연대)	120/MIG-15bis	안 등	'52. 7. ~ '53. 8.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10/La-11 10/MIG-15bis	안 등	'51. 6.~'53. 1.
해군 제578비행연대	...	안 등	'52. 7.~'53. 4.
제18비행기술사단	독립차량대대 7개 독립비행기술대대 2개	안 등	'51. 6.~'53. 8.
제87고사포병사단	각 연대별, 37mm고사포 28문 85mm고사포 32문	안 등	'51. 6.~'53. 1.
제92고사포병사단		안 등	'51. 6.~'53. 1.
제10탐조연대	레이더 72기 전방위탐지기 1기	안 등	'51. 6.~'53. 1.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⑩, 2012, 611쪽.

비고 : 가. 해군 제578비행연대는 제133전투비행사단에 배속.

나. 1952년 10월 25일에 슬류사료프(С.П.Слюсарев С. В.) 중장으로 교체.

다. 제351야간전투비행연대 1952년 2월 1개 대대를 MIG-15bis로 교체하여 La-11과 MIG-15bis 각 10대로 전력 증강.

<표 5-68> 소련군 제64전투비행 군단 편성 및 교대현황(1953년)

구 분	보유장비	주둔 기지	활동기간	비 고
제64전투비행군단	4/MIG-15bis	선양	'50.11.~'54.12.	'54. 11.~ 12. 철수
제32전투비행사단 (제224, 535, 913연대)	120/MIG-15bis	안동	'52. 9.~'53. 8.	
제37전투비행사단 (제236·282·940연대)	120/MIG-15bis	안동	'53. 7.~'54.12.	제32사단 교대
제133전투비행사단 (제147·415·726연대)	120/MIG-15bis	선양, 안동 동평, 안산	'52. 4.~'53. 8.	

제100전투비행사단 (제9·731·735연대)	120/MIG-15bis	선양, 안동 동평, 안산	'53. 7. ~ '54.12.	제133사단 교대
제216전투비행사단 (제676·781·878연대)	120/MIG-15bis	안동	'52. 7. ~ '53. 8.	
제351야간전투 비행연대	10/La-11 10/MIG-15bis	안동	'51. 6. ~ '53. 1.	
제298야간전투 비행연대	10/La-11 10/MIG-15bis	안동	'53. 1. ~ '54. 7.	제351연대 교대
해군 제578전투비행연대	...	안동	'52. 7. ~ '53. 4.	제133비행 사단 배속
해군 제781전투비행연대	24/MIG-15bis	안동	'53. 1. ~ '53. 7.	제578연대 교대
제18비행기술사단	독립차량대대 7개 독립비행기술대대 2개	안동	'51. 6. ~ '53. 8.	
제16비행기술사단	...		'53. 6. ~ '54.12.	제18기술 사단 교대
제87고사포병사단	각 연대별, 37mm 고사포 28문 85mm 고사포 32문	안동	'51. 6. ~ '53. 1.	
제92고사포병사단		안동	'51. 6. ~ '53. 1.	
제28고사포병사단		안동	'53. 1. ~ '54.11.	제87/92고 사포병 사단 교대
제35고사포병사단		안동	'53. 1. ~ '54.12.	
제10고사탐조연대	연대별, 레이더 72기, 전방위탐지기 1기	안동	'51. 6. ~ '53. 1.	
제20고사탐조연대		안동	'53. 1. ~ '54.12.	제10탐조연 대교대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Ⅲ, 2013, 601쪽.

## 1. 피해 현황

<표 5-69> 소련군의 피해 현황

단위 : 명

유형	장교	하사관	사병	계	항공기 손실
전투 중 사망	161	43	78	282	335대
부상 후 사망	3	6	3	12	
병사	4	1	16	21	
합계	168	50	97	315	

출처 : Г. Ф. Кривошеев(под ред.), Роиися и СССР в вой нах XX века.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 : ОЛМА-ПРЕСС, 2001, с. 52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006, 811쪽.

비고 : 가. 인명피해는 Роиися и СССР в вой нах XX века.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20세기 전쟁에서 러시아와 소련 : 군대 손실』) 자료임.  
나. 항공기 손실은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자료임.

# 정치·경제·사회 통계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25전쟁은 남한에서만 13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군인과 민간인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4,100억 환(약 22억 달러)<sup>98)</sup> 이상의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다.<sup>99)</sup>

이 장에서는 피해현황을 제외하고 6·25전쟁 기간 동안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통계를 수록하였다. 대상 범위는 대한민국과 남한지역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주로 ‘대한민국 통계연감’을 활용하였다.<sup>100)</sup>

정치 분야 통계로는 1952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현황을 수록하였다. 전선에서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은 정치적으로 ‘부산

98) 4,100억 환은 1953년 당시 미화 약 22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시장환율인 미화 1달러 당 한화 180환을 적용한 것이다. 참고로 1953년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570억 환(약 19억 8천만 달러)이었다.

99) 대한민국과 남한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제3장 ‘경찰 및 민간인 통계’ 중 제3절 ‘피해현황’을, 북한지역의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제5장 ‘공산군 통계’ 중 제1절 ‘북한군 통계현황’을 참조.

100) 여기서 활용한 대한민국 통계연감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 DB화된 통계연감이다. 본문 내용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는 모두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정치과동'과 대통령 선거로 매우 어수선한 한해였다. 4월 25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승리하였지만,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 방식과 정치체제의 변동을 두고서 여·야간에 대립 양상이 첨예화 되었다. 대립의 초점은 여당인 자유당과 정부의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 야당인 민국당계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5일 갑자기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급기야 현역 국회의원이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이른바 '정치과동'이 돌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은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안을 절충한 이른바 '발취개헌안(拔萃改憲案)'에 따라 7월 7일 개정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후속한 절차로 7월 15일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통령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952년 8월 5일 전시 상황에서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경제 분야 통계로는 6·25전쟁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과 각종 요금 및 물가 지수, 주요도시 생필품 가격 등을 비롯하여 당시 주요 국가산업인 농업·제조업·수산업 생산량을 수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폐발행액, 예금상황, 수·출입 현황 등 금융·무역 관련 통계와 철도·선박 운항 등에 관한 통계도 함께 수록하였다.

사회 분야 통계로는 인구변동, 전염병 발생률, 각급 학교의 학생 현황, 전국 공무원 현황, 군 징발 현황 등을 수록하였다. 이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막대한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총 인구가 전쟁 전 20,188,641명에 비하여 1953년에 21,546,248명으로 약 135만 명이 증가했다가 다시 1955년에 21,526,274명으로 1953년에 비해 약 20,000명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 기간 중 발생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 특히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제1절 정치 관련 통계

<표 6-1> 제2대 대통령 선거 상황(1952년)

선거 상황별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전국 (계)
개표구(개)	9	19	11	15	17	25	28	26	11	2	163
선거인명부 등재자수(명)	282,585	912,299	510,014	913,427	854,424	1,278,185	1,416,726	1,535,810	439,519	116,439	8,259,428
투표자수(명)	253,989	775,808	457,815	797,610	743,499	1,164,923	1,269,863	1,301,770	406,785	98,821	7,275,883
유효(명)	249,737	749,736	445,955	772,352	710,202	1,119,394	1,229,150	1,252,307	396,782	95,069	7,020,684
무효(명)	9,252	26,072	11,860	25,258	33,297	45,529	40,713	49,463	10,003	3,752	255,199
기권자수(명)	23,596	136,491	52,199	115,817	110,925	113,262	146,863	234,040	32,734	17,618	983,545
투표율(%)	91.6	85.0	90.0	87.3	87.0	91.1	89.6	84.7	92.6	85.0	88.0
조봉암	25,631	44,967	25,875	56,590	109,490	99,885	129,791	288,654	10,516	6,105	797,504
이승만	205,300	657,174	386,665	636,061	468,220	823,587	921,988	693,523	366,583	79,668	5,238,769
이시영	14,883	34,704	23,006	58,754	96,271	165,245	140,271	211,544	13,378	6,659	764,715
신흥우	3,923	12,891	10,409	20,947	36,221	30,677	37,100	58,586	6,305	2,637	219,696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이하 '국가통계포털').

비고 : 가. 내무부 자료임.

나. 각 후보별 득표수 단위는 명.

<표 6-2> 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 현황(1952년)

선거상 항별	전국	서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인구 (명)	14,836,791	-	-	1,283,845	2,195,756	1,475,582	2,904,550	3,169,019	3,540,843	-	267,196
유권자 (명)	6,358,383	-	-	511,361	916,288	608,566	1,318,222	1,421,357	1,465,511	-	177,078
정원수 (명)	306	-	-	28	46	32	59	61	60	-	20
투표자 (명)	5,165,226	-	-	437,953	719,784	504,084	1,137,561	1,121,357	1,144,570	-	99,917
유효 (명)	5,013,524	-	-	432,733	703,787	484,677	1,106,606	1,085,028	1,102,914	-	97,779
무효 (명)	151,702	-	-	5,220	15,997	19,407	30,955	36,329	41,656	-	2,138
기권 자수 (명)	1,193,157	-	-	73,408	196,504	104,482	180,661	300,000	320,941	-	17,161
투표율 (%)	81.0	-	-	86.0	78.0	83.0	86.0	80.0	78.0	-	85.0
입후보 자수 (명)	824	-	-	63	128	89	129	166	195	-	54
<b>정당별 당선 현황(명)</b>											
자유당	147	-	-	18	23	3	49	18	19	-	7
민국당	4	-	-	-	1	1	1	-	1	-	-
국민회	32	-	-	2	2	1	2	11	11	-	3
한청	34	-	-	1	9	9	2	6	3	-	4
노총	2	-	-	-	-	-	1	-	1	-	-
기타	2	-	-	-	1	-	-	1	-	-	-
무소속	85	-	-	7	10	8	4	25	25	-	6

비고 : 6·25전쟁으로 인해 전선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지역에서는 선거 미 실시.

<표 6-3>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현황(1952년)

선거 상황별	전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시·읍· 면수(개)	1,397	127	107	173	170	242	252	242	71	13
총 인구수 (명)	17,882,879	1,745,085	1,285,716	2,172,563	2,055,903	2,904,550	3,136,422	3,535,931	779,513	267,196
의원정수 (명)	17,559	1,541	1,325	2,188	2,128	3,075	3,196	3,017	904	185
선거인명 부등재자 수(명)	7,536,304	671,555	504,154	908,942	834,877	1,243,635	1,379,641	1,522,506	357,682	113,322
투표자수 (명)	-	-	-	-	-	-	-	-	-	-
유효	6,672,600	570,973	458,579	787,873	738,125	1,151,044	1,211,327	1,337,601	320,279	96,799
무효	164,134	20,482	10,118	24,546	24,594	15,283	31,716	28,175	6,450	2,770
기권수 (명)	699,570	80,100	35,457	96,523	72,158	77,308	136,588	156,730	30,953	13,753
투표율 (%)	91	88	93	89	91	94	91	90	91	89
무효투표 내역(표)	164,134	20,482	10,118	24,546	24,594	15,283	31,716	28,175	6,450	2,77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표 6-4> 시·읍·면 의회 의원당선자 소속별 정당 및 사회단체(1952년)

정당 및 사회 단체별	전국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의원정수	17,559	1,541	1,325	2,188	2,128	3,075	3,196	3,017	904	185
정당 및 사회단체 내역	17,544	1,529	1,325	2,188	2,128	3,072	3,196	3,017	904	185
자유당	4,444	94	703	464	308	2,248	382	141	86	18
민주국민당	35	4	8	-	7	12	2	2	-	-
대한국민당	18	4	203	2	5	-	6	-	1	-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2,621	200	199	281	75	69	584	755	354	100
대한청년단	2,843	470	-	379	344	86	554	455	320	36
대한독립 촉성노동 총연맹	23	1	-	1	7	-	3	2	8	1
기타	91	25	-	21	7	10	22	3	2	1
무소속	7,469	731	212	1,040	1,375	647	1,643	1,659	133	29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경기도 12명 정원 미달, 전라남도 3명 정원 미달.

## 제2 절 경제 관련 통계

<표 6-5>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1950~1952년)

단위 : 100원(圓)

구분	1950년		1951년		1952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계	4,041,492,191	6,124,687,910	15,460,431,016	15,460,431,016	56,511,007,632	56,511,007,632
일반 회계	799,776,616	2,915,268,580	4,289,740,766	4,019,672,818	14,411,702,049	13,933,361,312
특별 회계	3,241,715,575	3,209,419,330	11,170,690,250	11,440,758,198	42,099,305,583	42,577,646,32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표 6-6> 1952년도 각종 요금 지수

품 목 별	요 금	지 수
신문(1개월)	8,500	10,204
영화(1회)	4,521	19,403
목욕(성인1회)	1,492	7,173
이발(성인1회)	4,313	8,215
세탁(양복1착1회)	24,125	11,884
숙박(2등2식1박)	23,558	6,167
전등(1등30W)	2,700	22,500
가스(1m <sup>3</sup> )	332.5	12,453
수도(10m <sup>3</sup> )	4,667	5,740
엽서(봉서1통)	504.2	25,208

전보(국내10자이내)	1,937.5	9,688
철도(성인 3등 1천)	2,833	2,833
전차(시내 1구 1회)	237.5	15,032
버스(시내 1구 1회)	458.3	29,872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가. 요금 단위는 원.

나. 지수는 1947년을 100으로 함.

<표 6-7> 전국 주요 도시 소매물가 지수(1949~1954년)

도시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1954년
서울	195.1	564.7	-	4,841.1	7,383.9	10,125.9
부산	206.4	473.8	2,352.0	5,802.6	8,203.6	11,233.6
대구	199.6	453.4	2,220.0	5,644.3	8,248.1	10,832.3
인천	195.4	559.3	-	5,232.8	7,027.1	10,337.3
광주	204.7	390.4	1,971.4	5,611.1	7,488.1	9,332.9
대전	197.4	504.1	2,012.3	5,550.5	7,127.9	8,983.8
목포	200.5	463.3	2,098.4	5,481.6	7,189.7	9,783.3
청주	100.0	-	-	2,800.7	3,684.0	4,832.2
전주	100.0	185.1	831.7	2,284.8	3,572.2	4,296.4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가. 지수는 1947년을 100으로 함.

나. 대전의 1950년도 지수는 8~9월을 제외한 10개월 평균임.

다. 목포의 1950년도 지수는 8월을 제외한 11개월 평균임.

라. 전주의 1950년도 지수는 7~9월을 제외한 9개월 평균임.

<표 6-8> 서울 주요 상품 도매가격(1949~1953년)

단위 : 환

상품종류		1949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곡물	쌀(1등 200리터)	191	2,570	9,300	9,600
	참쌀(1등 200리터)	220	3,200	9,870	10,840
	보리쌀(1등 200리터)	133	1,790	6,200	5,420
	밀(1등 200리터)	125	1,720	4,840	4,610
	콩(1등 200리터)	172	2,050	5,550	8,370
	팥(1등 200리터)	217	3,500	8,710	10,180
	좁쌀(1등 200리터)	152	1,430	6,800	6,010
	깨(1등 200리터)	491	4,630	8,850	20,450
밀가루(1등 200리터)	26	467	965	990	
식료품	북어(1짝 40쇄)	210	3,940	5,900	9,340
	쇠고기(100근)	379	-	7,520	11,850
	돼지고기(100근)	351	5,020	5,260	10,610
	달걀(100개)	31	456	708	1,140
	설탕(정백 100근)	447	3,970	8,480	18,420
	간장(1통 180리터)	14	164	473	800
	된장(1통)	21	242	539	860
	소주(1급 1말)	36	519	1,030	1,100
	청주(1급 4말)	233	2,390	4,400	7,500
	맥주(1상자(2타))	50	728	1,920	2,010
직물 원료	조면(2등 100근)	557	2,050	3,680	6,740
	면사(20번 1수짜)	6,555	47,590	52,070	68,160
	생사(28중 1판)	435	2,300	5,190	8,520
	인견사(120테날 100대도)	1,121	12,260	20,310	24,170
직물	광목(1급 40마)	257	1,620	1,750	2,480
	옥양목(1급 40마)	364	1,700	1,840	2,740
	용(1급 40마)	400	2,990	3,140	4,350
	숙소(국산 30마)	157	988	1,680	2,790
	문자미사(1급 15마)	166	1,420	2,190	4,330
	모본단(1급 15마)	331	2,280	3,540	8,560
	교직숙소(1급 15마)	94	657	910	1,770
	인경숙소(1급 15마)	120	779	970	1,260
	모시(25마)	78	544	850	1,760
베(23마)	46	377	540	1,020	

건축 재료	각재(조선송 1평)	1	7	1	26
	판재(조선송 1평)	8	95	139	310
	판유리(1상자 150평방미터)	279	1,720	3,650	4,500
	벽돌(3등 100개)	134	2,020	3,200	5,640
	못(3인치 100근)	121	1,690	1,670	2,670
	철사(정 8)	118	882	1,360	2,690
	환철(16mm)	789	5,540	11,520	22,720
	평철(6mm×25mm)	723	5,160	9,000	24,990
	각철(16mm×20mm)	634	4,330	7,890	22,260
동·선 철	전기동(1론)	2,937	25,110	33,790	65,130
	선철(잉곳트 1론)	275	2,140	3,440	7,300
연료	무연탄(1론)	38	660	959	1,810
	연탄(1론)	99	1,090	1,620	2,380
	장작(중작 1평)	80	791	1,270	2,480
	숯(1섬(6관))	6	85	150	280
	휘발유(1드림)	311	1,370	1,560	1,950
	석유(1통 18리터)	23	162	220	270
비료	초안(통제 45kg)	20	316	389	389
	과석(통제 45kg)	8	146	310	266
	유안(통제가격 45kg)	13	207	310	367
잡품	생고무(1론)	6,408	178,850	155,730	207,850
	주정(공업용1통)	67	618	1,360	1,820
	양젓물(1드림)	987	10,280	11,710	10,970
	유산(66도(45kg))	78	1,390	1,440	2,170
	빨래비누(국산1급 100개)	175	968	1,380	2,090
	고무신(흑 여자용 10컬레)	21	540	550	730
	모조급(60근 1연)	194	2,150	3,120	3,220
	성냥(1상자(2,400개))	132	1,850	2,250	3,050
	우피(흑복수 중급 1평)	3	32	42	50
	담배(셋별 20개)	0	3	6	10
소금(천일염 통제)	12	110	284	510	

비고 : 가. 한국은행 조사부 자료임.

나. 1950년은 조사자료 없음.

<표 6-9> 서울·부산 주요 생필품 소매가격(1949~1953년)

단위 : 환

상품종류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보리쌀 (1등 20리터)	126	61	-	243	911	1,020	965	1,119
밀가루 (1등 22kg)	74	44	-	184	609	706	582	692
밀 (2등 20리터)	118	76	-	471	1,178	1,121	1,150	1,181
팥 (적두 20리터)	62	41	-	180	547	576	515	525
콩 (황두 20리터)	103	79	-	361	866	1,014	1,021	1,239
깨(20리터)	65	51	-	205	530	643	801	982
소고기(160문)	97	110	-	447	101	1,019	2,567	2,714
돼지고기 (160문)	9	8	-	-	85	100	151	149
달걀 (10개)	9	8	-	50	80	77	126	130
복어 (상태 1책)	93	94	-	46	79	84	141	131
배추(1관)	15	16	-	110	147	186	271	339
무(1관)	5	8	-	49	64	90	115	159
감자(1관)	3	4	-	34	32	61	86	97
고춧가루 (상 1되)	10	9	-	36	84	126	134	179
참기름 (상 1되)	9	14	-	155	229	279	396	408
소금 (재엽 1되)	44	42	-	205	358	431	1,008	1,008
간장(상 1되)	4	2	-	16	39	42	69	58
된장(상 1관)	3	4	-	22	29	63	71	107

설탕 (정백 1근)	9	13	-	59	95	138	140	212
약주(1되)	13	12	-	40	90	94	105	99
소주(1되)	7	4	-	17	63	59	70	94
명주 (1급 25마)	16	20	-	53	119	94	165	188
모시 (1급 25마)	6	6	-	31	49	42	52	58
삼베(20마)	124	104	-	544	1,128	941	1,729	1,835
양말 (유색1컬레)	66	83	-	276	547	603	1,033	1,310
여자고무신 (흑색1컬레)	5	6	-	25	47	41	61	67
운동화 (아동용 컬레)	11	9	-	57	59	76	77	92
구두 (흑복수 1컬레)	13	11	-	27	82	104	126	162
이불솜 (2등 1관)	85	110	-	541	910	815	1,695	950
연료	41	49	-	167	419	344	757	665
숯(흑탄 1섬)	231	190	-	797	1,165	1,387	3,337	2,854
연탄(1톤)	27	16	-	90	1,507	200	313	360
석유(1통)	2,293	140	-	1,152	3,500	1,988	3,459	3,642
성냥(10갑)	63	71	-	176	28	297	365	340

비고 : 한국은행 자료임.

<표 6-10> 서울의 각종 요금 현황(1950~1953년)

단위 : 환

종 류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철도(3등1천)	0.08	0.20	0.28	0.57
전보(국내10자이하)	2.33	7.50	19.38	30.00
우편엽서(1통)	0.23	0.72	2.83	5.00
전등(30w1등)	1.46	15.95	27.00	30.00
수도	0.63	23.33	46.67	76.00
전차(시내1구간 1회)	0.16	0.92	2.38	4.00
버스(시내1구간 1회)	0.58	2.58	4.58	7.00
신문(1개월)	6.00	31.17	85.00	133.00
영화(1회)	1.93	13.60	45.21	83.00
숙박(2등 2식 1박)	18.21	59.83	235.58	378.00
이발(성인1회)	1.90	14.03	43.13	58.00
목욕(성인1회)	1.02	5.25	14.92	29.00
세탁(양복1회)	22.08	88.13	241.25	336.00

비고 : 가. 한국은행 조사부 자료임.

나. 전보는 국내 10자 이하(1950~1952년), 7자 이하(1953년).

다. 전등·수도·전차·버스·신문·영화·이발·목욕·세탁 요금은 부산 요금과 동일시함.

<표 6-11> 전국 가축 현황(1949~1953년)

단위 : 마리

가축류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소	999,469	392,660	572,405	660,654	668,026
젓소	889	780	237	280	281
말	21,977	17,070	17,979	17,721	16,198

당나귀	64	...	...	119	452
노새	99	...	...	80	...
돼지	525,038	156,400	335,286	488,520	506,478
양	1,840	1,020	671	949	1,300
염소	37,516	19,850	22,826	22,865	19,558
토끼	134,911	91,940	68,271	99,232	81,934
닭	2,605,447	719,480	1,394,668	1,972,483	2,245,752
집오리	37,691	...	...	112,144	82,762
칠면조	135	...	...	137	361

출처 : 농림부 농정국 자료임.

<표 6-12> 전국 경작규모별 농가수(1951~1954년)

경작규모	1951년	1952년	1953년
3반 미만	2,183,930	2,233,562	2,249,132
3반 이상 5반 미만	-	-	-
5반 미만	-	-	-
5반 이상 1정 미만	932,615	1,005,930	1,011,032
1정 이상 2정 미만	781,910	770,021	768,600
2정 이상 3정 미만	372,970	363,318	370,848
3정 이상	93,401	91,255	95,722
계	4,364,826	4,464,086	4,495,334

비고 : 가. 농림부 농정국 자료임.

나. 1반=300평, 1정=10만.

<표 6-13> 전국 곡물 수확량(1951~1953년)

종류	1951년			1952년			1953년		
	면적 (정보)	반수 (흡)	수확 (석)	면적 (정보)	반수 (흡)	수확(석)	면적 (정보)	반수 (흡)	수확 (석)
미곡	2,260,948.7	752	17,009,646	2,395,676.5	689	16,502,898	2,523,576.4	899	22,606,831
맥류	922,760.9	1,230	11,349,251	814,406.0	1,147	9,283,572	1,077,980.4	1,311	14,135,972
잡곡	683,665.0	445	3,043,370	767,204.6	560	4,365,150	882,651.2	584	5,152,051
두류	285,080.8	249	710,590	428,436.5	286	1,141,103	180,470.9	341	615,727
서류	289,309.5	331	958,260	314,003.2	340	1,026,981	290,273.6	406	1,179,484

출처 : 농림부 농정국 자료임.

비고 : 미곡수확고는 백미임.

<표 6-14> 전국 주요 과일 수확량(1951~1953년)

종류	1951년			1952년			1953년		
	면적 (정보)	단보당 수확량 (관)	수확 (관)	면적 (정보)	단보당 수확량 (관)	수확 (관)	면적 (정보)	단보당 수확량 (관)	수확 (관)
계	-	-	-	-	-	-	18,323.5	158.00	28,919,139
사과	7,908.8	198.00	15,640,289	8,302.9	130.00	10,797,440	7,972.9	142.00	11,301,751
배	4,908.9	193.00	9,469,543	4,775.0	171.00	8,172,986	4,681.8	168.00	7,848,063
감	3,155.3	215.00	6,783,535	2,101.9	192.00	4,040,221	2,386.1	201.00	4,806,219
포도	370.1	241.00	890,794	382.7	167.00	637,454	383.3	181.00	665,331
복숭아	2,481.8	222.00	5,515,310	2,445.2	157.00	3,827,289	2,569.0	151.00	3,889,379
귤	-	-	-	164	207.00	34,130	168	100.00	1,673
자두	-	-	-	298	117.00	35,000	-	-	-
기타	1,006.4	169.00	1,699,079	457.6	128.00	600,001	313.6	120.00	376,723

비고 : 가. 농림부 농정국 자료임.

나. 10단보는 1정보.

<표 6-15> 전국 주요 임산물 생산량(1950~1953년)

임산물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용재(석)	719,693	922,115	939,762	1,080,005
죽재(목음)	54,203	89,973	40,859	35,000
장작(관)	123,990,053	191,248,027	55,860,273	39,443,532
목탄(관)	8,493,842	5,595,741	5,287,662	4,090,283
지엽(관)	157,108,801	108,012,555	109,899,243	70,975,971
기타 연료(관)	250,601,184	473,107,145	382,805,525	49,803
녹(관)	166,074,308	272,238,084	289,453,099	239,758,357
퇴비원료(관)	538,658,829	598,802,903	1,052,794,725	4,253,994,563
사료(관)	124,475,667	128,089,211	102,724,600	183,054,411
과실(석)	20,334	16,770	18,482	16,229
균이(관)	15,233	16,867	17,285	16,727
수지(관)	-	150	2	2
타닌(관)	1,020	90	-	1,147
섬유(관)	68,800	45,154	83,309	48,319
굴참나무피(관)	30	2	475	16,300
칠액(관)	30	131	112	94
산포도(관)	10,853	20,970	23,964	21,620
산야채(관)	1,959,034	2,014,098	4,072,796	4,087,922
약초(관)	66,163	67,364	54,775	55,037
오배자(관)	14,831	12,745	23,868	13,646
토석류(관)	24,569,800	4,680,410	23,459,700	47,726,800
기타	213,206	2,285,903	139,535	49,803

출처 : 국가통계포털.

<표 6-16> 전국 주요 광산물 생산량(1950~1953년)

광종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철광(M/T)	-	500	20,577	18,971
금(g)	462,000	236,793	579,670	494,003
금	462,000	236,793	290,742	457,459
사금	-	-	288,928	36,544
은(g)	316,000	40,000	353,470	1,623,774
동광(M/T)	240	192	9,819	11,137
전기동(kg)	248,319	79,407	34,735	199,076
연광(M/T)	94	16	366	255
아연광(M/T)	-	354	624	30
중석광(kg)	807,000	1,060,771	3,789,685	7,441,203
망간(M/T)	100	1,747	7,416	3,058
수연광(kg)	11	5,246	11,863	16,305
닉켈광(M/T)	-	-	1,060	1,116
창연정연	40,000	40,750	279,951	665,543
금속창연	-	-	17,500	299,812
인상흑연	302	-	254	684
토상흑연	63,465	10,222	14,806	18,774
고령토(M/T)	5,260	6,274	1,766	7,705
석회석(M/T)	-	-	55	85
활석(M/T)	7,485	1,888	3,764	8,599
납석(M/T)	3,121	1,070	9,830	15,888
형석(M/T)	5,467	1,789	5,553	11,012
명반석(M/T)	-	5,680	1,180	-
홍주석(M/T)	-	-	-	728
중정석(M/T)	-	300	793	1,098
규연토(M/T)	112	-	-	222
유화철(M/T)	-	-	754	777
모나즈석(kg)	-	-	819,000	766,162
질콘늪광(kg)	-	40,000	3,000	-

비고 : 상공부 자료임.

<표 6-17> 제조업 주요 제품 생산량(1950~1953년)

제 품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면사 (1,000파운드)	21,818.0	12,633.0	21,393.0	29,300.0
면포(1,000야드)	-	29,941.0	43,191.0	60,434.0
생사(관)	41,403.0	56,143.0	59,883.0	95,653.0
연사(撚絲, 1,000파운드)	-	168.0	310.0	1,728.0
견직물(1,000제곱야드)	-	2,280.0	1,350.0	2,002.0
모직물(1,000야드)	-	336.0	431.0	581.0
양지(M/T)	-	5,460.0	10,866.0	10,176.0
한지(M/T)	-	-	-	3,610.0
고무신(1,000켈레)	4,450.0	16,420.0	19,252.0	21,497.0
운동화(1,000켈레)	-	1,830.0	2,435.0	6,211.0
카바이트(M/T)	520.0	2,402.0	3,702.0	3,547.0
산소(1,000m <sup>3</sup> )	-	1,054.0	1,523.0	853.0
자전거타이어(1,000조)	59.0	41.0	59.5	63.6
정미용로라(조)	3,024.0	23,275.0	34,100.0	20,551.0
합성수지제품(M/T)	-	156.0	216.0	660.0
세탁비누(M/T)	6,003.0	5,330.0	6,260.0	6,153.0
화장비누(M/T)	312.0	1,040.0	1,719.0	769.0
도료(M/T)	469.0	730.0	850.0	953.0
정당(精糖, M/T)	-	-	-	840.0
약주 및 탁주(석)	-	-	461,717.0	782,315.0
소주(석)	-	-	145,640.0	288,401.0

청주(석)	-	-	12,136.0	17,029.0
맥주(석)	-	-	346.0	5,487.0
주정(酒精, 석)	-	-	21,905.0	47,471.0
보통벽돌(M/T)	12,550.0	65,571.0	91,415.0	42,005.0
도자기(개)	7,708.0	13,700.0	17,800.0	16,500.0
시멘트(M/T)	410,144.0	7,319.0	36,224.0	41,720.0
알미늄제품(M/T)	-	515.0	715.0	916.0
양정(洋釘, M/T)	836.0	642.0	1,624.0	3,178.0
석유 및 중유발동기(대)	-	-	2,350.0	4,710.0
변압기(대)	205.0	1,415.0	1,348.0	1,499.0
나전선(裸電線, M/T)	-	204.0	226.0	501.0
전구(1,000개)	869.0	806.0	693.0	1,544.0
건전지(1,000개)	79.0	20.0	113.0	138.0
소켓(1,000개)	9.0	-	100.0	267.0
전기계기(대)	-	-	26.0	645.0
자전거(대)	5,185.0	360.0	620.0	15,539.0
소금(관영) (M/T)	33,326.0	61,597.0	141,052.0	98,515.0
소금(민영) (M/T)	140.0	22,959.0	62,813.0	94,171.0
권련(卷煙, M/T)	2,260.0	7,047.0	10,003.0	10,979.0
각련(刻煙, M/T)	2,966.0	4,426.0	7,481.0	4,488.0

비고 : 한국은행 자료임.

<표 6-18> 화폐 발행액(1949~1954년)

단위 : 억

권종별	1949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751	2,292	5,579	10,144	23,132
은행권	-	-	-	-	23,132
천환권	-	-	-	-	6,845
오백환권	-	-	-	-	-
백환권	-	-	-	-	9,712
오십환권	-	-	-	-	-
십환권	-	-	-	-	6,457
오환권	-	-	-	-	94
일환권	-	-	-	-	24
소액권	0	0	0	0	-
천원권	-	1,836	5,420	10,025	-
오백원권	-	-	-	16	-
백원권	736	442	144	89	-
십원권	13	13	13	13	-
오원권	1	1	1	1	-
일원권	1	1	1	1	-
주화	-	-	-	-	-
백환	-	-	-	-	-
오십환	-	-	-	-	-
십환	-	-	-	-	-

비고 : 가. 한국은행 조사부 자료임.

나. 단위는 1953년 2월 화폐개혁 전에는 원, 이후에는 환. 1환은 100원

<표 6-19> 금융기관의 각 도별 예금 및 대출금(1952~1954년)

행정 구역별	1952년		1953년		1954년	
	예금 (10억원)	대출금 (10억원)	예금 (10억원)	대출금 (10억원)	예금 (10억원)	대출금 (10억원)
전국	5.90	6.50	10.60	15.40	26.20	22.60
서울특별시	0.40	0.10	4.40	7.70	10.00	9.40
경기도	0.40	0.30	0.40	0.50	1.50	1.20
강원도	0.10	0.10	0.20	0.30	0.60	0.40
충청북도	0.20	0.20	0.20	0.30	0.70	0.50
충청남도	0.40	0.30	0.60	0.70	1.30	1.40
전라북도	0.30	0.40	0.40	0.80	1.20	1.30
전라남도	0.30	0.40	0.50	1.00	1.70	2.20
경상북도	0.80	0.60	1.00	1.10	2.90	2.00
경상남도	3.00	3.90	2.80	2.80	6.10	4.00
제주도	0.06	0.09	0.08	0.10	0.10	0.20

비고 : 한국은행 조사부 자료임.

<표 6-20> 전국 철도 현황(1950~1953년)

철도상황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영업선(km)	2,774.6	2,779.8	2,804.7	2,767.8
철도역수(개)	422.0	426.0	411.0	420.0
기관차 주행선(km)	-	18,516,559.0	24,384,079.0	24,894,931.0
열차 주행선 (km)	10,076,988.0	12,706,781.0	13,168,453.0	13,168,453.0
수송 여객인원(명)	...	24,071,469.0	44,562,758.0	46,096,645.0
화물 수송톤수(톤)	...	13,022,714.0	13,451,510.0	12,238,066.0
철도수입(1,000환)	...	91,940,055.0	1,491,997.0	2,740,198.0
석탄 소비량(kg)	...	617,303.0	694,587.0	694,438.0

출처 : 국가통계포털.

<표 6-21> 국내 입·출항 선박 현황(1950~1953년)

입출항별	구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선박수	톤수	선박수	톤수	선박수	톤수	선박수	톤수
입항	계	200	339,660	436	288,888	1,155	602,183	64,139	5,252,799
	국내선	100	97,757	364	242,483	809	214,772	63,528	4,036,866
	외국선	100	241,903	72	46,405	346	247,411	611	1,215,933
출항	계	227	347,546	422	295,236	1,068	544,771	61,929	5,047,187
	국내선	108	87,015	348	246,279	753	280,418	61,351	3,930,048
	외국선	119	260,531	74	48,977	315	264,363	578	1,117,139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단위는 척(선박수), 톤(톤수).

<표 6-22> 무역(수·출입) 현황(1951~1953년)

단위 : 달러

년도	총액		
	수출	수입	수입초과액
1951년	15,568,894	26,116,499	10,547,605
1952년	26,591,197	54,259,098	27,667,901
1953년	44,720,695	163,983,282	119,262,587

출처 : 국가통계포털.

### 제3 절 사회 관련 통계

<표 6-23> 시·군별 인구(1949년, 1955년)

시·군	1949년						
	시 (개)	군 (개)	인구수 (명)	남자 (명)	여자 (명)	면적 (km <sup>2</sup> )	인구밀도 (1km <sup>2</sup> 당)
시	15		3,474,152	1,781,117	1,693,035		
군		128	16,714,489	8,419,760	8,294,729		
전국			20,188,641	10,200,877	9,987,764	94,229.22	214.3
시·군	1955년						
	시 (개)	군 (개)	인구수 (명)	남자 (명)	여자 (명)	면적 (km <sup>2</sup> )	인구밀도 (1km <sup>2</sup> 당)
시	25		5,281,432	2,662,958	2,618,474	2,550.40	2,070.8
군		139	16,244,942	8,103,819	8,141,123	95,949.15	169.3
전국			21,526,374	10,766,777	10,759,597	98,499.55	218.5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외국인인 포함된 자료임.

<표 6-24> 전국 도·시·구·군 인구(1949년, 1955년)

행정 구역별	1949년			1955년		
	소계(명)	남자(명)	여자(명)	소계(명)	남자(명)	여자(명)
전국	20,188,641	10,200,877	9,987,764	21,526,374	10,766,777	10,759,597
서울특별시	1,446,019	742,506	703,513	1,574,868	786,159	788,709
종로구	214,985	105,088	109,897	218,886	102,720	116,166
중구	184,900	95,942	88,958	165,442	83,527	81,915
동대문구	225,550	112,710	112,840	165,765	82,190	83,575

성동구	154,218	78,241	75,977	178,002	87,931	90,071
성북구	-	-	-	141,790	67,868	73,922
서대문구	160,556	83,156	77,400	182,982	90,517	92,465
마포구	162,509	83,014	79,495	143,353	71,431	71,922
용산구	193,732	109,907	83,825	176,830	96,325	80,505
영등포구	149,569	74,448	75,121	201,818	103,650	98,168
<b>경기도</b>	<b>2,740,594</b>	<b>1,385,890</b>	<b>1,354,704</b>	<b>2,363,660</b>	<b>1,225,081</b>	<b>1,138,579</b>
인천시	265,767	136,175	129,592	321,072	161,307	159,765
개성시	88,708	42,804	45,904	-	-	-
수원시	230,351	115,652	114,699	81,692	40,682	41,010
고양군	168,691	88,036	80,655	61,560	29,839	31,721
광주군	111,751	56,592	55,159	116,984	56,245	60,739
양주군	162,678	83,584	79,094	187,661	98,170	89,491
연천군	-	-	-	40,617	31,421	9,196
포천군	64,212	32,604	31,608	128,202	89,194	39,008
가평군	68,283	35,461	32,822	62,376	32,678	29,698
양평군	90,795	46,615	44,180	92,993	50,854	42,139
여주군	89,050	45,484	43,566	94,191	47,482	46,709
이천군	89,235	45,025	44,210	90,739	43,673	47,066
용인군	96,693	48,696	47,997	96,942	46,780	50,162
안성군	108,812	55,301	53,511	113,490	55,289	58,201
평택시	101,307	51,108	50,199	120,098	58,880	61,218
화성군	-	-	-	192,938	92,991	99,947
시흥군	100,309	50,630	49,679	96,550	47,132	49,418
부천군	92,114	46,251	45,863	110,356	54,416	55,940
김포군	80,791	41,094	39,697	101,489	51,964	49,525

강화군	102,104	50,593	51,511	110,464	52,766	57,698
파주군	91,862	46,347	45,515	124,845	73,490	51,355
장단군	41,919	21,067	20,852	-	-	-
개풍군	83,315	41,482	41,833	-	-	-
연백군	246,588	122,947	123,641	-	-	-
용진군	165,259	82,342	82,917	18,401	9,828	8,573
<b>충청북도</b>	<b>1,146,509</b>	<b>583,323</b>	<b>563,186</b>	<b>1,192,071</b>	<b>583,971</b>	<b>608,100</b>
청주시	64,571	32,978	31,593	81,284	40,121	41,163
청원군	186,093	94,111	91,982	197,757	96,551	101,206
보은군	84,861	43,015	41,846	90,037	43,871	46,166
옥천군	86,822	43,853	42,969	91,428	44,396	47,032
영동군	108,602	55,056	53,546	101,802	49,658	52,144
진천군	66,594	33,930	32,664	69,972	34,661	35,311
괴산군	132,881	67,377	65,504	138,705	69,580	69,125
음성군	97,997	49,987	48,010	101,831	49,676	52,155
충주군	149,407	76,588	72,819	157,660	76,620	81,040
제천군	106,173	54,182	51,991	107,216	52,240	54,976
단양군	62,508	32,248	30,260	54,379	26,597	27,782
<b>충청남도</b>	<b>2,028,188</b>	<b>1,030,203</b>	<b>997,985</b>	<b>2,222,725</b>	<b>1,106,153</b>	<b>1,116,572</b>
대전시	126,704	69,407	57,297	173,143	87,457	85,686
대덕군	99,588	50,202	49,386	108,693	54,371	54,322
연기군	87,577	43,762	43,815	94,070	46,744	47,326
공주군	159,284	81,015	78,269	169,389	81,975	87,414
금산군	188,447	94,958	93,489	-	-	-
논산군	-	-	-	237,766	137,238	100,528
부여군	153,428	76,740	76,688	159,827	77,036	82,791
서천군	135,828	68,238	67,590	136,082	65,326	70,756

보령군	112,593	56,659	55,934	118,254	57,285	60,969
청양군	87,055	43,882	43,173	91,647	44,464	47,183
홍성군	124,656	63,144	61,512	125,170	60,585	64,585
예산군	141,129	71,474	69,655	148,855	72,428	76,427
서산군	214,125	109,211	104,914	229,143	110,299	118,844
당진군	125,424	63,522	61,902	135,328	65,831	69,497
아산군	128,216	64,716	63,500	136,930	66,903	70,027
천안군	144,134	73,273	70,861	158,428	78,211	80,217
<b>전라북도</b>	<b>2,050,485</b>	<b>1,035,042</b>	<b>1,015,443</b>	<b>2,126,255</b>	<b>1,035,601</b>	<b>1,090,654</b>
전주시	100,624	51,004	49,620	124,352	59,914	64,438
군산시	74,447	37,694	36,753	86,446	42,012	44,434
이리시	46,674	23,696	22,978	62,226	29,846	32,380
완주군	178,559	90,656	87,903	184,326	91,656	92,670
진안군	74,724	38,019	36,705	76,670	37,202	39,468
금산군	90,646	45,864	44,782	91,208	44,437	46,771
무주군	60,917	31,038	29,879	56,964	27,631	29,333
장수군	60,118	30,593	29,525	60,060	29,288	30,772
임실군	96,156	48,965	47,191	95,201	45,994	49,207
남원군	145,364	73,090	72,274	152,680	73,919	78,761
순창군	90,756	45,812	44,944	81,683	39,375	42,308
정읍군	227,434	114,172	113,262	218,045	104,099	113,946
고창군	159,385	80,328	79,057	157,610	75,355	82,255
부안군	130,254	65,201	65,053	131,256	62,369	68,887
김제군	208,802	105,256	103,546	211,386	101,795	109,591
옥구군	122,533	61,810	60,723	127,129	61,591	65,538
익산군	183,092	91,844	91,248	209,013	109,118	99,895

전라남도	3,042,442	1,529,509	1,512,933	3,127,559	1,513,758	1,613,801
광주시	138,883	73,721	65,162	233,358	128,226	105,132
목포시	111,128	58,455	52,673	113,636	56,560	57,076
여수시	179,005	89,488	89,517	73,084	36,118	36,966
순천시	172,008	86,857	85,151	61,647	29,901	31,746
광산군	129,714	65,924	63,790	123,760	60,090	63,670
담양군	106,906	53,931	52,975	107,395	51,523	55,872
곡성군	86,880	43,553	43,327	88,907	42,745	46,162
구례군	61,407	30,370	31,037	57,944	27,839	30,105
광양군	76,153	38,370	37,783	74,819	36,318	38,501
여천군	-	-	-	126,413	61,914	64,499
승주군	-	-	-	120,840	58,752	62,088
고흥군	176,423	87,706	88,717	183,773	87,488	96,285
보성군	136,148	68,154	67,994	143,896	68,577	75,319
화순군	124,168	62,591	61,577	115,643	55,127	60,516
장흥군	114,217	57,357	56,860	111,633	52,964	58,669
강진군	107,827	53,987	53,840	104,786	49,340	55,446
해남군	183,231	91,046	92,185	180,958	85,440	95,518
영암군	115,994	57,517	58,477	110,713	52,063	58,650
무안군	248,558	122,748	125,810	256,707	121,331	135,376
나주군	220,570	111,234	109,336	193,276	92,448	100,828
함평군	114,786	57,552	57,234	114,814	54,676	60,138
영광군	131,155	65,831	65,324	128,366	61,771	66,595
장성군	117,960	59,409	58,551	107,829	51,765	56,064
완도군	109,498	54,080	55,418	110,485	21,889	58,596
진도군	79,823	39,628	40,195	82,877	38,893	43,984

경상북도	3,206,201	1,619,301	1,586,900	3,363,798	1,648,752	1,715,046
대구시	313,705	160,326	153,379	488,960	245,941	243,019
포항시	-	-	-	52,473	25,575	26,898
김천시	188,768	96,507	92,261	45,835	22,749	23,086
경주시	236,316	118,044	118,272	65,402	32,030	33,372
달성군	134,388	68,403	65,985	135,934	69,517	66,417
군위군	70,533	35,464	35,069	66,434	31,944	34,490
의성군	174,883	87,895	86,988	171,132	82,726	88,406
안동군	205,757	104,002	101,755	205,642	101,482	104,160
청송군	65,148	33,200	31,948	64,240	31,149	33,091
영양군	50,417	25,632	24,785	49,339	23,618	25,721
영덕군	92,124	45,813	46,311	90,705	43,200	47,505
영일군	225,943	113,369	112,574	174,354	83,868	90,486
월성군	-	-	-	172,960	84,084	88,876
영천군	156,654	79,296	77,358	162,110	80,098	82,012
경산군	125,830	63,626	62,204	132,159	64,794	67,365
청도군	107,756	54,412	53,344	101,502	49,040	52,462
고령군	66,416	33,289	33,127	61,840	29,779	32,061
성주군	103,529	52,286	51,243	98,470	47,927	50,543
칠곡군	93,594	46,996	46,598	90,394	43,874	46,520
금릉군	-	-	-	130,217	63,870	66,347
선산군	99,738	50,191	49,547	100,255	48,338	51,917
상주군	220,970	111,694	109,276	214,229	104,583	109,646
문경군	116,751	59,147	57,604	120,426	58,723	61,703
예천군	135,408	67,717	67,691	135,240	64,875	70,365
영주군	112,680	56,392	56,288	115,840	55,134	60,706
봉화군	94,205	47,866	46,339	102,141	52,056	50,085
울릉군	14,688	7,734	6,954	15,565	7,778	7,787

<b>경상남도</b>	<b>3,134,829</b>	<b>1,572,887</b>	<b>1,561,942</b>	<b>3,770,209</b>	<b>1,859,431</b>	<b>1,910,778</b>
부산시	473,619	241,250	232,369	1,049,363	529,112	520,251
마산시	91,291	45,320	45,971	129,986	64,006	65,980
진주시	77,473	38,099	39,374	78,295	37,443	40,852
충무시	-	-	-	61,236	29,739	31,497
진해시	-	-	-	67,604	41,213	26,391
진양군	122,335	61,364	60,971	125,080	60,496	64,584
의령군	92,209	46,082	46,127	85,633	40,894	44,739
함안군	113,508	56,414	57,094	102,477	49,287	53,190
창녕군	134,711	67,469	67,242	123,595	59,800	63,795
밀양군	183,140	92,331	90,809	176,282	86,024	90,258
양산군	54,937	27,844	27,093	50,951	24,824	26,127
울산군	189,685	94,047	95,638	187,142	89,521	97,621
동래군	71,500	35,896	35,604	78,399	38,062	40,337
김해군	176,098	88,440	87,658	186,928	95,191	91,737
창원군	202,511	102,826	99,685	161,901	80,123	81,778
통영군	214,858	106,815	108,043	70,154	33,880	36,274
거제군	-	-	-	106,380	51,205	55,175
고성군	118,140	58,840	59,300	111,057	52,816	58,241
사천군	121,984	60,481	61,503	138,232	67,284	70,948
남해군	113,046	56,212	56,834	110,963	52,678	58,285
하동군	114,352	57,613	56,739	113,542	54,928	58,614
산청군	95,424	47,786	47,638	92,312	44,691	47,621
함양군	102,184	51,609	50,575	99,408	48,529	50,879
거창군	114,269	57,349	56,920	111,717	54,475	57,242
합천군	157,555	78,800	78,755	151,572	73,210	78,362

<b>강원도</b>	<b>1,138,785</b>	<b>587,457</b>	<b>551,328</b>	<b>1,496,301</b>	<b>857,803</b>	<b>638,498</b>
춘천시	54,539	27,682	26,857	67,888	36,932	30,956
원주시	115,415	63,390	52,025	76,411	47,287	29,124
강릉시	173,401	87,947	85,454	50,991	24,867	26,124
춘성군	80,452	41,821	38,631	78,289	45,498	32,791
홍천군	137,106	70,187	66,919	118,947	66,361	52,586
횡성군	89,091	45,420	43,671	76,557	37,238	39,319
원성군	-	-	-	70,794	34,554	36,240
영월군	97,208	50,721	46,487	92,623	45,677	46,946
평창군	89,445	46,213	43,232	77,844	38,238	39,606
정선군	60,055	31,186	28,869	55,201	27,235	27,966
철원군	-	-	-	61,557	50,955	10,602
금화군	-	-	-	21,335	17,402	3,933
화천군	-	-	-	73,326	62,382	10,944
양구군	-	-	-	49,879	41,053	8,826
인제군	-	-	-	73,141	56,691	16,450
고성군	-	-	-	22,148	15,156	6,992
양양군	-	-	-	76,519	38,245	38,274
명주군	-	-	-	118,706	58,494	60,212
삼척군	146,973	75,198	71,775	139,747	68,436	71,311
울진군	95,100	47,692	47,408	94,398	45,102	49,296
<b>제주도</b>	<b>254,589</b>	<b>114,759</b>	<b>139,830</b>	<b>288,928</b>	<b>150,068</b>	<b>138,860</b>
제주시	-	-	-	60,180	27,761	32,419
북제주군	162,623	72,592	90,031	94,644	42,279	52,365
남제주군	91,966	42,167	49,799	134,104	80,028	54,076

출처 : 국가통계포털

<표 6-25> 전국 공무원수(1952~1953년)

단위 : 명

직급별	1952년	1953년
계	-	206,698
국가공무원	128,587	177,464
별정직	2,508	605
1급	87	79
2급	258	215
3급	4,547	4,114
4급	22,333	20,819
5급	98,854	76,974
교직원	-	46,533
임시직원	-	1,884
노무직원	-	26,241
지방공무원	-	29,234
시, 읍, 면 정부장	-	3,083
1급	-	52
2급	-	606
3급	-	9,793
4급	-	11,807
임시직원	-	928
노무직원	-	2,965
여자	-	-
사무직원	-	1,649
노무직원	-	3,597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1952년 국방부 및 노무직원 제외.

<표 6-26> 군 징발 현황(1950~1954년)

구분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부동산(평)	3,868,206	18,060,594	20,256,290	24,071,893
토지	3,811,647	17,964,266	20,122,634	20,930,929
건물	56,560	96,329	133,656	140,965
보상액(환)	-	-	-	428,308,900

비고 : 1953년 보상액은 1950~1953년까지의 보상액임.

<표 6-27> 급성 전염병 발생 현황(1950~1953년)

종류	전염병상황	1950년	1951년	1952년	1953년
계	발생수(명)	13,116	172,486	10,227	7,052
	발생이환율(%)	64.6	845.5	49.6	32.8
	사망수(명)	1,449	33,602	1,367	849
	사망률(%)	7.1	164.7	6.6	3.9
	치명률(%)	11.1	19.5	13.4	12
이질	발생수(명)	52	9,004	1,506	1,139
	발생이환율(%)	0.3	44.1	7.3	5.3
	사망수(명)	7	824	64	17
	사망률(%)	0	4	0.3	0.1
	치명률(%)	13.5	9.2	4.2	1.5
장티푸스	발생수(명)	7,211	81,575	3,969	1,352
	발생이환율(%)	35.5	399.9	19.3	6.3
	사망수(명)	691	14,051	330	70
	사망률(%)	3.4	68.9	1.6	0.3
	치명률(%)	9.6	17.2	8.3	5.2

파라티푸스	발생수(명)	125	886	64	58
	발생이환율(%)	0.6	4.3	0.4	0.3
	사망수(명)	8	180	3	2
	사망률(%)	0	0.9	0	0
	치명률(%)	6.4	20.3	4.6	3.5
두창	발생수(명)	2,349	43,213	1,313	3,349
	발생이환율(%)	11.6	211.8	6.4	15.6
	사망수(명)	382	11,530	277	571
	사망률(%)	1.9	56.5	1.3	2.7
	치명률(%)	16.3	26.7	21.1	17.1
발진티푸스	발생수(명)	1,821	32,211	923	410
	발생이환율(%)	9	157.9	4.5	1.9
	사망수(명)	153	6,154	81	24
	사망률(%)	0.8	30.2	0.4	0.1
	치명률(%)	8.4	19.1	8.8	5.9
성홍열	발생수(명)	2	84	5	2
	발생이환율(%)	0	0.4	0	0
	사망수(명)	-	14	-	-
	사망률(%)	-	0.1	-	-
	치명률(%)	-	16.7	-	-
재귀열	발생수(명)	569	2,728	645	21
	발생이환율(%)	2.8	13.4	3.1	0.1
	사망수(명)	30	246	21	1
	사망률(%)	0.1	1.2	0.1	0
	치명률(%)	5.3	9	3.7	4.8
디프테리아	발생수(명)	932	2,534	517	398
	발생이환율(%)	4.6	12.4	2.5	1.9
	사망수(명)	489	576	586	42
	사망률(%)	0.8	2.8	0.3	0.2
	치명률(%)	18.1	22.7	10.8	10.6

유행성뇌척수막염	발생수(명)	50	224	64	43
	발생이환율(%)	0.2	1.1	0.3	0.2
	사망수(명)	8	14	6	10
	사망률(%)	0	0.1	0	0.1
	치명률(%)	16	6.3	9.4	23.3
유행성뇌염	발생수(명)	5	27	1,221	280
	발생이환율(%)	0	0.1	5.9	1.3
	사망수(명)	1	13	526	112
	사망률(%)	0	0.1	2.6	0.5
	치명률(%)	20.2	48.1	43.1	-

출처 : 국가통계포털.

비고 : 가. 보건사회부 자료임.

나. 이환율은 병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

<표 6-28> 전국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1953년)

행정 구역	학교 종류	1952년			1953년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전국	계	3,172,662	2,089,494	1,083,168	3,143,763	2,013,314	1,130,449
	국민학교	-	1,486,840	883,021	-	1,421,369	920,696
	중 학교	-	243,384	68,687	-	252,399	71,715
	고등학교	-	100,469	22,090	-	134,097	26,169
	사범학교	-	7,696	2,549	-	8,739	3,451
	대학교	-	28,429	3,943	-	40,205	5,139
	기술학교	-	473	337	-	-	-
	고등기술학교	-	806	454	-	5,550	-
	공민학교	-	179,067	96,427	-	93,095	95,706
	고등공민학교	-	41,425	5,645	-	56,615	7,524
	대학원	-	155	15	-	495	49
	중등교원양성소	-	750	-	-	750	-
서울시	계	201,880	123,081	78,799	225,761	139,597	86,164
	국민학교	-	67,406	53,485	-	76,969	62,619

서울시	중 학교	-	22,246	12,461	-	13,876	8,097
	고등학교	-	13,955	7,351	-	23,977	9,158
	사범학교	-	154	188	-	327	329
	대학교	-	15,043	3,440	-	21,121	4,471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640	-
	공민학교	-	3,361	1,811	-	944	1,098
	고등공민학교	-	352	48	-	1,100	343
	대학원	-	144	15	-	403	49
	중등교원양성소	-	420	-	-	240	-
경기도	계	300,096	184,771	115,325	334,253	200,855	133,398
	국민학교	-	148,329	104,117	-	158,846	117,352
	중 학교	-	14,557	3,731	-	21,192	5,727
	고등학교	-	4,746	1,124	-	7,450	1,256
	사범학교	-	274	163	-	287	225
	대학교	-	758	2	-	401	4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280	-
	공민학교	-	9,928	5,346	-	4,564	7,430
	고등공민학교	-	6,179	842	-	7,655	1,404
중등교원양성소	-	-	-	-	180	-	
충청북도	계	192,599	125,714	66,855	214,086	136,159	77,927
	국민학교	-	90,384	54,556	-	103,204	64,527
	중 학교	-	10,758	3,363	-	14,647	4,000
	고등학교	-	7,054	1,201	-	7,985	1,256
	사범학교	-	628	283	-	672	310
	대학교	-	883	18	-	1,159	14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60	-	150	-
	공민학교	-	12,912	6,953	-	4,705	7,541
	고등공민학교	-	3,095	421	-	3,637	279
충청남도	계	331,967	229,939	102,028	299,368	193,334	106,034
	국민학교	-	166,939	82,418	-	139,111	86,190
	중 학교	-	23,629	5,005	-	26,481	5,900
	고등학교	-	10,369	926	-	12,870	1,332
	사범학교	-	1,030	272	-	1,151	380
	대학교	-	635	31	-	906	39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690	-
	국민학교	-	23,996	12,921	-	8,278	11,744
	고등국민학교	-	3,341	455	-	3,847	449
전라 북도	계	313,152	216,063	97,089	279,106	190,705	88,401
	국민학교	-	135,904	71,914	-	133,749	71,170
	중 학교	-	39,678	10,321	-	23,139	6,666
	고등학교	-	10,892	1,661	-	12,235	1,965
	사범학교	-	1,046	392	-	1,181	416
	대학교	-	2,439	68	-	2,908	68
	기술학교	-	413	337	-	-	-
	고등기술학교	-	-	30	-	620	-
	국민학교	-	22,038	11,868	-	10,665	7,052
	고등국민학교	-	3,653	498	-	6,192	1,064
	대학원	-	-	-	-	16	-
전라 남도	계	481,233	324,569	156,724	445,134	294,594	150,540
	국민학교	-	253,881	136,711	-	223,744	131,048
	중 학교	-	28,384	4,930	-	32,585	8,038
	고등학교	-	10,322	2,127	-	15,105	1,938
	사범학교	-	1,564	247	-	1,640	345
	대학교	-	2,405	45	-	2,899	63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340	-	-	1,300	-
	국민학교	-	22,139	11,922	-	9,535	8,561
	고등국민학교	-	5,443	742	-	7,638	547
	대학원	-	11	-	-	68	-
	중등교원양성소	-	80	-	-	80	-
경상 북도	계	516,590	340,982	175,608	497,034	321,453	175,581
	국민학교	-	237,937	141,997	-	224,465	142,443
	중 학교	-	39,381	9,796	-	48,235	12,741
	고등학교	-	15,043	2,941	-	20,771	3,229
	사범학교	-	1,304	313	-	1,301	518
	대학교	-	2,311	231	-	4,212	322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60	210	-	560	-
	국민학교	-	34,795	18,736	-	10,948	15,551
	고등국민학교	-	10,151	1,384	-	10,953	777
	대학원	-	-	-	-	8	-
경상 남도	계	567,442	368,991	198,451	612,247	386,838	225,409
	국민학교	-	261,626	163,222	-	252,007	174,082

경상 남도	중 학교	-	41,489	12,300	-	52,159	15,731
	고등학교	-	22,139	3,954	-	25,754	5,074
	사범학교	-	812	342	-	1,117	493
	대학교	-	3,484	99	-	6,013	152
	기술학교	-	60	-	-	-	-
	고등기술학교	-	406	154	-	1,310	-
	국민학교	-	32,298	17,392	-	36,876	27,998
	고등국민학교	-	6,587	898	-	11,512	1,879
중등교원양성소	-	90	-	-	90	-	
강 원 도	계	187,271	122,122	65,149	184,075	116,352	67,723
	국민학교	-	98,969	58,114	-	88,078	57,698
	중 학교	-	10,435	3,024	-	13,503	3,470
	고등학교	-	4,674	693	-	5,906	748
	사범학교	-	884	349	-	933	415
	대학교	-	391	9	-	345	1
	기술학교	-	-	-	-	-	-
	고등기술학교	-	-	-	-	-	-
	국민학교	-	5,122	2,758	-	4,809	4,944
	고등국민학교	-	1,487	202	-	2,618	447
중등교원양성소	-	160	-	-	160	-	
제 주 도	계	65,140	42,788	22,352	52,699	33,427	19,272
	국민학교	-	22,106	14,060	-	21,196	13,567
	중 학교	-	5,712	1,305	-	6,582	1,345
	고등학교	-	1,275	112	-	2,044	213
	사범학교	-	-	-	-	130	20
	대학교	-	80	-	-	241	5
	기술학교	-	-	-	-	-	-
	국민학교	-	12,478	6,720	-	1,771	3,787
	고등국민학교	-	1,137	155	-	1,463	335
관 립	계	15,262	10,474	4,788	-	-	-
	국민학교	-	3,359	2,427	-	-	-
	중 학교	-	7,115	2,361	-	-	-

비고 : 가. 문교부, 『문교행정통계(1960년도판)』 자료임.

나. 1952년 국민학교에는 부설성인반 포함.

다. 관립은 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말하며, 사범학교 병설 중학교도 관립에 포함.

## [ 참고 문헌 ]

### I. 자 료

#### 1. 국 문

- 공군본부(2001), 『공군일지(1948~1953)』.
- 공군본부(2010),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 1집.
- 공보처 통계국(1953),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년)』.
- 국방관계법령집 발행본부(1950), 『국방관계법령 및 예규집』, 보성사.
- 국방군사연구소(1996), 『한국전쟁 피해통계집』.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1),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①~③.
- 국방부(1951), 『한국전란 1년지』.
- 국방부(1953), 『한국전란 2년지』.
- 국방부(1954), 『한국전란 3년지』.
- 국방부(1955), 『정훈대계』 I.
- 국방부(1955), 『한국전란 5년지』.
- 국방부(1966), 『국방백서(1967)』.
- 국사편찬위원회(2006),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 국사편찬위원회(2013), 『한국경제정책자료』 8(번역·통계편).
- 내무부 통계국(1955), 『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
- 육군본부(1955),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 육군본부(1956), 『6·25사변 후방전사』 (인사편).
- 육군본부(1959), 『병과별 부대역사』.
- 육군본부(1968), 『6·25사변 중 환자통계연보』.
- 육군본부(1977), 『육군군사술어사전』.
- 육군본부(1988), 『한국전쟁사료』 (37).
- 조선은행조사부(1949), 『경제연감』.

조선중앙통신사(1950), 『조선중앙연감(1950년)』.

조선중앙통신사(1952), 『조선중앙연감(1951~1952)』.

경제기획원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국가통계포털, [www.kosisis.kr](http://www.kosisis.kr))’.

## 2. 외국문

GHQ,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History of North Korean Army”, 31 July 1952, MacArthur Memorial Archives.

HQ KMAG, “Command Report, April 1953”,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14, NARA.

HQ KMAG, “Command Report, September 1952”, RG 407,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 8202, Box 5800, NARA.

HQ, KMAG, “KMAG Statical Summary, July 1953”, RG 554, Entry 1354(A), Box 16, NARA.

HQ, Republic of Korea Army, “Status of Units and Station List : Status of Assigned and Attached Units as of 31 January 1953”, RG 330, Entry No. 21A, Box 4, NARA.

HQ, United States Army Forces, Far East and Eighth United States Army(Rear), “Logistics in the Korean Operations”, vol. 1,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자료 HD00303.

KMAG AG Section,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RG 554, Entry A-1 1355, Box 29, NARA.

KMAG, AG Section, “Korean Army Strength Reports, 22 Apr. 1951-29 Dec. 1951”, RG 554, Entry 1362(A1), Box 52, NARA.

Myers, Kenneth W.,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s War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RG 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RA.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Period Ending 31 December 1949”, RG 319, Entry 154, Box 162, NARA.
- Office of the Chief, KMAG, “Semi-Annual Report, 15 June 1950”, RG 554, Entry No. 1355, Box 29, NARA.
- RG 330, General Decimal Files, 1949-53, Entry No.18, Box 68.
- Skaggs, David Curtis & Weinert, Richard P., “American Military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rmy 1951-1965”, RG 319, CMH Manuscripts, KMAG in War and Peace, Box 1, NARA.
- US Military Attache to Amembassy at Seoul, *Joint Weeka*(정용욱 편 (1993), 『JOINT WEEKA』(영인본), 제1~3권, 영진문화사).
- “U.S. Military Korean War Statistics”, 미 국방부 6·25전쟁 기념 웹사이트 ([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http://koreanwarmemorial.sd.gov/U.S.Forces/MIA_KIA.htm)).
- C. C. Лотоцкий (ред.),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Пб. : Полигон, 2000.
- 沈志華 編(2003),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中·下 冊),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II. 연구성과

### 1. 국 문

- 경찰사편찬위원회(1995), 『경찰오십년사』, 경찰청.
- 공군본부(1955), 『공군발전약사』 제1권.
- 공군본부(1989), 『항공전사 : 한국전쟁』.
- 공군본부(1991), 『공군사』 제1집(증보판).
- 공군본부(2002), 『6·25전쟁 항공전사』.
- 공군본부(2010), 『6·25전쟁의 기억 : 6·25전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 공군본부(2010),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 제1집(개정판).
- 국가보훈처(2006), 『아테네의 후예들 :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
- 국가보훈처(2007), 『형제의 나라, 한국과 터키 : 터키군 6·25전쟁 참전사』.
- 국가보훈처(2008), 『6·25전쟁 콜롬비아군 참전사』.
- 국가보훈처(2009), 『자유의 수호신, 한국과 필리핀 : 필리핀군 6·25전쟁 참전사』.
- 국가보훈처(2010),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태국 : 태국군 6·25전쟁 참전사』.
- 국가보훈처(2012),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에티오피아 : 에티오피아군 6·25전쟁 참전사』.
- 국방군사연구소(1998), 『UN군지원사』.
- 국방군사연구소(1998), 『건군50년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건군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한미군사관계사 : 1871~200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6·25전쟁사 : 전쟁의 배경과 원인』 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6·25전쟁사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 전투』 ②.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6), 『6·25전쟁사 :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③.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8), 『6·25전쟁사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④.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8), 『6·25전쟁사 : 낙동강선 방어작전』 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9), 『6·25전쟁사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⑥.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0), 『6·25전쟁사 :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⑦.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1), 『6·25전쟁사 : 중공군 총공세와 유엔군의 재반격』 ⑧.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6·25전쟁사 :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⑨.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6·25전쟁사 :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⑩.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3), 『6·25전쟁사 : 고지쟁탈전과 정전협정 체결』 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1954), 『국방부사』 제1집.

국방부(1979),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Ⅹ.

국방부(1980), 『한국전쟁사 : UN군참전사』 Ⅺ.

국방부(1984), 『국방사』 Ⅰ.

국방부(1987), 『국방사』 ②.

김광수(2008),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정옥(2001), 「국민방위군」,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내무부치안국(1973), 『한국경찰사(1948. 8~1961. 5)』.

병무청(1986), 『병무행정사』 (상).

보병 제5사단(1969), 『부대역사』.

양영조, 「6·25전쟁 시 국제사회의 대한 물자지원 활동」, 『군사』 제87호, 2013.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공병학교(1981), 『육군공병학교 30년사』.

육군본부(1969), 『육군병참사』 제1집.

육군본부(1970), 『육군발전사』 상권.

육군본부(1970), 『북괴 6·25 남침분석』.

육군본부(1980), 『창군전사』.

육군본부(1988), 『한국전에서의 유엔군 유격전』.

육군사관학교(1996),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포병학교(1963), 『포병의 발자취』.

이상호·박영실(2011), 『6·25전쟁 소년병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장준익(1991),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전쟁기념사업회(1990), 『한국전쟁사』 제1권, 행림출판사.

- 전현수(2001), 「소련 공군의 한국전 참전」,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정병준(2006), 『한국전쟁』, 돌베개.
- 제1군단사령부(1981), 『부대사』 제1집.
- 제2군단사령부(1981), 『부대사(1950~1980)』.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2005),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박동구 역(2007),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한용원(1984), 『창군』, 박영사.
- 함동참모본부(1984), 『한국전쟁』, 교학사.
- 해군교육사령부(2006), 『대한민국 해군교육사 60년사(1946~2006)』.
- 해군본부(1954),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1집.
- 해군본부(1958), 『대한민국해군사 : 행정편』 제2집.
- 해군본부(1961),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2집.
- 해군본부(1971), 『해군편제사』 제1권.
- 해군본부(1992), 『해군편제사』.
- 해군본부(2001), 『작전경과보고서(1950. 6. 25~1950. 10. 31)』 제1권.
- 해군본부(2012),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 해군사관학교(1996),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 해병대사령부(1961), 『해병발전사』.
- 해병대사령부(2012), 『6·25전쟁 해병대전투사』.

## 2. 외국문

Appleman, Roy E.,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 C., 1961.

- Farrar-Hockley, Anthony, *The British in the Korean War, vol. 2*, London : HMSO, 1995.
- Field, Jr.,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62.
- Finley, James P.,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 Futrell, Robert 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Revised Edition)*, Office of Air Force History, United States Air Force, Washington, D.C., 1983.
- O'Neill, Robert,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Canberra : The Australian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5.
- Reister, Frank A., *Battle Casualties and Medical Statistics : U.S. Army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The Surgeon General,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86.
- Warnock, A. Timothy, 'Appendix I Tabular Summaries : USAF Military Personnel in Theater', "The U.S. Air Force's First War : Korea 1950-1953 Significant Events",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2000(www.afhra.af.mil).
- Г. Ф. Кривошеев(под ред.), *Россия и СССР в войнах XX века.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М. : ОЛМ А-ПРЕСС, 2001.

□ 저 자

박 동 찬(선임연구원, 문학박사)

□ 감 수

[위 원 장]

김 상 원(전쟁사부장)

[대외위원 및 기관]

온 창 일(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 완 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오 규 열(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육군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전사편찬과  
공군역사기록관리단

[내부위원]

양 영 조 남 정 옥  
손 석 현 손 규 석  
심 현 용 신 승 원  
이 미 숙 이 상 호  
김 경 록 이 신 재  
오 흥 국 남 보 람

## 통계로 본 6·25전쟁

2014년 6월 25일 인쇄

201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TEL : 709-3191, FAX : 709-3111

발행인 : 이 양 구

인쇄처 : 국군인쇄장 14058469

간접 · 테러범 · 방산스파이 · 사이버테러 · 군사보안  
신고 ·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온라인 신고 [www.dsc.mil.kr](http://www.dsc.mil.kr))



## 통계로 본 6·25전쟁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140-02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